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White Paper & Photos
2025 WEA 서울총회 백서 & 화보

The Gospel FOR EVERYONE

**World Evangelical Alliance Seoul General Assembly
and The 4th 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Sarang Church
October
27-31, 2025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White Paper & Photos

The Gospel

FOR EVERYONE

세계복음주의연맹 서울총회 백서 & 화보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was a gathering where many historical and geographical meanings converged.

2025 WEA 서울총회는
여러 가지 역사적·지리적 의미가 교차된 총회였습니다.



2025 WEA 서울총회는 여러 가지 역사적·지리적 의미가 교차된 총회였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를 엄혹한 시간으로 몰아 넣었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 형제 교회들의 회복과 부흥을 소망하는 자리였습니다.

동북아, 그것도 분단국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깊은 나눔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성경무오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물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확고히 천명한 서울선언문은 그야말로 21세기 복음주의권의 대헌장かと 같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던 이번 총회를 뒤로 하고 지금은 전세계에 산재한 회원 교회들이 부흥과 비상을 꿈꾸며 분주히 복음의 확산에 전력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서울총회가 마중물이 되어 모든 이에게 복음(Gospel for Everyone)이 전해지는 꿈을 꾸며 새롭게 도약하는 WEA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WEA 서울총회 공동조직위원장 이영훈 목사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was a gathering where many historical and geographical meanings converged. It was also a moment of hope for the recovery and revival of our sister churches around the world after the COVID-19 pandemic, which had led the world into a time of severe hardship.

It was especially significant that this Assembly—held for the first time in Northeast Asia, and in a divided nation—provided an opportunity for deep sharing concerning persecuted Christians. Moreover, the Seoul Declaration, which firmly affirmed the inerrancy of Scripture and the uniqueness of Jesus Christ, as well as the freedom of relig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was truly comparable to a great charter for evangelicalism in the twenty-first century.

As we now look back on this General Assembly, the largest ever held, I believe that member churches scattered across the world are continuing their efforts to spread the gospel while dreaming of revival and renewal. My hope is that the Seoul Assembly will serve as a catalyst, inspiring the WEA to move forward with renewed strength toward the vision of the Gospel for Everyone.

Rev. Dr. Young Hoon Lee

Co-chair, WEA Seoul GA Organizing Committee

이영훈

Praise the Lord!

**이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2년간 WEA 서울총회를 준비해 온 여정은 험하고 고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사랑하는 조직위의 모든 관계자들, 사랑의교회 영가족들의 진심어린 헌신과 전심을 다한 섬김으로 WEA 서울총회 (General Assembly)를 영광스럽게 성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WEA 서울총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감당케 하시는 절호의 기회(Golden Opportunity)요, 한국교회의 영적 자산을 세계교회와 나누는 살아 있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에게 복음을, 2033을 향하여 (The Gospel for Everyone by 2033)”라는 주제로 열린 2025년 WEA 서울총회는 세계 복음주의 교회가 연대하여 반(反)기독교적 세속의 흐름을 뒤집는 역사(歷史)이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더욱 충성되게 성취하도록 한국교회의 용량을 더 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WEA와 한교섭을 통해 우리는 ‘세계 교회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에, 세계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복음의 능력으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한마음으로 힘써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며, 한마음으로 드렸던 섬김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후대에 생생하게 증거되는 신앙의 유산(Legacy)으로 전해질 것이며, 역사의 상선(上線)에서 ‘WEA 서울총회가 대한민국을 보호하였다’는 간증을 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WEA 서울총회 공동조직위원장 오정현 목사

The journey of preparing for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over the past two years has been demanding and, at times, deeply challenging. Yet in every step, we witnessed the gracious guidance of God and the wholehearted devotion and sacrificial service of the beloved spiritual family of SaRang Church. Through their faithfulness,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was brought to a God-honoring and truly glorious completion.

This Assembly became a golden opportunity through which God enabled us to carry out the mission entrusted to us with greater strategic clarity and effectiveness. It also served as a vibrant setting where the Korean church could share its spiritual heritage with the global body of Christ. Under the theme “The Gospel for Everyone by 2033,”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marked a historic moment when the worldwide evangelical church stood together to counter the accelerating secular currents opposing the Christian faith, and to pursue the Great Commission with renewed faithfulness. In this, God graciously enlarged the spiritual capacity of the Korean church as His precious gift.

Through the WEA and the 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we have also experienced the profound joy of participating in the Gospel alongside the global church.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words but of power; therefore, the global church will continue pressing forward with one heart, relying on the Gospel power secured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until the mission of world evangelization is fulfilled.

Our passionate love for the Lord and our united spirit of service have risen before Him as a fragrant offering. This devotion will be remembered as a living legacy of faith for generations to come. And the day will come when history will testify that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God’s protection and guidance over Korea.

Praise the Lord! We lift up all glory, honor, and praise to God, who has accomplished this great work.

Praise the Lord!

Rev. Dr. Jung-Hyun Oh

Co-chair, WEA Seoul GA Organizing Committee

One of the best in the recent history of WEA

최근 WEA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총회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과 국제이사회 및 소속 회원들과 모든 협력 단체를 대표하여, 오정현 목사님과 사랑의교회가 보여주신 아낌없는 헌신을 보며,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목사님의 리더십과 희생, 인내와 헌신, 그리고 사랑의교회 중보기도팀과 사역자들, 자원봉사자들의 수고와 최고의 예배 및 찬양은 이번 총회를 WEA 역사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총회 중 하나로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깊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제 125개국의 대표들이 서울에서 경험한 그리스도 안의 연합을 품고 각자의 나라와 현장으로 돌아가게 된 가운데,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동행해 주신 사랑의교회의 은혜와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목사님과 사랑의교회의 사역을 더욱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세계 교회를 향한 섬김을 열매 맺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의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역 안에서,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전 의장 굿윌 샤나 박사

On behalf of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its International Council, membership networks, and partners, we express our deepest and inexpressible gratitude to God for the extraordinary generosity demonstrated through you and SaRang Church. Your leadership, sacrifice, patience, and steadfast commitment—together with the prayers of the SaRang intercessors, the devoted labor of pastors and volunteers, and the excellence of worship and music—were instrumental in shaping this General Assembly into one of the most significant in WEA's recent history and left a profound impression of God's presence on all who attended. As delegates from 125 nations now return to their diverse contexts, carrying with them the unity in Christ so graciously hosted in Seoul, we humbly acknowledge both the challenges such diversity presents and the grace with which SaRang Church walked alongside us, and we again offer heartfelt thanks for your understanding and perseverance. May God continue to bless you abundantly, strengthen your ministry, and enlarge your service to the global Church, and may the grac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bound upon you, upon SaRang Church, and upon the Korean Church.

Yours in His Service,
Dr Goodwill Shana
Former Chair, World Evangelical Alliance

A divine appointment that gathered believers

이번 총회는 하나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였습니다.



한국에서 열린 세계복음주의연맹 총회를 돌아보며, 부흥과 선교라는 주제 아래 전 세계 성도들이 하나의 목적과 연합으로 모이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총회는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됨을 보여 주는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복음 중심의 총회와 문화 참여와 박해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는 워크샵, 그리고 새 리더십 선출을 통해 성령의 부으심을 목도하며, 세계적인 여러 도전 속에서도 우리 연맹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했습니다. 언어와 세대를 넘어선 만남은 교회가 한 몸임을 다시 일깨워 주었고, 한국 교회의 환대와 헌신은 복음 전파와 공흥의 사역을 향한 새로운 용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앞으로 이 총회가 지속적인 부흥을 불러일으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WEA가 맡은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불꽃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의장 갓프리 요가라자 목사(B.Th., B.D.)

It is with profound gratitude to our Lord Jesus Christ that I reflect on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General Assembly held in Korea—a divine appointment that gathered believers from every corner of the earth in unity and purpose under the theme of revival and mission, echoing our Lord's prayer in John 17:21. Hosted in Korea, we witnessed the Holy Spirit's fresh outpouring through Gospel-centered plenary sessions, equipping workshops, and the election of new leadership that affirmed God's sovereign guidance amid global challenges. Encounters across languages and generations reminded us that the Church is one body, while Korea's hospitality and the generosity of the Korean Church inspired renewed boldness in evangelism and compassion. As we move ahead, may this assembly ignite sustained revival and propel the WEA to fulfill its mandate until Christ's return. To God be the glory.

Godfrey Yogarajah B.Th, B.D.

Chair, World Evangelical Alliance

A truly delightful first experience

압도적인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세계복음주의연맹 총회는 압도적인 기쁨의 시간이었으며, 전 세계 곳곳에서 온 수백 명의 대표들이 아름답고 따뜻한 장소에서 함께 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는 헌신으로 하나 된 복음주의 가족의 감격스러운 재회였고, 예배와 말씀 나눔, 각종 보고를 통해 세계 교회의 풍성한 은혜들이 드러났습니다. 참석자들은 예수님을 각자의 공동체에 알리고자 하는 새 열정으로 돌아가라는 따스한 격려를 받았으며, 한국의 환대와 한국 목회자들의 참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총회를 섬기신 오정현 목사님과 사랑의교회, 헌신적으로 섬긴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사무총장 보트루스 만수르

The General Assembly of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at SaRang Church in Seoul was a truly delightful first experience, bringing together hundreds of delegates from every corner of the world in a beautiful and welcoming setting. It was a wonderful reunion of the evangelical family, united in love for God's people and committed to reaching the world with the gospel, with the rich diversity of the global church reflected in worship, the sharing of God's Word, and the reports presented. Participants were energized to return home with renewed zeal to make Jesus known, deeply touched by the warm Korean hospitality and the participation of Korean pastors. We thank God for the hosting church led by Dr. John Oh and for the dedicated staff whose service made the assembly possible.

Dev. Advocate. Botrus Mansour

Secretary General, World Evangelical Alliance

A living testimony of missional courage

선교의 마중물이 되는 증거를 전 세계에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에서 열린 세계복음주의연맹 총회 가운데 넘쳤던 은혜와 환대, 헌신의 모습이 여전히 눈에 선합니다. 서울 조직위원회와 한국 교회가 보여준 기도와 섬김이 이번 총회의 표지가 되며, 특히 오정현 목사님과 이영훈 목사님의 공동 조직 위원장으로서의 리더십은 요한복음 17장의 정신을 구현하며, 연합과 성경에 대한 신실함, 그리고 세계 교회를 향한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며 선교의 마중물이 되는 증거를 전 세계에 보여 주었습니다. 총회의 주제인 '모든 이에게 복음을 2033을 향하여'는 한 주간의 선언에 머물지 않고, 여러 나라와 네트워크가 구체적인 협력을 통해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공통된 방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와 이 총회를 통해 시대에 맞추어 순종하는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서울에서 맺은 열매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해 계속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WEA) 부사무총장 사무엘 치앙 목사

With deep gratitude to God, I reflect on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General Assembly in Seoul as a moment of grace, hospitality, and shared obedience, marked by the generosity of the Seoul Organizing Committee and the wider Korean Church in prayer and service. I express particular thanks for the co-host leadership of Rev. Dr. John Oh Jung-hyun and Rev. Dr. Young Hoon Lee, whose pastoral vision, humility, and commitment to unity and Scripture embodied the spirit of John 17 and offered the world a living testimony of prayer-shaped perseverance and missional courage. The Assembly's theme—The Gospel for Everyone by 2033—became a shared direction beyond the week itself, as nations and networks aligned toward this vision in concrete collaborations. We give thanks to God for the Korean Church and for the growing movement of obedience taking shape, praying that the fruit of Seoul will continue to mature for the glory of Christ and for the sake of the world He loves.

Rev. Samuel E. Chiang
Deputy Secretary General, World Evangelical Alliance





Theme Scripture

주제 성구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엡2:13~18)

But now in Christ Jesus you who previously were far away have been brought near by the blood of Christ. For He Himself is our peace, who made both groups into one and broke down the barrier of the dividing wall, by abolishing in His flesh the hostility, which is the Law composed of commandments expressed in ordinances, so that in Himself He might make the two one new person, in this way establishing peace; and that He might reconcile them both in one body to God through the cross, by it having put to death the hostility. And He came and preached peace to you who were far away, and peace to those who were near; for through Him we both have our access in one Spirit to the Father. (Eph 2:13~18)



The Gospel

FOR EVERYONE

- 2 Messages of Greeting
 - WEA 서울총회 공동조직위원장 이영훈 목사
Rev. Dr. Young Hoon Lee
 - WEA 서울총회 공동조직위원장 오정현 목사
Rev. Dr. Jung-Hyun Oh
 - 갓프리 요가라자 목사(B.Th, B.D.)
Godfrey Yogarajah B.Th, B.D.
 - 보트루스 만수르
Rev. Adv. Botrus Mansour
 - 사무엘 치앙 목사
Rev. Samuel E. Chiang



1장

Overview

WEA 서울총회 개관

- 20 서울총회 개관
WEA Seoul General Assembly
Overview
- 22 서울선언문
The Seoul Declaration
- 56 2025 WEA 서울선언문의 역사적 의미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2025
WEA Seoul Declaration



2장

About WEA

WEA 소개

- 62 WEA 역사와 한국교회
WEA History and Korean Church
- 70 WEA 조직 및 주요사역
WEA Key Ministries
- 72 종교의 자유에 대한 지지선언 발표
Declaration on Religious Freedom

- 74 7대 신앙고백
7 Core Faith Confessions of WEA
- 76 WEA 신학적 정체성과 역사적 전통
WEA Theological Identity and
Historical Tradition
- 82 9개의 세계복음주의연합체
9 World Evangelical Alliances
- 84 통계
Statistics



3장

Background & Historical
Meanings of Seoul GA

서울총회의 배경과 역사적 의미

- 88 WEA의 서울총회 개최 청원서
Petition for Hosting the WEA General
Assembly in Seoul
- 90 비전 및 사명선언
Vision and Mission Statement
- 92 서울총회 의미
Significance of Seoul WEA GA
- 98 인터뷰
Interviews
- 128 언론 보도
Press Releas



4장
Preparation Process
준비 과정

- 134 WEA 실제적 & 영적 준비
Actual & Spiritual Preparation
- 150 발행 문서 및 행사자료
Published Documents and Event Materials
- 158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WEA Seoul General Assembly Organizing Committee
- 162 WEA 서울총회를 위한 100대 기도제목
100 Prayers for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5장
WEA Seoul GA & 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Highlights
2025 WEA 서울총회와 한교섭

- 184 Program
- 194 첫째 날 _ 우리는 복음을 살아낸다
Day 1 _ We Live the Gospel
- 218 둘째 날 _ 우리는 복음을 선포한다
Day 2 _ We Proclaim the Gospel

- 242 셋째 날 _ 우리는 복음을 대표한다
Day 3 _ We Represent the Gospel
- 262 넷째 날 _ 우리는 복음을 기뻐한다
Day 4 _ We Celebrate the Gospel
- 282 다섯째 날 _ 한국 역사 탐방의 날
Day 5 _ Korean Historical Pilgrimage Day
- 304 여섯째 날 _ 내 영혼의 풀 콘서트
Day 6 _ My Soul's Full Concert



6장
WEA Seoul General Assembly Archive
서울총회 아카이브

- 314 축하모음
Congratulatory Messages
- 332 컨퍼런스 봉사자와 그 현장
Volunteers' Service
- 368 해외 목회자 소감문
WEA Seoul General Assembly impressions
- 380 컨퍼런스 디자인
Conference Design
- 388 전시회
Exhibition
- 394 WEA서울총회 다시보기
WEA Seoul General Assembly Replay



7장
Addendum
부록

- 404 파트모스(세계성경인식태도 설문조사)
The Patmos (World Bible Attitudes Survey)
- 428 세계복음주의 전망 연구 조사
결과 보고서
The Global Evangelical Outlook Research Survey Report

1

Overview

WEA 서울총회 개관

「서울선언문」은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의
대헌장이자,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신앙과
사명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This “Seoul Declaration” will be the Magna
Carta of the world’s evangelical churches and
a milestone that presents the direction of faith
and mission that all Christians should pursue.

서울총회 개요

WEA Seoul General Assembly Overview

서울선언문

The Seoul Declaration

2025 WEA 서울선언문의 역사적 의미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2025 WEA Seoul Declaration

WEA Seoul General Assembly
Overview

WEA 서울총회 개관

The Gospel
For Everyone
by 2033
모든 이에게 복음을
2033을 향하여



Dates 기간	주후 2025년 10월 27일(월)~31일(금) October 27 - 31, 2025
Theme 주제	"모든 이에게 복음을 2033을 향하여" "The Gospel For Everyone by 2033"
Slogan 슬로건	살아있는 정통, 개혁적인 보수, 순전한 복음 "Living Orthodoxy · Reformativ Conservatism · Pure Gospel"
Participants 참여인원	해외 3천 명(WEA 1천 명, 해외선교사 및 디아스포라 한인 목회자 2천 명), 국내 5천 명 International: 3,000 attendees(1,000 from WEA, 2,000 overseas missionaries & Korean diaspora pastors) Domestic: 5,000 attendees
Venue 장소	사랑의교회 SaRang Church
Hosted by 주관	WEA , WEA 2025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WEA · WEA 2025 Seoul General Assembly Organizing Committee
Cooperation 협력	기관: 한국교회총연합 · WRF(세계개혁주의협의회) · AEA(아시아복음주의연맹) · 한국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 한국복음주의협의회 · 한국복음언론인회 · 목회데이터연구소 · 평화한국 언론: CTS · CBS · C채널 · 국민일보 · 아이굿뉴스 · GOOD TV Organizations : The United Christian Churches of Korea · WRF (World Reformed Fellowship) · AEA (Asia Evangelical Alliance) · Korea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 The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 · Korea Evangelical Fellowship · Korean Gospel Journalists Association · Ministry Data Institue · PEACECOREA Media Partners : CTS · CBS · C-Channel · Kukmin Ilbo · iGood News· GOOD TV



서울선언문 작성에 참여한 서울조직위 신학위원 및 WEA 대표단

The Seoul Declaration

서울선언문

2025년 1월, WEA와 서울조직위원회가 「서울선언문」을 공동으로 작성하기로 합의하고, 양측에서 각각 작성위원을 위촉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신학위원 및 관계자 10인은 WEA 선언문 작성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10월 초에 초안을 완성하였습니다. 초안은 국제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전(全) WEA 대표단의 회람 후 10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었습니다.

In January 2025, WEA and the Seoul Organizing Committee agreed to jointly write the “The Seoul Declaration,” and each party appointed a writer to proceed with the work. The 10 theological committee members and officials of the Seoul General Assembly Organizing Committee consulted closely with the WEA Declaration Writing Committee and completed the draft in early October. The draft went through deliberation by the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and was finally adopted at the plenary session on October 30 after circulation by all WEA representatives.

Meaning of The Seoul Declaration 서울선언문의 의미

니케아 신경(주후 325년, 니케아(Nicaea) 채택 170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선언문」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문명사적 전환기에 놓인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이 직면한 현실적 과제들에 대한 성경적 대답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성경의 무오성과 절대적 권위를 천명함과 동시에, 종교다원주의·혼합주의·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선언하고,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계적 현상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Celebrating the 1700th anniversary of the adoption of the Nicene Creed (AD 325, Nicaea), the Seoul Declaration presents biblical answers and directions to the rapidly changing world situation and realistic challenges faced by global evangelical churches at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civilization. At the same time as declaring the inerrancy and absolute authority of the Bible, we declared clear boundaries against religious pluralism, syncretism, and liberal theology, and expressed deep concern about global phenomena that threaten religious freedom and democracy.



또한 여성, 아동, 사회적 약자,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박해 문제에 대해 범기독교적 연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평신도 들이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We also reaffirmed the need for pan-Christian solidarity on the issues of persecution of women, children,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the church, and pledged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the Kingdom of God movement. In addition, by clearly clarifying the biblical position on homosexuality and same-sex marriage, it serves as a guide for laypeople to recognize and respond to these issues biblically.

Contents of
The Seoul
Declaration
서울선언문의 내용

끝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민족적 통합에 대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기원과 소망을 함께 표명하였습니다.

Finally, the prayers and hopes of Christians around the world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ational unity were expressed.

서론에서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울에 모인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여러 세계적 도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성경의 진리에 기초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 증거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감당할 것을 다짐합니다.

In the introduction, world evangelicals gathered in Seoul at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human history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the Lord of all despite various global challenges, and pledge to more faithfully carry out the mission of gospel witness under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based on the truth of the Bible.

본론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전도와 제자훈련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 사명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함을 선언하며, 영혼 구원과 교회 성장, 종교 자유와 민주주의의 증진, 빈곤 퇴치, 인권과 교육의 향상, 과학과 의학의 발전, 창조세계의 보존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본 선언은 우리가 공유하는 복음주의 신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종교적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의 위험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며, 동성애와 동성혼은 성경적으로 죄임을 명확히 천명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교회들이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연대할 것을 호소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전 인류의 기대와 소망을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Body
It was emphasized that God is the Creator and the sovereign of history, that the Bible is the exact and inerrant word of God, and that salvation is possible only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Moreover, it was reaffirmed that evangelism and discipleship training are the most essential missions of the church. In addition, we declare that God’s kingdom must be expanded in all areas of



서울선언문 작성을 위한 신학위원 토론회 모습

life, and we give thanks and praise to God through the salvation of souls, the growth of churches, the promotion of religious freedom and democracy, the eradication of poverty,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nd education,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medicine, and the preservation of the created world. This declaration contains a firm commitment to our shared evangelical faith and clearly alerts us to the dangers of religious pluralism and syncretism. He also clearly stated that God created man and woman, and that homosexuality and same-sex marriage are biblical sins. Lastly, we appealed to church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to stand in solidarity to protect religious freedom and democracy, and confessed the expectations and hopes of all mankind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이번 「서울선언문」은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의 대헌장이자,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신앙과 사명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This “Seoul Declaration” will be the Magna Carta of the world’s evangelical churches and a milestone that presents the direction of faith and mission that all Christians should pursue.

주후 2025년 10월 30일
2025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October 30, 2025 A.D.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Organizing Committee

2025 WEA 서울총회 서울선언문 (Seoul Declaration)

I. INTRODUCTION

서론

In October 2025, delegates from across the world have gathered in Seoul, Republic of Korea, under the auspices of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which has represented the global evangelical movement since its founding in 1846. We meet at a pivotal moment in human history—marked by the aftershocks of a global pandemic, widespread economic uncertainty, intensifying conflicts across multiple regions, and the rapid em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the public sphere. The global Church has not been shielded from these pressures; many of our communities continue to endure hardship, suffering, and deepening social fragmentation.

1846년 창립 이래 세계 복음주의 운동을 대표해 온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의 주관아래, 2025년 10월에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서울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중대한 전환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세계적 팬데믹의 여파, 심화되는 경제적 불확실성, 여러 지역에서 고조되는 갈등, 그리고 인공지능의 공적 영역으로의 급속한 부상이 그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대 속에서 세계 교회 또한 같은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수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여전히 고난과 시련을 견디며, 사회적 단절과 분열의 깊은 상처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Amidst this sobering backdrop, our assembly takes place in a land shaped by both profound gospel fruitfulness and enduring

division. The Korean Peninsula, divided for over eight decades, symbolizes both the pain of separation and the resilient hope of reconciliation. We acknowledge this unique context as we meet in fellowship with the Korean Church—a community whose evangelical witness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global mission, public life, and theological depth.

이처럼 엄숙한 시대적 현실 속에서 이번 총회는 풍성한 복음의 열매와 오래된 분단의 상처가 공존하는 이 땅에서 개최됩니다. 80년 넘게 분단되어 온 한반도는 분열의 아픔과 화해의 희망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와 교제 가운데 함께 모여, 이러한 특별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의 증거를 통해 세계 선교와 공공의 영역, 그리고 신학적 깊이에 지대한 기여를 해 온 복음주의 공동체입니다.

Our gathering affirms the central confession that Jesus Christ is Lord of all. From a divided land, we raise a united voice: bearing witness to the Gospel, grounded in Scripture, guided by the Holy Spirit, and sustained by the hope of God's coming Kingdom.

우리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님이심을 신앙의 중심 고백으로 확인합니다. 분열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 된 목소리를 높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소망으로 힘입어 복음을 증거합니다.

II. PROCLAIMING THE GLORY OF GOD AMONG THE NATIONS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함

On the 1,700th anniversary of the Nicene Creed, we—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as a representative body of the global evangelical movement with a 179-year history—have gathered with the evangelical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to glorify the Triune God, who reigns over history, redeems the nations, and makes all things new (Revelation 21:5).

니케아 신경 제정 1,700주년을 맞아, 179년 역사를 가진 세계 복음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우리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은 대한민국의 복음주의 교회와 함께 모였습니다. 이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열방을 구속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계 21:5).

We declare the core of evangelical faith as follows: God is the creator and the organizer of history; Scripture is the inerrant Word of God; salvation is possible only through Jesus Christ; the Holy Spirit is actively at work even today; and the evangelization of souls through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together with discipling believers for the church, is emphasized as our most important and primary mission.

우리는 복음주의 신앙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성경은 무오한(inerrant)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활발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 선포를 통한 영혼 구원과, 교회를 위한 제자 양성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사명임을 강조합니다.

We give thanks for the Church in Korea—planted, rooted, and established by God since the arrival of the gospel in 1884—whose evangelical fervor has borne fruit within Korea and across the world.

우리는 1884년 복음이 전해진 이래,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뿌리내리게 하시며 세워 주신 한국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 복음의 열정은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Great is the Lord, and greatly to be praised, and his greatness is unsearchable. One generation shall commend your works to another, and shall declare your mighty acts" (Psalm 145:3-4).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 145:3-5, 개역개정)

Together, we seek to serve the global evangelical community, comprising over 650 million evangelical believers across 161 countries, and the world at large.

우리는 161개국에 걸쳐 6억 5천만 명이 넘는 복음주의 신자들로 이루어진 전 세계 복음주의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We lift our eyes to the Lord of the harvest (Matthew 9:38), who calls us into joyful and costly obedience. We worship the Risen Christ (John 20:21) and walk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cts 1:8). Grateful for the Gospel's global spread, we rejoice in Christ proclaimed in every language and culture (John 14:6).

우리는 기쁨과 희생의 순종으로 부르신 추수의 주님(마 9:38)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20:21)를 경배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합니다(행 1:8).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것을 감사하며, 모든 언어와 문화권에서 선포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합니다(요 14:6).

III. WE GIVE THANKS AND REPENT

감사와 회개

Since the founding of the WEA in 1846, we give thanks to God who has enabled many churches and organizations worldwide to preserve the purity of the gospel under the authority of Scripture, to carry forward the rich legacy of global evangelical faith—from the fresh clarity that emerged during the Reformation to revival movements, mission expansion, and Spirit-led renewal in every generation, and to bear abundant fruit in mission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We also thank Him for the grace of witnessing the expansion of God's kingdom in every sphere of life—through the salvation of countless souls and the building up of churches, as well as religious freedom and the advancement of democracy, the alleviation of poverty,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educatio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medicine, and the preservation of the created world.

1846년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이 설립된 이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성경의 권위 아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세계 복음주의 신앙의 풍성한 유산을 이어가도록 인도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유산은 종교개혁을 통해 새롭게 드러난 복음의 명확성에서 비롯되어, 부흥운동, 선교의 확장, 그리고 모든 세대에 걸친 성령의 인도와 새로움으로 이어졌으며, 성령의 사역을 통해 선교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보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영혼의 구원과 교회의 성숙,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발전, 빈곤의 경감, 인권과 교육의 증진, 과학과 의학의 발전, 그리고 창조 세계의 보존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Yet, at the same time, we gather humbly to confess our shortcomings. We repent of the ways we, as the Church, have fallen short of our calling to be salt and light in the world.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모여 겸손히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We acknowledge with sorrow the fragmentation of the Body of Christ. We mourn the Church 's diminished public witness of God's sovereignty over all areas of life and the suffering endured by our persecuted brothers and sisters around the world. We give thanks for the many leaders and churches laboring for the kingdom of God across the world, even as we pray that they may be preserved from abuse of authority, moral failure, or the pull of secularization, and instead serve with the humility of Christ. We are also well aware that countless pastors and churches worldwide are facing difficulties, and the global evangelical churches, as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ill share the cross with them and support their growth.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된 것을 슬퍼하며 인정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회의 공적인 증거가 약화된 것과, 전 세계에서 박해 받는 형제자매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애도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지도자들과 교회들에게 감사드리며, 그들

이 권위의 남용, 도덕적 실패, 또는 세속화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섬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전 세계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그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며 그들의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We confess our failure in contributing well to the building of cultures and societies that fully honor the dignity of life. On one hand, we grieve the participation of some Christians in dehumanizing structures—and, more broadly, our collective failure to be more active in addressing those structures that perpetuate racism, tribalism, and caste systems, as well as those that discriminate against refugees, migrants, women, and children in different times and regions across the world. On another hand, we lament our inability to uphold a clear evangelical stance on abortion, medically assisted death, and the welfare of the aged. We grieve our silence in the face of systemic injustice and repent of the ways Scripture has been misused to justify power, imbalance of opportunity and prejudice.

한편으로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사회 구조들에 참여한 것을 슬퍼하며, 더 나아가 인종차별, 부족주의, 카스트 제도를 지속시키는 구조들, 그리고 전 세계 여러 시대와 지역에서 난민, 이주민, 여성, 어린이를 차별하는 체계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공동의 실패를 깊이 슬프게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낙태와 의학적으로 조력 된 죽음, 그리고

노인 복지에 관해 명확한 복음주의적 입장을 견지하지 못한 우리의 무능에 대해 애통합니다. 우리는 구조적 불의 앞에서 침묵했던 것을 슬퍼하며, 성경이 권력과 기회의 불균형, 그리고 편견을 정당화하는 데 오용되었던 것에 대해 회개합니다.

While we thank God for granting us wisdom to harness the riches of God's creation for the advancement of human life, we confess that we have often neglected environmental duties and have not addressed enough the abuse of God's creation.

하나님께서 인간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풍요로움을 활용할 지혜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지만, 우리는 때때로 환경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남용되는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As stewards of the earth entrusted to our care, we fall short of prophetically articulating how people's wellbeing is closely intertwined with the welfare of the planet they inhabit (Genesis 1:28-30, 2:15).

우리에게 맡겨진 땅의 청지기로서, 인간의 복지와 그들이 거주하는 지구의 복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예언자적으로 선포하지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창 1:28-30, 2:15).

In all these, we acknowledge our truncated discipleship, having made converts but often failed to nurture Spirit-filled, Scripture-shaped, and holistically formed disciples who embody the love, holiness, and power of Christ in daily living. Yet, we lament with hope, and we earnestly seek the renewing work of the Holy Spirit.

이 모든 일에 있어, 우리는 제자도를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회심자를 얻었으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경에 의해 빚어지며,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함과 능력을 드러내는 온전한 제자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 가운데 애통하며,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간절히 구합니다.

We rejoice in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across the global Church in our day, especially in the dynamic growth of the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s, which have brought millions into vibrant faith in Christ and empowered countless believers for mission, worship, and service (Acts 2:17-18; Joel 2:28-29). We recognize that movements of the Spirit must be continually anchored in Scripture (2 Timothy 3:16-17). We affirm that without the Holy Spirit—our Comforter, Advocate, and Empowerer (John 14:26; Acts 1:8)—the global Church cannot overcome the challenges of our age nor walk faithfully in holiness and witness.

우리는 오늘날 전 세계 교회 위에 총만하게 부어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히 수백만 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동하는 믿음으로 이끄시고, 수많은 신자들에게 선교와 예배, 봉사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 주신 오순절 운동과 성령의 갱신운동의 역동적인 성장을 기쁨으로 바라봅니다(행 2:17-18; 율 2:28-29). 우리는 성령의 모든 역사가 항상 성경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함을 인식합니다(딤후3:16-17). 또한,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대언자이시며 능력을 주시는 분인 성령(요 14:26; 행 1:8)께서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전 세계 교회가 이 시대의 도전을 극복할 수도 없고, 거룩함과 증거 안에서 신실하게 행할 수도 없음을 확언합니다.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they are new every morning" (Lamentations 3:22-23).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애 3:22-23)

IV. WE AFFIRM: OUR SHARED FAITH

우리들의 확언: 우리의 공유된 신앙

We affirm the Gospel as truth for everyone. Guided by the apostolic and historic Christian faith and enriched by the diversity with which today's global Church has been engaging God's inerrant Word and His promises, we step into the future with our utmost confidence resting on the transforming power of the Holy Scriptures, the exclusivity of Jesus for salvation and His sacrificial work on the cross, and the life-giving work of the Holy Spirit in both Church and the world. "Collaboration without Compromise" reaffirms our basic principles, remaining alert to the dangers of religious pluralism and syncretism, while holding firm to the Gospel, biblical orthodoxy, and the Spirit's renewing power for both personal and societal transformation.

우리는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진리임을 확언합니다. 사도적이며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의 인도를 받으며, 오늘날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과 약속에 응답하며 쌓아 온 다양성으로 풍요로워진 우리는, 성경의 변화시키는 능력과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희생적 사역, 그리고 교회와 세상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확고한 확신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타협 없는 협력"(Collaboration without Compromise)은 우리의 기본 원칙임을 재확인하며, 종교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의 위험을 경계하는 동시에, 복음과 성경적 정통 신앙, 그리고 개인과 사회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굳건히 붙잡습니다.

Furthermore, we affirm the pressing need to articulate and embody our deepest evangelical convictions. We are reminded

of the testimony of history showing how a vibrant faith in Christ has remarkably contributed to the fostering of mutual well-being. Yet we also recognize, as highlighted by our lamentations, the deep impact of holding to forms of theology that are life-giving and those that are complicit to denying life and draining it. One seeks to affirm, support, and protect life in the world, and the other, to enable death and destruction.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복음주의 신념을 분명히 진술하고 삶으로 구현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 있는 믿음이 공동선을 증진하는 데 놀라운 기여를 해 왔음을 보여주는 역사의 증언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탄식에서 드러나듯이, 우리는 생명을 일으키는 신학과, 생명을 부정하고 소진시키는 신학이 각각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합니다. 전자는 세상의 생명을 긍정하고 지지하며 보호하려 하지만, 후자는 죽음과 파괴를 조장합니다.

So, we affirm that human beings are created in the very image of God—male and female, equal in dignity and worth (Genesis 1:27).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we commit to marriage not only as a sacred union but also a covenant together with God.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존엄성과 가치에 있어 동등합니다(창 1:27).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은 신성한 연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We affirm the need to build and strengthen healthy families (Matthew 19:4-5), while also honoring those who, according to the gift given by God, are called to sanctified singleness (1 Corinthians 7:7).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합니다(마 19:4-5).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거룩한 독신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을 존중합니다(고전 7:7).

We believe that the Church is called to be a place of welcome, grace, and truth for all people. Every human being, endowed with inherent worth as God's creation, is invited into the transforming love and lordship of Jesus Christ. As those redeemed by grace, we affirm that repentance, restoration, and holiness are part of the lifelong journey of discipleship.

우리는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환영과 은혜와 진리의 장소가 되도록 부름 받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고유한 가치를 부여받은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사랑과 주 되심 안으로 초대받습니다. 은혜로 구속 받은 자로서, 우리는 회개와 회복, 그리고 거룩함이 제자로서의 평생 여정의 일부를 확인합니다.

In this spirit, we acknowledge that many in our societies wrestle deeply with questions of identity, sexuality, and belonging. We commit ourselves to listening with humility, walking with compassion, and ministering with biblical clarity and pastoral tenderness.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는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 성(性), 그리고 소속감의 문제로 깊이 씨름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경청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동행하며, 성경적 명확성과 목회적 온유함으로 사역할 것을 다짐합니다.

Therefore, we affirm that practicing homosexuality is sin (Romans 1:26-27), contrary to God's design for human sexuality. But we proclaim this truth not with condemnation, but in love —offering the hope, healing, and freedom that is found in Christ alone (1 Corinthians 6:9 -11). We desire to be a Church that speaks truth while embodying grace, always remembering our own need for mercy (Titus 3:3-7).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 간의 성행위가 죄임을 확인합니다(롬 1:26-27).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性)에 대해 정하신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죄함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 진리를 선포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소망과 치유와 자유를 제시합니다(고전 6:9-11). 우리는 이 진리를 말하되 은혜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또한 자비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합니다(딤후 3:3-7).

In this global context,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tanding together in prayer, discernment, and expression of biblical conviction, especially when laws threaten to suppress religious freedom or distort the created order.

이러한 세계적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와 분별, 그리고 성경적 신념의 표현하는 일에 함께 연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합니다. 특히 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려 할 때,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We affirm the churches in Korea for their united and sustained public faithful witness in upholding biblical convictions on human dignity and freedom of conscience.¹⁾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성경적 신념을 굳게 지켜 온, 한국 교회들의 연합되고 지속적인 공적 신앙의 증언을 높이 평가합니다.¹⁾

The Korean Church's resistance is not rooted in animosity but in faithfulness to God's providential design revealed in creation, and in deep concern for the long-term consequences such legislation would have for religious liberty and moral formation.

한국 교회의 저항은 적대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창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적 질서에 대한 신실함과, 그러한 입법이 종교의 자유와 도덕 형성에 미칠 장기적 결과에 대한 깊은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Therefore, we join with evangelical communities worldwide, in boldly resisting all ideological systems that suppress freedom of faith and distort biblical anthropology, even as we boldly share the truth in love and proclaim Christ with compassion, humility, and courage.

그러므로 우리는 전 세계 복음주의 공동체와 연합하여,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성경적 인간관을 왜곡하는 모든 이념 체계에 담대히 맞섭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두려움 없이 전파하며, 긍휼과 겸손, 그리고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More so, we reject the culture of death that devalues the weak, the elderly, the unborn, and we affirm the sacredness of life from conception to natural death. We resist the neglect of shared humanity, the failure to overcome violence with the power of love, and the lack of boldness to stand with those who take the side of peace with justice and truth for all peoples.

더욱이, 우리는 연약한 자들과 노약자, 그리고 태아의 가치를 폄하하는 죽음의 문화를 거부하며,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그 신성함을 확언합니다. 우리는 인류 공동의 인간성을 외면하는 태도와 사랑의 능력으로 폭력을 극복하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위한 정의와 진리 안에서 평화를 선택한 이들과 함께 서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In a world torn by war, ideological extremism, political repression, and deep national divisions, we as the global Church long for the peace of Christ to reign over the nations. We echo the prophet's vision where swords are beaten into plowshares and nations no longer learn war (Micah 4:3). We grieve with peoples caught in cycles of violence and injustice, and we stand in solidarity with churches facing pressure from state powers that disregard religious freedom and trample on human dignity (Psalm 82:3-4). In many regions, laws and ideologies now advance with little regard for conscience or the sacred human dignity affirmed in the Holy Scripture. Yet, we hold fast to the conviction of the God-given dignity of all people, that the Gospel brings reconciliation (2 Corinthians 5:18-20), and that followers of Christ are called to pray for those in authority so that we may live peaceful and godly lives (1 Timothy 2:1-2).

전쟁과 이념적 극단주의, 정치적 억압, 그리고 깊은 국가적 분열로 상처 입은 세상 속에서, 세계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열방 위에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나라들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의 비전을 함께 고백합니다(미 4:3). 우리는 폭력과 불의의 악순환에 묶여 고통받는 민족들과 함께 슬퍼하며,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국가 권력의 압제 아래 있는 교회들과 연대합니다(시 82:3-4). 오늘날 많은 지역에서 법과 이념이 양심이나 성경이 증언하는 거룩한 인간 존엄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존엄성을 굳게 붙들며, 복음이 화해를 이루고(고후 5:18-20),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평화롭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음을 확신합니다(딤후 2:1-2).

In this spirit, we turn our heart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s remained divided for over eighty years—between the gospel-receiving South and the North where the Gospel cannot yet be freely proclaimed. We pray earnestly for the day when reconciliation is realized, and every person may worship God freely and live according to His truth (John 8:32). We ask the Lord for mercy on North Korea: for the end of systemic human rights violations (Isaiah 58:6), and for the release of those unjustly imprisoned (Hebrews 13:3). At the same time, we voice our growing concern over emerging and rising societal pressures that challenges open expression of evangelical faith in many contexts. We are mindful of challenges that leaders face in expressing biblical convictions within changing social and legal contexts. As Jesus taught,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for righteousness' sake" (Matthew 5:10), and we pray that the Church in Korea may continue to stand boldly, bearing witness to Christ in truth and love.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남한과, 아직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지 못하는 북한으로 나뉜 지 80여 년이 된 한반도에 마음을 향합니다. 우리는 화해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그분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 8:32). 우리는 북한을 향한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구조적인 인권 탄압이 종식되고(사 58:6), 부당하게 투옥된 이들이 석방되기를 간구합니다 (히 13:3). 동시에 우리는 여러 사회적 환경 속에서 복음주의 신앙의 공개적 표현을 위협하는 새로운 압력이 확산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사회적·법적 환경 속에서 (교회)지도자들이 성경적 신념을 드러내는 데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인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마 5:10), 우리는 한국 교회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기를 기도합니다.

We therefore join our voices globally and locally to intercede for Korea—that it may be renewed as a land where justice flows like a river (Amos 5:24), where freedom of religion and speech are upheld, and where the Church flourishes in holiness, courage, and compassion (Philippians 1:27-28).

그러므로 우리는 전 세계와 지역 교회들이 한마음으로 목소리를 모아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암 5:24), 종교와 언론의 자유가 지켜지고, 교회가 거룩과 용기, 긍휼로 충만한 가운데 번성하는 나라로 새롭게 되기를 간구합니다(빌 1:27-28).

We affirm the fullness of the Gospel, expressed not only in words but also in worship and works, moving the whole church to bear witness to Christ through compassionate service and

courageous evangelism (1 Corinthians 12:27; 1 Peter 2:9; Galatians 6:10). We uphold unity in Christ and holiness not only as an essential mark of authentic discipleship but also as a vital element of credible mission (Ephesians 4:3; Hebrews 12:14).

우리는 복음의 충만함을 확언합니다. 그것은 말로 만이 아니라 예배와 행함으로 드러나며, 온 교회를 움직여 긍휼의 섬김과 담대한 복음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합니다(고전 12:27; 벰전 2:9; 갈 6:10).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 됨과 거룩함을, 참된 제자도의 본질일 뿐 아니라 신뢰받는 선교의 핵심으로서 굳게 붙들입니다(엡 4:3; 히 12:14).

Our faith is not abstract theory but embodied truth. We do not merely believe—we belong, and we are disciples in action.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는 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속한 공동체이며, 행동하는 제자들입니다.

V. WE COMMIT: A CALL TO GOSPEL-SHAPED ACTION

우리의 다짐: 복음으로 형성된 행동의 부르심

As we continue to pursue deep theological reflection, engage in concrete discussions with the global Church on how to embody the gospel in the public sphere, and discern the times under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Luke 12:56; Romans 13:11), we commit to continuously work on the seven clusters of the Global Evangelical theological initiatives²⁾ and the Top 20 Theological Themes for the Next 20 Years arising from it: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눅 12:56; 롬 13:11) 시대를 분별하며, 깊은 신학적 성찰을 지속하고, 공적 영역에서 복음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세계 교회와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다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계 복음주의 신학 이니셔티브(Global Evangelical Theological Initiatives)²⁾ 일곱 가지 핵심 영역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향후 20년을 위한 20대 신학 주제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 **contextualized and Spirit-empowered** witness to the person and work of Jesus Christ, grounded in Scripture and shaped by the ongoing movement of the Holy Spirit in life and ministry
- renewed call to **defend religious freedom**, confront injustice, resist oppression, and pursue a more just and peaceful society across all nations—while deepening evangelical unity
- **holistic and inclusive vision** of ministry and pastoral formation, rooted in evangelical theology and responsive to diverse cultural and ecclesial contexts

- an affirmation of the **struggles and aspirations** of communities on the margins, expressed through local presence and global evangelical fellowship
- a deepening **commitment to whole-person health and wellbeing**, guided by biblical wisdom and empowered by the Spirit
- a call to **wise stewardship of creation**, promoting ecological sustainability for the flourishing of both humanity and the wider world for generations to come
- pursuit of **human-centered, ethical development** in technology, including the discerning and redemptive use of media in a rapidly changing digital age
- 성경의 진리에 기초하여, 성령께서 삶과 사역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형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시대적·문화적 맥락에 맞게 증언하는 것**
- 모든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고, 불의에 맞서며, 억압에 저항하고,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추구하되, 복음적 연합을 더욱 굳건히 세워가는 것
- 복음주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다양한 문화적·교회적 상황에 대응하는 **총체적이고 열린 사역과 목회자 양성의 비전**을 추구하는 것
- 각 지역의 현장과 세계 복음주의 교제를 통해, 소외된 공동체들의 **고난과 소망**을 신앙으로 확인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연대를 강화하는 것
- 성경의 지혜에 인도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전인적 건강과 온전한 삶을 위한 더욱 깊은 헌신**

- 다가올 세대까지 인류와 온 피조 세계가 함께 번성하도록, **창조 세계를 지혜롭게 청지기적으로 관리**하며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라는 부르심
-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 속에서, 매체를 분별력 있게 그리고 구속적 관점에서 사용하며, **인간의 존엄을 중심에 둔 윤리적 기술 발전**을 추구하는 일

As we minister to those wrestling with personal sin, deepen discipleship for those walking with Christ, and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God's kingdom and the public sphere, we look ahead to The Gospel for Everyone by 2033—the 2,000th anniversary of Christ's resurrection and the Great Commission. We renew our commitment to gospel-shaped disciple-making that is Spirit-empowered, Christ-centered, and biblically rooted, and to pursuing integrity in mission so that our methods reflect the message of Christ to all nations (Matthew 28:19-20; John 20:21).

목회자로서 우리는 개인적인 죄와 씨름하는 이들을 돌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의 제자도를 더욱 깊이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공적 영역의 관계를 모색하는 가운데, 2033년 - 곧 그리스도의 부활과 지상명령 2,000주년 - 을 향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The Gospel for Everyone)"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성경에 뿌리내린 복음적 제자 양성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일관되게 증거되도록 사명의 진실성과 정직성을 지켜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마 28:19-20; 요 20:21).

VI. A GLOBAL BLESSING AND PRAYER

세계를 향한 축복과 기도

May God the Father, Creator of all, make all things new (Revelation 21:5). May the Son, crucified and risen, fill His people with courage. May the Holy Spirit empower us to live as salt and light. We pray for revival, unity, love for our community, our neighbors outside the community and justice. Let this Assembly be a hinge in history—a turning toward holiness and mission.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새롭게 하옵소서(계 21:5).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 주의 백성에게 담대함을 채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부흥과 연합을 허락하시고, 공동체 안에는 사랑을, 공동체 밖 이웃에게는 사랑으로 섬김을, 그리고 이 땅에는 정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번 총회가 역사의 분기점이 되어, 거룩함과 사명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VII. SIGNATORIES

서명자 일동

"Now to him who is able to do immeasurably more than all we ask or imagine... to him be glory in the church and in Christ Jesus throughout all generations, for ever and ever! Amen" (Ephesians 3:20-21).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엡 3:20-21)

1) The so-called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while framed as a protection of human rights, presents serious concerns for freedom of religion and conscience in the Republic of Korea. Evangelical churches have expressed that such legislation may suppress the ability to faithfully teach biblical truth regarding marriage, sexuality, and gender (cf. Romans 1:26-27). While upholding the dignity of all persons created in God's image (Genesis 1:27), we also affirm that authentic human rights must include the freedom to proclaim God's design without fear of legal penalty. We reject unjust discrimination but cannot endorse laws that distort God's created order or curtail freedom of expression. We express solidarity with the Korean Church and others worldwide facing similar challenges to religious liberty. At the same time, we confess our calling to love all people and to shepherd with grace and truth (Ephesians 4:15). Our concerns are not born of hostility but of conviction—a desire to preserve Gospel witness for future generations. We long for societies in which compassion and conscience are not at odds, and we pray that the Church may continue to speak the truth in love, marked by humility, courage, and care (Micah 6:8; John 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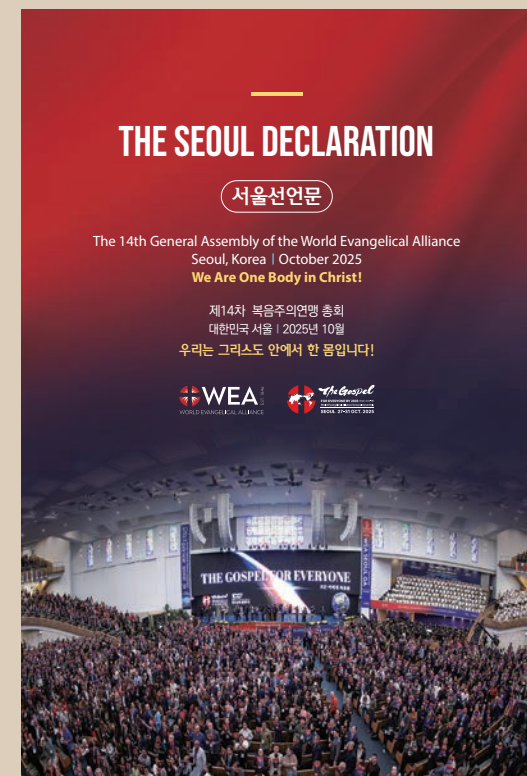
1)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인권 보호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합니다. 복음주의 교회들은 그러한 입법이 결혼과 성, 젠더(gender)에 관한 성경적 진리를 충실히 가르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롬 1:26-27 참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도(창 1:27), 진정한 인권은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선포할 자유가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부당한 차별을 거부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 교회를 비롯하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유사한 도전에 직면한 전 세계의 교회들과 연대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은혜와 진리로 돌보아야 할 우리의 소명을 고백합니다(엡 4:15). 우리의 우려는 적대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복음적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복음적 증언을 보존하려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비와 양심이 서로 대립하지 않는 사회를 간절히 소망하며, 교회가 겸손과 용기, 그리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공동체로 계속 서 가기를 기도합니다(미 6:8; 요 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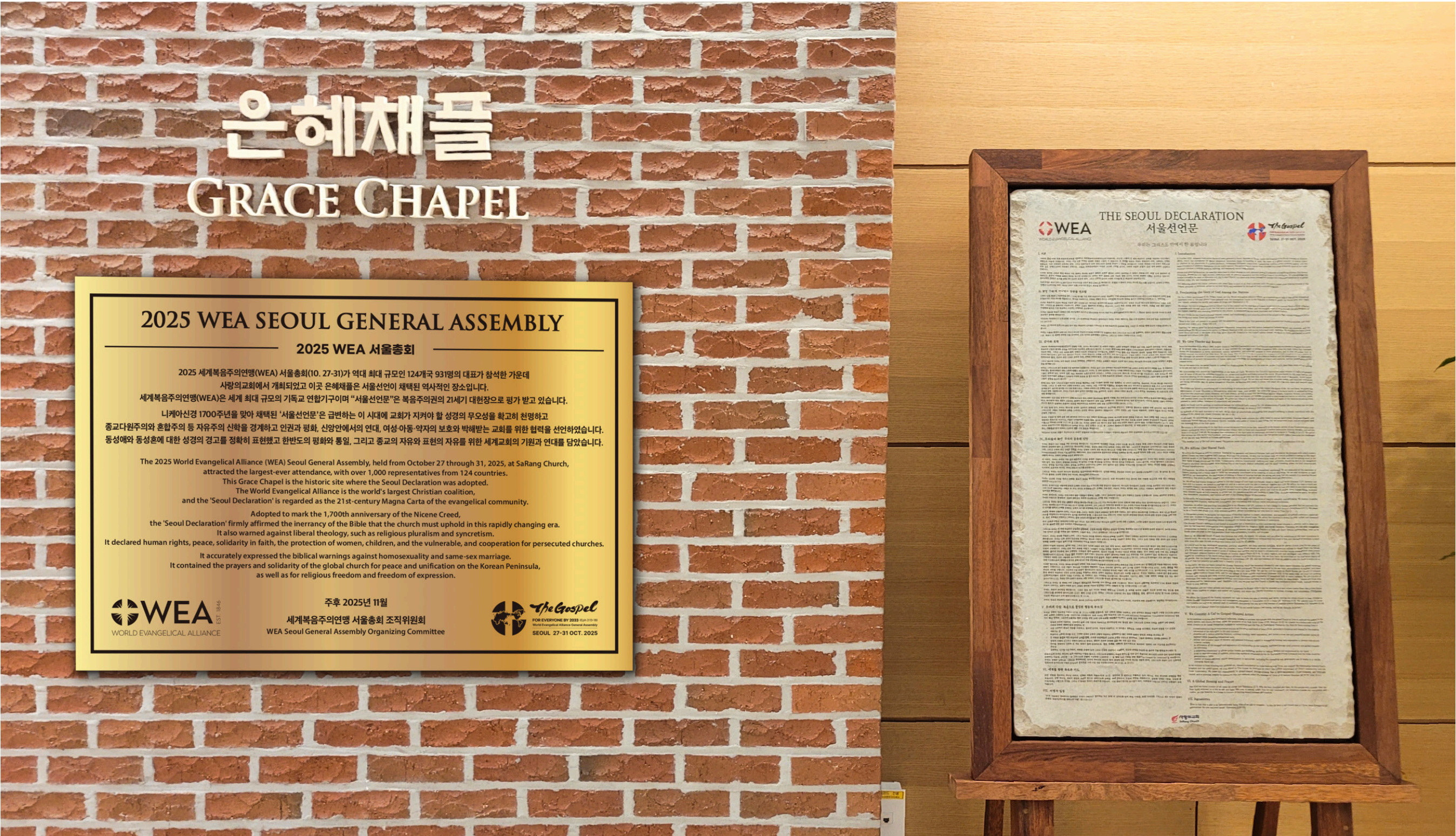
2) We are grateful for Lausanne's State of the Great Commission Report; information from the Global Insight Forum of the Haggai Institute, WEA's Future of the Gospel Forum, and database of PhD dissertations from Oxford Center for Mission Studies. We are also thankful for voices from the global church suggesting WEA should implement post L4, and we note with particularity for the article on '[Recentering Evangelism](#).'

2) 우리는 로잔운동의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State of the Great Commission Report), 학개 연구소의 '글로벌 인사이트 포럼'(Global Insight Forum),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의 '복음의 미래 포럼(Future of the Gospel Forum), 그리고 옥스퍼드 선교연구센터(Oxford Centre for Mission Studies)의 박사 학위 논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제공받은 귀중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로잔 4차 대회 이후의 실행에 대해 제언해 준 세계 교회의 다양한 의견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복음전도의 재중심화(Recentering Evangelism)"라는 글을 주목합니다.



신학위원들이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에 출연하여 서울선언의 역사적 신학적 의미를 설명





WEA 「서울선언문」이 채택된 역사적 현장인 사랑의교회 은혜채플
The Grace Chapel of SaRang Church, the historic site where the WEA “Seoul Declaration” was adopted.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2025 WEA Seoul Declaration

2025 WEA 서울선언문의 역사적 의미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나시어 성부와 본질이 동일하신 분이시다(Very God of very God, begotten, not made, being of one substance with the Father).” 기독교 역사의 복음적 정통을 확립하고, 삼위일체 교리의 초석을 이루었던 ‘니케아 신경’(Nicene Creed)의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니케아 신경’은 이후 기독교의 모든 논의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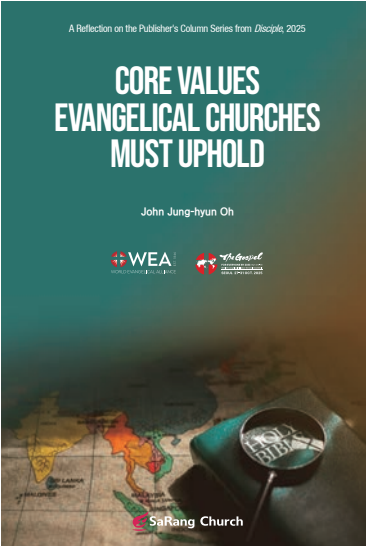
“Very God of very God, begotten, not made, being of one substance with the Father.” This is the most significant declaration of the Nicene Creed, which established the evangelical orthodoxy of Christian history and laid the cornerstone of the doctrine of the Trinity. The Nicene Creed has since become the benchmark for all subsequent discussions in Christianity.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성경은 무오한(inerrant)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 선포를 통한 영혼 구원과, 교회를 위한 제자 양성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사명임을 강조합니다.” ‘니케아 신경’ 제정 1,700주년을 맞아 179년 역사의 WEA(세계복음주의연맹)가 지난 10월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한 ‘2025 WEA 서울선언문’의 신학적 뼈대입니다.

“God is the Creator and the Sovereign Lord over history; the Scripture is the inerrant Word of God; salvation is possible only through Jesus Christ; the Holy Spirit is still actively at work today; and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for the salvation of souls and the discipling of believers for the church is the most important and primary mission entrusted to us.” This is the theological backbone of the 2025 WEA Seoul Declaration that the 179-year-old WEA (World Evangelical Alliance) officially adopted at its General Assembly last October, in commemoration of the 1,700th anniversary of the Nicene Creed.

나는 인쇄된 ‘2025 WEA 서울선언문’을 들고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서론을 포함해 7장으로 구성된 이번 ‘2025 WEA 서울선언문’이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대현장이자,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신앙과 사명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I held the printed copy of the 2025 WEA Seoul Declaration and danced with joy. I believe that this 2025 WEA Seoul Declaration, consisting of seven chapters including the introduction, will become the Magna Carta of the global evangelical church and a milestone that presents the direction of faith and mission toward which all Christians must go.



교회사를 보면 시대마다 복음의 정통을 수호하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확정한 ‘니케아 신경’(325년),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과 참 인간 되심을 선언한 ‘칼케돈 신조’(451년), 로마서 1장 16~17절을 통해 믿음에 의한 칭의의 복음을 재발견한 ‘종교개혁’(1517년) 등이 세 개의 선언은 복음의 정당성(Legitimacy of the Gospel)을 확립한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입니다. 이를 통해 복음의 본질인 예수님의 신성,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구원의 은혜라는 복음의 정통성이 수호되었습니다.

Looking at church history, there were declarations in every era that safeguarded the orthodoxy of the Gospel. The Nicene Creed (A.D. 325), which affirmed the full divinity of Jesus Christ; the Chalcedonian Definition (A.D. 451), which declared that Christ is both truly God and truly man; and the Reformation (A.D. 1517), which rediscovered through Romans 1:16-17 the Gospel of justification by faith—these three declarations are the most crucial confessions establishing the legitimacy of the Gospel. Through them, the orthodoxy of the Gospel was preserved—namely, the deity of Jesus, the incarnation, the death on the cross and the resurrection, and the grace of salvation.

이번 ‘2025 WEA 서울선언문’은 21세기의 언어로 디지털 시대의 모든 세대를 정통 복음으로 아우르며, 무신론과 다원주의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거해 순전한 복음을 선포한 선언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번 ‘2025 WEA 서울선언문’은 세계 복음주의 교회가 주님이 명하신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새로운 장(New Chapter)을 쓴 것입니다.

The 2025 WEA Seoul Declaration embraces every generation of the digital age with orthodox Gospel truth expressed in the language of the 21st century, proclaiming Jesus Christ as the only way of salvation to an atheistic and pluralistic society. No declaration in the past half-century anywhere in the world has proclaimed with such strength the pure Gospel solely based on the Word of God, the Scripture. This 2025 WEA Seoul Declaration writes a new chapter as the global evangelical church seeks to fulfill the Great Commission commanded by our Lord.

많은 사람이 한국교회의 장래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2025 WEA 서울선언문’이 선포한 정통의 복음, 순전한 복음 안에는 교회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답이 있습니다.

Many people say various things regarding the future of the Korean church, but within the orthodox and pure Gospel proclaimed by the 2025 WEA Seoul Declaration lies the answer to every challenge facing the church.

지난 2천여 년의 기독교 역사에 답이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복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로 수호한 이 정통의 복음을 붙들고, 세계 선교를 명하시며,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세계 선교의 마무리를 위해 기어코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For two thousand years of Christian history, the reason the answer has always been found is clear: because God—who established the Gospel with the blood of Jesus, who preserved this orthodox Gospel through the martyrdom of countless saints, who commanded world evangelization, and who is always with us until the end of the age—will surely give the answer for completing the final chapter of world mission in preparation for the day of the Lord’s return.

2033년까지 “복음으로 모든 민족과 세대를 섬기겠다”는 결단과 함께, 향후 세계 교회의 행보를 견인하는 이번 ‘2025 WEA 서울선언문’은 세계 교회에 복음의 영광을 재점화(再點火)하고, 교회의 길을 재정향(再定向)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아무쪼록 ‘2025 WEA 서울선언문’이 세계 교회가 다시 복음의 기치로 타오르게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하며, ‘2025 WEA 서울선언문’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With the commitment that “we will serve all nations and generations with the Gospel by the year 2033,” the 2025 WEA Seoul Declaration will lead the future steps of the world church, reigniting the glory of the Gospel and reorienting the direction of the church. I pray that the 2025 WEA Seoul Declaration will become the turning point through which the world church once again burns brightly with the banner of the Gospel, and I give all glory and thanks to God who granted us the 2025 WEA Seoul Declaration.

국제제자훈련원 원장 / WEA 서울총회 공동조직위원장

오정현 목사 

President of Disciple Making Ministries International / WEA seoul GA
Rev. Dr. Jung-hyun Oh

2

About WEA

WEA 소개

WEA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 최고(最古)의
복음적 기독교 연합체입니다.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is the world's largest
and oldest evangelical Christian association.

WEA 역사와 한국교회

WEA History and Korean Church

WEA 조직 및 주요사역

WEA Organization and Main Ministries

종교의 자유 선언문

Declaration on Religious Freedom

7대 신앙고백

Seven Confessions of Faith

WEA 신학적 정체성과 역사적 전통

WEA Theological Identity and Historical Tradition

9개의 세계복음주의연합체

9 World Evangelical Alliances

통계

Statistics

WEA History and Korean Church

WEA 역사와 한국교회



this page 영국 런던 왕립 알버트 홀 회의(1925)

History of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WEA의 역사

세계복음주의연맹(WEA: World Evangelical Alliance)은 칼 막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 사상(1848)과 다윈의 진화론(1859)이 발표되고 무신론이 확산되던 즈음인 1846년에 영국에서 칼빈주의자와 복음주의연맹(EA: Evangelical Alliance)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12년에 복음주의연맹(EA)에서 세계복음주의연맹(WEA)로 명칭을 바꾸어 국제적으로 활동을 확대하다가 WEA와 동일한 신앙고백과 목적으로 1942년 미국에서 설립된 전미복음주의자협회(NAE: The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in USA)와 연대하였습니다.

그 이후 전 세계적인 복음주의자들의 모임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WEF(World Evangelical Fellowship)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2001년부터는 다시 WEA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WEA는 현재 전세계 161개국의 연맹들로 구성되어 있고 9개 지부(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 아프리카, 남태평양, 중앙아시아, 중동, 카리브해 연안 등) 6억 5천만명의 신자를 둔 세계 최대, 최고(最古)의 복음을 중심으로 결속된 기독교 연합기구입니다.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was founded in 1846 in the United Kingdom as the Evangelical Alliance (EA), initiated by Calvinists and evangelicals during a time when atheism was spreading, influenced by Karl Marx and Friedrich Engels' communist ideology (1848) and Darwin's theory of evolution (1859).

In 1912, the Evangelical Alliance (EA) changed its name to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Expanding its international influence, later, it formed a partnership with the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NAE) in the United States, which was founded in 1942 with the same doctrinal beliefs and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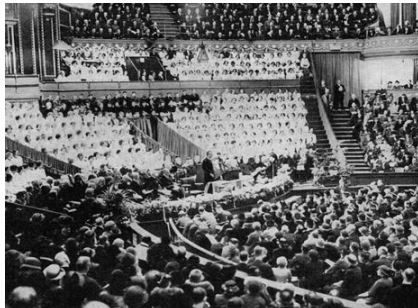
Recognizing the need for a global evangelical fellowship, the organization was renamed World Evangelical Fellowship (WEF) before officially reverting to WEA in 2001.

Today, WEA is the largest and oldest global evangelical Christian alliance, comprising in 161 countries with over 650 million believers. It operates through nine regional branches (Asia, Europe, South America, North America, Africa, South Pacific, Central Asia, Middle East, Caribbean).

top left 1925년 영국의 로열 알버트 홀에서 열린 복음연맹(EA, 현 WEA) 주관의 기도회
A prayer gathering hosted by the Evangelical Alliance (EA, now WEA) at the Royal Albert Hall in 1925

top right WEA 설립 초기의 주역들 Key leaders from the early years of WEA's founding

middle 초기 WEA 모임 An early gathering of WEA



bottom left H. R. H. 켄트 공작이 왕립 알버트 홀에서 연설하는 모습, 조지 5세 왕의 즉위 기념일 H.R.H. the Duke of Kent delivering an address at Royal Albert Hall during the commemoration of King George V's accession

bottom right 영국 런던 컨퍼런스 (1907) The London Conference (1907), held in London

Exchange with the Korean Church

한국교회와의 교류

- 한국교회와는 오래전부터 직간접적으로 교류해 왔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는 김준곤, 박조준, 이종윤, 한철하, 나원용, 옥한흠, 김명혁, 하용조 목사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한국복음주의협의회(KEF)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교연(한국교회연합회)과도 교류해 왔습니다.
- 한국교회와 꾸준한 교류관계를 가져 오던 WEA는 2003년에 김재성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를 WEA의 신학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했고, 2005년에는 성결대학교에서 한국복음주의 신학자들과 공동으로 국제 심포지움을 열고 공동의 신학적 관심사에 대한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당시 광신대 총장이던 정규남 박사는 “21세기 복음주의 신학의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선포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 2007년에는 김상복 목사(당시 할렐루야교회 담임)가 WEA 회장으로 선출되어 한국교회가 복음주의 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은 WEA와 2007년부터 업무협약을 맺어 사역교류를 해 오다가 2009년 6월, “세계 복음화의 불을 당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WEA의 정회원으로 가입을 했고 2014년 WEA 서울총회 개최를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WEA 본부로부터 총회 개최 승인을 받아 준비를 하였으나 내부 사정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 WEA와 연관된 신학교 출신 교수, 교역자 다수가 현재 국내 유수의 신학대학과 교회에서 목회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104회(2019) 총회에서 “WEA가 우리 총회가 지켜오고 추구하는 신학적 입장과 크게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어 교류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신학부의 보고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 WEA has maintained both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 with the Korean Church for many years. Since the 1980s, it has developed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Evangelical Fellowship (KEF), founded by key evangelical leaders such as Kim Jun-gon, Park Jo-jun, Lee Jong-yun, Han Cheol-ha, Na Won-yong, Ok Han-heum, Kim Myung-hyuk, and Ha Yong-jo. Additionally, WEA has engaged with the Christian Council of Korea (CCK) and the Korean Church Association (KCA).

- 2. WEA has maintained consistent academic exchanges with the Korean Church. In 2003, Professor Kim Jae-seong(Hapdong Theological Seminary) was appointed as a WEA Theological Committee member. In 2005, WEA and Korean evangelical theologians co-hosted an international symposium at Sungkyul University, addressing theological concerns. Dr. Jung Kyu-nam, then president of Kwangshin University, described this event as a “historical moment in discovering and proclaiming God’s will for 21st-century evangelical theology.”
- 3. In 2007, Rev. Kim Sang-bok(former senior pastor of Hallelujah Church) was elected as WEA President, marking a significant moment for Korean evangelicals to take a leading role in the global evangelical movement.
- 4. Since 2007, CCK(Christian Council of Korea) and WEA have maintained an official partnership for ministry exchange. Then, in June 2009, CCK formally joined WEA as a full member, “aiming to ignite a global evangelization movement”. In 2014, WEA planned to host the Seoul General Assembly, which was approved by WEA headquarters, but the event was later canceled due to internal circumstances.
- 5. Many Korean theologians and pastors who studied at WEA-affiliated seminaries currently serve in major Korean theological institutions and churches.
- 6. At its 104th General Assembly(2019),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Hapdong) officially stated that “WEA’s theological stance does not significantly differ from the theological position our denomination has upheld and pursued, and therefore, severing relations is not advisable.”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한국교회의
세계적 도약

한국교회,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나아가야 할 때

과거 한국교회는 선교와 신학의 흐름을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 복음주의 교회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학이 좌경화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토대로 정통 보수 신학을 지켜 왔습니다. 이제는 ‘K-교회’와 ‘K-신학’을 내세워 세계교회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WEA 총회는 한국교회와 세계 복음주의 교회가 제자훈련으로 무장되어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혈맥입니다.

세계선교의 중심지,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인구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입니다. 이번 WEA 총회는 한국교회가 선교적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계교회와 협력하여 새로운 선교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었습니다.

- 다음세대 신앙교육: 세속화되는 세계 속에서 다음세대에게 제자훈련을 통해 어떻게 올바른 신앙을 계승할 것인가?
- 포스트모던 시대 속 교회의 역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시대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가?
- 디지털 환경과 복음 전파: AI 시대와 환경에서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

한국교회는 이제 글로벌 교회와 협력하며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동북아 선교 이슈 및 남북통일과 북한인권

WEA 서울총회에서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선교사에 대한 안전위험과 박해 등의 이슈에 대해 논의함으로 선교사들의 안정적인 사역을 뒷받침 할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과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UN과 WEA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진보가 나타나도록 할 것입니다.

“WEA 서울총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공유하고, 복음 전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이번 총회는 한국교회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세계 복음주의 교회를 이끌어 갈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세계복음주의 선교의 중심에 설 때입니다.



left
1866년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영국 웨일즈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
Robert Jermain Thomas, the Welsh missionary from Britain who was martyred along the Taedong River in 1866

right
토마스선교사를 파송한 영국 웨일즈의 하노버교회. 이제는 한국교회가 유럽과 영국, 그리고 웨일즈를 향하여 순수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워가야 할 사명에 직면해 있다. The Hanover Church in Wales, which commissioned Robert Jermain Thomas as a missionary. The Korean church is now confronted with the mission of proclaiming the pure gospel and planting churches in Europe, the United Kingdom, and Wales.

top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세계 도처에서 위협받고 있는 종교적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발언을 하고 있는 WEA 인권사무국장 마커스 스테판 호퍼
Markus Stephan Hofer, Director of the WEA Human Rights Office, speaking at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on protecting religious freedom, freedom of conscience, and freedom of expression around the world



朝鮮日報

조선경제 오피니언 정치 사회 국제 건강 스포츠 문화·연예 콘텐츠

정치 > 외교·국방

유엔 "韓 선교사 억류는 불법 구금…北, 즉시 석방하라"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장기억류 중 통일부 "우리 국민을 즉각 무조건 석방하라"

노석조 기자 2025.03.14. 16:35

유엔이 북한의 한국인 선교사 장기 억류를 불법 임의구금으로 규정하고 즉시 석방을 요구했다.

북한 한국인 억류자 김정욱(왼쪽부터), 김국기, 최춘길씨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의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은 13일(현지 시각) 북한에 의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자유 박탈이 임의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WGAD는 의견서에서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라며 "이들을 즉시 석방하고, 보상 및 배상, 독립적 조사,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했다.

북한에 억류중인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왼쪽부터), 김국기, 최춘길씨에 대한 구호활동 중인 한국복음주의협의회(KEA)와 WEA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UN의 인권이사회 국별 정례 인권검토 보고서(UPR)에 등재되는 등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다.
Through the continued efforts of the Korea Evangelical Association (KEA) and WEA advocating for the release of Korean missionaries detained in North Korea—Kim Jung-wook, Kim Kuk-gi, and Choi Chun-gil—the issue became an international concern and was included in the UN Human Rights Council's UPR report.

WEA UNITED NATIONS ADVOCACY

About Geneva New York News

North Korea

WEA KOREA EVANGELICAL FELLOWSHIP PEACECOREA

Universal Periodic Review 47th session - Stakeholders' Repor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bduction of Three South Korean Citizens

8 April 2024

North Korea: Abduction of Three South Korean Citizens – Report to the UPR 47th session

Geneva, Human Rights, North Korea, Reports, UPR / UN Geneva / April 8, 2024

On 8 April 2024,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PeaceCorea, and the Korea Evangelical Fellowship (KEF) submitted a joint report to the Human Rights Council ahead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cheduled for November 2024 during the UPR 47th session. Our joint submission reported on three cases [...]

Read More

UPR

PRE-SESSIONS DATABASE LOGIN EN FR ES

ABOUT US UPR PROCESS GET INVOLVED RESOURCES NEWS & STORIES DONATE

03/12/2024

47th UPR Working Group: Key Highlights

From the 4th of November to the 15th of November,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hosted the 47th session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Working Group.

The 14 States under Review (SuR) during this session were Norway, Albania,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Portugal, Bhutan, Dominica, Republic of Korea, Brunei Darussalam, Costa Rica, Equatorial Guinea, Ethiopia, Qatar and Nicaragua.

The session saw a total of 3,637 recommendations put forth by recommending States. The most frequently, the recommendations concerned the protection of women's and children's rights, abolition of torture, gender based violence,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civil liberties.

On average, States received 246 recommendations. Among the States with the highest number of recommendations were Qatar (317) and Ethiopia (316).

See detailed information by country below.

WEA Key Ministries

WEA 조직 및 주요사역

WEA는 월드비전, 국제YFC, 위클리프협회, 아시아신학협회, CBMC(Connecting Business and Marketplace to Christ: 국제 기독교실업인회), EPC(Evangelical Presbyterian Church: 복음주의장로교연합), IAFR(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fugees: 국제난민협회), 오픈도어선교회, 네비게이토, 구세군,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등 100여개의 선교단체와 9개 대륙별지부로 구성되어 있고, 신학, 선교, 종교자유, 여성, 청소년, IT 등 위원회 사역과 교회성장, 신학의 정립, 글로벌 선교 및 인권보호, 가난퇴치, 평화구축, 국가정책변혁 운동 등을 주요 사역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WEA’s Organization and Major Ministries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is composed of over 100 mission organizations and nine regional branches across continents. Some of its affiliated organizations include World Vision, International YFC, Wycliffe Association,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CBMC (Connecting Business and Marketplace to Christ), EPC (Evangelical Presbyterian Church), IAFR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fugees), Open Doors, Navigators, The Salvation Army, and the World Reformed Fellowship (WRF). WEA’s primary ministries focus on theological development, church growth, global mission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poverty alleviation, peacebuilding, and advocacy for national policy transformation and operates through various committees dedicated to theology, missions, religious freedom, women’s and youth ministries, and IT, etc.

Recent Major Activities 최근 주요 활동



2019년 자카르타 총회부터 제자훈련의 강화를 결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현재는 교육 및 선교활동과 UN 등의 국제연대를 통한 인권활동,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등에서의 구호 활동, 반 동성애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고, 리더십 및 복음적 사회참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파리 하계 올림픽의 개막식을 포함해서 논란이 된 동성애 이슈에 대하여 국제기구로서는 유일하게 비판과 함께 성경적인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의 구출을 위해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평화한국 등과 연대하여 UN인권위의 주요 의제로 삼기까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Recent Major Activities

Since its 2019 General Assembly in Jakarta, WEA has been actively implementing discipleship training as a key initiative. Its current efforts include, educational and missionary activities, human rights advocacy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organizations like the United Nations (UN), relief efforts in regions such as Palestine and Ukraine, anti-gay campaigns, leadership development and evangelical social engagement. Notably, WEA was the only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take a biblical stance against LGBTQ+ issues, including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opening ceremony of the 2024 Paris Summer Olympics. Additionally, WEA continues to advocate for the release of South Korean missionaries detained in North Korea. Collaborating with groups like the Korean Evangelical Association and Peace Korea, WEA is urging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o prioritize this issue.





살아있는 전통 ORTHODOX • 개혁적인 보수 CONSERVATIVE • 순전한 복음 EVANGELICAL

세계복음주의연맹, 한국복음주의협의회의 재구성을 환영하며 종교의 자유를 지지한다

2026년 2월 4일, 한국복음주의협의회(Korean Evangelical Fellowship)는 한국복음주의연맹 (Korean Evangelical Alliance)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복음주의협의회(KEF)는 한국교회 내 복음주의 신앙을 대표하며, 기도와 신학적 성찰, 그리고 공적 대화를 위한 장을 제공해 왔습니다. 한국복음주의연맹(KEA)의 재편은 복음주의 교회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새로운 노력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은 이러한 발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국교회와 연대함을 확 고히 합니다.

동시에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에 관한 보고들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모든 개인에게 본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한 국가의 민주주의 건전성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설교 중에 한 발언을 이유로 목회자들이 조사를 받거나 구금되는 사례가 보고되거나, 정치적 이유로 표적이 되는 상황은 이러한 자유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함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는 특정 입법적 시도가 종교 재단과 교회의 해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보고들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실제로 통과된다면, 종교의 자유, 민주적 통치 원리, 그리고 삼권 분립의 원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은 특히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하여,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호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의 생명과 존엄, 그리고 행복을 확증하며, 그 진리를 전파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 사명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확신을 표현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교회와 사회 모두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는 데 기여합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나라로서, 활력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은 이러한 자유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종교 공동체,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유 가운데 살아가며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개인과 가정, 공동체와 나라를 축복하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6년 3월 4일

세계복음주의연맹(WEA)

*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영어명칭을 World Evangelical Alliance로 변경했지만 한글명칭은 “한국복음주의협의회”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살아있는 전통 ORTHODOX • 개혁적인 보수 CONSERVATIVE • 순전한 복음 EVANGELICAL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Celebrates the Restructuring of the Korean Evangelical Alliance and Affirms Religious Freedom

On 4 February 2026, the Korean Evangelical Fellowship restructured as the Korean Evangelical Alliance (KEA). For decades, the Fellowship has represented evangelical faith in the Korean Church, providing forums for prayer, theological reflection, and public dialogue. The KEA marks a renewed effort to strengthen cooperation among evangelical churches and to offer a unified voice on issues of national and societal importance.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warmly celebrates this development and stands in solidarity with the Church in South Korea.

At the same time, the WEA expresses deep concern regarding recent reports of threats to religious freedom and freedom of expression. These fundamental rights are essential to every individual and serve as a vital measure of a nation's democratic health. Reports of pastors being investigated or detained for remarks made during sermons, or targeted for political reason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safeguarding these freedoms.

We are also attentive to reports that certain legislative initiatives could allow for the dissolution of religious foundations and churches. Such proposals, if enacted, would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principles of religious freedom, democratic governance,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WEA also advocates that protection for religious freedom be kept in place, especially in light of fresh efforts to enac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e Gospel affirms life, dignity, and the well-being of all people, and preaching its truths is central to Christian belief. Respecting the right to express these convictions strengthens both the Church and society.

South Korea is widely recognized as a vibrant democracy, respected for its protection of freedom of religion and expression. The WEA encourages continued dialogue among government authorities, religious communities, and civil society to ensure these freedoms are uphel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e pray that the Church and all its members in South Korea will continue to live and serve freely, using their God-given gifts and callings to bless individuals, families, communities, and the nation, and to advance the Kingdom of God in a peaceful and flourishing society.

March 4, 2026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7 Core Faith Confessions of WEA

WEA 7대 신앙고백

We believe in

우리는 믿습니다.

1 성경은 기록하고 신성한 영감을 받아 오류가 없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신앙과 생활의 모든 문제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믿습니다.

The Holy Scriptures as originally given by God, divinely inspired, infallible, entirely trustworthy and the supreme authority in all matters of faith and conduct.

2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One God, eternally existent in three persons, Father, Son and Holy Spirit.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죄 없으신 인간으로서의 삶, 신성한 기적, 대속적인 속죄의 죽음, 육체적 부활, 승천, 중보자 사역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Our Lord Jesus Christ, God manifest in the flesh, His virgin birth, His sinless human life, His divine miracles, His vicarious and atoning death, His bodily resurrection, His ascension, His mediatorial work, and His personal return in power and glory.

We proclaim the unity of all believers, embracing the core of the Christian faith.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아 모든 성도가 하나됨을 선언합니다.

4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한 구원, 성령에 의한 중생을 믿습니다.

The Salvation of lost and sinful man through the shed blood of the Lord Jesus Christ by faith apart from works, and regeneration by the Holy Spirit.

5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증거하고, 일할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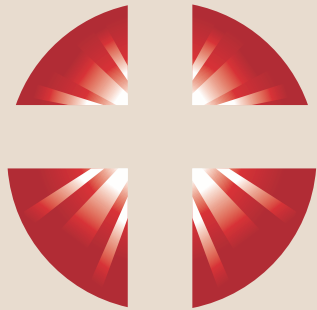
The Holy Spirit by whose indwelling the believer is enabled to live a holy life, to witness and work for the Lord Jesus Christ.

6 성령님 안에서 참된 성도들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믿습니다.

The Unity of the Spirit of all true believers,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7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지 않은 자는 정죄함과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The Resurrection of both the saved and the lost; they that are saved unto the resurrection of life, they that are lost unto the resurrection of dam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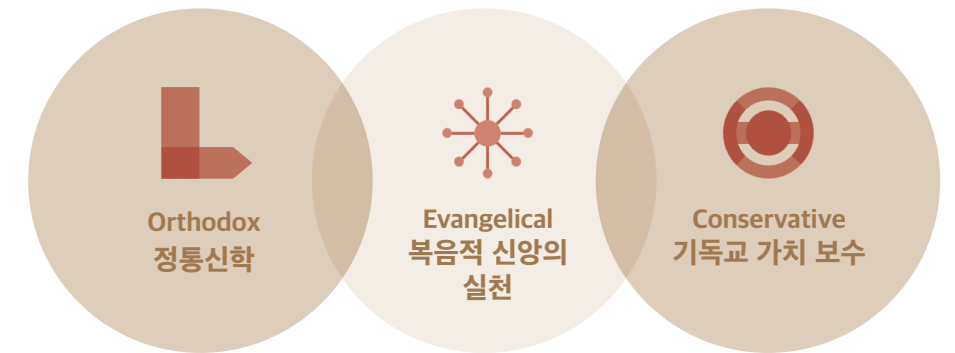


WEA Theological Identity and Historical Tradition

WEA 신학적 정체성과 역사적 전통

WEA는 오늘날 세계 기독교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WEA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연합기구 (1846년 설립) 로서, 성경적인 정통 신학 (orthodox)에 기반한 복음적인 신앙의 실천 (evangelical)과 기독교의 고유한 가치를 보수하는 (conservative) 대표적 기관입니다.



WEA's Historical Legacy in Numbers 숫자로 보는 WEA 역사적 전통

현재 WEA는 전 세계 161개국에 143개의 연합기관을 두고 있으며, 약 6억 5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연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Currently, WEA maintains 143 affiliated national alliances across 161 countries, uniting approximately 650 million Christians around the world who together are devoted to fulfilling the Great Commission of Jesus Christ.

WEA 전 세계 연합기관

WEA Global Alliance Bodies

Approximately 161 countries / 143 affiliate Member

약 **161** 개국의 연맹 **143** 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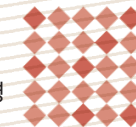


WEA 전 세계 그리스도인

WEA Global Christians

Approximately 650 million believers worldw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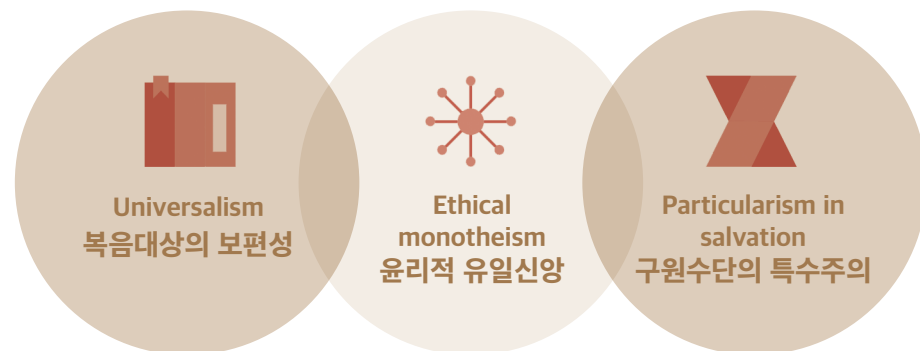
약 **6.5억** 명



WEA's Theological Identity WCC의 신학적 정체성과 구별되는 복음의 진리

WEA는 WCC와는 전혀 다른 기독교 연합체로서 그 근본적인 정체성에서 명확히 구별됩니다. WEA는 소위 포용주의(inclusivism), 혼합주의(syncretism), 종교 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를 부정하며, 오히려 이와 반대로 복음 대상의 보편성(universalism; 사 2:4; 마 28:18-20; 행 1:8), 윤리적 유일신앙(ethical monotheism, 출 20:3; 사 43:11; 막 12:30), 구원 수단의 특수주의(particularism in salvation, 요 14:6; 행 4:12)를 고백합니다.

WEA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WCC) in its theological identity. WEA rejects inclusivism, syncretism, and religious pluralism. Instead, it affirms the universality of the gospel (Acts 2:4; Matthew 28:18-20; Acts 1:8), ethical monotheism (Exodus 20:3; Isaiah 43:11; Mark 12:30), and the particularity of salvation—that salvation is found in Christ alone (John 14:6; Acts 4:12).



세계복음주의신학의 유구한 역사적 전통에서 볼 때, 세계복음주의 연맹(WEA)의 신학은 복음·전통 보수적임을 확인합니다.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ong and faithful historical tradition of global evangelical theology, it can be confirmed that there are no doctrinal problems in the theology of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WEA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 최고(最古)의 복음적 기독교 연합체입니다.

WEA is currently the largest and most representative evangelical Christian alliance in existence worldwide.

WEA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인본주의적 이성 숭배가 창조 질서와 성경의 절대 권위를 거세게 공격하던 19세기, 복음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1846년 영국에서 시작한 기독교 연합체입니다.

WEA began in England in 1846 as a Christian alliance formed to defend evangelical faith in the

nineteenth century, when Charles Darwin's theory of evolution, Karl Marx's communism, and humanistic rationalism were vigorously challenging the biblical doctrines of creation and the absolute authority of Scripture.

현재, 전 세계 161개국에 143개 연합기관을 두고 있으며, 산하에 약 6억 5천만 명에 달하는 복음주의 신자들이 속해 있는 세계 최대, 최고(最古)의 복음적 기독교 연합기구입니다.

Today, WEA maintains 143 affiliated national alliances across 146 countries, encompassing evangelical believers numbering approximately 650 million worldwide, making it the largest and most comprehensive evangelical Christian alliance in the world.

WEA는 신학적 연구 집단이나 교단이 아닌, 복음 전파와 선교, 구제를 목적으로 사역하는 연합체입니다.

WEA is not merely a theological research body or an ecumenical

organization; rather, it is an alliance devoted to evangelism, proclamation of the gospel, and relief efforts.

우리나라에서는 이전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해 왔고 총회 유치를 결의했던 바 있으며,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아시아복음주의연맹을 통해 지금까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In Korea, WEA previously participated through membership in the Christian Council of Korea(CCK) and maintained cooperation for a time. At present, the Korea Evangelical Fellowship continues to collaborate with WEA through the Asia Evangelical Alliance.



WEA의 핵심 가치는 Evangelical(복음), Orthodox(정통), Conservative(보수)입니다. WEA's core values are Evangelical, Orthodox, and Conservative.

WEA는 Evangelical(복음), Orthodox(정통), Conservative(보수)를 핵심 가치로 여깁니다. 첫째, 전 세계에 복음을 확산하고, 둘째, 복음의 가치를 수호하며, 셋째, 신자 간의 교제를 강화함으로써 복음의 순수성을 굳건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WEA regards Evangelical (gospel-centered), Orthodox (doctrinally faithful), and Conservative (biblically grounded) convictions as its central commitments. First, it seeks to spread the gospel worldwide. Second, it works to preserve the values of the gospel. Third, through strengthened fellowship among believers, it upholds and protects the purity of the gospel.



WEA는 WCC와 신학적 입장과 배경이 전혀 다른 연합체입니다. WEA is an alliance that is entirely different from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in its theological stance and background

WEA는 복음주의에 뿌리를 둔 교회들의 연합체로서 영혼 구원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복음 전파와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회심을 선교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기에 사회 구원론이나 다원주의적 입장에 반대합니다.

As an alliance rooted in evangelical churches, WEA places the salvation of souls as its highest goal and emphasizes the need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gospel proclamation and the Church's missionary responsibility. Grounded in Scripture, it affirms evangelism as its ultimate purpose and opposes approaches that redefine salvation primarily in social terms or from pluralistic perspectives.

이와 다르게 WCC는 초교파적 교회 협의체로 포괄적이고 다양한 교단과 교회의 협력을 통해 세계 모든 교회의 일치를 목표로 하며, 사회 변혁과 평화 증진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WCC의 접근 방식은 보편 구원론 성격을 지니며, 구원 사역을 사회 전체의 변혁으로 확장하려는 사회 구원론적 특성을 띠니다.

By contrast, the WCC, as a broad ecumenical body, seeks unity among all churches worldwide through inclusive cooperation across denominations and traditions, and it places social transformation and the promotion of peace among its central priorities. Its approach reflects a universalistic understanding of salvation and tends to expand the concept of redemption toward transformation of society as a whole.

WEA 사역의 목적은 단순한 포용이나 협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진리 수호에 있습니다. WEA가 다른 교단이나 비기독교 신앙 전통과 대화 및 협력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구원의 믿음을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The purpose of WEA's work is not merely inclusion or cooperation, but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and

the preservation of truth. When WEA engages in dialogue or cooperation with other churches or non-Christian traditions, this is viewed as a strategic approach to broaden opportunities for evangelism rather than a compromise of its conviction in the uniqueness of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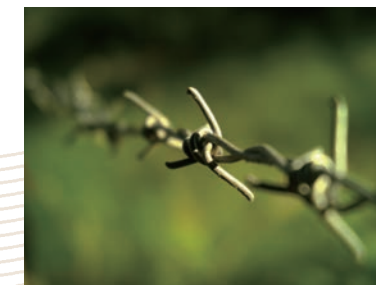


WEA는 종교 다원주의, 무신론적 공산주의 사상, 로마 가톨릭 신학,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 반대합니다. WEA opposes religious pluralism, atheistic communism, Roman Catholic theology, and same-sex marriage.

2019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총회에서 동성애가 성경적 관점에서 죄라는 복음주의적 입장을 확인하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재확인했습니다. WEA는 2024년 파리 올림픽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여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공개적으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At the 2019 General Assembly in Jakarta, Indonesia, WEA reaffirmed a declaration stating that, from a biblical perspective, homosexuality is sin and that it would not compromise on an evangelical position. In relation to the 2024 Paris Olympics, WEA issued a statement publicly and clearly setting forth a biblical viewpoint on issues of sexual identity.

현재, 전 세계 글로벌한 기독교 연합기구 중 LGBTQIA+와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는 단체는 WEA가 유일합니다. At present, among global Christian alliances worldwide, WEA is described as the only body that openly expresses opposition to LGBTQIA+ ideology and religious pluralism.



WEA는 UN 인권위원회와 공식 채널을 통해 종교의 자유와 인권 보호를 국제사회에 강력히 호소합니다. Through its official channels with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WEA actively appeal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protection of religious freedom and human rights.

WEA는 UN 인권위원회의 공식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선교사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을 위한 구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교회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남북통일을 위해 기독교적 입장을 대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y securing official communication channels with the UN Human Rights Council, WEA is working to ensure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missionaries. In particular, it is vigorously conducting advocacy efforts on behalf of Korean missionaries currently detained in North Korea. This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enabling Korean churches to represent a Christian perspective in the international arena regarding North Korean human-rights issues and inter-Korean relations.

9 Evangelical Alliances

9개의 복음주의연합체



세계복음주의연맹은 전 세계를 9개 지역으로 구분하며, 각 지역에는 해당 국가 복음주의 연합체(National Evangelical Alliances)가 소속되어 있다.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divides the world into nine regions, and in each region there are affiliated National Evangelical Alliances.

각 지역 연합과 소속 국가는 다음과 같다.

The regional alliances and their member countries are as follows.

- 1) 남태평양복음주의연맹 (South Pacific Evangelical Alliance)**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등
New Zealand, Papua New Guinea, Australia, and others
- 2) 카리브해복음주의협회 (Evangelical Association of the Caribbean)**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아이티,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등
Jamaica, Barbados, Haiti, Trinidad and Tobago, Saint Lucia, and others
- 3) 유럽복음주의연맹 (European Evangelical Alliance)**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러시아, 영국 등 30여 개국
Austria, Belgium, France, Germany, Italy, Norway, Sweden, Switzerland, Russia, the United Kingdom, and others — more than 30 countries and territories
- 4) 아시아복음주의연맹 (Asia Evangelical Alliance)**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대만 등 20여 개국
Bangladesh, Cambodia, China (Hong Kong), India, Indonesia, Japan, Korea, Malaysia, Mongolia, Myanmar, Nepal, Pakistan, the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 Sri Lanka, Taiwan, and others — over 20 countries and territories
- 5) 중앙아시아복음주의연맹 (Central Asia Evangelical Alliance)**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Uzbekistan, Turkmenistan
- 6) 아프리카복음주의협회 (Association of Evangelicals in Africa)**

짐바브웨 등 45개국
Zimbabwe and 45 other countries
- 7) 북미복음주의연맹 (North American Evangelical Alliance)**

미국, 캐나다
The United States, Canada
- 8) 남미복음주의연맹 (Latin Evangelical Alliance / Alianza Evangélica Latina)**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
Brazil, Chile, Argentina, Colombia, Bolivia, and others
- 9) 중동복음주의연맹 (Middle East Evangelical Alliance / Middle East & North Africa E.A.)**

레바논, 이집트, 요르단, 팔레스타인, 모로코 등
Lebanon, Egypt, Jordan, Palestine, Morocco, and others

Statistics

통계

총회 참석 현황 Attendance at GA

WEA(세계복음주의연맹)는 161개국의 국가복음연맹(NEAs)을 대표합니다.

The WEA represents National Evangelical Alliances (NEAs) from 161 countries

이 161개국 중, 이번 주 총회에는 9개 지역에 걸쳐 124개국이 참여했습니다.

Out of these 161 nations, 124 are represented at this week’s GA across 9 regions

1,500명의 국제 대표단이 등록했고 1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500 international delegates registered (approx. 850 to be able to actually attend)

한국 교회와 디아스포라(해외 거주 한인 교회 등)에서도 5,000명의 대표단이 참석하 였습니다.

4,000 delegates from the Korean church and diaspora will also be attending

전 세계 124개국으로부터 등록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We had registrations submitted from across 124 countries around the world.

지역별 참석자 분포 Distribution

우리는 9개의 글로벌 지역을 두고 있으며, 총회 최종 참석자들의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We have nine global regions and final attendees at the General Assembly were distributed across these regions as follows:

지역명	비율 (%)
아시아 (Asia)	36%
아프리카 (Africa)	21%
북미 (North America)	17%
유럽 (Europe)	12%
라틴 아메리카 (Latin America)	5%
남태평양(South Pacific)	3%
중동 (Middle East)	3%
카리브해 (Caribbean)	1.5%
중앙아시아 (Central Asia)	1.5%

아프리카 주요 국가 Africa: 29 Countries, 182 People

추세를 살펴보면, 위 자료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비중은 71%에 달합니다. 이는 어제 ‘오 퍼레이션 월드’의 제이슨 맨드릭이 발표한 거시적 통계와도 일치합니다:

Looking at the trends, the Global South representation in the above is at 71% percent, a mirror of the larger stats we heard yesterday from Jason Madryk at Operation World:

“복음주의는 대다수 세계의 운동이 되었으며, 7억 명의 신자 중 70%가 아프리카, 아 시아, 라틴 아메리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Evangelicalism has become a majority-world movement, with 70% of its 70 0 million adherents residing in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국가 (Country)	비율 (%)
케냐(Kenya)	27%
부룬디(Burundi)	12%
르완다(Rwanda)	12%
남아공(South Africa)	9%
카메룬(Cameroon)	5%

아시아 주요 국가 (Asia: 21 Countries, 299 People)

국가 (Country)	비율 (%)
인도(India)	29%
파키스탄(Pakistan)	12%
필리핀(Philippines)	11%
네팔(Nepal)	9%
싱가포르(Singapore)	6%

이번 데이터의 핵심은 “젊어진 총회(평균 46세)”와 “아시아-아프리카 중심의 성장”입 니다.

The average age of attendees was 46 – from anecdotal conversations, significantly lower than in previous years.

3

Background & Historical Meanings of Seoul GA

서울총회의 배경과 역사적 의미

이번 서울총회는 복음의 확산과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실제화할 뿐만 아니라 'WEA 서울선언'을 통해 세계복음주의의
대헌장을 마련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거룩한 대 전환(The great turnaround)을 이룰 것입니다.

The Seoul General Assembly will not only materialize the global spread of the gospel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discipleship training but also establish a grand charter for world evangelicalism through the WEA Seoul Declaration. This will lead to a Great Holy Turnaround for the expansion of God's Kingdom.

WEA의 서울총회 개최 청원서

Petition for Hosting the WEA General Assembly in Seoul

비전 및 사명선언

Vision and Mission Statement

서울총회 의미

Significance of Seoul WEA GA

인터뷰

Interviews

언론 보도

Press Release



19 May 2024

Rev. Dr. Jung-Hyun John Oh,
SaRang Church
121 Banpo-daero,
Seocho District, Seoul
South Korea

Dear Rev. Dr. Jung-Hyun John Oh,

Greetings in the nam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Allow me, on behalf of WEA to express our deep and sincere appreciation for receiving our delegation and taking time out from your very busy schedule especially during this time of the 7,000 Prayer Warrior Campaign. We also deeply appreciate your willingness to engage our former S.G Dr. Thomas Schirrmaccher, WEA Ambassador Bishop Efraim Tendero together with our Director for Korean Liaison and Development, Rev Dr. Jeremy Lim leading up to our visit. We were blessed and inspired by both the Dawn Prayer meeting on Saturday and the moving message and the great food and fellowship as well as your generous gifts on Pentecost Sunday.

Following that fellowship and the discussions, I would like, on behalf of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to kindly and humbly request for your and SaRang Church's prayerful consideration of hosting our General Assembly 27-31 October 2025.

The General Assembly serves to ensure that WEA is constitutionally compliant, organizationally accountable, strategically and spiritually relevant to our members in the times we live in. Our constitution requires this body to have a General Assembly once every six years. Our last one was in Jakarta, Indonesia in 2019 where we declared this third decade as 'Decade of Discipleship'.

WEA was founded in 1846 through coming together of nations for prayer, for the proclamation and expansion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for advocacy for religious liberty and those who are persecuted for their Christian faith. Today, globally, WEA represents 600 million evangelicals, and our vision and purpose is to unite evangelicals for Gospel witness, discipleship, and transformation. WEA serves as the only unique platform and voice for unity, collaboration and advocacy for evangelical presence and gospel proclamation in the world. The WEA GA seeks to bring 1,000 leaders and delegates from national alliances representing 143 countries and 9 regional alliances, that make up the membership of the WEA, together with global partners and emerging younger leaders to South Korea for this significant event in WEA's calendar.

Within that week of 27-31 of October 2025, underpinned by our commitment to evangelical-conservative-orthodox theology, we will review our organization's past operations with prayer and repentance; we will examine the present; and by partnering with the Church in Korea, together, through the General Assembly we will aspire to bring the whole Gospel to every person on earth by 2033.

With humility, we therefore seek your prayerful consideration to host this event at SaRang Church.

Rev. Dr. Goodwill Shana
Executive Chair
World Evangelical Alliance



2024년 5월 19일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121 Banpo-daero,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

오정현 목사님께,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7,000 기도 전사 캠페인이 진행되는 이 시기에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대표단을 받아주시고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WEA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방문을 위해 전 총무 토마스 쉬르마허 박사와 WEA 홍보대사 에프라임 텐데로 주교, 한국 연락 및 개발국장 제레미 림 목사를 기꺼이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새벽기도회와 오순절 주일에 감동적인 메시지, 맛있는 음식과 교제, 그리고 아낌없이 주신 선물로 저희는 큰 축복과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간의 교제와 논의에 이어, 저는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을 대표하여 2025년 10월 27-31일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사랑의교회의 기도로 배려해 주시기를 정중하고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총회는 WEA가 헌법을 준수하고, 조직적으로 책임을 지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 회원들에게 전략적으로나 영적으로 관련성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이 단체는 6년에 한 번씩 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지난 2019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우리는 이 세 번째 10년을 '제자 훈련의 10년'으로 선포했습니다.

WEA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확장하며,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을 옹호하기 위해 1846년 각국이 모여 기도하며 설립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6억 명의 복음주의자들을 대표하는 WEA의 비전과 목적은 복음 증거, 제자 훈련, 변화를 위해 복음주의자들을 연합하는 것입니다. WEA는 세계에서 복음주의의 존재와 복음 선포를 위한 연합, 협력, 옹호를 위한 유일무이한 플랫폼이자 목소리 역할을 합니다. WEA 총회는 WEA의 회원을 구성하는 143개국과 9개 지역연맹을 대표하는 1,000명의 지도자와 대표,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와 떠오르는 젊은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WEA의 중요한 행사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 동안 복음주의-보수주의-정통주의 신학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 기초하여, 우리는 기도와 회개로 우리 단체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점검하며, 한국 교회와 협력하여 총회를 통해 2033년까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열망할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사랑교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Rev. Dr. Goodwill Shana
Executive Chair
World Evangelical Alliance

Vision and Mission Statement

비전 및 사명선언

Seoul General Assembly Vision 서울총회 비전

1

순수복음의 확고한
정립과 강력한 확산의
글로벌 모멘텀 마련

Establishing a firm foundation for the pure gospel and creating a strong global momentum for its expansion.

2

세계복음주의권과 함께
하는 책임있는 주류로서
의 한국교회 위상 정립

Solidifying the status of the Korean church as a responsible mainstream presence in the global evangelical community.

3

글로벌 교회와 리더의
참여 활성화로 WEA의
역량 강화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WEA by fostering active participation from global churches and leaders.

Seoul General Assembly Mission Statement 서울총회 사명선언

분단국 최초이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그리고 동북아시아에 처음으로 열리는 서울총회는 “살아있는 정통 · 개혁적인 보수 · 순전한 복음”이라는 WEA의 활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세계 지역별 이슈와 신학적 도전에 대한 성경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더 나아가 향후 세계교회의 복음적인 가치와 기준을 제시함으로 세계 선교의 활성화와 제자 훈련의 확산과 적용을 통해 각국의 교회들을 더 견고히 구축함으로 복음의 확산과 이의 적용을 강력히 추진하는 계기로 삼는다.

As the first-ever General Assembly held in a divided nation, the first in Northeast Asia, and the first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Seoul General Assembly reaffirms WEA's core objectives of “Living Orthodoxy, Reformed Conservatism, and Pure Gospel.” It seeks to explore biblical solutions to theological challenges and regional issues worldwide. Furthermore, by presenting evangelical values and standards for the global church, this assembly aims to reinforce churches in each nation through the expansion of world missions and discipleship training, actively promoting the spread and application of the gospel.

WEA Core Objectives WEA 핵심목표

Living
Orthodoxy
살아있는 정통

Reformed
Conservatism
개혁적인 보수

Pure
Gospel
순전한 복음

아울러 한국교회의 글로벌 향도로서의 시대적인 책임을 확인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기여한다.

Additionally, the Seoul General Assembly acknowledges the historical responsibility of the Korean church as a global spiritual leader and seeks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God's kingdom by strengthening international solidarity.

Significance of Seoul WEA GA

서울총회 의미

“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행16:9-10)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concluding that God had called us to preach the gospel to them”(Acts 16:9-10)

‘WEA 서울선언’을 통한 세계복음주의의 거룩한 전환점

이번 서울총회는 복음의 확산과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실재화할 뿐만 아니라 ‘WEA 서울선언’을 통해 세계복음주의의 대헌장을 마련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거룩한 대전환(The great turnaround) 을 이룰 것입니다.

A Holy Turning Point for Global Evangelicalism through the ‘WEA Seoul Declaration’

The Seoul General Assembly will not only materialize the global spread of the gospel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discipleship training but also establish a grand charter for world evangelicalism through the WEA Seoul Declaration. This will lead to a Great Holy Turnaround for the expansion of God’s Kingdom.





1

Vision for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WEA 서울총회를 향한 비전

WEA 서울총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더욱 확고히 세우고, 이를 전 세계로 확산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세계복음주의의 중심에서 책임 있는 리더십을 감당하며, 글로벌 교회와 리더들이 하나 되어 복음 전파의 강력한 흐름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will serve as a historic turning point in firmly upholding the purity of the gospel and spreading it worldwide. The Korean Church will take a leadership role at the center of global evangelicalism, uniting with churches and leaders worldwide to create a powerful movement for gospel proclamation.

2

WEA’s Mission to Establish Healthy Faith Communities through Discipleship Training

WEA는 제자훈련을 통해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WEA는 2019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총회에서 “향후 10년간 제자훈련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사명과 방향성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의 강점인 제자훈련의 노하우와 사역적 모델을 WEA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 교회의 다양한 문화와 지역적 특성에 맞게 확장하여, 새로운 차원의 국제적 훈련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신앙 성숙과 사역 역량 강화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복음 전파의 전략적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할 것입니다.

During the 2019 Jakarta General Assembly, WEA declared a ‘10-year focus on discipleship training’, further defining the mission and direction of global evangelical churches.

The Korean Church, known for its strength in discipleship training, will collaborate with WEA to develop an international training system that adapts to various cultural and regional contexts of the global church. This initiative aims to strengthen the spiritual maturity and ministry capacity of evangelical churches worldwide and establish a solid strategic foundation for gospel proclamation.



3

The expectations beyond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WEA and the Korean Church as a Holy Breakwater for the Global Church

WEA 서울총회 이후, WEA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거룩한 방파제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WEA와 한국교회의 협력을 통해 유럽 재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며, 그 선교적 열매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영적 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2024년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를 통해 한국 사회에 불어온 ‘창조 질서와 성경적 가치’ 수호의 거룩한 바람이 2025년 WEA 서울총회를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될 것입니다. 또한, WEA 네트워크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시대의 도전에 맞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강력한 연합체로 자리 잡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Through the collaboration between WEA and the Korean Church, efforts will be made to re-evangelize Europe and advance global missions. The fruit of these mission efforts will serve as a spiritual driving force for the revival and growth of the Korean Church. On October 27, 2024, the “2 Million Korean Church United Worship & Great Prayer Rally” will reinforce the movement to protect biblical values and divine order in Korean society. This movement will further spread worldwide through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Additionally, the WEA network will establish itself as a holy breakwater for both the Korean Church and the global evangelical community, standing firm against the challenges of the times and safeguarding the truth of the gospel through a strong alliance.



4

Soaring Toward the 2033-50 Vision

‘2033-50 비전’으로 비상하라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2천년이 되는 2033년에 대한민국 국민의 50%가 복음화 되는 2033-50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번 서울총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2033-50 비전이 세계의 2033-50 비전으로 승화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전 세계로부터 서울총회와 연합집회에 참석하는 WEA 대표단과 선교 관계자,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목회자가 동일한 비전으로 무장하여 세계복음화를 향한 전환점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God has instilled the 2033-50 Vision, envisioning that by 2033, marking 2,000 years since Jesus' ascension, 50% of South Korea's population will be evangelized. The Seoul General Assembly will work toward elevating Korea's 2033-50 Vision into a global vision. Delegates from WEA, mission leaders, and Korean diaspora church pastors attending the General Assembly and united gatherings will be equipped with the same vision, creating a global turning point for world evangelization.



WEA총회(General Assembly)는 6년마다 한 번씩 개최됩니다.

제13차 총회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렸으며, 이번 서울총회는 제14차 총회입니다.

The WEA General Assembly is held once every six years.

The 13th General Assembly took place in Jakarta, Indonesia. The 14th General Assembly will be hosted in Seoul, South Korea.



국민일보

“한국교회 ‘성령운동·제자훈련’ 영적 자산 세계와 나눌 때” “When the Korean Church Shares Its Spiritual Assets of the Holy Spirit Movement and Discipleship Training with the World”

글 사진 국민일보 제공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를 앞두고 ‘2025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오정현(사랑의교회) 목사가 만나 한국교회의 화합과 부흥, 세계 복음주의 교회 성장을 위한 기여 방안, 복음 통일의 초석 등을 주제로 대담했다. WEA 서울총회는 오는 27일부터 닷새동안 진행된다. 두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 성령운동과 제자훈련 전통 위에 성장한 한국교회의 경험을 세계교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할 때라는데 공감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사랑의교회의 다음 리더십에 대한 구상도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이 목사와 오 목사의 대담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기사 바로보기

WEA 전통은 구원의 유일성과 성경 권위 위에 서 있고 복음안에서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는 데 있다.
WEA’s tradition stands firmly on the exclusivity of salvation and the authority of Scripture, and seeks to realize a history in which the world becomes one in the gospel.

Ahead of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Rev. Lee Young-hoon (Yoido Full Gospel Church) and Rev. Oh Jung-hyun (SaRang Church), co-chairs of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Organizing Committee, met for an in-depth conversation on unity and revival within the Korean church, contributions to the growth of the global evangelical movement, and laying foundations for gospel-centered reunification.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will take place for five days beginning on the 27th. Both pastors agreed that the time has come for the Korean church—shaped by traditions of the Word and prayer, the Holy Spirit movement, and discipleship training—to actively share its experience with the global church. They also revealed, for the first time to the media, their visions for future leadership at Yoido Full Gospel Church and SaRang Church. The interview was conducted on the 21st at Kookmin Ilbo’s conference hall in Yoido, Seoul.

진행=우성규 종교부장

WEA를 둘러싼 오랜 오해가 있다.
Long-Standing Misunderstandings Surrounding WEA
이 목사 WEA 전통은 구원의 유일성과 성경 권위 위에 서 있고 복음안에서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는 데 있다. 한국교회 안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있다. 실질적 내용을 파악하기에 앞서 문제를 제기한 점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WEA의 신학 정체성은 흔들림 없이 분명하다. 세계교회협의회(WCC)와는 완전 다르다. 복음주의와 보수주의 전통에 입각해 교회가 연합한 단체가 바로 WEA다.
오 목사 1846년 WEA는 유물론과 진화론,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기 위해 태동했다. 순전한 복음과 개혁적 보수, 살아있는 정통을 지향했던 WEA의 초기 정신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동안 교계에 WEA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속해서 알려왔다. 이단이나 로마가톨릭과의 협력, 신사도 운동 등과의 연관성, 절대 없다. 나를 둘러싼 근거 없는 오해까지 있다. 안타깝다. 분명히 말하지만 23년 동안 사랑의교회 강단을 ‘프로테스탄트의 자부심’으로 지키고 있다. 예수·복음·진리 아니면 죽겠다는 각오로 목회했다. 이걸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다. K컬처가 세계적으로 인기인데 이제는 한국교회의 강점을 세계로 끌고 나가야 할 때다. 우리 두 교회의 성령대망회나 특별새벽부흥회도 세계와 공유할 자산이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랑의교회가 속한 예정합동 총회와 깊이 교류하는 미국웨스트민스터신학교나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등이 WEA에서 활동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문제 제기와 공격 대신 대화해야 한다.
Rev. Lee stated, “WEA’s tradition stands firmly on the exclusivity of salvation

사진_신석현 포토그래퍼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왼쪽),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대회의실에서 한국 복음주의 교회의 성장과 세계교회를 위한 기여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있다.
Rev. Dr. Lee Young-hoon (left), pastor of Yoido Full Gospel Church, and Rev. Dr. Oh Jung-hyun, pastor of SaRang Church, explain the growth of Korean evangelical churches and their contribution to the global Church at the Kukmin Ilbo conference hall in Yeouido, Seoul, on the 21st. Photo by Shin Seok-hyun.

and the authority of Scripture, and seeks to realize a history in which the world becomes one in the gospel. Within the Korean church, there has sometimes been ‘criticism for the sake of criticism’ without clear evidence. We should reflect on whether issues have been raised before examining the actual substance. WEA’s theological identity remains unwavering and clear. It is entirely different from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WEA is an alliance of churches united on evangelical and conservative foundations.”

Rev. Oh added, “Founded in 1846, WEA emerged to resist materialism, evolutionary theory, and liberal theology. Its original spirit—pursuing a pure gospel, reforming conservatism, and living orthodoxy—remains valid today. I have continually explained WEA’s history and identity within the church world. There is absolutely no connection with heretical groups, Roman Catholic cooperation, or the New Apostolic movement. I myself have even been subject to baseless misunderstandings. It is regrettable. Let me state clearly that for twenty-three years I have preserved SaRang Church’s pulpit as a ‘Protestant stronghold.’ I have pastored with the resolve to live or die for Jesus, the gospel, and the truth. Pastor Lee has done the same. With Korean culture gaining global attention, it is now time to bring the strengths of the Korean church to the world. Our two churches’ major Holy Spirit gatherings and special dawn revival services are also assets to be shared globally.”

He continued, “We must keep open minds. Institutions such as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Reformed Fellowship, which maintain close ties with the Hapdong denomination to which SaRang Church belongs, are active within WEA. Rather than unconditional criticism and attacks, we should pursue dialogue.”

서울총회에서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깊이 논의한다.
Discipleship Training at the Center of the Seoul Assembly
오 목사 한국교회는 말씀과 기도, 헌신이라는 독특한 영적 자본을 지녔다. 세계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요,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교회이며, 헌신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교회다. 조용기 목사님은 성령 사역, 옥한흠 목사님은 제자훈련이라는 두 기둥을 세우셨다. 두 분의 후임인 이 목사님과 나도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 훈련받아 2기 사역을 이끌고 있다.

Rev. Oh emphasized, “The Korean church possesses a unique spiritual capital of the Word, prayer, and dedication. It is known worldwide for its prayer, for receiving the Bible before missionaries arrived, and for unmatched devotion. Pastor David Yonggi Cho established the pillar of Holy Spirit ministry, and Pastor Ok Han-heum built the pillar of discipleship training. Pastor Lee and I, as their successors, were trained by these senior pastors and are now leading a second generation of ministry.”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을 뭐라고 생각하나.
The Greatest Challenges Facing the Korean Church
이 목사 편 가르기가 심각하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름을 곧바로 틀리다고 규정하는 식이다. 교단이 사분오열된 것도 결국 이런 문제에 기인한다. 큰 아픔이다. 더 나아가 교권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며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20세기 초 신앙의 선배들은 교육 의료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을 이끌었다.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제 분열과 반목을 극복하고 더욱더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서울총회를 기점으로 한국교회는 하나 되고 사회적 신뢰와 영적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The Greatest Challenges Facing the Korean Church

Rev. Lee responded, “Factionalism is severe. Differences are not respected but immediately labeled as wrong. The fragmentation of denominations stems from this. It is deeply painful. Beyond this, clericalism and materialism have eroded the church’s credibility in society. Our predecessors in faith once led in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사랑의교회의 디모데를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다. Paul had Timothy, we are now seeking to raise SaRang Church’s own ‘Timothies.’

education, medicine, and social culture—achievements possible because they worked together. Now we must overcome division and hostility and take the lead in serving the socially vulnerable. I believe the Seoul Assembly can become a turning point for the Korean church to unite and recover both social trust and spiritual vitality.”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사랑의교회의 차기 리더십을 모색할 시기가 다가온다. Preparing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hip

오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사랑의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성장했다. 2대인 나는 옥한흠 목사님의 비움 목회를 통해 섬김의 목회를 실천하고 있다. 3대도 잘 돼야 한다. 제자훈련 DNA로 성장한 사랑의교회는 순조롭게 3세대로 전환할 것이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사랑의교회의 디모데를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동사 목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 목사 조용기 목사님이 언젠가 편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돌아보니 모두 ‘하나님의 예정’에 속했었다”고 하셨었다.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셨던 조 목사님은 장로님들께 ‘성령의 감동을 따라 후임 목사를 투표를 통해 선택하시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셨다. 아름다운 전통이다. 성령운동 DNA를 가진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앞으로도 이런 전통을 따라 지도력을 전환할 것이다. 한편 젊은 사역자 양성을 위해 여의도순복음교회 산하 조직인 세계교회성장연구원을 통해 ‘한국교회 미래 리더 네트워크’를 확장하려고 노력 중이다.

Rev. Oh said, “Yoido Full Gospel Church grew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while SaRang Church grew through discipleship training. As the second generation, I practice servant leadership shaped by Pastor Ok Han-heum’s ministry of emptying oneself. The third generation must also flourish. SaRang Church, nurtured by discipleship training DNA, will transition smoothly. Just as Paul had Timothy, we are now seeking to raise SaRang Church’s own ‘Timothies.’ Beginning next year, we plan to move toward co-pastor leadership.” Rev. Lee added, “Pastor Cho once reflected, ‘Looking back, everything in my ministry belonged to God’s providence.’ Emphasizing divine election, he urged elders to choose a successor through prayerful voting led by the Holy Spirit. This is a beautiful tradition. Yoido Full Gospel Church, with its Holy Spirit movement DNA, will continue to follow such practices. We are also expanding the ‘Korean Church Future Leaders Network’ through the Church Growth Institute under Yoido Full Gospel Church in order to nurture younger ministers.”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브리지 역할을 해야 한다. The Korean church must serve as a bridge for global missions.

한국교회가 감당할 글로벌 사명은 무엇인가. The Global Mission of the Korean Church 오 목사 전 세계 기독교가 당면한 4가지 어려움이 있다. 색깔로 설명하는데 빨간색(유물론·문화 막시즘)과 레인보우(동성애 문제), 회색(세속적 신앙), 검은색(극단적 이슬람) 등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더욱더 복음 선포에 힘쓰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한다. WEA는 2019년 자카르타에서 열린 총회에서 복음주의 확산의 길을 제자훈련으로 규정했다. 제자훈련 국제화를 시도하는 이유다. 오랜 세월 선교가 강대국에서 약소국으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흘러갔다면 이젠 바뀌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향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기여가 여기에 있다.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브리지 역할을 해야 한다. 식민지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가 선교지의 아픔을 이해하며 복음을 누구보다 잘 전할 수 있다. Rev. Oh identified four major global challenges: “Red—materialism and cultural Marxism; rainbow—issues surrounding homosexuality; gray—secularized faith; and black—extremist Islam. To respond, we must intensify gospel proclamation and the work of saving souls. At the 2019 Jakarta Assembly, WEA designated discipleship training as the path for expanding evangelical faith, which is why it is now pursuing the internationalization of discipleship training. Whereas mission once flowed from strong nations to weaker ones and from developed countries to developing ones, that pattern has changed. The gospel must now move from places where its power is evident to places where it is lacking. This is where the Korean church can contribute. The Korean church must serve as a bridge for global missions. Having experienced colonization, our nation understands the pain of mission fields and can communicate the gospel with special effectiveness.”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부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What Should New Revival Look Like in a Changing Era?

이 목사 대한민국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 WEA 서울총회를 통해 교회가 우리나라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걸 알려야 한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교회 공동체와 우리 사회에 한 번 더 알려주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서울총회가 대한민국의 부흥과 성장, 성숙에 교회가 기여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더불어 이런 역할을 감당할 교회로 더욱더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휴전선이 무너지고 북한과 복음 통일, 결국 하나 되길 간절히 바란다. 오 목사 일론 머스크에게 20억명이 연결돼 있다고 한다. 복음도 이런 엄청난, 상상을

WEA 서울총회를 통해 교회가
우리나라를 살리는 생명의 근
원이 된다는 걸 알려야 한다.
Through the WEA Seoul
Assembly, we must
proclaim again that the
church is a source of life
for this nation.

초월하는 영향력으로 확산해야 한다. 정면 돌파(Breakthrough) 해야 한다. 복음으로 모든 한계를 뚫어야 한다. 한국교회가 복음 전파의 한계를 넘어 무한대로 향한다는 희망을 품고 꿈틀키우자. ‘2033-50 비전’(2033년까지 국민 50%의 신자화)과 ‘357비전’(3년 내 한국교회 국제화·5년 내 미국교회와 협력해 중국교회 섬기기·7년 내 평양에서 특별새벽부흥회 개최)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 또한 모든 성도가 영혼 구원에 당장 헌신하자는 의미로 ‘올 핸드 온 덱(Allhands on deck)’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일에는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WEA 서울총회가 그동안의 오해의 시간을 딛고 새롭게 나아가는 분기점이 되길 바란다. 한국이 세계선교에 기여하는 전환점이 이번 서울총회가 되길 바라며 기도한다.

Rev. Lee said, “The only hope for Korea is the church. Through the WEA Seoul Assembly, we must proclaim again that the church is a source of life for this nation. It should become an occasion to reaffirm the power of the gospel within the church community and society, and to recognize how the church contributes to Korea’s revival, growth, and maturity. I also earnestly hope that the church will be firmly established as an institution capable of carrying out this role. Finally, I long for the collapse of the armistice line and for gospel-centered reunification with North Korea.”

Rev. Oh concluded, “It is said that two billion people are connected to Elon Musk. The gospel, too, must spread with such unimaginable influence. We must press forward in breakthrough. We must shatter every limit through the gospel. Let the Korean church dream and cultivate hope of moving beyond every boundary in proclaiming Christ. I am praying for the ‘2033-50 Vision’—that 50 percent of the nation will believe in Jesus by 2033—and for the ‘357 Vision’: internationalizing the Korean church within three years, partnering with American churches to serve the Chinese church within five years, and holding special dawn revival services in Pyongyang within seven years. I also emphasize ‘All hands on deck,’ calling every believer—from children to adults—to commit immediately to saving souls. I pray that this Seoul Assembly will mark a turning point beyond years of misunderstanding and that it will become a decisive moment in Korea’s contribution to world missions.”

정리 장창일, 박윤서 기자 COPYRIGHT BY KUKMINILBO ALL RIGHTS RESERVED.



기사 바로보기
Read the Full Article



이영훈 목사의 WEA 총회 참여, 화합의 리더십으로 Rev. Dr. Lee Young-hoon’s Participation in the WEA General Assembly: A Leadership of Reconciliation Beyond “Provisional Suspension”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회장)
Rev. Dr. Lee Young-hoon, Senior Pastor of Yoido Full Gospel Church and Representative Chairman of the Assemblies of God of Korea

한국교회가 분열을 넘어 연합으로, 고립을 넘어 협력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Attention is now focused on whether the Korean church can seize this moment as a turning point—moving beyond division toward unity, and beyond isolation toward cooperation.



세계 복음주의 리더십을 향해
Toward Global Evangelical Leadership

이번 2025 WEA 서울총회는 ▲제자훈련의 국제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과의 연대 ▲복음적 평화통일 추진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한 선교 운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set forth goals including the internationalization of discipleship training, solidarity with persecuted Christians, and the promotion of evangelical efforts toward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se initiatives are envisioned not as a one-time event but as the foundation for a sustainable global missionary movement.

또한 ‘살아있는 정통, 개혁적인 보수, 순전한 복음’ 비전은 보수와 진보, 전통과 혁신을 아우르는 새로운 복음주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In addition, the vision of “living orthodoxy, reformed conservatism, and a pure gospel” presents a new evangelical paradigm that embraces both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as well as tradition and innovation.

논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영훈 목사의 50여 년간 일관된 연합 정신과 글로벌 선교 경험을 고려할 때, 이번 역할은 그가 평생 준비해온 사역의 자연스러운 결실로 보인다. 한국교회가 분열을 넘어 연합으로, 고립을 넘어 협력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spite ongoing controversies and challenges, considering Rev. Lee Young-hoon’s more than fifty years of consistent commitment to Christian unity and his extensive experience in global missions, his role in this assembly appears to be the natural fruit of a lifetime of preparation for such ministry. Attention is now focused on whether the Korean church can seize this moment as a turning point—moving beyond division toward unity, and beyond isolation toward cooperation.



기사 바로보기
Read the Full Article



이영훈 목사 특별 메시지 “말씀을 벗어난 어떤 성령 운동도 인정할 수 없다” “Any Movement of the Holy Spirit That Strays from the Word Cannot Be Accepted”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WEA서울총회 공동조직위원장)은 10월 27일 오후 개최된 2025서울총회에서 “교회 부흥과 성령사역”이라는 주제의 특별메시지를 통해 “성령사역의 토대는 말씀과 기도다. 말씀을 벗어난 어떤 운동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 말씀의 기초에 서서 말씀 사역을 해야 한다.
live a life thoroughly centered on the Word and to engage in ministry grounded in Scripture

Rev. Dr. Lee Young-hoon, Senior Pastor of Yoido Full Gospel Church and Co-Chair of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Organizing Committee, delivered a special message titled “Church Revival an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t the opening session of the 2025 Seoul General Assembly on the afternoon of October 27. In his address, he stressed, “The foundation of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s the Word and prayer. Any movement that departs from the Word cannot be recognized.”

또한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 말씀의 기초에 서서 말씀 사역을 해야 한다.”며 “한국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 성경이 먼저 들어와 예수 믿고 교회를 세운 특별한 나라다. 그 다음에 선교사가 들어왔다.”며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도전했다.

He further urged believers to “live a life thoroughly centered on the Word and to engage in ministry grounded in Scripture,” adding, “Korea is a unique nation where the Bible arrived first, leading people to faith in Jesus Christ and the establishment of churches, before missionaries later entered the country.” He challenged the Korean church to rise again through a renewed commitment to God’s Word.

이영훈 목사는 “성령사역의 출발점은 회개운동”이라며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도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 할꼬’ 하며 가슴을 치며 물었다. 회개가 모든 부흥운동의 출발점이다. 매순간마다 철저한 반성과 회개를 해야 한다. 철저한 눈물의 기도와 회개가 선행될 때 부흥을 주신다.”고 도전했다.

He also declared that “the starting point of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s a movement of repentance,” explaining, “Even after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at Pentecost, those who heard the apostles’ teaching cried out, ‘What shall we do?’ with broken hearts. Repentance is the beginning of every revival. At every moment we must engage in thorough self-examination and repentance. When earnest prayers with tears and repentance come first, God grants revival.”



WEA 서울 총회 공동위원장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
Senior Pastor of SaRang Church Oh Jung-hyun,
Co-Chair of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사명 감당할 능력 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When You Ask for the Strength to Fulfill Your Calling, Miracles Happen”



“주님이 다 아시고, 진실이 승리한다”
“The Lord Knows Everything, and the Truth Will Prevail”
오 목사는 “몹시 힘들 때 ‘주님이 다 아시고, 진실이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버텨 냈다”고 말한다.
“이사야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if’가 아니라 ‘when’입니다. 물과 불 가운데 ‘들어가면’이 아닌 ‘들어갈때’입니다. 800도에서는 ‘도기(陶器)’가 되고 1300도에서는 아름다운 ‘자기(瓷器)’가 탄생합니다. 적당히 두드리면 그냥 칼이지만, 두드리고



기사 바로보기
Read the Full Article



물속과 불 속을 되풀이해서 통과하면 명검(名劍)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시련을 통과하고 나서 영적(靈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오 목사는 교인들을 생각하며 힘든 상황을 이겨 냈고, 3000명의 순장 동지들이 있어 마음에 든든했다고 한다. “이제 건축 관련 문제도 거의 마무리되었고, 서초구에 우리가 할 분량만큼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Rev. Oh Jung-hyun, Senior Pastor of SaRang Church and Co-Chair of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recalls enduring extremely difficult times with one conviction: “The Lord knows everything, and the truth will prevail.”

He shared that Isaiah 43:2 sustained him through those trials: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s, I will be with you; and when you pass through the rivers, they will not sweep over you. When you walk through the fire, you will not be burned; the flames will not set you ablaze.”

Rev. Oh emphasized that the passage says “when,” not “if.” “It is not ‘if you enter the waters and fire,’ but ‘when you do.’ At 800 degrees, clay becomes simple earthenware; at 1,300 degrees, it becomes beautiful porcelain. When metal is lightly hammered, it is merely a knife; but when it is repeatedly beaten and passed through water and fire, it becomes a legendary sword. After passing through overwhelming trials, I gained spiritual freedom.”

He added that his concern for the congregation helped him endure the hardships, and that the presence of 3,000 cell leaders standing with him gave him great strength. “Most of the construction-related issues are now nearly resolved, and we are faithfully serving the Seocho District in the measure entrusted to us,” he said.



한국교회 성도들의 강한 믿음입니다. 매일 새벽에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교회가 있다는 게 큰 힘입니다.

It is the strong faith of Korean Christians. This is a nation where at least one million people pray at dawn every day. The presence of the church itself is a great source of strength.

“교회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희망”

“The Church Is the Only Hope for Our Nation”

옥한흠 목사 15주기 기념예배에서 오정현 목사가 3000명의 순장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궁금했다.

“매년 기념예배를 드리는데, 15년을 종합하니까 옥 목사님에 대해 생각나는 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복음(福音)입니다. 로마서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고 했어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둘째, 교회입니다. 교회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갈등 구조가 너무 심해요.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뜻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희망은 딱 하나, 교회라고 말합니다.”

오정현 목사는 중국보다 인구가 적고, 일본보다 경제가 약하고, 러시아보다 땅이 작지만 대한민국이 강한 게 있다고 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강한 믿음입니다. 매일 새벽에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교회가 있다는 게 큰 힘입니다.”

At the memorial service marking the 15th anniversary of the late Rev. Ok Han-heum’s passing, many were curious about the message Rev. Oh delivered to 3,000 cell leaders.

“Each year we hold a memorial service, and after reflecting on fifteen years, three things stood out about Pastor Ok,” he said.

“First, the gospel. Romans tells us that ‘the gospel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We must hear the gospel and share grace through it.

Second, the church. The church is the only hope. Our society is deeply divided. Some even say this nation has no future. Yet thoughtful leaders agree that there is only one hope for our country—the church.”

Rev. Oh noted that although South Korea has a smaller population than China, a weaker economy than Japan, and less land than Russia, it possesses a unique strength.

“It is the strong faith of Korean Christians. This is a nation where at least one million people pray at dawn every day. The presence of the church itself is a great source of strength.”

세계복음주의연맹 총회 개최

Hosting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General Assembly

지난 9월 4일 WEA 서울 총회 종합설명회 모습. 총회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사랑



의교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다.

오정현 목사는 세계교회 섬김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세계복음주의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WEA)의 요청이 있어서 10월 27~31일 제14차 WEA 총회를 열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사랑의교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목사 이영훈)에서 열리는 14차 WEA 서울 총회에서 오정현 목사는 이영훈 목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WEA는 1846년 영국 런던에서 출범한 세계 최대이자 가장 오래된 복음주의 연합기구다. 146개국의 143연맹으로 구성되어 있고, 9개 지부 6억 5천만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모임으로 선교와 신학, 종교 자유 옹호, 사회 정의, 구호 활동 등을 펼친다. 또한 전도와 교회 개척 지원, 성경 번역과 복음주의 신학 발전을 연구하고 유엔과 협력해 세계 인권 문제와 종교 자유 보장 활동도 벌인다.

“WEA 서울 총회는 한국교회 140년 역사상 가장 큰 복음주의 모임입니다. 6년 만에 개최하는 이번총회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따라갔다면, 이제부터는 선도적 위치에서 세계교회를 섬기며 지도력을 공유해야죠.”

오 목사는 전 세계에 2만 7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派送)한 대한민국은 교인 한 명당 선교사 파송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설명했다.

“북미와 영국에서 다윈의 진화론,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를 흔들 때 이를 막기 위해 WEA가 나섰어요. 1948년에 출범한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종교 다원주의와 공산주의를 포용하자 WEA는 1951년에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신학교, 대학생선교회(CCC), 네비게이트 같은 세계적인 복음주의 단체들과 동맹을 맺고 복음주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正體性)을 확고히 세우며 교회 연대(連帶)를

이번 총회의 핵심은 제자훈련을 통한 성경적 가치관 회복과 영적 대각성입니다.

The heart of this Assembly is the restoration of biblical values through discipleship training and a great spiritual awakening.

이어 왔습니다.”

WEA 서울 총회 참여 인원은 총 7,000여 명으로 해외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총회의 핵심은 제자훈련을 통한 성경적 가치관 회복과 영적 대각성입니다. 한국 교회가 받은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세계 복음주의 교회와 나누고 복음의 변혁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On September 4, a comprehensive briefing for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was held. The Assembly will take place from October 27 to 31 at SaRang Church and Yoido Full Gospel Church.

Rev. Oh explained that while praying about how to serve the global church, SaRang Church received a request from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to host its 14th General Assembly. At this Assembly, Rev. Oh will serve as Co-Chair alongside Rev. Lee Young-hoon, Senior Pastor of Yoido Full Gospel Church.

Headquartered in New York, WEA is the world’s largest and oldest evangelical alliance, founded in London in 1846. It consists of 143 alliances across 146 countries, representing approximately 650 million evangelical Christians worldwide. WEA is engaged in missions, theology, advocacy for religious freedom, social justice, and humanitarian relief. It also supports evangelism and church planting, Bible translation, the development of evangelical theology, and cooperates with the United Nations on global human rights and religious freedom issues.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will be the largest evangelical gathering in the 140-year history of the Korean church,” Rev. Oh said. “Held for the first time in six years, this Assembly calls the Korean church to move from being a fast follower to a first mover. We have followed diligently; now we must take a leading role, serving the global church and sharing leadership.”

He added that South Korea has sent out approximately 27,000 missionaries worldwide, making it the country with the highest ratio of missionaries per church member.

“When Darwin’s theory of evolution, Marxist socialism and communism, and liberal theology shook the church in North America and Britain, WEA stepped in to resist these trends. When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founded in 1948, embraced religious pluralism and communism, WEA formed alliances in 1951 with evangelical seminaries, Campus Crusade for Christ (CCC), The Navigators, and other global evangelical organ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firmly establishing evangelical identity and continuing inter-church solidarity.” Approximately 7,000 people are expected to attend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including about 2,000 international participants.

“The heart of this Assembly is the restoration of biblical values through discipleship training and a great spiritual awakening. The Korean church must share the special grace and calling it has received with the global evangelical community and participate in the transformative work of the gospel.”

“열정의 비전 메이커”

“A Passionate Vision Maker”



에너지가 넘치는 오정현 목사에게 ‘열정의 비전 메이커’라는 닉네임이 따라다닌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靈)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셨어요. 육(肉)이 영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영이 육을 통제하고, 생각의 주체가 성령이라는 거죠. 영적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생각의 온전함, 감정의 온전함, 의지의 온전함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당시에도 알코올 문제가 심각해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 비전과 사명과 미래에 지배받기를 사모합니다.”

오 목사는 청년 시절 가슴에 새겼다는 미국 성공회 성직자이자 작가인 필립스 브룩스의 말을 소개했다.

“너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능력을 구하라.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이 기적이 아니라 네가 기적이 될 것이다(You shall be a miracle)’, 이 말이 지금도 가슴을 뛰게 합니다. 시편 103편 5절의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 다’라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일과 말씀과 역사는 변함이 없어요. 저는 갖고 있는 파이를 나눠 먹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롭게 나아가면서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살자는 생각을 합니다.”

오 목사는 미국에 살 때보다 서울에서 영어 쓸 일이 더 많아졌다고 했다.

“그만큼 글로벌화된 거죠. 강남이라는 지역이 더 지적(知的)이고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팀이 많기 마련입니다. 그런 만큼 감당할 역할과 몫이 다르겠죠. 한국민족 역사에서 교회가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살피서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국제표준의 지평에 서야죠. 한국과 한국교회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넓은 곳으로 나가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글로벌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Known for his boundless energy, Rev. Oh is often called a “passionate vision maker.”

“Romans 8:9 says,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they do not belong to Christ.’ This means that the flesh should not control the spirit; rather, the spirit should govern the flesh, and the Holy Spirit should be the subject of our thoughts,” he explained. “To maintain spiritual freshness, wholeness of thought, emotion, and will is essential.”

He added that Scripture repeatedly warns against drunkenness because alcohol abuse was already a serious issue in biblical times. “I long to be governed by thoughts, emotions, and will led by the Holy Spirit—by vision, calling, and the future He gives.”

Rev. Oh also shared a quotation that has inspired him since his youth, from American Episcopal clergyman and writer Phillips Brooks:

“Do not pray for tasks equal to your powers. Pray for powers equal to your tasks. Then the doing of your work shall be no miracle, but you shall be a miracle.”

“This still makes my heart race,” he said, adding Psalm 103:5, ‘who satisfies your desires with good things so that your youth is renewed like the eagle’s.’ “God’s work, Word, and history never change. I dislike merely dividing an existing pie. Our church seeks to move forward afresh—so that everyone eats together and lives together.”

2033년까지 우리민족의 50%가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통일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I pray that by 2033, 50 percent of our nation will believe in Jesus Christ. With reunification, this is possible. God does not waste miracles.



‘모든 이에게 복음을, 2033을 향하여’

The Gospel for Everyone by 2033

미국에서 처음 왔을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남북문제였다고 한다.

“남북문제는 미국을 잘 아는 자유 우파들, 복음주의자들,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앞장서야 진짜 답이 나올 겁니다. 이견 좌파들도 인정하는 사안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잘 감당해야죠. 저는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빨리 설치되길 기대하고 있어요.”

오정현 목사에게 불신과 갈등이 심한 우리나라에 대한 해법을 물어보았다.

“믿음의 용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장 종지와 달항아리를 비교해 보세요. 용량이 같으면 서로 이해가 되는데 다르면 이해가 안 되고, 그릇이 같으면 소통이 되는데 다르면 불통입니다.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그릇을 같이 키워야 합니다. 믿음의 용량도 함께 키워면 문제가 해결되겠지요.”

WEA 서울 총회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2033을 향하여’를 주제로 열린다. 2033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한 지 2000년 되는 해다. 오 목사는 ‘2033-50’ 비전을 꿈꾸고 있다.

“2033년까지 우리민족의 50%가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통일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Rev. Oh said that since first returning from the United States, the issue he has considered most important has been inter-Korean relations.

“The North-South issue must be led by those who understand America well—free conservatives, evangelicals, and people of conservative faith. Only th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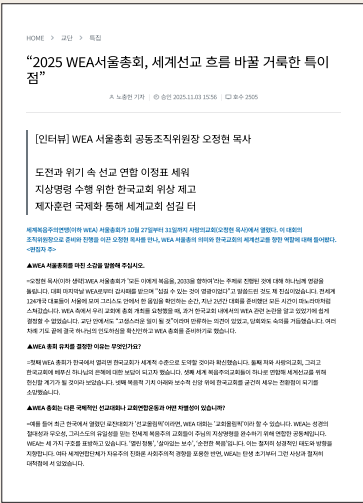
can real solutions emerge. Even those on the left acknowledge this. It is our calling, and we must fulfill it well. I hope to see a U.S. embassy established in Pyongyang soon.”

Asked about solutions for a nation marked by distrust and conflict, Rev. Oh replied, “The capacity of faith is crucial. Compare a soy sauce dish with a large moon jar. When capacities match, understanding is possible; when they differ, it is not. When vessels are the same, communication flows; when they differ, communication breaks down. Our nation and the Korean church must grow their capacity together. As our capacity of faith grows, problems will be resolved.”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will be held under the theme “The Gospel for All, Toward 2033.” The year 2033 marks the 2,000th anniversary of Jesus Christ’s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Rev. Oh shared his vision of “2033-50.”

“I pray that by 2033, 50 percent of our nation will believe in Jesus Christ. With reunification, this is possible. God does not waste miracles.”

글_이근미객원기자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K기독신문

“2025 WEA서울총회, 세계선교 흐름 바꿀 거룩한 특이점”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A Holy Singularity That Will Reshape the Flow of World Missions”

세계복음주의연맹(이하 WEA) 서울총회가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열렸다. 이 대회의 조직위원장으로 준비와 진행을 이끈 오정현 목사를 만나, WEA 서울총의 의미와 한국교회의 세계선교를 향한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The Seoul General Assembly of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was held from October 27 to 31 at SaRang Church, led by Senior Pastor Rev. Dr. Oh Jung-hyun. We met with Rev. Oh, who chaired the organizing committee and oversaw the preparation and execution of the Assembly, to hear his reflections on the significance of the event and the role of the Korean church in global missions.

WEA 서울총회를 마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How do you reflect on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WEA 서울총회가 ‘모든 이에게 복음을, 2033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진행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대회 마지막날 WEA로부터 감사패를 받으며 “섬길 수 있는 것이 영광이었다”고 말씀드린 것도 제 진심이었습니다. 전 세계 124개국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하는 순간, 지난 2년간 대회를 준비했던 모든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WEA 측에서 우리 교회에 총회 개최를 요청했을 때, 과거 한국교회 내에서의 WEA 관련 논란을 알고 있었기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교단 안에서도 “고생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만류하는 의견이 있었고, 당회와도

WEA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면 한국교회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I was convinced that holding the Assembly in Korea would enable the Korean church to rise to a global level.

속의를 거듭했습니다. 여러차례 기도 끝에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WEA 총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I give glory to God that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was held under the theme ‘The Gospel for All, Toward 2033.’ On the final day of the Assembly, when I received a plaque of appreciation from WEA and said, ‘It was an honor to serve,’ I meant every word. As representatives from 124 nations gathered in Seoul and affirmed that we are one body in Christ, the two years of preparation passed before my eyes like a panorama.

“When WEA first asked our church to host the Assembly, I did not make the decision lightly because I was aware of the past controversies surrounding WEA within the Korean church. Some within our denomination warned that it would become a heavy burden, and we deliberated extensively with our elders. After repeated seasons of prayer, we became convinced of God’s leading and decided to proceed with hosting the Assembly.

WEA 총회 유치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Why did you decide to host the WEA General Assembly?

첫째, WEA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면 한국교회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것이라 확신했 습니다. 둘째, 저와 사랑의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되고자 했습니다. 셋째, 세계 복음주의교회들이 하나로 연합해 세계선교를 위해 헌신할 계기가 될 것이라 보았습니다. 넷째, 복음적 기치 아래와 보수적 신앙 위에 한국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First, I was convinced that holding the Assembly in Korea would enable the Korean church to rise to a global level. Second, we wanted it to be an act of thanksgiving for God’s grace upon SaRang Church and the Korean church. Third, we saw it as an opportunity for evangelical churches around the world to unite and commit themselves anew to global missions. Fourth, we hoped it would become a turning point in firmly establishing the Korean church on evangelical convictions and conservative faith.

이번 WEA 서울총회가 전한 메시지와 비전은 무엇입니까?

What message and vision did this Assembly seek to convey?

이번 총회는 현 시대의 언어로 교회가 지향해야 할 선교 방향을 제시하고, 지양해야 할 사상과 사조를 명확히 천명했습니다. 특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종교혼합주의나 다원주의도 철저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서울



기사 바로보기
Read the Full Article

이제는 세계교회가 직면한 사상적 종교적 도전을 함께 극복하도록, 한국교회가 은혜의 수원지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From now on, the Korean church must serve as a wellspring of grace, helping the global church overcome the ideological and religious challenges it faces.

선언’에 담겼는데, 저는 이 ‘서울선언’이 325년의 니케아신경과 451년의 칼케톤신경, 그리고 종교개혁과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의 맥을 잇는 역사적 선언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니케아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본질(homoousios)이시다”라고 선언하며 삼위일체 신학의 토대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통성과 본질입니다. 앞으로 세계교회는 니케아신경 채택 1,700주년을 맞아 선포된 서울선언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서울선언은 한국교회에도 큰 의미를 줍니다. 팔로워에서 퍼스트무버로 변화되는 거룩한 특이점(Holy Singularity)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교회는 140년 선교 역사 속에서 세계를 돕는 교회로 성장했으나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WEA서울총회를 통해 전 세계 교회가 한국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확인했고,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의 선두에 서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세계교회가 직면한 사상적 종교적 도전을 함께 극복하도록, 한국교회가 은혜의 수원지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총회를 통해 국제제자훈련원(DMI)이 WEA 정식 회원 단체로 허입됐습니다. 사랑의교회가 지난 40년간 이어온 제자훈련 사역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This Assembly articulated, in the language of our times, the direction of mission the church must pursue and clearly identified ideologies and trends that should be resisted. In particular, it addressed issues related to homosex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and firmly guarded against syncretism and religious pluralism.

These convictions were incorporated into what is called the Seoul Declaration. I am convinced that this Declaration stands in continuity with the Nicene Creed of AD 325, the Chalcedonian Definition of AD 451, the Reformation, and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The Council of Nicaea declared that Jesus Christ is of the same essence (homoousios) as God the Father, laying the foundation for Trinitarian theology—this is the very orthodoxy and essence of the Christian faith.

As the global church approaches the 1,700th anniversary of the Nicene Creed, it will unite to pursue the vision proclaimed in the Seoul Declaration.

The Seoul Declaration also carries deep significance for the Korean church. It represents a holy singularity—a moment of transformation from follower to first mover. Over 140 years of missionary history, the Korean church has grown into one that supports the world, yet it has not fully exercised leadership.

Through this Assembly, the global church witnessed Korea’s spiritual maturity and affirmed that the Korean church must now stand at the forefront of world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라는 비전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목회자와 교회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As we prayed under the vision ‘Sincere Heart to People, Whole Heart to God,’ the Lord connected us with many pastors and congregations.

missions.

From now on, the Korean church must serve as a wellspring of grace, helping the global church overcome the ideological and religious challenges it faces. Moreover, through this Assembly, the Discipleship Making International (DMI) was formally admitted as a WEA member body, creating a pathway for SaRang Church’s forty-year discipleship training ministry to spread worldwide.”

‘한국교회섬김의날’ 행사의 의미를 말씀해 주십시오.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events?

WEA 서울총회가 열리는 동안 10월 27일과 28일 사랑의교회에서 ‘한국교회섬김의날’(이하 한교섬)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교섬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 한국 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시작한 행사입니다.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라는 비전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목회자와 교회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첫째 약 6,000명 가량이 참여했고 이후에는 7~8,000명의 목회자들이 모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교섬을 통해 목회를 포기하려던 목회자들이 새 힘을 얻고, 폐쇄 위기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의교회는 이틀간의 행사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전국 교회를 섬기며, 전도팀을 파송하고 건물을 보수해 주는 등 지속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During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October 27 and 28 at SaRang Church were designated as 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These gatherings bega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hen we were asking how we might help struggling churches. As we prayed under the vision ‘Sincere Heart to People, Whole Heart to God,’ the Lord connected us with many pastors and congregations.

“In the first year, about 6,000 people participated, and in subsequent years between 7,000 and 8,000 pastors gathered—something truly remarkable. Through these events, pastors who had considered giving up ministry were renewed, and churches on the verge of closure found fresh life.

“Beyond these two days, SaRang Church continues year-round efforts to serve churches nationwide—sending evangelism teams, repairing facilities, and providing ongoing support to strengthen local congregations.”



'서울신문

**“한국 교회 선교 140주년…
세계 교회 섬기는 거룩한플랫폼 될 것”
“140 Years of Korean Church
Missions… Becoming a Holy Platform
That Serves the Global Church”**



‘교회학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제14차 총회가 오는 27~31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와 함께 WEA서울총회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정현(69) 사랑의교회 목사에게 21일 총회 진행 상황과 개최 의미 등을 물었다.

The 14th General Assembly of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often described as the “Olympics of the Church”—will be held from the 27th to the 31st at SaRang Church in Seocho-dong, Seoul, and at Yoido Full Gospel Church. On the 21st, we spoke with Rev. Oh Jung-hyun (69), Senior Pastor of SaRang Church and Co-Chair of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Organizing Committee, who serves alongside Rev. Lee Young-hoon, about preparations for the Assembly and its significance.



[기사 바로보기](#)
Read the Full Article



NEWSIS

**오정현 목사 “WEA 서울선언문,
복음의 본질 재확인…한국 교회,
퍼스트 무버 돼야” [문화인터뷰]**
Rev. Dr. Oh Jung-hyun: “The WEA
Seoul Declaration Reaffirms the
Essence of the Gospel… The Korean
Church Must Become a First Mover”



오정현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사진=사랑의교회 제공)



[기사 바로보기](#)
Read the Full Article



국민일보

“서울총회 통해 미래지향적 선교 공동체 세워갈 것”

“Seoul General Assembly to Shape a Future-Oriented Mission Community”



굿윌 샤나(65)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의장은 오는 10월 27일부터 닷새 동안 한국에서 진행되는 WEA 제14차 서울총회가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새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Goodwill Shana (65), Chairman of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expressed his expectation that the 14th WEA General Assembly, to be held in Korea for five days beginning October 27, will become a turning point in opening a new future for the global evangelical church.

최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K라운지에서 만난 샤나 의장은 “이번 총회는 단순한 정례 모임이 아니라 WEA 헌법이 규정한 공식 절차에 따라 6년마다 열리는 총회로 복음주의 교회들의 선교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자리”라면서 “WEA의 헌법에 따라 세계 선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진단하고 내다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n a recent interview at the K-Lounge of Kukmin Daily in Yeouido, Seoul, Chairman Shana stated, “This General Assembly is not merely a routine

“무엇보다 남반구와 북반구 교회들이 선교를 위해 협력하며 미래 지향적 선교 공동체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고 143개 회원국이 서로의 사역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겠다”

“At a time of tectonic shifts, where the center of global mission is rapidly moving from the Global North to the Global South, the Seoul Assembly will serve as a place where these changes can take root in a stable and sustainable way.”

gathering, but one that is convened every six years in accordance with the official procedures outlined in the WEA Constitution. It is a platform for envisioning the future direction of evangelical missions.” He added, “In line with the WEA Constitution, this Assembly will serve as a moment to assess the past and present of global missions and to look ahead toward its future.”

짐바브웨 출신인 샤나 의장은 1990년 짐바브웨 부라와요시에서 ‘월드 오브 라이프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를 창립한 뒤 수석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아프리카복음주의연맹(AEA) 회장인 샤나 의장은 변호사이기도 하다. 짐바브웨 교육부 고문이자 반부패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Originally from Zimbabwe, Chairman Shana founded Word of Life International Ministries in Bulawayo in 1990 and continues to serve as its senior pastor. He also serves as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of Evangelicals in Africa (AEA) and is a trained lawyer. In addition, he has been active as an advisor to Zimbabwe’s Ministry of Education and as a member of the Anti-Corruption Commission.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의 수장인 샤나 의장은 서울총회를 변화의 총회로 규정했다. 그는 “선교의 중심이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빠르게 이동하는 지각변동 시대의 중심에 선 이때, 서울총회는 그간의 변화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남반구와 북반구 교회들이 선교를 위해 협력하며 미래 지향적 선교 공동체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고 143개 회원국이 서로의 사역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As a leading figure among global evangelical churches, Chairman Shana described the upcoming Seoul Assembly as a “General Assembly of transformation.” He remarked, “At a time of tectonic shifts, where the center of global mission is rapidly moving from the Global North to the Global South, the Seoul Assembly will serve as a place where these changes can take root in a stable and sustainable way.” He further emphasized, “Above all, this gathering will bring together churches from both the Global North and South to collaborate in mission, share ministry experiences across 143 member nations, and build a future-oriented missional community.”

선교의 중심이 이동한다는 건 20세기까지 유럽과 북미 교회 중심 선교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1970년대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교회들의 선교가 대약진하는 걸 의미한다. 이 지역 오순절교회 급성장도 선교 중심 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



기사 바로보기
Read the Full Article

WEA가 2033년에 집중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2,000주년이 되는 2033년을 앞두고 새 선교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The WEA’s focus on the year 2033 is tied to the 2,000th anniversary of the death, resurrection, ascension of Jesus Christ, and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at Pentecost.

다. 이런 성장세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브라질과 나이지리아 등 남반구 교회들이 선교전략 수립의 싹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The shift in the center of missions refers to the gradual decline of mission efforts historically centered in Europe and North America through the 20th century, and the remarkable rise of mission movements in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since the 1970s. The rapid growth of Pentecostal churches in these regions stands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is transition. On the basis of such growth, churches in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Brazil, and Nigeria are emerging as key leaders in shaping global mission strategies.

샤나 의장도 “이런 격변의 때에 전 국민의 20% 이상이 기독교인인 대한민국에서 총회가 열리는 건 이번 총회 주제인 ‘2033년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복음주의 교회들의 사명을 달성하는 데 좋은 자양분을 받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Chairman Shana noted, “At such a time of profound change, hosting the General Assembly in South Korea—where more than 20 percent of the population identifies as Christian—will provide meaningful momentum toward fulfilling the evangelical mission of proclaiming the gospel to all nations by 2033, which is also the theme of this Assembly.”

WEA가 2033년에 집중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2000주년이 되는 2033년을 앞두고 새 선교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1846년 설립된 WEA는 올해 179주년이 됐다. 샤나 의장은 “오랜 역사와 적지 않은 회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WEA는 그동안 문화적이면서도 신학적인 다름을 걸림돌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최근 들어 사무실도 ‘글로벌 네트워크’로 전환하면서 세계 복음주의 공동체의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The WEA’s focus on the year 2033 is tied to the 2,000th anniversary of the death, resurrection, ascension of Jesus Christ, and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at Pentecost. In anticipation of this milestone, the global evangelical community is seeking to establish a renewed vision for mission. Founded in 1846,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celebrates its 179th anniversary this year. Chairman Shana commented, “With its long history and broad membership, the WEA has not regarded cultural and theological differences as obstacles, but rather as opportunities for constructive dialogue that lead to positive growth.” He added, “More recently, we have transitioned our structure

into a ‘global network,’ expanding the reach and collaboration of the worldwide evangelical community.”

WEA는 미국 뉴욕에 있는 본부와 함께 독일과 스위스, 영국, 필리핀 등에 있는 회원연맹 사무실을 연결한 글로벌 네트워크 오피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대해 샤나 의장은 “세계 네트워크 차원에서 효과적인 면이 크다”면서 “한 나라에 본부를 두면 그 나라 정치 상황에 좌지우지될 우려도 커 앞으로 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유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The WEA has established a global network office system that connects its headquarters in New York with regional offices and member alliance offices in Germany, Switzerland, the United Kingdom, and the Philippines. Regarding this structure, Chairman Shana explained, “From a global perspective, this network-based system is highly effective. Having a single headquarters in one country can make the organization vulnerable to that country’s political circumstances, so we intend to continue strengthening this decentralized network approach.”

“복음 안에서 성경에 뿌리내린 정체성을 갖고 선교라는 지상 명령을 함께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WEA” “The WEA is a community of faith rooted in Scripture and united in the gospel, striving together to fulfill the Great Commission.”

샤나 의장은 “복음 안에서 성경에 뿌리내린 정체성을 갖고 선교라는 지상명령을 함께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WEA”라면서 “이번 서울총회를 통해 복음주의 교회의 미래가 새롭게 쓰이길 원한다”고 소망했다. 그러면서 “특히 제자훈련 세계화도 서울총회의 관심 중 하나로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이 제자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했다. 끝으로 “한국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나 사랑의교회처럼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형교회들이 많은 만큼 서울총회를 기점으로 더욱 연합하고 함께 부흥의 미래를 열어가길 바라고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Chairman Shana concluded, “The WEA is a community of faith rooted in Scripture and united in the gospel, striving together to fulfill the Great Commission.” He expressed his hope that “through the Seoul General Assembly, a new chapter will be written for the future of the evangelical church.” He also highlighted that “the globalization of discipleship will be one of the key focuses of the Assembly, encouraging evangelical churches worldwide to renew their commitment to making disciples.” Finally, he added, “Korea is home to globally recognized megachurches such as Yoido Full Gospel Church and SaRang Church. We pray that, through the Seoul Assembly, churches will grow in unity and together open a new future of revival.”

WEA Seoul General Assembly Press Release

WEA서울총회 언론 보도



(사)한국교회언론회
기사 바로보기



국민일보
기사 바로보기



한국기독저널
기사 바로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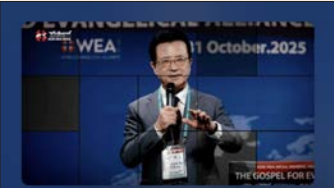
동아일보
기사 바로보기



합동헤럴드
기사 바로보기



한국기독저널
기사 바로보기



WEA Seoul GA

게시자: 국제제자훈련원

재생복록 · 동영상 31개 · 조회수 358회

2025 WEA 서울...더보기

▶ 모두 재생



국제제자훈련원
영상 바로보기



“복음은 언어 뛰어넘어 역사... 1974년 한국서 배웠다”

이영환 목사

1 WEA 서울총회 참가자 특강 특사 인터뷰

“기독교 신앙 27~31일 서울 총회
“복음과 문화의 융합을 통해 한국
교회 문화의 혁신을 이루길”

“복음은 언어를 뛰어넘어 역사... 1974년 한국에서 배웠다”
이영환 목사는 1974년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WEA 서울총회에 참가했다. 그는 총회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국교회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헌신하게 되었다. 이번 총회는 “복음과 문화의 융합을 통해 한국교회 문화의 혁신을 이루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 목사는 “복음은 언어를 뛰어넘어 역사... 1974년 한국에서 배웠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기사 바로보기



“한국 교회 선교 140주년...세계 교회 성기는 기록한 플랫폼 될 것”

이영환 목사

1 WEA 서울총회 공동조직위원회장 초청한 사령교회 목사

“기독교 신앙 27~31일 서울 총회
“복음과 문화의 융합을 통해 한국
교회 문화의 혁신을 이루길”

“한국 교회 선교 140주년...세계 교회 성기는 기록한 플랫폼 될 것”
이영환 목사는 “한국 교회 선교 140주년...세계 교회 성기는 기록한 플랫폼 될 것”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한국 교회는 140년간의 선교 역사를 통해 세계 교회에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기사 바로보기



“언어·문화 달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 연합 사역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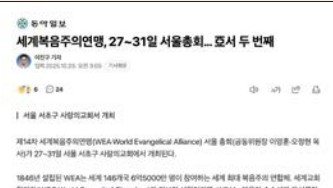
이영환 목사

1 WEA 서울총회 개막

“언어·문화 달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 연합 사역 공개
이영환 목사는 “언어·문화 달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연합 사역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기사 바로보기



세계복음주의연맹, 27~31일 서울총회... 호서 두 번째

이영환 목사

1 WEA 서울총회 개막

세계복음주의연맹(WEA World Evangelical Alliance) 서울 총회(공동위원장 이영환 목사)가 27~31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는 “복음과 문화의 융합을 통해 한국교회 문화의 혁신을 이루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영환 목사는 “복음은 언어를 뛰어넘어 역사... 1974년 한국에서 배웠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기사 바로보기



[공지] WEA 서울총회와 일부 한국교회의 갈등길 —복음의 본질을 둘러싼 논쟁의 전조

이영환 목사

1 WEA 서울총회와 일부 한국교회의 갈등길 —복음의 본질을 둘러싼 논쟁의 전조

“복음의 본질을 둘러싼 논쟁의 전조”
이영환 목사는 “복음의 본질을 둘러싼 논쟁의 전조”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복음의 본질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드
기사 바로보기



“2025 WEA서울총회, 세계선교 흐름 바꿀 거룩한 특이점”

이영환 목사

1 WEA 서울총회 개막

“2025 WEA서울총회, 세계선교 흐름 바꿀 거룩한 특이점”
이영환 목사는 “2025 WEA서울총회, 세계선교 흐름 바꿀 거룩한 특이점”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2025 WEA서울총회는 세계선교의 흐름을 바꿀 거룩한 특이점”이라고 말했다.



기독신문
기사 바로보기



“한국교회 ‘성령운동·제자훈련’ 영적 자산 세계와 나눌 때”

이영환 목사

1 WEA 서울총회 개막

“한국교회 ‘성령운동·제자훈련’ 영적 자산 세계와 나눌 때”
이영환 목사는 “한국교회 ‘성령운동·제자훈련’ 영적 자산 세계와 나눌 때”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한국교회는 성령운동과 제자훈련을 통해 세계와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기사 바로보기



WEA 서울총회 ‘복음주의 방향’ 제시

이영환 목사

1 WEA 서울총회 개막

WEA 서울총회 ‘복음주의 방향’ 제시
이영환 목사는 “WEA 서울총회 ‘복음주의 방향’ 제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WEA 서울총회는 복음주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신문
기사 바로보기



“교회의 유산” WEA 서울총회 개막

이영환 목사

1 WEA 서울총회 개막

“교회의 유산” WEA 서울총회 개막
이영환 목사는 “교회의 유산”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교회의 유산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기사 바로보기



제4회 한국교회 성경의 날 “세계교회와 교류 기회”

이영환 목사

1 WEA 서울총회 개막

제4회 한국교회 성경의 날 “세계교회와 교류 기회”
이영환 목사는 “제4회 한국교회 성경의 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제4회 한국교회 성경의 날은 세계교회와 교류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기독신문
기사 바로보기

4

Preparation Process

준비 과정

서울총회는 세계복음주의권의 재도약과
청년, 제자훈련, 선교의 확장을 기대하며
최고의 역량과 헌신으로 준비되었다.

The WEA Seoul GA was prepared with the highest level of excellence and dedication, anticipating a renewed momentum for the global evangelical movement and the expansion of youth ministry, discipleship training, and global mission.

WEA 실제적 & 영적 준비

Actual & Spiritual Preparation

발행 문서 및 행사자료

Published Documents and Event Materials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WEA Seoul General Assembly Organizing Committee

WEA 서울 총회를 위한 100대 기도제목

100 Prayers for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Actual Preparation for the WEA
WEA 실제준비과정



Thanksgiving Service for the Launch of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Organizing Committee
2025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출범 감사예배

일시: 주후 2024.11.15(금) 오전 10시
Date: Friday, A.D. 2024.11.15, 10:00 AM
장소: 여의도 CCMM빌딩
Venue: CCMM Building, Yeouido



Opening of the Secretariat for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2025 WEA 서울총회 사무국 개소

일시: 주후 2025.3.11(화)
Date: Tuesday, A.D. 2025.3.11
장소: 국제제자훈련원
Venue: Disciple Making Ministries International



2025 WEA Pre-Summit International Symposium
2025 WEA 프리서밋 국제심포지움

일시: 주후 2025.5.16(금)
Date: Friday, A.D. 2025.5.16
장소: 여의도 CCMM빌딩
Venue: CCMM Building, Yeouido
개회사: 오정현 목사(WEA 서울총회 조직위원장)
Opening Address: Rev. Dr. Oh Jung-Hyun (Chairman, WEA Seoul General Assembly Organizing Committee)
발제: 베다 로블리스 목사, 이요엘 선교사, 사무엘 치앙 목사, 박주성 목사
Presentations: Rev. Beda Robles, Missionary Joel Lee, Rev. Samuel Chiang, Rev. Joo-sung Park



2025 WEA Pre-Leaders Summit
2025 WEA 프리 리더스서밋

일시: 주후 2025.5.24(토)~25일(주일) 부흥헌신 토
요비전새벽예배 및 주일예배
Date: Saturday-Sunday, A.D. 2025.5.24-25 (Saturday Dawn Worship Service for Revival & Sunday Worship)
장소: 사랑의교회 안아주심의 본당
Venue: Main Chapel, SaRang Church
강사: 스티븐 통 목사(자카르타 개혁주의 복음교회), 고메즈 다비 찰스 목사(WRF 의장, 브라질), 고영규 목사(브라질 아과비바 교회)
Speakers: Rev. Dr. Stephen Tong (Reformed Evangelical Church of Jakarta), Rev. Gomez Davi Charles (Chair, World Reformed Fellowship; Brazil), Rev. Young-kyu Ko (Aguaviva Church, Brazil)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Briefing & Press Conference
2025 WEA 서울총회 종합 설명회 및 기자 간담회

일시: 주후 2025.9.4(목) 오전 10시
Date: Thursday, A.D. 2025.9.4, 10:00 AM
장소: 프레스센터
Venue: Korea Press Center



WEA Affiliation & Opening Service
WEA 협력병원 지정 감사예배

일시: 주후 2025.10.24(금) 오전 10시
Date: Friday, A.D. 2025.10.24, 10:00 AM
장소: 서초구 에이앤드의원
Venue: A& Clinic (Seocho-gu)

2024.11.15

2025.3.11

2025.5.16

2025.5.24~25

2025.9.4

2025.10.24

2023.6.3

2024.10.27

2025.10.13~22

2025.10.18~11.1



The 50th Anniversary of the Billy Graham Seoul Crusade
빌리그래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일시: 주후 2023.6.3(토) 오후 3시
Date: Saturday, A.D. 2023.6.3, 3:00 PM
장소: 서울월드컵경기장
Venue: Seoul World Cup Stadium



10.27 2 Million Korean Churches United Worship & Great Prayer Meeting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일시: 주후 2024.10.27(주일) 오후 2시
Date: 10.27 2 Million Korean Churches United Worship & Great Prayer Meeting
장소: 시청 앞 광장 및 광화문 일대
Venue: City Hall Plaza & Gwanghwamun Area



Pulpit Fasting & Prayer for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and the 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2025 WEA 서울총회와 한교섭을 위한 강단 금식기도회

일시 및 장소:
• 강단기도회-주후 2025.10.13(월)~18(토) 오전 6시 10분 / 안아주심의 본당
• 산상강단기도회 10.15(수) 오전 6시30분 / 청계산 기도원 내 산상
• 전교인금식기도-주후 2025.10.19(주일)~22(수)

Dates & Venues:
• Pulpit Prayer Week: Monday-Saturday, A.D. 2025.10.13-18, 6:10 AM / Main Chapel
• Mountain Pulpit Prayer: Wednesday, A.D. 2025.10.15, 6:30 AM / Cheonggye Mountain Prayer House (Outdoor Sanctuary)
• All-Church Fasting Prayer: Sunday-Wednesday, A.D. 2025.10.19-22
대상: 교역자, 당회원, 중직자, 순장, 700.7000 기도용사, WEA 기도용사, 모든 영가족들
Participants: Pastors, Elders, Deacons, Small-Group Leaders, 700/7000 Prayer Warriors, WEA Prayer Warriors, and the entire spiritual family.



The 23rd SaRang Global Special Dawn Revival Worship
제23차 가을 글로벌 특별새벽부흥회

일시: • 주후 2025.10.18(토) 오전 6시 30분, 10.23(목)~24(금) 오전 4시 30분, 10.25(토) 오전 5시30분
• 11.1(토) 오전 6시30분 (내 영혼의 풀 콘서트)
Date: • Saturday, A.D. 2025.10.18, 6:30 AM
• Thursday-Friday, A.D. 2025.10.23-24, 4:30 AM
• Saturday, A.D. 2025.10.25, 5:30 AM
• Saturday, A.D. 2025.11.1, 6:30 AM ("My Soul's Full Concert")
장소: 안아주심의 본당 및 각 예배실
Venue: Main Chapel and All Worship Halls
주제: "큰 용사여, 기도로 일어나라"(사사기 6:12)

Theme: "Mighty Warriors, Stand in Prayers!" (Judges 6:12)
현장 강사: 이용규 선교사(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대학 설립자), 박경남 선교사(WEC 선교회 국제 총재), 이혜진 목사(애틀랜타 벨엘교회) 해외 강사: 존 코 박사(바이올라 대학교), 릭 워렌 목사(새틀백교회 설립자), 크리스찬 소니아 목사(루마니아 호프교회)
On-Site Speakers: Missionary Yong-kyu Lee (Founder, Jakarta International University, Indonesia), Missionary Kyung-nam Park (International Director, WEC International), Rev. Hye-jin Lee (Bethel Church of Atlanta)
International Speakers: Dr. John Coe (Biola University), Rev. Dr. Rick Warren (The Founder of Saddleback Church), Rev. Christian Sonea (Senior Pastor of BBSO)

Spiritual Preparation for the WEA
WEA 영적 준비과정



2025 WEA 서울총회 마종물
청계산 산상 구국 기도회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Preparatory
Prayer Gathering
Cheonggyesan Prayer Mountain Revival Meeting

2025. 8. 17 청계산에서는 사랑의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8.15 구국 기도회 및 서울총회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섬김을 확인했다.
On August 17, 2025, members of SaRang Church
gathered at Cheonggyesan for a national prayer
meeting in commemoration of August 15, as
well as a prayer gathering for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Together, they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serving in the mission of
proclaiming the gospel to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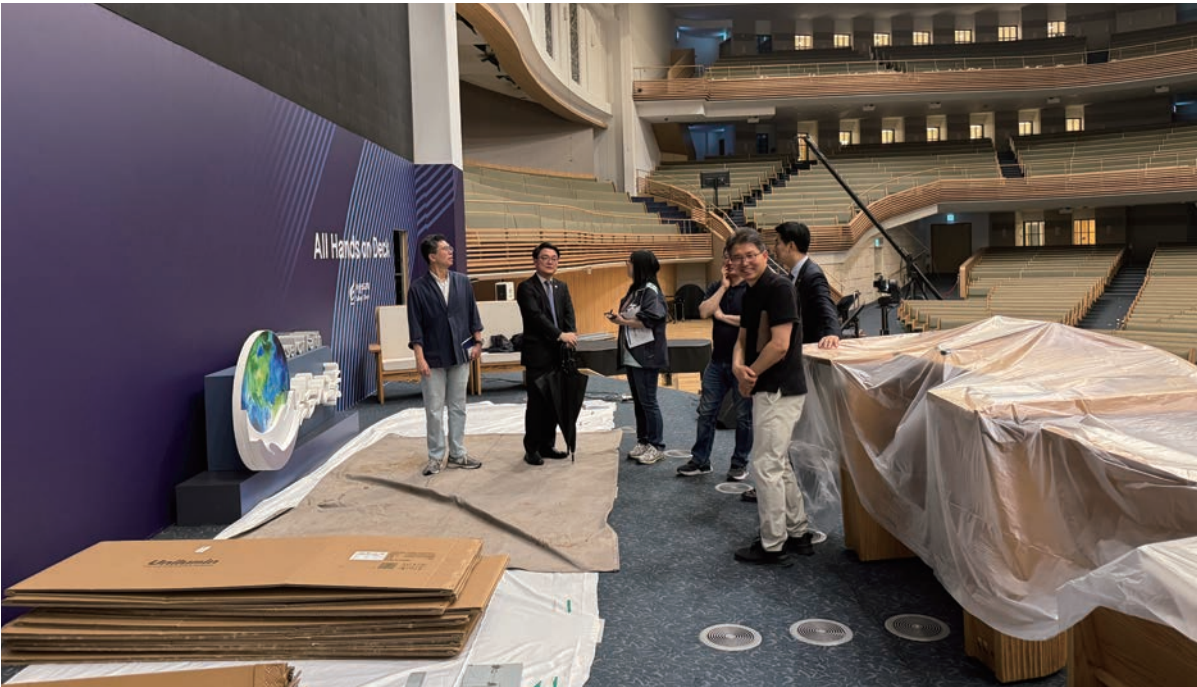




top
서울총회 준비 TF모임
WEA Seoul General Assembly Preparation TF
Meeting
bottom
방송 및 영상관련 전문가 회의
Meeting of Broadcasting and Media
Production Special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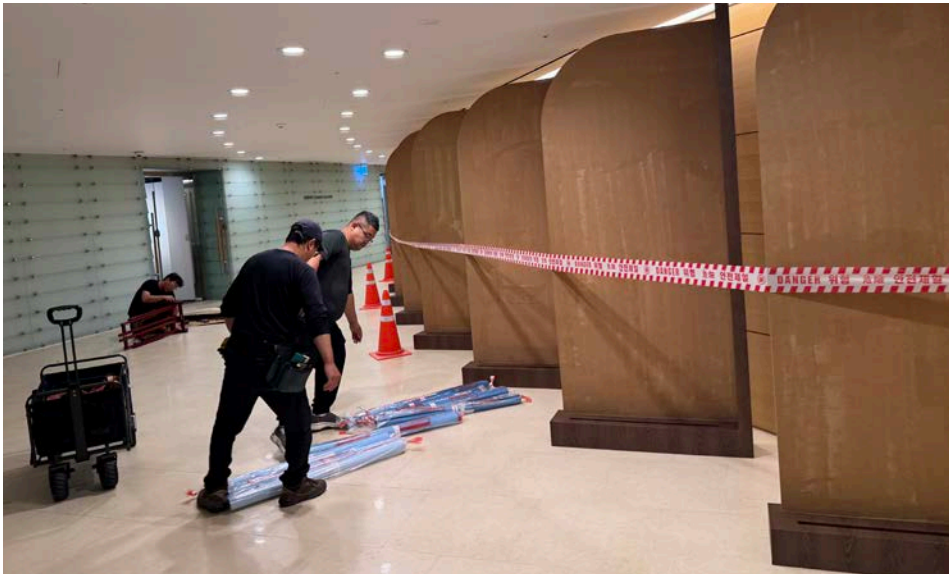


top
20주간 매주 모여 기도의 지팡이를 든
WEA 기도특공대 참여 성도들
Members of the WEA Prayer Task Force, who
gathered weekly for 20 weeks, faithfully
carrying the staff of prayer
bottom
서울총회조직위 및 WEA 주요실무자들
김인기 (목사(통역), 라이언(영상), 백승준(행정),
주연중(기획), 사무엘 치앙(부사무총장), 앤서니,
엘리엇, 김주혁(행정)
Key staff members of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Organizing Committee and WEA
leadership: Rev. Kim In-gi (Interpretation),
Ryan (Media Production), Rev. Baek Seung-jun
(Administration), Rev. Joo Yeon-jong (Planning),
Rev. Samuel Chiang, Anthony, Elliott, and Rev.
Kim Joo-hyuk (Administration)



top
본당 LED 교체 작업,
사랑의 교회는 「한국교회 섬김의 날」과 「WEA 서울총회」를 앞두고 본당의 LED를 확장 교체함으로 두 행사의 격을 높이고 메시지의 가시성을 높였다.
Main Sanctuary LED Replacement Project
In preparation for the "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and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SaRang Church expanded and upgraded the LED displays in the main sanctuary, enhancing both the dignity of the events and the visibility of their mess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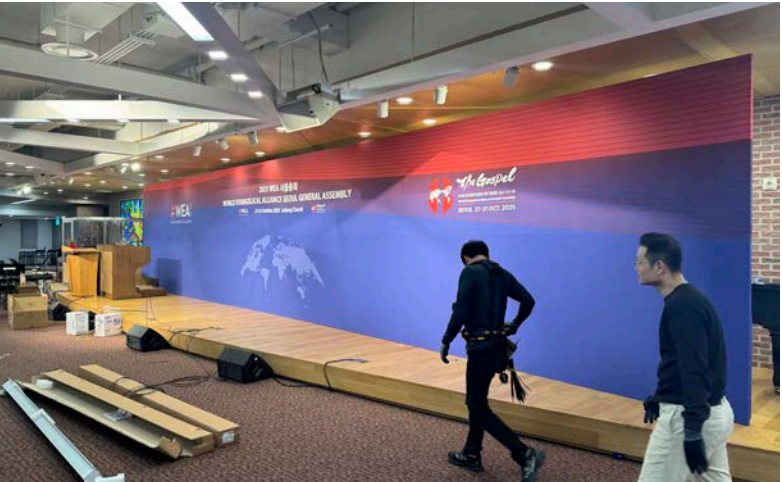
bottom
꽃꽂이와 무대장식
Floral Arrangements and Stage Design



top
아키아나 전시회 구조물 설치작업
Installation work for the Akiane
Exhibition structures

middle
WEA총회장소인 사랑의교회
은혜채플 단상작업
Stage construction work at the
Grace Chapel of Sarang Church, the
venue of the WEA General Assembly

bottom
VIP 및 준비실을 장식중인
자원봉사자들
Volunteers decorating the VIP
rooms and preparation ar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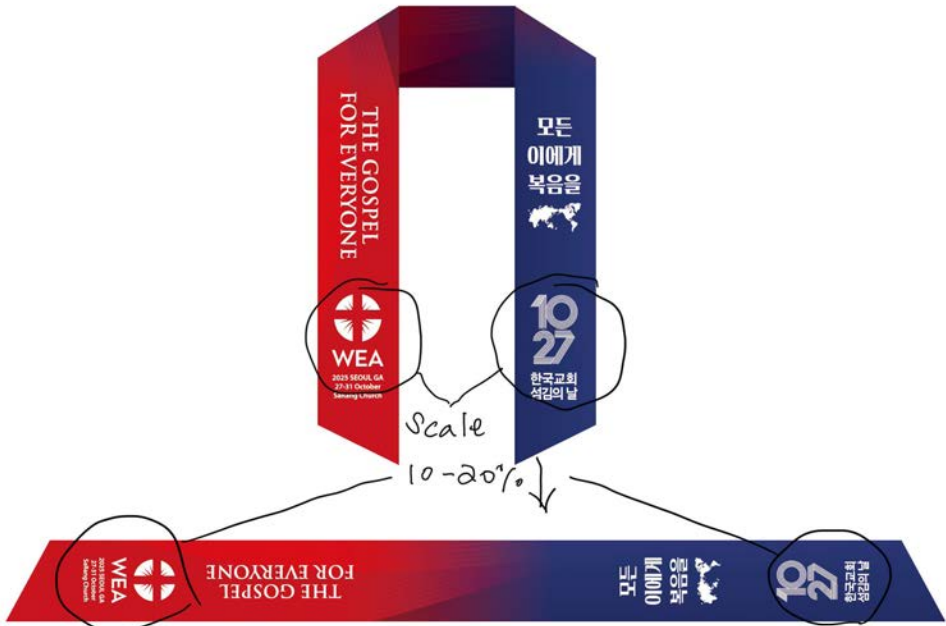
사랑의교회 본당 및 은혜채플을 WEA 서울총회 개회예배와 총회를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봉사중인 사랑의교회 대학·청년부 형제 자매들
Brothers and sisters from the university and young adult ministries of SaRang Church serving to prepare the main sanctuary and Grace Chapel as optimal venues for the opening worship service and sessions of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손님맞이의 상징인 청사초롱을 가로등과 글로벌광장 중앙에 설치
Korean themed decoration in the Global plaza



한국교회섬김의날에 참석하는 국내 교역자 및 WEA 서울총회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단에게 지급될 패키지 포장 봉사 중인 사랑의교회 남·여 순장반 성도들
Brothers and sisters from the university and young adult ministries of SaRang Church serving to prepare the main sanctuary and Grace Chapel as optimal venues for the opening worship service and sessions of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무대상단부 조형/포맥스 및 켈지마감 이미지 정사이즈
950cm/40cm
출력은 직사각형으로 출력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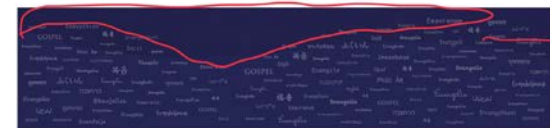
무대하단부 현수막 1960cm/113cm 이미지 정사이즈



성가대상단부 1836cm/240cm 이미지 정사이즈



성가대난간부 1775cm/79.3cm 이미지 정사이즈



성가대 하단 좌측부 933cm/211.5cm 사방10센티여분



성가대 하단 우측부 1013cm/211.5cm 사방10센티여분



주후 2024년 11월 15일(금)

세계복음주의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 서울총회의 의미

“교회를 새롭게 세계를 새롭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 21 :5)

1. WEA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 최고(最古)의 복음적 기독교 연합체이다.
 - WEA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인본주의적 이성 숭배가 창조 질서와 성경의 절대 권위를 거세게 공격하던 19세기, 복음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1846년 영국에서 시작한 기독교 연합체이다. 현재 전 세계 146개국에 143개 연합기관을 두고 있으며, 산하에 약 6억 5천만 명에 달하는 복음주의 신자들이 속해 있는 세계 최대, 최고(最古)의 복음적 기독교 연합기구다.
 - WEA는 신학적 연구 집단이나 교단이 아닌, 복음 전파와 선교, 구제를 목적으로 사역하는 연합체이다.
 - 한국에서는 이전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해 왔고 총회 위치를 결의했던 바 있으며,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아시아복음주의연맹을 통해 지금까지도 협력하고 있다.
2. WEA의 핵심 가치는 Evangelical(복음), Orthodox(정통), Conservative(보수)이다.
 - WEA는 Evangelical(복음), Orthodox(정통), Conservative(보수)를 핵심 가치로 여기며, 첫째, 전 세계에 복음을 확산하고, 둘째, 복음의 가치를 변호하며, 셋째 신자 간의 교제를 강화함으로써 각 지역의 복음적 가치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다.
3. WEA는 WCC와 전혀 다른 연합체이다.
 - WEA는 복음주의에 뿌리를 둔 복음적 교회들의 연합체로서 영혼 구원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복음 전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한다. 성경에 근거한 복음 전파를 통한 화신을 선교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기에 사회 구원론이나 다원주의적 입장과는 선을 긋는다.
 - 반면, WCC는 1948년에 설립된 초교파적 교회 협의체로 포괄적이고 다양한 교단과 교회의 협력을 통해 세계 모든 교회의 일치를 목표로 하며, 교회의 사회 변혁과 평화 증진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이러한 WCC의 접근 방식은 보편 구원설 성격을 지니며, 구원 사역을 사회 전체의 변혁으로 확장하려는 사회 구원론적 특성을 띤다.
 - WEA가 다른 교단이나 비기독교 신앙 전통과 대화 및 협력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접근이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구원의 믿음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WEA 사역의 목적은 단순한 포용이나 협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진리 수호에 있다.
4. WEA는 종교 다원주의, 무신론적 공산주의 사상, 로마 가톨릭 신학,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 반대한다.
 - 2019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총회에서 동성애는 성경적 관점에서 죄라는 복음주의적 입장을 확인하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재확인했다. WEA는 2024년 파리 올림픽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여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밝혔다.
 - 전 세계 거대 기독교 연합기구 중 LGBTQ와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는 단체는 WEA가 유일하다.
5. WEA는 UN 인권위원회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종교의 자유와 인권 보호를 국제사회에 강력히 호소한다.
 - WEA는 UN 인권위원회의 공식 채널을 보유함으로써 선교사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을 위한 구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교회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남북통일을 위해 기독교적 입장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6. WEA는 제자훈련을 통해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
 - WEA는 2019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총회에서 “향후 10년간 제자훈련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세계 선교 환경 속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7. WEA 서울총회 이후, WEA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거룩한 방파제가 될 것을 기대한다.
 - 한국교회가 WEA와 함께 세계선교에 크게 기여하게 되면, 그 선교적 복음의 은혜가 한국교회 부흥을 지속시키고 한국교회를 보호할 것이다.
 - 2024년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이후 한국 사회에 불어온 ‘창조 질서와 성경적 가치’ 수호의 거룩한 바람이 2025년 10월 WEA 서울총회를 계기로 전 세계에 확산되고, 동시에 WEA 네트워크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거룩한 방파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 WEA총회(General Assembly)는 6년마다 한 번씩 개최된다.



Friday the 15th day of October
in the 2024th year of our Lord

Significance of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Seoul General Assembly

“Making Things New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Behold, I am making all things new” (Rev. 21 :5)

1. WEA is the world's largest and oldest evangelical Christian alliance in existence.
 - The WEA is a Christian fellowship that began in England in 1846 to defend evangelicalism in the 19th century, when Charles Darwin's theory of evolution, Karl Marx's communism, and the humanistic cult of reason were fiercely attacking the created order and the absolute authority of the Bible. Today, it is the world's largest and oldest evangelical Christian alliance organization, with 143 affiliates in 146 countries and nearly 650million evangelical believers under its umbrella.
 - The WEA is not a theological study group or denomination, but rather an association of ministries for the purpose of evangelism, mission, and outreach.
 - In South Korea, the Christian Council of Korea (Han Ki Chong) has previously been a member and voted to host the General Assembly in Korea, and the Korea Evangelical Fellowship continues to work through the Asia Evangelical Alliance.
2. WEA's core values are Evangelical, Orthodox, and Conservative.
 - With Evangelical, Orthodox, and Conservative as its core values, WEA is committed to upholding evangelical values in each region by first, spreading the gospel around the world, second, defending gospel values, and third, strengthening fellowship among believers.
3. WEA is an entirely different organization than the WCC.
 - The WEA is an association of evangelical churches with evangelical roots that emphasizes the need to balance the church's social responsibility with evangelism, with the salvation of souls as the primary goal. It emphasizes conversion through the preaching of the Bible-based gospel as the ultimate goal of mission, distinguishing itself from social soteriology and pluralism.
 - The WCC, on the other hand, is an ecumenical council of churches founded in 1948 that aims to unite all the churches of the world through inclusive and diverse denominational and ecclesiastical cooperation, with the primary task of promoting social transformation and peace. The WCC's approach is characterized as universal soteriology and social soteriology, which seeks to extend the work of salvation to the transformation of society as a whole.
 - WEA's engagement in dialogue and collaboration with other denominations and non-Christian faith traditions is an approach toexpanding opportunities to share the gospel, not a compromise of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alone. The purpose of WEA's ministry is not simply inclusion or cooperation, but evangelism and defense of the truth.
4. WEA opposes religious pluralism, atheistic communist ideas, Roman Catholic theology, and homosexuality.
 - The 2019 General Assembly in Jakarta, Indonesia, affirmed the evangelical position that homosexuality is a sin from a biblical perspective and reaffirmed its uncompromising declaration. The WEA issued a statement in connection with the 2024 Paris Olympics, articulating a biblical perspective on gender identity issues.
 - Among the world's largest Christian organizations, the WEA is the only one to speak out against LGBTQ people and religious pluralism.
5. WEA strongly appeal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protection of religious freedom and human rights through official channels with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 The WEA is committed to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missionaries by having an official channel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t is currently organizing a life-saving campaign for Korean missionaries detained in North Korea, an important role for the Korean church in advocating for the Christian posi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nd for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6. WEA seeks to fulfill its mission of spreading the Gospel by building healthy communities of faith through discipleship.
 - During the 2019 Jakarta General Assembly, the WEA announced a plan to “focus on discipleship for the next decade,” providing direction for the church in the global mission landscape.
7. After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we expect the WEA to be a holy bulwark for the Korean Church and the World Church.
 - As the Korean church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global missions with the WEA, the grace of the missional gospel will sustain the revival of the Korean church and protect the Korean church.
 - The holy wind of defending the “created order and biblical values” that has been blowing through Korean society since the “Two Million Korean Churches United Worship and Prayer Gathering” on October 27, 2024, will spread throughout the world during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in October, 2025. At the same time, the WEA network will become a holy bulwark for the Korean church and the world church.

* The WEA General Assembly is held once every six years.



2025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한국교회총연합 | 아시아복음주의연맹(AEA) | 세계개혁신주의협의회(WWF) | 한국복음주의협의회

www.weaseoulga.org

2025
SEOUL
WORLD EVANGELICAL ALLIANCE

2025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출범 감사예배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Organizing Committee
Inaugural Thanksgiving Worship Service

주후 2024년 11월 15일(금) 오전 10시 / CCMM빌딩 12층
November 15, 2024 10:00 AM / CCMM Building

2025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2025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출범 감사예배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Organizing Committee
Inaugural Thanksgiving Worship Service

PRESIDER 사회 | 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담임 /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Rev. Lim Seok-soon (Senior Pastor of Korea Central Church / President of the Korea Evangelical Fellowship)

APOSTLES' CREED 사도신경 | 다함께
Together

HYMN 찬송 |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Marvelous Grace of Our Loving Lord (찬송가 252장) 다함께
Together

1.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길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2.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3.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가져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오서 더 지혜 잃고 곧 받으라
[후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1. Marvelous grace of our loving Lord, Grace that exceeds our sin and our guilt
Yonder on Calvary's mount out-poured, There where the blood of the Lamb was spilt,
2. Dark is the stain that we cannot hide, What can avail to wash it away
Look! there is flowing a crimson tide! Whiter than snow you may be today,
3. Marvelous, infinite, matchless grace, Freely bestowed on all who believe
You that are longing to see His face, Will you this moment His grace receive,
[Chorus] Grace, grace, God's grace, Grace that will pardon and cleanse within
Grace, grace, God's grace, Grace that is greater than all our sin.

PRAYER 대표기도 | 김상식 목사
(성경대학교 총장 / 한국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 회장)
Rev. Kim Sang-sik
(President of Sungkyul University / President of the Korea Evangelical Theological University Association)

SCRIPTURE READING 성경봉독 | 다모테후사 3장 16절~17절 사회자
President

16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비평과 함과 위로 교육하리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8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17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SPECIAL SONG 찬양 | "예수 열방의 소망" Jesus, Hope of the Nations 사랑 솔리스트 중창단
SaRang Soloist Singers

SERMON 말씀 | "성경의 절대 권위" 이영훈 목사
The Absolute Authority of Scripture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 WEA 서울 총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Rev. Lee Young-hoon
(Senior Pastor of Yoido Full Gospel Church / Co-chair of the WEA Seoul Organizing Committee)

VIDEO CONGRATULATORY MESSAGE 영상축사 | 국윌 샤나 목사(WEA 의장)
Dr. Goodwill Shana (Executive Chair of the WEA)

HYMN 찬송 | "온 세상 위하여" Christ For the Whole Wide World (찬송가 505장) 다함께
Together

1.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을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 듣고서 내 구원받으라
2.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일하니 주 예수 이름 함입어 이 복을 전하리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날 기도 힘쓰리
[후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언되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1. Christ for the whole wide world! Our task has just begun
For millions wait in every land The message of God's Son
Shall they be left in sin? To die without His Word
Without the Savior Jesus Christ, Because they never heard,
2. Christ for the whole wide world! His heralds will proclaim
Salvation for men everywhere In Jesus' blessed name
And we who cannot go To bear His tidings far
Will pray for those who take the Word, And witness where we are,
[Chorus] We will give, we will pray, We will witness every day That the
millions of the whole wide world May know our Savior's love.

BENEDICTION 축도 | 김상복 목사
(함평루아교회 원로,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전 회장)
Rev. Kim Sang-bok
(Emeritus Pastor of Hallejuah Church / Former President of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LCOME ADDRESS 인사말씀 | Dr. Frank Hinkelmann
(WEA 부의장 / 유럽복음연맹회장)
Vice President of the WEA / President of the European Evangelical Alliance

PRESS BRIEFING & DISCUSSION 기자회견 | 고성삼 목사 / 주연홍 목사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기획위원)
Rev. Ko Sung-sam / Rev. Jo Yeon-jong
(Planning Committee Members of the WEA Seoul Organizing Committee)

LUNCHEON 오찬 | 참석자
Participants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출범식 순서지

WORLD EVANGELICAL ALLIANCE SEOUL GENERAL ASSEMBLY 27-31 OCT. 2025
THE GOSPEL FOR EVERY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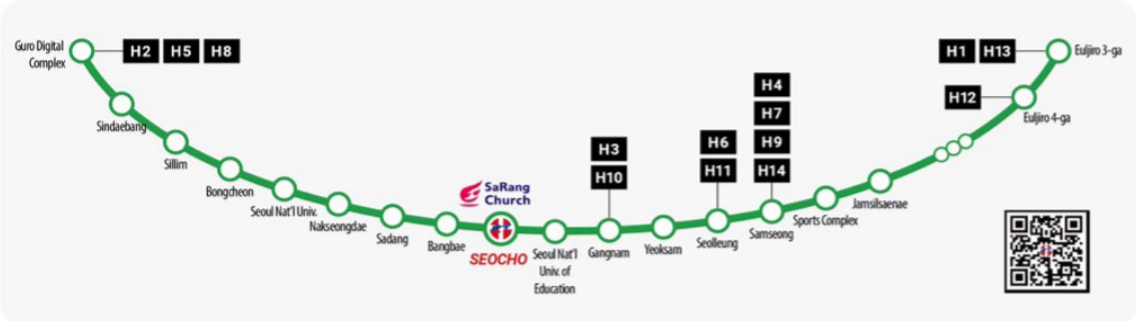
Subway Directions from Hotel to SaRang Church
(Line 2 : Green Line Subway Map)

1. Meaning of Hotel Assignment Numbers (H1, H2)

- H1, H2 indicate the unique number assigned to each hotel.
- For example, if you are assigned H2, it means you should board the subway at Guro Digital Complex Station.

2. Common Drop-off Point

- All participants are requested to get off at Seocho Station when attending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The diagram is a subway map of Line 2 (Green Line) in Seoul. It shows the route from Guro Digital Complex Station to Euljiro 3-ga and Euljiro 4-ga Stations. Hotel assignment numbers (H1-H14) are marked at various stations: H2, H5, H8 at Guro Digital Complex; H3, H10 at Gangnam; H6, H11, H14 at Samseong; H4, H7, H9 at Jamsil; H1, H13 at Euljiro 3-ga; and H12 at Euljiro 4-ga. A QR code is located at the bottom right of the map.

No.	Hotel Name	Nearest Subway Station for Seocho (Exit 3 – Sarang Church)	Nearest Subway Exit to Hotel	Hotel Tel.
H1	The Botanik Sewoon Myeongdong	Euljiro 3-ga	Exit 6	02-6926-1500
H2	Four Points by Sheraton Seoul Guro	Guro Digital Complex	Exit 2	02-6905-9500
H3	Gangnam Artnouveau City	Gangnam	Exit 5	02-580-7300
H4	Glad Gangnam Coex Center	Samseong	Exit 1	02-6474-5000
H5	Lotte City Hotel Guro	Guro Digital Complex	Exit 3	02-6210-1000
H6	NEWV	Seolleung	Exit 3	02-740-5000
H7	Peyto (Samseong)	Samseong	Exit 5	02-6936-8100
H8	Shilla Stay Guro	Guro Digital Complex	Exit 6	02-2162-9000
H9	Shilla Stay Samsung	Samseong	Exit 7	02-2175-9000
H10	Shilla Stay Seocho	Gangnam	Exit 2	02-2219-9000
H11	Shilla Stay Yeoksam	Seolleung	Exit 5	02-2054-9000
H12	Kukdo	Euljiro 4-ga	Exit 10	02-6466-1234
H13	Sollago Myeongdong	Euljiro 3-ga	Exit 7	02-2263-7979
H14	Ibis Hotel	Samseong	Exit 3	02-3454-1101



The image shows the logos for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and 'The Gospel for Everyone by 2025'. The WEA logo is on the left, and the 'The Gospel' logo is on the right, featuring a globe and the text 'FOR EVERYONE BY 2025'.

WEA 서울총회 호텔정보



서울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직위원회는 WEA와 서울총회를 알릴 수 있는 홍보책자 ‘꿈’을 발간했다. ‘꿈’은 영문판과 한글판 두 종류로 제작하여 국내외 참석자들은 물론 한국교회의 교역자와 학자 성도들에게 WEA 서울총회를 통한 복음화를 위한 꿈을 함께 꿀 것을 제안했다. ‘꿈’에는 WEA의 간략한 역사와 현 주요사역, 그리고 한국교회의 70여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역사를 담았고 서울총회의 비전과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홍보지도 2회 제작배포 하였는데 서울총회의 준비상황은 물론 WEA에 대한 세간의 근거없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적시적으로 답변하는 역할도 하였다. During the preparation for the Seoul General Assembly, the Organizing Committee published a promotional booklet titled Dream to introduce WEA and the vision of the Assembly. Produced in both Korean and English editions, the booklet presented the history and major ministries of WEA, over 70 years of partnership with the Korean church, and the vision and significance of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In addition, two promotional newsletters were published and distributed, providing updates on the preparation process while also responding to unfounded public concerns regarding WEA.



‘꿈’지 한영판



카타르복음주의연맹의 예배당 기공식

- WEA 7대 신앙고백 - WE BELIEVE**
- 성경은 거룩하고 신성한 영감을 받아 오류가 없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다. The Holy Scriptures as originally given by God, divinely inspired, infallible, entirely trustworthy and the basis of faith and life.
 -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One God, eternally existent in three persons, Father, Son and Holy Spirit.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죄 없으신 인간으로서의 삶, 신 육체적 부활, 승천, 중보자 사역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Our Lord Jesus Christ, God manifest in the flesh, His virgin birth, His sinless human life, His bodily resurrection, His ascension, His mediatorial work, and His personal return in power and glory.
 -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한 구원, 성령에 의한 중생을 믿습니다. The Salvation of lost and sinful man through the shed blood of the Lord Jesus Christ by faith alone, and the new birth by the Holy Spirit.
 -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증거하고, 일할 수 있도록 내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믿습니다. The Holy Spirit by whose indwelling the believer is enabled to live a holy life, to witness and to work for the Lord.
 - 성령님 안에서 참된 성도들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믿습니다. The Unity of the Spirit of all true believers,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부활로, 구원받지 않은 자는 정죄함과 심판의 부활로 나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The Resurrection of both the saved and the lost; they that are saved unto the resurrection of life, and they that are condemned unto the resurrection of judgment.

살아있는 정통 ORTHODOX • 순전한 복음 EVANGELICAL • 개혁적인 보수 CONSERVATIVE

2025 WEA 서울총회 뉴스레터 제2호 주후 2025.7.5.

한국교회, 세계를 섬기다
THE KOREAN CHURCH SERVING THE WORLD

한교섭(한국교회 섬김의 날)이 세교섭(세계교회 섬김의 날)으로

사망의교회가 지난 3년간 섬기는 '한국교회 섬김의 날'(한교섭) 행사에 오는 10월 27일, 2025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와 함께 열리게 되어 한국기독교 역사에 큰 의미를 남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천여 명을 비롯한 약 2천여 명의 해외 인사들을 고려하여 참석인원을 5천명으로 제한하여 등록을 받았다. 그러나 6천여 명의 목회자가 몰렸고 당초 1천명에게만 제공하기로 한 숙소도 3,600여 명이 산함을 하였다. 이에 사망의교회는 일단 산장자 전원을 수용하기로 하고 숙소를 신장한 교역자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제4회 한교섭은, 특별히 140여년을 맞이하여 복음의 빛을 전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향하여 복음주의 교회들의 지도자들을 맞이하고 한국교회의 성장사랑과 성령사역, 그리고 제자훈련의 원리를 공유함으로 복음의 빛을 증진시키나와 같은 헌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참석하는 6천여 명의 한국교회 목회자와 전 세계에서 찾아온 해외 목회자들은 서로에게 배우고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역사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EA 서울총회, 북한 복음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3년 전, 기대를 갖고 참석한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재계에는 목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든 것 같았습니다. 평양에 온 은혜와 도전을 받고 일어선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한 교회가 한국교회를 상대로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 온 교우들이 정성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다. 특히 금번 제4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세계교회들 섬기는 의미까지 더 하게 되니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WEA 서울총회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과 선교의 앞군으로 신앙 받는 분들이 모이는 자리에 저희들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목회의 인목을 넓히고 사역의 용량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복음의 가치를 지켜오고 교회의 예배의 자유를 지켜온 WEA의 헌신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저는 DMZ 안에서 만문장교회(북한)와 평화 500m 거리를 19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북한을 열고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WEA 서울 총회가 북한의 복음화와 통일을 한걸음 더 앞당기는 총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앞장서서 애쓰시며 온 마음 다해 섬겨 주시는 오정현 목사님과 사망의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 세계를 섬기다
THE KOREAN CHURCH SERVING THE WORLD

뉴스레터

WEA Seoul General Assembly Organizing Committee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Consultant 고문



김상복 목사
Rev. Kim Sang-bok



전계현 목사
Rev. Jeon Kye-hun



박희천 목사
Rev. Park Hee-cheon



피터 릴백 목사
Peter A. Lillback

Organizing Chair 공동조직위원장



이영훈 목사
Rev. Lee Young-hoon



오정현 목사
Rev. Oh Jung-hyun

Advisory Committee 자문



한기채 목사
Rev. Han Ki-chae
중앙성결교회 담임
서울신대 이사장



장세규 목사
Rev. Jang Se-kyu
전 코스타(KOSTA) 실무 총무
한빛지구촌교회 은퇴



조용성 선교사
Missionary
Jo Yong-seong
중앙성결교회 담임
서울신대 이사장



정성욱 교수
Professor
Jeong Seong-uk
미국 덴버신학대학원

Executive Committee Director 실행위원장

Theology Committee Director 신학위원장

Theological committee 신학위원회



김인영 대표
Resident
Kim In-young
한국복음언론인회 회장



지용근 대표
Resident
Ji Yong-geun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임석순 목사
Rev. Im Seok-Soon
한국중앙교회 담임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오덕교 목사
Rev. Oh Deok-Kyo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제7대 총장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위원장
오덕교 총장
Chairman President
Oh Deok-Kyo

성결대학교 제9대 총장
Seongkyul University
김상식 총장
President
Kim Sang-Sik

총신대 명예교수 한국신학정보 연구원장
Former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 Chongshin University
김정우 교수
Dr.
Kim Jung-Woo

서울신대 명예교수
Honorary Professor,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박명수 교수
Professor
Park Myung-Soo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International Theological Graduate University
김재성 교수
Professor
Kim Jae-Sung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Hapdong Theological Seminary
이승구 교수
Professor
Lee Seung-Koo

웨스트민스터성경 연구소장 전주 예수비전교회 담임
Westminster Biblical Research Institute Director, Senior Pastor of Jeonju Jesus Vision Church
이국진 박사
Dr.
Lee Guk-Jin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안한나 교수
Professor
Hannah S. An

선교분과 (가나다 순)
Mission Department

WEA Seoul General Assembly Organizing Committee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Secretary General of the Korea World Mission Council	한인세계선교사협의회 (KWMF) 공동회장 Co-chair of the Korean World Missionaries Council (KWMF)	기독교대한감리회 세계선교정책위원 World Missionary Policy Member of the Korean Methodist Church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선교위원장 Chairman of the Missionary Committee of the Korean Evangelical Council
위원장 강대홍 선교사 Chairman Kang Dae-heung	위원 강형민 선교사 Missionary Kang Hyung-min	위원 노성천 선교사 Missionary No Seong-cheon	위원 문창선 선교사 Missionary Moon Chang-sun

한인세계선교사협의회 (KWMF) 공동회장 Co-chair of the Korean World Missionaries Council (KWMF)	캄보디아교회사연구원 (ICCHI) 설립자/이사장 Founder/Chairman of the Institute for the History of Churches in Cambodia (ICCHI)	한국OM 대표 Representative of Korea OM	미선파트너스 상임대표 Permanent Representative of Mission Partners
위원 어성호 선교사 Missionary Eo Seong-ho	위원 장완익 선교사 Missionary Jang Wan-ik	위원 조은태 선교사 Missionary Cho Eun-tae	위원 한철호 선교사 Missionary Han Chul-ho

두란노해외선교회 (TIM) 본부장 Director of the Duranno Overseas Mission (TIM)
위원 한충희 선교사 Missionary Han Choong-hee

제자훈련분과
Discipleship Training Committee

운영위원 (가나다 순)
Steering Committee Member

박주성 목사
Rev. Park Joo-Sung

김도훈 Park Bong-jin	김명일 Park Seong-su	김은수 Park Sung-eun	김정두 Park Yu-gwan	김철승 Park Ui-seo	류호근 Park Jin-seok	문형희 Seo Seong-beom
박봉진 Shin Young-ho	박성수 Yang Chang-seok	박성은 Yeon Seung-cheol	박유관 Oh Jin-uk	박의서 Yoo Seong-taek	박진석 Yun Byeong-guk	서성범 Lee Seong-ho
신영호 Lee Yong-rak	양창석 Im Sin-taek	연승철 Im Won-bin	오진욱 Ha Gwang-min	유성택 Han Eun-taek	윤병국 Hwang Seong-jun	이성호
이용락	임신타	임원빈	하광민	한은택	황성준	

해외 디아스포라
한인목회자
Korean Diaspora Pastors Overseas

뉴욕장로교회 New York Presbyterian Church	남가주 사랑의교회 Sarang Community Church, Southern Californi	어바인 베델교회 Irvine Bethel Churc	새생명비전교회 New Life Vision Church
김학진 목사 Rev. Kim Hak-jin	노창수 목사 Rev. Noh Chang-soo	김한요 목사 Rev. Kim Han-yo	강준민 목사 Rev. Kang Joon-min

달라스 세미한교회 Dallas SaeHan Church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Central Presbyterian Church, Washington
이은상 목사 Rev. Lee Eun-sang	류응렬 목사 Rev. Ryu Eung-ryul

국제사역 기획
International Ministry Planning

국내사역 기획
Domestic Ministry Planning

사무국
Secretariat

Cooperation
협력
기관
Organiz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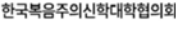
고성삼 목사 **Jeremy Lim**
Rev. Ko Sung-sam

주연종 목사 **고영용 목사**
Rev. Ju Yeon-jong Rev. Ko Young-yong

사무국장 이강일 목사 **행정실장 백승준 목사** **행정팀장 김주혁 목사**
Secretary General Administrative Office Director Administrative team leader
Rev. Lee Kang-il Rev. Baek Seung-jun Rev. Kim Joo-hyuk

행정지원 이은숙 간사 **자원봉사운영 김혜경 팀장**
Administrative support Volunteer operation
Officer Lee Eun-suk Team leader Kim Hye-kyung

 한국교회총연합 Korean Church Council	 WRF (세계개혁주의협의회) World Reformed Fellowship (WRF)	 AEA (아시아복음주의연맹) Asia Evangelical Alliance (AEA)
--	--	--

 한국복음주의 신학대학협의회 Korean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The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	 한국복음주의협의회 Korean Evangelical Fellowship
--	--	--

 한국복음언론인회 Korean Gospel Journalists Association	 목회데이터연구소 Ministry Data Institute	 평화한국 PEACECOREA
---	---	--

협력언론
Media Part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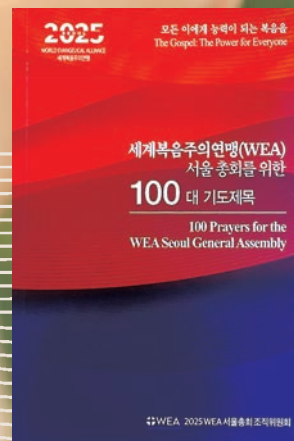
 CTS CTS	 CBS CBS	 C채널 C-Channel
--	--	--

 국민일보 Kukmin Ilbo (The Kukmin Daily)	 기독교연합신문 iGoodnews (Christian United Newspaper)	 GOOD TV GOOD TV
--	---	--

100 Prayers for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WEA 서울 총회를 위한 100대 기도제목

We Believe in
우리는 다음의 고백을
믿습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 (WEA)의 7대 신앙고백 World Evangelical Alliance's 7 Statements of Faith

성경의 절대권위 The Absolute Authority of the Bible

01

기록하고 신성한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정확무오하며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를 갈망하며 결코 무너지지 않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Lord, we believe and confess that the Scripture, written by divine and sacred inspiration, are Your infallible and inerrant Word. May we long for the wisdom of Heaven that surpasses human understanding and stand firmly upon the unshakable foundation of Your Word.

02

성경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전 영역에서 최고(最

古) 권위로 인정함으로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순전하게 청종할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Help us to trust and depend on the authority of Scripture above all else, recognizing it as the ultimate guide in every aspect of life. Grant us hearts, minds, and wills that seek answers within Your Word and obey it wholeheartedly.

03

세계복음주의연맹(WEA: World Evangelical Alliance) 서울 총회가 성경의 말씀을 일점일획(一點一劃)까지 믿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인한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하옵소서.

May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fully believe and proclaim the inerrancy of the Scriptures down to the smallest letter, so that the Gospel of the cross—made possible through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may be powerfully declared to the nations.

삼위일체 하나님 The Triune God

04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서로 다른 하나님이 아닌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선포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하옵소서.

We proclaim and believe that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Spirit are not separate Gods but one true and living God. Help us to fully hold on to the Almighty Father, Jesus our only Savior, and the Holy Spirit who dwells within us.

05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성자 하나님과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앙망하며 예배할 때,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좇아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As we worship the Son, our only Mediator, and the Holy Spirit, our personal Counselor, may we follow Jesus—the only way of salvation—even in a world clouded with confusion. Empower us to live daily by the Holy Spirit's power and guidance.

06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온전히 선포함으로 참 하나님의 온전한 이름이 이 땅에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순전한 복음이 다시 한번 온 세
계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May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boldly proclaim the Triune
God as the true object of our faith,
so that the perfect name of the one
true God may be restored in this
world, and the pure Gospel may
once again spread to all nations.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The Son of the
living God,
Jesus Christ**

07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이시고, 그리스도이
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고백
함으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이 땅
의 참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좃아 살게 하옵소서.
Lord, w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100% God and 100% man—our
Lord, the Messiah, and the living Son
of God. Help us to follow Him, the
only way of salvation, the true life,
and the absolute truth, so that we
may walk in His footsteps faithfully.

08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나신 예수
님이 결코 죄가 없으신 인간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감으로 구
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길을 이루신 분이 오직 예수
뿐임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May we acknowledge that Jesus,
who was born on this earth through
the body of the Virgin, is both a
sinless human and God, and may
we firmly believe that the way of
salvation begins only with Jesus
Christ and that He alone has fulfilled
that path.

09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한 기적을 베푸시
고 대속적인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
들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십자
가의 죽음으로써 나의 죄가 흰옷과 같이
말갈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보혈의
은혜 앞에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As we confess tha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performed
divine miracles and accomplished
atonement through His sacrificial
death, help us to realize that through
His cross, our sins have been washed
as white as snow, and may we
stand boldly before the grace of His
precious blood.

10
예수님이 사망의 그늘에서 완전한 승리
를 거두시고 육체의 부활과 승천으로써
종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믿고 증
거하게 하사,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예
수님의 재림 때와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
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We believe and testify that Jesus
conquered death, resurrected in
the flesh, and ascended to heaven,
continuing His ministry as our
Mediator. May we eagerly anticipate
His return as the victorious Judge,
whose coming is beyond human
comprehension.

11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가 예
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으로서 온전히 선포
할 때, 모든 이단과 우상들은 사라지고
십자가의 순전한 복음만 선명하게 빛나
게 하옵소서.
May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proclaim Jesus Christ as
the only name given by God for
salvation. Let all heresies and idols
be dismantled, and may the pure
gospel of the cross shine forth with
clarity and power.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The
Only Savior, Jesus
Christ**

12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
신 보혈의 은혜 외에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해결책이 없음을 모든 죄인으로 알게 하
사, 오직 십자가 밑에 납작 엎드리게 하
시고 모든 교만의 것들은 그 뿌리부터 뽑
히게 하옵소서.
Lord, let every sinner realize that
apart from the grace of Jesus Christ’s
blood shed on the cross, there is no
solution for sin. May we be humbled
to bow low at the foot of the cross,
and may all pride be uprooted
completely.

13
사람의 행위으로써는 절대 일말의 구원도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무능한 자로서
주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감으로 은혜에
빛진 자, 은혜의 영원한 채무자임을 한시
도 잊지 않게 하사, 오직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선물을 온전히 지키게 하옵소서.
May we acknowledge that no human
deeds can ever achieve even the
slightest portion of salvation, and as
powerless beings, may we surrender
before the Lord, never forgetting for
even a moment that we are debtors
to grace, eternal debtors to His
grace. Grant us the strength to fully
uphold the gift of salvation, received
by faith alone.

14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에서
오직 성령에 의한 중생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었음(고후5:17)을 선포
함으로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잘못된 사
상은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May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proclaim that, having
been born again through the Holy
Spirit, we have become entirely new
creations (2 Corinthians 5:17). Let
no false doctrine of works-based
salvation take root in our midst.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The Indwelling
Holy Spirit**

15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거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심을 감사하
며 나아갈 때, 오직 주의 은혜로써 성화
의 삶을 살아내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As we give thanks that the Holy
Spirit dwells deeply within us and
has made us His temple, help us to
live sanctified lives by Your grace
alone. May we be empowered by
the Spirit to fulfill the calling we have
received in Christ Jesus.

16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으로서 일상의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 가정
과 일터, 섬기는 공동체와 이 시대 가운
데 대체 불가능한 특명전권대사가 되게

하옵소서.
Through the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let us faithfully carry out our
daily callings as those who bring
joy to God. Whether in our families,
workplaces, churches, or society,
make us irreplaceable ambassadors
entrusted with Your mission in this
generation.

17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가 성
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온
전히 선포할 때, 나를 새롭게 하시는 웨
키나의 영광을 누리며 날마다 성령의 능
력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덧입게 하옵
소서.
May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boldly declare the
indwelling and guidance of the
Holy Spirit. As we experience the
Shekinah glory that renews us, may
we be fully clothed in the power of
the Spirit from head to toe each day.

**공교회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the Universal Church**

18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거하시
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앙망하며 성령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공회가 세워지고 연합함으로 더욱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는 무리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May we look to Jesus, who has promised to be present wherever people gather in His name, and may a holy assembly be established in the Holy Spirit. Through unity, let miracles and works of life abound, and may the number of believers continue to grow.

19

성령 안에서 참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교회를 세워 나갈 때, 한국 교회와 세계교회가 더욱 견고한 세 겹 줄의 연대를 이루게 하시고 밀려오는 21세기 반기독교적 공격을 너끈히 이기게 하옵소서.

As true saints in the Holy Spirit form the body of Christ and build His church, may both the Korean Church and the global Church be strengthened as a threefold cord, standing firm together. Grant us the power to withstand and overcome the rising anti-Christian attacks of the 21st century.

20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에서 모든 교회가 서로 연대하고 한 방향 정렬을 이루게 하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 자체마다 믿음의 정위치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각자의 사명을 순명하게 하옵소서.

At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Seoul General Assembly, may all churches unite and align in one direction, so that each member of the body of Christ within the Korean Church and the global Church may stand firmly in their rightful position of faith and faithfully obey the individual calling that God delights in.

공교회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the Universal Church

21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만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붙들고 앙망함으로 온 교회가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Just as the promise of the first coming of Christ was fulfilled, let the Church cling to the certainty of His second coming. May we stand firm on the confession: “Only one life, ’twill soon be past;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22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을 입고, 구원 받지 않은 자는 정죄함과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됨을 순전히 선포하게 하사, 땅만 보고 사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앙망하며 간구하게 하옵소서.

May we boldly proclaim that those who are saved will partake in the resurrection of life, while those who reject salvation will face the resurrection of judgment. Turn the hearts of those who live only for this world toward the eternal kingdom of God. May they seek and long for the things of heaven.

23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사, 이 땅의 돈과 재물과 명예를 좇아 살게 하는 악한 권세가 만지지도 못하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May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clearly proclaim Jesus Christ as the coming Judge. Strengthen the Korean Church and the global Church so that the evil powers that tempt people to pursue wealth, power, and fame will have no hold on them.

24

세계복음주의연맹 (WEA)의 정체성과 사명 The Identity and Mission of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역사 History

24

세계복음주의연맹(WEA: World Evangelical Alliance)의 순전한 복음을 통하여 칼 마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 사상과 다윈의 진화론으로부터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를 수호하게 하시고, 무신론의 그늘에 참 진리의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Lord, through the pure gospel proclaimed by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protect the Korean Church and the global Church from the ideologies of Karl Marx and Engels’ communism, as well as Darwin’s theory of evolution. May the light of true truth shine upon those under the shadow of atheism.

25

칼뱅주의자가 중심이 된 복음주의연맹(EA:Evangelical alliance)의 사상과 가치를 온전히 붙들게 하사, 1846년부터 영국에서 시작된 복음주의 수호의 단호한 결단들이 2025년에 아름다운 결실로 맺히게 하옵소서.

Help us to uphold the values and theological foundations of the Evangelical Alliance (EA), which was led by Calvinists. May the firm evangelical commitments made since its founding in Britain in 1846 bear beautiful fruit in 2025.

26

전미복음주의자협회(NAE: The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in USA)와의 연대를 넘어 세계 복음주의자들의 요청과 필요에 따라 세워진 세계 복음주의 연맹(WEA)이 세계교회를 아우르는 복음 수호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May the WEA, which was established in response to the needs of evangelical believers worldwide beyond its connection with the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NAE) in the USA, become a stronghold for protecting the gospel and leading the global Church.

27

세계복음주의연맹(WEA)과 함께하고 있는 전 세계 146개국, 143 연맹들이 거룩

한 연대를 이루게 하사, 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 아프리카, 남태평양, 중앙아시아, 중동, 카리브해 연안에 세워진 9개 지부가 순전한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복음의 요충지, 세계 복음화의 허브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Bless the WEA’s 146 national alliances and 143 evangelical organizations to stand together in a holy unity. May the nine regional branches established across Asia, Europe, South America, North America, Africa, the South Pacific, Central Asia, the Middle East, and the Caribbean serve as key centers for gospel expansion and fulfill their role as strategic hubs for global evangelization.

28

10.27 서울총회가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의 6억 5천만 명의 성도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군단을 이루며 전진함으로 세계 최대, 최고(最古) 기독교 연합기구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2025년 복음의 진원지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May the October 27,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unite WEA’s 650 million believers with one heart and one spirit, forming a mighty army for God. Let it become the world’s largest and most impactful Christian alliance, standing as the epicenter of the gospel in 2025.

한국교회와의 교류
Partnership
with the
Korean Church

29 1980년부터 이어 온 세계복음주의연맹 (WEA)과 한국교회 간의 교류가 깨어 있는 목회자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연대들을 중심으로 더욱 견고히 다져져서 세상의 거짓 복음을 완전히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Strengthen the bond between the WEA and the Korean Church, which has continued since 1980. May the partnership be firmly established through awakened pastors and God-pleasing alliances, forming a holy bulwark against false gospels that seek to infiltrate the Church.

30 “21세기 복음주의 신학의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선포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받는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이 신학적 토대 위에 굳게 서게 하사, 오해와 불신을 극복하고 복음주의 수호의 새로운 물결을 이루게 하옵소서. May the WEA, recognized as a “historic event that discovers and proclaims God’s will for the mission of 21st-century evangelical theology,” be firmly rooted in its

theological foundations. Help it to overcome misunderstandings and distrust, ushering in a new wave of evangelical revival and gospel-centered unity.

31 “총회가 지켜오고 추구하는 신학적 입장과 크게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는 한국교회의 주류 교단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 세계복음주의연맹(WEA)과의 더욱 긴밀한 연합과 교류를 이루게 하시고 무너져 가는 복음주의 쇠퇴를 막는 선봉장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Let the theological position of the Korean church’s mainline denominations closely mirrors that of the General Assembly. May this alignment not only promotes greater unity and fellowship with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but also empowers the church to take a proactive role in countering the decline of evangelicalism.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의 조직 및 주요사역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s (WEA) organization and main ministries

32 세계복음주의연맹(WEA)와 연합을 이루는 CCC(Campus Crusade for Christ),

IVF(Inter-Varsity 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 컴패션, 빌리그래함 선교센터 등의 100여 개 선교 단체들이 복음 수호의 긴박함을 공유하고 9개 대륙별 지부에서 활동할 때, 날마다 공급받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Let us fervently pray for the daily sustenance of Campus Crusade for Christ (CCC), InterVarsity 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 (IVF), Compassion, the Billy Graham Mission Center, and over 100 mission organizations connected with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May their vital mission to uphold the gospel, with chapters on nine continents, calls for our urgent and passionate support through prayer.

33 신학과 선교, 종교 자유와 여성, 그리고 청소년과 IT 등의 위원회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기묘자와 모사로서 진정한 책략가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게 하옵소서. As we seek God’s wisdom across various aspects of our mission—in the spheres of theology and missions, religious liberty, women, youth, and IT—let us turn to the Lord, the ultimate strategist and mastermind, and earnestly desire His guidance in our efforts.

34

교회 성장과 신학의 정립, 글로벌 선교 및 인권 보호, 가난 퇴치, 평화 구축, 국가정책 변혁 운동에 선두하고 있는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이 인적, 물질 공급이 끊이지 않게 하사, 어두운 시대적 상황과 비 진리의 늪 한복판에서도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May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a leader in church growth, theological clarity, global mission, human rights protection, poverty alleviation, peacebuilding, and national policy transformation, have a continuous supply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May this enable the light of the gospel to shine brightly during dark times and amidst the chaos of misinformation.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의 최근 활동
Recent Activities of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35 세계복음주의연맹(WEA)가 펼치고 있는 교육 및 선교활동, UN 등의 국제 연대를 통한 인권 활동들 속에 하나님의 신적 개입으로 창조 질서에 맞는 교육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복음의 새 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May God’s divine intervention in the

educational and missionary efforts of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as well as in the human rights initiatives of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ead to an education that aligns with the created order and opens new opportunities for the Gospel in places where it is difficult to reach.

36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이 주도하는 구호 활동에 선한 도움의 손길을 더해 주사, 칼과 창이 전쟁의 기구가 보습과 낫과 같은 농기구로 바뀌는 것처럼 세상이 놀랄 만한 기적의 역사를 집필하여 주옵소서. Let us lend our support to the relief efforts led by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in Palestine, Ukraine, and other war torn regions. Let us create a history of miracles that will inspire the world as the instruments of war is replaced with farming tools, promoting unity in the broken lands.

37 2024년 파리 하계 올림픽의 개막식에서 논란이 된 동성애의 이슈를 앞에 두고 반동성애의 목소리를 유일하게 선포한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의 담대한 행보를 기억하여 주사, 성경적 입장이 곧 사회의 질서가 되는 바른 정의와 바른 공의가 사회 전반에 구축되게 하옵소서. Let us acknowledge the courageous stance taken by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as

the sole anti-homosexual voice addressing the controversial issue of homosexuality during the opening ceremony of the 2024 Summer Olympics in Paris. Allow us to commit ourselves to establishing righteousness and justice throughout society, where biblical principles are upheld as the standard, fostering a strong commitment to these values.

38 세계복음주의연맹(WEA)과 연대하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의 구출을 위해 힘쓰는 한국복음주의협의회와 평화한국이 더욱 그 불씨가 타오르게 하시며, 황폐해져 버린 북한의 인권이 UN 인권위원회의 주요 의제가 되도록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As the Korean Evangelical Council and Peace Korea, in collaboration with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are committed to working together for the rescue of Korean missionaries held in North Korea. Allow them to continue to advocate passionately for this cause and ensure that human rights issues in the troubled country remain on the agenda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iming to gain support and raise awareness.

39 세계복음주의연맹(WEA) 2019년 인도네시아 총회 이후 선정된 국제적 목표인 “제자 훈련의 강화”를 통하여 세계 곳곳

에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사, 작은 자가 천을 이루며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May the “Strengthening Discipleship,” an international goal established after the 2019 WEA Assembly in Indonesia, allow Your perfect disciples arise like a flame in every corner of the world. Let the few become a thousand and the weak transform into a mighty nation.



서울총회 비전과 사명선언 Vision and Mission Statement of the Seoul Assembly

서울총회 비전 Vision of the Seoul Assembly

40

10.27 서울총회가 순수 복음의 확고한 정립을 위한 기폭제가 되게 하사, 사람의 사상과 이념과 철학으로 더럽혀지고 왜곡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믿음의 정위치로 회복되고 재정립되게

하옵소서.

Let the Seoul Assembly on October 27 serve as a catalyst for firmly establishing the pure Gospel. May the message of the bloody cross, which has been corrupted and distorted by human ideas, ideologies, and philosophies, be restored and reestablished as the foundation of our faith.

41

10.27 서울총회가 순수 복음의 강력한 확산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글로벌 모멘텀을 마련하는 총회가 되게 하사, 부흥의 르네상스를 새롭게 집필하는 역사적 변곡점이 되게 하옵소서. May the Seoul Assembly marks a significant moment in the powerful spread of the pure Gospel, serving as a catalyst for global momentum and a historical turning point in the revival renaissance.

42

10.27 서울총회가 세계복음주의권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주류로서 한국교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마무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선봉장의 사명을 순명하게 하옵소서.

May the Seoul Assembly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 Korean Church to establish itself as a responsible leader among the world's evangelical communities. Furthermore, may the Korean Church remain dedicated

to its pioneering mission of completing the global mission until the very end.

43

10.27 서울총회를 통하여 한국교회 내의 글로벌 교회와 리더의 참여가 활성화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안에서의 역량이 강화되게 하사, 한국교회의 많은 신앙의 자본이 세계 곳곳으로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Allow the revitalization of the involvement of global churches and leaders within the Korean church through the Seoul Assembly. May You Strengthen the Korean church's capacity within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to ensure that the rich faith resources of the Korean church are shared abundantly across the world.

서울총회 사명선언 Seoul Assembly Mission Statement

44

분단국으로서의 최초이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10.27 서울총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웨키나의 영광이 전 세계교회 가운데 묵도 되게 하사, 엄위한 그 영광 앞에 무한

감사를 경험하고 현재진행형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Let us witness the glory of God's Shekinah in the global church during the Seoul Assembly on October 27. Allow this event that marks the first assembly in a divided country and the first in Northeast Asia since the coronavirus pandemic. May we experience immense gratitude for God's glory and find joy in the present moment.

45

서울총회가 강령으로 삼고 있는 “살아있는 정통”을 통하여 과거에 얽매인 죽은 정통이 아니라 시대와 호흡하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서울총회가 되게 하사, 이로써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사명감을 가지고 향해하게 하옵소서. Allow the Seoul Synod, guided by the principle of “living orthodoxy,” to avoid becoming a stale orthodoxy tied to the past. Instead, may it seek to be a dynamic synod that engages with contemporary issues and makes a meaningful impact in the world. May this approach enable the Korean and global churches to lead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sailing forward with a sense of purpose and mission inspired by God.

46

서울총회가 지향하고 있는 “개혁적인 보수” 신앙을 통하여 교회가 복음의 순수

성과 교회의 거룩성을 지킴과 동시에 말씀 중심, 성령의 역사, 선교적 사명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사, 기도와 헌신, 연합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May the “Reformed Conservative” faith of the Seoul Synod transform the church into a socially responsible community. May this transformation be centered on the Word,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and focused on the mission, as it is essential to preserve the purity of the Gospel and uphold the holiness of the church while dedicating ourselves to the expansion of God's kingdom through prayer, commitment, unity, and service.

47

서울총회가 추구하고 있는 “순전한 복음”을 통하여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사, 인간의 사상과 철학에 변질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나 문화에 타협하지 않은 성경적 본질을 수호하게 하옵소서. May the “pure gospel” that the Seoul General Assembly aims to proclaim become the uncompromising Gospel of the cross of Jesus Christ, unaltered by human ideas and philosophies and untainted by worldly values and culture.

48

서울총회의 사명인 “살아있는 정통”, “개혁적인 보수”, “순전한 복음”을 통하여 세계 지역별 이슈와 신학적 도전을 외면하

지 않고 성경적 절대 진리가 뿌리가 되고 시대를 꿰뚫는 대안을 마련하게 하사, 표류하는 세상과 교회 가운데 주님이 열어 주시는 새 길을 향도(嚮導)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May the Seoul Synod's mission focus on “Living Orthodoxy,” “Reformed Conservatism,” and “Pure Gospel.” Allowing these principles aims to ground the Korean Church in biblical absolute truth while providing timeless alternatives. As they encourage engagement with global issues and theological challenges, leading the way forward on the new path God is opening in an increasingly uncertain world and church.

49

10.27 서울총회가 세계교회를 향하여 분명한 복음적 가치와 기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감 없이 제시하게 하사, 세계 선교의 불씨가 지펴지고 세계교회가 온전한 제자훈련 선교교회로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하옵소서.

We pray the Seoul Assembly will serve as a guiding light, offering the global church clear evangelical values, standards, and direction. As we aspire for it to ignite the spirit of global mission and enable the church to soar like an eagle as a fully disciplined missionary community.

50

10.27 서울총회가 선언하는 제자훈련의 확산과 적응을 통한 제자훈련 국제화가

맹렬히 타오르게 하사, 세계 국제 질서의 영적 지형도가 바뀌고 복음의 거룩한 새 판짜기를 통하여 각 개인과 가정, 교회 공동체와 모든 민족을 새롭게 하옵소서. May the dissemination and application of the message proclaimed at the Seoul Assembly accelerate the internationalization of discipleship. Allow this movement to powerfully transform the spiritual landscape of the global order and impact individuals, church communities, and nations through a renewed presentation of the Gospel.

51

10.27 서울총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글로벌 시대를 향도(嚮導)하는 시대적 책임을 통감하게 하사, 한국교회가 복음주의의 쇠퇴를 막는 거룩한 방파제가 될 뿐만 아니라 대반전의 승리를 이끄는 중심축이 되게 하옵소서.

10.27 Through the Seoul General Assembly, let the Korean Church realize and affirm its responsibility as the global headquarters of the Church, and allow the Korean Church to become not only a holy bulwark against the decline of evangelicalism but also the center of the victory of the great reversal.

52

10.27 서울총회의 모든 일정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글로벌 영적 허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의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요람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10.27 Through all the events of the Seoul General Assembly, let the Korean Church fulfill its mission as a global spiritual hub that strengthens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become a cradle for the holy unity of the Holy Spirit, so that it may be used for the expansion of God's kingdom.



서울총회 비전과 사명선언 Vision and Mission Statement of the Seoul Assembly

WEA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 최고(最古)의 복음적 기독교 연합체이다. The WEA is the world's largest and oldest evangelical Christian fellowship in existence.

53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이 신학적 연구 집단이나 교단이 아닌 하나님께 친히 사용하시는 복음 전파와 선교, 구제를 목적으로 한 사역 연합체로서 한 영혼을, 그리고 온 가정을 하나님의 참 진리로 귀향시키는 인가귀도(引家歸道)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옵소서.

Allow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to be Your tool, not as a theological research group or denomination but as a network of ministries used by God for evangelism, and outreach. Let it fulfill its mission of bringing the entire family home to the truth of God.

54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이 인본주의적 이성(理性) 숭배에 잠식되어 상실된 인간성과 사회 질서를 창조 질서와 성경의 절대 권위로 바로 세우고, 올바른 복음을 수호함으로 일상화된 분노와 교회 안에 파고든 불신앙의 크레바스(crevasse)를 치유하게 하옵소서.

May the WEA heal the crevasse of unbelief that has crept into the church and the normalized anger that has become entrenched in the cult of humanistic reason by restoring the created order and social order to the absolute authority of Scripture, and by defending the right gospel.

WEA는WEA의 핵심 가치는 Evangelical(복음), Orthodox(정통), Conservative(보수)이다. WEA's core values are Evangelical, Orthodox, and Conservative.

55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가 선

포하는 순전한 복음(Evangelical)과 살아있는 정통(Orthodox), 개혁적 보수(Conservative)를 통하여 6만여 한국교회가 140년 전 순교적 각오를 하고 이 땅을 밝은 세계 선교사들의 피 묻은 복음을 다시금 지키게 하옵소서.

Through the pure evangelical, orthodox and reformed conservative proclamation of the Seoul WEA General Assembly, may the 60,000 Korean churches once again defend the gospel of the world missionaries who entered this land 140 years ago with martyrdom in their hearts.

56

세계복음주의연맹(WEA) 핵심 가치인 복음(Evangelical), 정통(Orthodox), 보수(Conservative)를 통하여 바른 복음이 수호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이 회복을 넘어 부흥, 확산, 전파되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바른 교회가 재건되게 하옵소서.

Grant us Your blessing that the right gospel may not only be defended through the core values of the WEA - evangelical, orthodox and conservative - but that it may be revived beyond restoration, spread and proclaimed throughout the world, so that the right church may be restored through the fellowship of believers.

WEA는 WCC와 신학적 입장과 배경이 전혀 다른 연합체이다. The WEA has a very different theological position and background than the WCC.

57

초교파적 협의체인 세계교회협의회(WCC: World Council of Churches)가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세계 모든 교회의 일치'와 '사회 변혁과 평화 증진'이 참 진리를 희석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를 통하여 바른 복음이 수호되고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May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an ecumenical council, realize that its main tasks of "unity of all the churches of the world" and "promotion of social transformation and peace" are a dilution of the true gospel, and the right gospel be defended and preached in peace through the Seoul General Assembly of the WEA.

58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가 세계교회협의회(WCC)의 보편구원론이나 사회 구원론적 특성과 다원주의적 입장을 끝까지 바르게 거부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구원의 믿음이 순수하게 지켜지고 타협되지 않게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May the Seoul General Assembly rightly reject the universal or social salvationist and Darwinian positions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to the end, and please protect the WEA with horses and chariots of fire that the only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may be kept pure and uncompromised.

WEA는 종교 다원주의, 무신론적 공산주의 사상, 로마 가톨릭 신학,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 반대한다. WEA opposes religious pluralism, atheistic communist ideas, Roman Catholic theology, and homosexuality.

59

2019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총회에서 확인했던 것 같이 세계복음2019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총회에서 확인했던 것 같이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에서도 동성애가 분명한 죄라는 복음주의적 입장을 다시 확고히 하게 하사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을 거부하고 인본주의적 거짓 자유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Let the WEA reaffirm its evangelical position that homosexuality is a clear sin at the Seoul General Assembly, as affirmed at the 2019 Jakarta General Assembly in Indonesia, rejecting liberal theologies that are compromising with the world and exposing humanistic false freedom for what it is.

60

2024년 파리 올림픽과 관련한 성 정체성 문제를 성경적 관점으로,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명확히 밝힌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의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게 하사, 서울총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교육과 문화와 가정 속에 침투한 잘못된 성(性) 정체성 문제를 정화하게 하옵소서.

Allow the WEA, which was the only organization to publicly criticize and clarify the issue of gender identity in relation to the 2024 Paris Olympics from a biblical perspective, to continue to uphold the values through the Seoul General Assembly and to cleanse Korea's education, culture, and families of false gender identity.

61

전 세계 글로벌 기독교 연합 기구 중 유일하게 LGBTQIA+와 종교 다원주의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이 2025년 서울총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남자, 여자 이외에 다른 성(性)은 없음을 세상 가운데 분명히 공포하게 하옵소서.

Grant the WEA, the only global Christian federation organization to speak out against LGBTQIA+ and religious pluralism, a opportunity to boldly proclaim to the world at the 2025 Seoul Assembly that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an by which we are saved

62

except Jesus Christ, and that there is no gender other than male and female.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를 통하여 6만여 한국교회가 문화 막시즘 등의 무신론적 공산주의 사상과 로마 가톨릭 신학으로부터 바른 복음을 수호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Through the Seoul Assembly, let the 60,000 Korean churches become embassies of the kingdom of God, defending the correct gospel against atheistic communist ideas such as cultural maximalism and Roman Catholic theology.

WEA는 UN 인권위원회와 공식 채널을 통해 종교의 자유와 인권 보호를 국제사회에 강력히 호소한다. WEA strongly appeal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protection of religious freedom and human rights through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and official channels.

63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이 UN 인권위원회의 공식 채널과 거룩한 연대를 맺고 강화, 협업을 이루어 나가게 하사, 140년 전에 순교적 각오를 갖고 불모지와 갈던 조선 땅을 밟은 선교사들과 같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May the WEA stand in holy solidarity, strengthening and cooperating with the official channels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and may it work for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missionaries who are still carrying the gospel around the world, like those missionaries who stepped into the barren lands of Korea 140 years ago.

64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가 북한 인권 문제와 남북통일을 위한 기독교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은혜의 파도로 쓰임 받게 하사, 한국교회가 북한의 억류된 성도와 선교사들을 위한 구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기폭제가 되게 하옵소서.

Please use the Seoul General Assembly as a wave of Your blessing to actively advocate for the Christian posit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nd may the Korean church be a catalyst for a life-saving movement for the imprisoned saints and missionaries in North Korea.

WEA는 제자훈련을 통해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 WEA seeks to fulfill its mission of spreading the Gospel by building healthy communities of faith through discipleship.

65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가 제자훈련을 통한 건강한 신앙공동체를 이루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의 거룩한 팀워크를 이루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는 글로벌 스탠다드 플랫폼(Global Standard Platform)이 되게 하옵소서.

Bless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be a valuable global standard platform for the holy teamwork of the global church in fulfilling its mission of spreading the Gospel to build healthy communities of faith through discipleship.

66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가 “향후 10년간 제자훈련에 집중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총회의 결의를 고수함으로 복음주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사명과 사역의 방향을 제시하게 하여 주시고, 엄혹한 세계 선교의 상황을 타개하게 하옵소서.

Let the Seoul General Assembly uphold the decision of the Jakarta Assembly to “focus on the discipleship for the next decade,” providing direction for the mission and ministry of the evangelical church in the face of the dire global mission context.

WEA 서울총회 이후, WEA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거룩한 방파제가 될 것을 기대한다. After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we expect the WEA to be a holy bulwark for the Korean Church and the world church.

67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가 올바른 믿음의 세대 계승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사, 무너진 유럽교회가 K-복음의 강력한 원천을 통하여 재건과 재부흥이 이뤄지게 하시고, 선교적 복음의 은혜로 한국교회 역시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는 부흥의 물결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May the Seoul General Assembly be an outpost for the proper transmission of the faith, so that the collapsed European churches may be rebuilt and revived by the powerful source of the K-Gospel, and that the Korean church may experience a continuous and unstoppable wave of revival by the grace of the missional gospel.

68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가 2024년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의 거대한 복음적 물결을 이어받아 창조 질서와 성경적 가치를 수호하는 거룩한 파장을 이루게 하시고,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Allow the Seoul General Assembly to continue the great evangelistic wave of the “Two Million Korean Believers Unity Service and Great Prayer Rally” on October 27, 2024, and become the epicenter of a holy ripple that will spread throughout the world in defense of the created order and biblical values.



10.27 서울총회의 빈틈 없는 준비를 위한 기도 Praying for Perfect Preparation for the 10.27 Seoul General Assembly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 Pray for God's presence

69

10.27 서울총회가 여호와를 앙망(仰望)하며 주님의 영광의 빛을 목도하며 나아가갈 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사, 크로노스의 시간을 뛰어넘는 카이로스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Let 10.27 the Seoul General Assembly enjoy the blessings of Immanuel, and experience

the blessings of Kairos, which transcends the time of Chronos, as it moves forward in hope of the Lord and beholds the light of His glory

70

10.27 서울총회의 처음과 끝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경천동지(驚天動地)의 은혜가 고동치게 하옵소서.

May the Lord, who is the Alpha and Omega, protect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Seoul General Assembly so that the resonance of the grace upon the GA increases as the time draws near.

71

10.27 서울총회의 핵심 가치인 복음(Evangelical), 정통(Orthodox), 보수(Conservative)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온 세계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늘의 쉼키나의 찬란한 영광에 온 성도가 눈이 떠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Bless us to proclaim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which is pleasing to God for the whole world through the core values of 10.27—Evangelical, Orthodox, and Conservative—and let us have a time of blessing when all believers open their eyes to the splendor of the heavenly Shekinah.

72

기묘자이자 모사이신 완전한 책략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10.27 서울총회의 주관자가 되어 주사, 사람은 내다볼 수 없는 앞에 놓인 수많은 난관과 장애물을 너끈히 넘게 하시고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대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May Jesus Christ, our Wonderful Counselor and the Perfect Strategist, be the host of the 10.27 Seoul General Assembly, and grant us the grace to overcome many unexpected difficulties and unseen obstacles that lie ahead, and let us turn crises into opportunities.

**서울총회를 앞서 섬기는
조직위원회와 봉사자들을
위한 기도 Pray for the
organizing committee
and staff serving in
advance of the Seoul
General Assembly**

73

10.27 서울총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여호수아의 담대함과 성령의 검을 쥐어 주사, 악한 것들은 만지지도 못하도록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Grant all staff members of 10.27 GA the boldness of Joshua and the sword of the Holy Spirit and please protect them with fiery eyes so that nothing veil can touch them.

74

10.27 서울총회를 지금도 준비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를 향한 주님의 갈급한 심정과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잃어버린 양을 향한 목자의 심정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Allow pastors and members who are still preparing for the Seoul General Assembly to have Your thirsty heart for the preaching of the gospel and the wisdom of the Holy Spirit, and abundantly pour out Your shepherd's heart for the lost sheep.

75

10.27 서울총회를 물 떠온 하인의 심정으로 준비하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디자인하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사, 물이 포도주가 되는 영광스럽고도 놀라운 기적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Bless Your workers, who are preparing for the Seoul General Assembly with the heart of servants who prepared water for Jesus at Cana, with the indescribable joy of building the kingdom of God, so that they may know the secret of the glorious and wonderful miracle of water becoming wine.

**참여하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한 기도
Pray for the
participating Korean
and global churches**

76

참여하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날의 감격을 기대하고 예비된 은혜를 사모하며 고대할 때, 믿음의 큰 그릇을 허락하여 주사, 차고 넘치는 예비된 복을 하나도 땅에 쏟지 않게 하옵소서.

As the pastors and members of the participating Korean and world churches anticipate the excitement of this day and long for Your blessing, please give them great vessels of faith so that not a single drop of the abundant and overflowing blessing will fall to the ground.

77

한국교회를 포함한 전 세계교회가 10.27 서울총회에 서 있기만 해도 쉼키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May all the churches of the world experience the fullness of the glory of the Shekinah and the presence of God just by standing at the Seoul

Assembly and enjoy the blessing of having a spring of unbroken water in a world that is like a wilderness.

78

참여하는 교회들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과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모험을 내디디며 10.27 서울총회에 참가할 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사,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 거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As the participating churches take a leap of faith in spite of the many obstacles and hindrances, let them receive special guidance beyond their wildest dreams and experience the blessing of dwelling under the pillar of fire and the pillar of cloud.

**서울총회를 위해
기도하는 전 세계
성도들을 위한 기도
Pray for believers
around the world
praying for the Seoul
General Assembly**

79

10.27 서울총회를 마음으로 그리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의 마음마다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큰 확신을 가지고 불철주야(不徹晝夜)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May all believers who pray wholeheartedly for 10.27 be filled with

heavenly joy and let them fall on their knees in prayer with great confidence,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80

10.27 서울총회를 위해서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함을 모두가 알게 하시고 기도의 방향으로 역사의 방향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As we pray sincerely and wholeheartedly for the Seoul General Assembly, allow us to understand that a person with prayer is stronger than a nation without prayer, and let Your Kingdom work and flow in the direction of prayer.



10.27 서울총회의 물 흐르는 듯한 진행을 위한 기도

**Prayer for the
Smooth Flow of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on Friday,
October 27**

**순서를 맡은 목회자와
위원회를 위한 기도
Prayer for the Pastors
and Committees
Leading the Assembly**

81

서울총회의 순서를 맡은 모든 목회자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그 어떤 장애물도 방해가 되지 못하도록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Strengthen the identity and calling of all pastors entrusted with the order of the Seoul General Assembly. Grant them grace that transcends the limits of their physical bodies so that no obstacle may hinder them. Protect and defend them with chariots and horses of fire.

82

서울총회의 모든 위원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예비하신 다윗의 물맷돌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세의 지팡이가 되게 하사, 시대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May all committee members of the Seoul General Assembly serve as faithful workers of God's kingdom. Let them take up the role of David's sling stones, prepared by God for His work, and become like Moses' staff, experiencing the miraculous work of parting the Red Sea of this generation.

**서울총회의 예배와
안건을 위한 기도**
Prayer for the Worship
and Agendas of the
Seoul General
Assembly

83

서울총회의 시작을 알리는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성 삼위 하나님의 총만한 은혜와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사, 봄날의 강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게 하옵소서.

May the opening worship of the Seoul General Assembly overflow with the abundant grace and presence of the Triune God. Let it be as refreshing as the spring rains, causing the very cells of our souls to dance with joy.

84

서울총회에서 안건이 발의되고 결의될 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작은 다툼이나 이견 없이 만장일치의 결의로 복음의 공동체성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As agendas are proposed and decided at the Seoul General Assembly, may the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make the Word a lamp to guide the way. Let there be no division or dispute, but rather unanimous decisions that reflect the unity of the gospel community and the oneness in the Holy Spirit.

**서울총회가 개최되는
장소와 안내,
안전 등을 위한 기도**
Prayer for the Venue,
Guidance, and Safety
of the Assembly

85

서울총회가 개최될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사랑의교회 등 모든 장소를 불 성막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산과 같은 성산으로 세워 주사, 시온의 대로가 시작되는 은혜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Protect all venues of the Seoul General Assembly, including Yoido Full Gospel Church and SaRang Church, with a wall of fire. Establish them as holy mountains of the Lord, making them places of grace where the highway of Zion begins.

86

안내에서부터 기쁨과 위엄을 느끼며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로 섬기는 모든 봉사자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명품 안내가 만드는 결정적 차이로써 명품 총회가 되게 하옵소서. Anoint with the Holy Spirit from head to toe all volunteers serving as guides, so that their hospitality may reflect dignity and excellence. May the quality of their service set a decisive standard, making this assembly one of unparalleled excellence.

87

서울총회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질서정연한 총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은혜만 남는 총회를 이루어 주사, 들어서고 나가는 자들이 생명 싸개로 덮임을 받게 하옵소서. Let the multitude gathered for the Seoul General Assembly experience perfect order without a single safety incident. May this assembly leave behind only grace, and may all who enter and exit be covered in the bundle of life.

**서울총회를 위한
교통과 방송, 날씨 등을
위한 기도**
Prayer for
Transportation, Media,
and Weather for the
Assembly

88

멀리서 찾아오시는 해외 선교사와 디아스포라 한인 목회자 2천 명을 포함한 WEA 관계자 3천 명과 국내 5천 명의 목사님들의 교통과 항공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작은 불편과 불평을 상쇄하는 현장의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의 대차대조표가 작성되게 하옵소서. Safeguard the travel and flights of the 2,000 diaspora Korean pastors and missionaries from abroad, as well as the 3,000 WEA representatives and the 5,000 domestic pastors attending. Let any

minor inconvenience or complaint be overwhelmed by an atmosphere of gratitude and joy, creating a balance sheet of grace at the gathering.

89

송출되는 방송과 사용되는 장비들에 어떤 결함이나 진행의 끊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멀리서 영상 매체를 통해 참여할 때도 불편함 없는 영상과 음향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May all broadcasts and technical equipment function flawlessly without any interruptions or defects. Even for those participating remotely due to circumstances, provide a seamless experience with high-quality video and audio.

90

세상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울 총회 당일 날씨부터 각 사람의 마음까지 모두 은혜받기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혼의 만족함과 복음적 쉼을 누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By the sovereign power of God, who rules over all visible and invisible things, prepare the weather and the hearts of all attendees to be in the optimal state to receive grace. Let this day be one where souls find satisfaction and gospel-centered rest as they behold the Creator of all nature.

10.27 서울총회 이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한 기도

**Prayer for the Holy
Spirit's Guidance
After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on
Saturday, October 27**

**세계복음주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
Prayer for the Revival
and Restoration of
Global Evangelicalism

91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를 통하여 어둠과 암흑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웨키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사, 세계 곳곳에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복음의 원초적인 세계성과 위대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Through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shine the glorious Shekinah light of the Holy Spirit upon the Korean Church and the global Church, which are surrounded by darkness.

May churches that have crumbled across the world be rebuilt, and

may the original universality and greatness of the gospel be restored.

92

10.27 서울총회의 가치인 ‘살아있는 정통’, ‘개혁신적인 보수’, ‘순전한 복음’이 구호를 뛰어넘어 반드시 현장성을 가진 생명력 있는 실사구시(實事求是)로 이어지게 하사, 사역의 현장에서 눈물의 기도와 땀의 헌신이 있는 실천을 통하여 복음이 열방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May the theme of the Seoul General Assembly—“Pure Gospel,” “Living Orthodoxy,” and “Reformed Conservatism”—go beyond mere slogans and be realized as tangible, lifegivingtruth in the field of ministry. Through prayers of tears and labors of dedication, let the gospel flow to the nations.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부흥의 르네상스를 위한 기도
Prayer for the Renaissance of Revival in the Korean and Global Church

93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가 순전한 복음의 거룩한 씨앗으로써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살아있는 정통을 지키며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비상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개혁적인

보수 신학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Let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become the sacred seed of revival, making the Korean Church and the global Church not only protectors of living orthodoxy but also catalysts for revival. May it serve as a stronghold for reformed conservative theology, where disciples are raised one soul at a time.

94

10.27 서울총회가 한국교회 크리스천이 전체 인구의 50%가 되는 2033-50 비전의 거룩한 그루터기로 쓰임 받게 하사,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이 경탄할 만한 기적의 역사를 집필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기적의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May the Seoul General Assembly be a holy foundation for the 2033-50 Vision, where Christians make up 50% of South Korea’s population. Let this gathering mark the beginning of a new chapter in the miraculous history of faith, making Korea a nation of miracles—a holy priestly nation.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위한 기도
Prayer for the Globalization of Discipleship Training

95

10.27 서울총회가 복음의 요충지, 복음의 허브 역할을 감당하게 하사, 부흥의 공진을 일으키는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통하여 세계의 영적 지형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May the Seoul General Assembly become a strategic hub of the gospel, serving as the epicenter of revival. Through the globalization of discipleship training, a key agenda of this assembly, reshape the spiritual landscape of the world.

96

10.27 서울총회를 통해 예수님의 보혈 은혜가 담긴 제자훈련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사, 모든 목회자는 한 사람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삼기 위해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피 앞에서 신앙의 차려 자세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Strengthen discipleship training, which has been refined through the blood of Jesus, so that every pastor wholeheartedly commits to making one person a true disciple of Christ, and every believer restores a posture of reverence before the blood of Jesus.

다음세대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
Prayer for the Evangelization of the Next Generation

97

서울총회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순수함을 받아들이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고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평생에 담는 은혜의 만조(滿潮)를 누리게 하옵소서.

Through the Seoul General Assembly, may the next generation not miss the golden time for embracing pure faith. Let them not remain in the blind spots of grace, but ascend the holy mountain of the Lord, daily experiencing the fullness of Immanuel’s blessing through the Word and prayer.

98

10.27 서울총회가 선대가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신앙의 강점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계승하는 전환점이 되게 하사, 영적인 세대 차이가 극복되고 AI 인공지능 시대를 영적 능력으로 향도(嚮導)하는 은혜의 주류로 다음 세대가 우뚝 서게 하옵소서.

May the Seoul General Assembly become a turning point where the

strengths of Korean Christianity are fully passed down to the next generation. Overcome the spiritual generation gap and establish them as a leading force of grace in the AI-driven era, guided by spiritual power.

세계선교의 마무리를 위한 기도
Prayer for the Completion of World Missions

99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선교적 영성, 디아스포라의 국제적 영성, 북한 지하교회의 순교적 영성이 조화를 이루게 하사,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리고 백두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전진하며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Through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may the Korean Church’s missionary spirituality, the international spirituality of the diaspora, and the martyrdom spirituality of the North Korean underground church unite as one. Let the gospel advance from Hallasan to Baekdusan, and from Baekdusan to the ends of the earth, fulfilling a bloodless, gospel-centered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100

140여 년 전 선교 수혜국(受惠國)에서 선교 시혜국(施惠國)으로 성장한 한국교회가 10.27 서울총회를 충실히 섬기게 하사, 은혜의 빛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 대사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계선교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May the Korean Church, which transitioned from a mission-receiving nation 140 years ago to a mission-sending nation, faithfully serve the Seoul General Assembly. As debtors to grace, let it fulfill its mission as an ambassador of God’s kingdom, bringing world missions to completion.

5

WEA Seoul GA & 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Highlights

2025 WEA 서울총회와
한국교회 섬김의 날(한교섬)
프로그램 & 화보

프로그램

Program

첫째 날 _ 우리는 복음을 살아낸다

Day 1 _ We Live the Gospel

둘째 날 _ 우리는 복음을 선포한다

Day 2 _ We Proclaim the Gospel

셋째 날 _ 우리는 복음을 대표한다

Day 3 _ We Represent the Gospel

넷째 날 _ 우리는 복음을 기뻐한다

Day 4 _ We Celebrate the Gospel

다섯째 날 _ 한국 역사 탐방의 날

Day 5 _ Korean Historical Pilgrimage Day

여섯째 날 _ 내 영혼의 풀 콘서트

Day 6 _ My Soul's Full Concert

General Information

2.4 Event Schedule

Time	Monday 27th <i>We Live the Gospel</i>	Tuesday 28th <i>We Proclaim the Gospel</i>	Wednesday 29th <i>We Represent the Gospel</i>	Thursday 30th <i>We Celebrate the Gospel</i>	Friday 31st
	Breakfast at your hotel				
06:30 - 07:45 <i>Prayer in Covenant Chapel (from 07:00)</i>	Latin Evangelical Alliance Evangelical Alliance of Caribbean	Asia Evangelical Alliance Central Asia Alliance	Middle East and Northern Africa Evangelical Alliance European Evangelical Alliance	South Pacific Evangelical Alliance Association of Evangelicals of Africa North America Evangelical Alliances	
08:45 - 09:15	Opening Ceremony and Prayers (Dr. Seble Daniel)	Integrity Music and Shekinah Singers (Rev. Asiri Ferrado)	Integrity Music and Shekinah Singers (Rev. Dr. Walter Kim)	Integrity Music and Shekinah Singers (Rev. Botrus Mansour)	
09:15 - 10:15	Greetings from SOC Leaders (Rev. Dr. Goodwill Shana, Rev. Dr. Oh, Rev. Botrus Mansour)	Panel 4: Proclaiming the Gospel for all women in the midst of persecution. Open Doors. Religious Freedom, Peace in Korea	Panel 6: Representing the Gospel in Global Advocacy	Panel 10: Celebrating the Gospel in Evangelism	
10:15 - 10:45		Break	Break		
	Panel 1: Living the Gospel in Global Growth Panel 2: Living the Gospel in Culture and Cities Panel 3: Living the Gospel through Movements Bishop Beda — EACO Project Celebrate: Milestones and MC 50 years	Panel 5: Proclaiming the Gospel in a Shifting World 50 years of the WEA Theological Commission Rev. Dr. Stephen Tong — Special Address	Panel 7: Representing the Gospel in AI, Technology and Ethics Panel 8: Representing the Gospel in Mental Wellness Panel 9: Representing the Gospel through the Scriptures	Panel 11: Celebrating the Gospel through Generosity Panel 12: Celebrating the Gospel in Disciple-Making Celebrate	
12:15 - 13:25		Lunch	Lunch		
13:30 - 16:00	Combined Worship (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and WEA)	Combined Worship	Workshops and Special Interest Groups (voting members only)	Workshops and Special Interest Groups (voting members only)	
16:00 - 16:45			Break		
16:45 - 17:30		Free time for Regional and Country prayers	Workshops and Special Interest Groups	Workshops and Special Interest Groups	
17:30 - 19:00		Dinner	Dinner		
19:00 - 19:30	Praise session	Free time for Regional and Country prayers	Integrity Music and Shekinah Singers	Integrity Music and Shekinah Singers	
19:30 - 20:00	Honouring Rev. Dr. Kim Sang Bok Rev. Dr. Rick Warren — Sermon	Free time for Regional and Country prayers	Rev. Dr. Rick Warren — Work and Finishing the Task	Vision Casting and Commissioning	
20:00 - 20:30		Free time for Regional and Country prayers	Global Workplace Panel, Brian Alaird — Prayer	Closing Ceremony	
20:30 - 21:00	United Mountain Prayer for World Evangelism		Transport (subway to hotels)		
21:15	Transport (subway to hotels)				

Cultural Day

일반 정보

2.4 이벤트 일정

시간	27일(월)	28일(화)	29일(수)	30일(목)	31일(금)
	복음을 살아냅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대표합니다.	복음을 기념합니다.	
06:30 - 07:45	아침 식사 (호텔)				
7:00 (인양제향기도회)	라틴 복음주의 연맹 카리브해 복음주의 연맹	아시아 복음주의 연맹 중앙아시아 복음주의 연맹	중동 및 북아프리카 복음주의 연맹 유럽 복음주의 연맹	남태평양 복음주의 연맹 아프리카 복음주의 협의회 북미 복음주의 연맹	
08:45 - 09:15	개회예배 및 기도 (다니엘 박사)	연합 찬양 (페르난도 목사)	연합 찬양 (헬터 김 목사)	연합 찬양 (보트루스 만수르 목사)	
09:15 - 10:15	조직위원회 인사 (구월 사나 목사, 오정현 목사, 보트루스 만수르 목사)	패널 4 박해 가운데 있는 모든 여성에게 복음을 선포하다 - 엘린 문: 종교의 자유, 한반도 평화	패널 6 글로벌 공공영역에서 복음을 대표하다	패널 10: 진도를 통해 복음을 기념하다	
10:15 - 10:45			쉬는 시간		
10:45 - 12:15	패널 1: 글로벌 성장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기 패널 2: 문화와 도시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기 패널 3: 무브먼트를 통해 복음을 살아내기 비숍 베다 - EACO 프로젝트 축하 - Milestone 및 MC 50주년	패널 5: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다 - WEA 신학위원회 50주년 스티븐 롱 목사 - 특별 메시지	패널 7: 인공지능, 기술, 윤리 영역에서 복음을 대표하다 패널 8: 정신건강 영역에서 복음을 대표하다 패널 9: 성경을 통해 복음을 대표하다	패널 11: 나눔을 통해 복음을 기념하다 패널 12: 제자훈련을 통해 복음을 기념하다기념	
12:15 - 13:25			점심 식사		
13:30 - 16:00	연합예배(한국교회 섬김의 날 및 WEA)	연합예배	워크샵 및 특별 관심 분야 논의	워크샵 및 특별 관심 분야 논의 WEA 비즈니스 미팅 (투표권 회원만)	
16:00 - 16:45			쉬는 시간		
16:45 - 17:30		지역 및 국가별 기도시간	워크샵 및 특별 관심 분야 논의	워크샵 및 특별 관심 분야 논의	
17:30 - 19:00		저녁 식사			
19:00 - 19:30	찬양	지역 및 국가별 기도시간	연합 찬양	연합 찬양	
19:30 - 20:00	김상복 목사 공로 릭 워렌 목사 - 설교	지역 및 국가별 기도시간	릭 워렌 목사 - 일터 및 사명 원수	비전 선포 및 파송식	
20:00 - 20:30		지역 및 국가별 기도시간		폐회예배	
20:30 - 21:00	산상 기도회		귀가 (지하철 이용)		
21:15	귀가 (지하철 이용)				

문화의 날

Global Church and

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Section	Time	Program	Description
Day 1 Session1 I. Opening Worship Service	13:30-13:43	Celebration I	Opening Celebration by the FEBC Korea Children’s Choir
	13:43-13:53	Entry	Entrance of representatives from each WEA regional delegation
	13:53-13:57	Opening Declaration	Declaration of the opening of the Korean Pastors’ Conference and the WEA General Assembly - in Union
	13:57-13:59	Opening Prayer	Davi Charles Gomes (the International Director of WRF)
	13:59-14:07	Congratulatory Messages	1. Lee Jae-myung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Oh Se-hoon (Mayo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3.Rev. Dr. Kim Jang-hwan (Former President of the Baptist World Alliance and Chairman of the FEBC)
	14:07-14:09	Messages of Greeting	Rev. Dr. Kim Sang-Bok (Former Chair of the WEA, Pastor Emeritus of Hallelujah Church)
	14:09-14:19	Praise	Praise filled with life and grace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To God be the Glory/Let Your Glory Fall
	14:19-14:28	Celebration II	SaRang Church United Choir, Orchestra “Hallelujah to the Lamb,” “One Day”
	14:28-14:33	Media Presentation	The History and Vision of WEA
	14:33-14:59	Message	Rev. Dr. Goodwill Shana(Chair, WEA) “Let there be Light :Unity in Diversity for Gospel Transformation”
	14:59-15:04	Corporate Prayer	Altogether
	15:04-15:05	Benediction	Rev. Dr. Kim Sang-Bok
	15:05-15:20	Break	

Section	Time	Program	Description
Day 1 Session2 II. Presen tation III. Revival on a Prayer Mountain	15:20-15:30	Celebration III	Yoon Jung-soo (Tenor) “How Great Thou Art” Kim Soon-young (Soprano) “O Holy Night”
	15:30-16:07	Presentation I	Rev. Dr. Lee Young-hoon (Senior Pastor, Yoido Full Gospel Church Co-Chair,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Church Revival and Holy Spirit Ministry”
	16:07-16:12	Introduction & Congratulatory Messages	Rev. Dr. Peter A. Lillback (President,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and Presidents of Theological Seminaries from Korea and Abroad
	16:12-16:42	Presentation II	Rev. Dr. Oh Jung-Hyun (Senior Pastor, SaRang Church Co-Chair,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The Heart of a Shepherd”
	16:42-18:45	Dinner	Proceed to the Designated Venue for Dinner
	18:45-19:10	Praise	Shekinah & Hosanna Integrity Worship Team
	19:10-19:15	Media Presentation	Reflecting on 140 Years of Korean Missions: “The God of Ebenezer”
	19:15-19:31	Celebration IV	SaRang Church Combined Choir & Orchestra
	19:31-20:11	Message	Rev. Dr. Rick Warren(Founder of Saddleback Church)
	20:11-20:45	Revival on a Prayer Mountain	Rev. Dr. Oh Jung-Hyun

글로벌 교회와
한국 전국 목회자 회의

구분	시간	프로그램	내용
1일차 (세션 1)	13:30-13:43	축하공연 1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개회 공연
	13:43-13:53	입장	WEA 각 지역 대표단 입장
	13:53-13:57	개회 선언	한국교회 섬김의 날 및 WEA 총회 연합 개회 선언
	13:57-13:59	개회 기도	다비 찰스 고메즈 (WRF 의장)
	13:59-14:07	축사	1.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2.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3.김장환 목사 (전 세계침례교연맹 총재, 극동방송 이사장)
	14:07-14:09	환영사	김상복 목사(전 WEA 의장, 할렐루야교회 원로목사)
	14:09-14:19	찬양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 “창조의 아버지”
	14:19-14:28	축하공연 2	사랑의교회 연합찬양대 및 오케스트라 “모든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 “그날”
	14:28-14:33	영상	WEA의 역사와 비전
	14:33-14:59	말씀	굿월 샤나 목사 (WEA 의장) “빛이 있으라: 복음 변혁을 위한 다양성 속의 연합”
	14:59-15:04	합심기도	다같이
	15:04-15:05	축도	김상복 목사
	15:05-15:20	휴식	

구분	시간	프로그램	내용
1일차 (세션 2)	15:20-15:30	축하공연3	윤정수(테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김 순영(소프라노) “거룩한 밤”
	15:30-16:07	발표1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2025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장) “교회 부흥과 성령 사역”
	16:07-16:12	소개 및 축사	피터 릴백 총장(웨스트minster 신학교) 국내외 신학교 총장단
	16:12-16:42	발표2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담임, 2025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장) “목자의 심정”
	16:42-18:45	만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저녁 식사 진행
	18:45-19:10	찬양	쉐키나 & 호산나 연합 찬양팀
	19:10-19:15	영상	한국 선교 140주년 회고 “에벤에셀의 하나님”
	19:15-19:31	축하공연 4	사랑의교회 연합찬양대 및 오케스트라
	19:31-20:11	말씀	릭 워렌 목사 (새들백교회 설립자)
	20:11-20:45	산상기도회	오정현 목사

Section	Time	Program	Description	
Day 2 Session1	08:30-08:45	Praise	Shekinah Worship Team	
	08:45-09:54	Testimonies & Prayer	Asiri Fernando Women’s Panel + Prayer George(Open Door) + Prayer Peace Corea(Heo Moon-young, Representative) Ji Sung-ho(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etc.	
	09:54-10:00	United Prayer	Rev. Samuel E. Chiang(Deputy Secretary General Ministries)	
	10:00-10:20	Break		
I. Morning Lectures				
	10:20-10:50	Global Learning I	Jason Mandrake Michael Ortiz Rei Crizaldo Theological Commision 50 Years	Religious persecution, GZ PEW
	10:50-11:20	Global Learning II		Bible translation & engagement Patmos & ICETE Top 20 for the Next 20
	11:20-12:00	Message & Testimony	Rev. Dr. Stephen Tong (Reformed Evangelical Church of Indonesia)	
	12:00-13:30	Lunch	Proceed to the Designated Venue for Lunch	
II. Special Message				

Section	Time	Program	Description	
Day 2 Session2	13:30-13:40	Praise	Shekinah Worship Team	
	13:40-14:25	Presentation III	Dr. Kevin Brown (President, Asbury University) “The Fruits of the Asbury Revival and Collaborative Ministry”	
	14:25-14:35	Presentation IV	Rev. Park Ju-sung (Representative, DMI) “Discipleship Training Ministry – PILOT Progam”	
	14:35-14:45	Presentation V	Rev. Dr. Kang Dae-heung (Secretary-General, KWMA) “The Emerging Global South Mission Movement and the COALA Network”	
	14:45-15:10	Break		
III. Lecture & Sharing	15:10-15:15	Special Praise I	SaRang Soloists Ensemble “The Lord’s Prayer”	
	15:15-15:20	Special Praise II	Forever Choir “Our Beautiful Church”	
	15:20-15:49	Commissioning Service (Holy Communion)	“Together with all delegates and participants.”	
	15:49-15:50	Benediction	Rev. Park Hee-chun (Advisor,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Pastor Emeritus of Naesoodong Church) Rev. Godfrey Yogarajah(Chairman, Asia Evangelical Alliance)	
IV. Com mission ing and Holy Comm union Service				
V. Fellowship & Blessing	15:50-15:55	Fellowship	Donation Presentation for Migrant Ministry	
	15:55-16:10	Blessing	Fellowship & Blessing of the Korean Pastors’ Conference and WEA Seoul General Assembly	

구분	시간	프로그램	내용	
2일차 (세션 1)	08:30-08:45	찬양	쉐키나 찬양팀	
	08:45-09:54	간증 및 기도회	아시리 페르난도 여성 패널 및 기도회 조지(Open Door) 및 기도회 평화한국(허문영 대표) 지성호 의원 등	
	09:54-10:00	합심 기도	사무엘 치앙 목사(WEA 부사무총장)	
	10:00-10:20	쉬는 시간		
II. 특별 메시지	10:20-10:50	글로벌 강의 I	제이슨 만드레이크 마이클 오티즈 레이 크리잘도 신학위원회 50주년	종교 박해, GZ PEW
	10:50-11:20	글로벌 강의 II		성경 번역 및 참여 Patmos 및 ICETE Next 20을 위한 Top 20
	11:20-12:00	말씀 및 간증	스티븐 통 목사(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개혁주의 복음교회)	
	12:00-13:30	점심 식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식사	

구분	시간	프로그램	내용
2일차 (세션2)	13:30-13:40	찬양	쉐키나 찬양팀
	13:40-14:25	발표 III	케빈 브라운 총장(애즈버리 대학교) “애즈버리 부흥의 열매와 동역 사역”
	14:25-14:35	발표 IV	박주성 목사(DMI 대표) “제자훈련 사역 - PILOT 프로그램”
	14:35-14:45	발표 V	강대홍 선교사(KWMA 사무총장) “글로벌 남반구 선교 운동과 COALA 네트워크”
	14:45-15:10	쉬는 시간	
IV. 파송및 성찬식	15:10-15:15	특별찬양 I	사랑 솔리스트 앙상블 “주기도문”
	15:15-15:20	특별찬양 II	포에버 찬양대 “아름다운 우리교회”
	15:20-15:49	파송예배 (성찬식)	모든 대표단과 참가자들이 다같이
	15:49-15:50	축도	박희천 목사 (2025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고문, 나성영락교회 원로목사) 갓프리 요가라자(아시아복음주의연맹 의장)
V. 교제와 축복	15:50-15:55	교제	이주민 사역을 위한 후원금 전달
	15:55-16:10	축복	한국교회 섬김의 날 및 WEA 서울총회 축복 및 교제

Day 1

We Live the Gospel 우리는 복음을 살아낸다

서울총회 첫날은 “우리는 복음을 살아낸다”는 1일차 슬로건 아래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로 호흡했습니다.

On the first day of the Seoul General Assembly, under the Day 1 theme “We Live the Gospel,” the global church and the Korean church breathed as one.





THE GOSPEL FOR EVERYONE

우리는 복음을 살아낸다

서울총회 첫날은 “우리는 복음을 살아낸다(We Live the Gospel)”는 1일차 슬로건 아래 세계 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로 호흡했습니다. WEA는 세계적 교회 성장, 도시문화 속 복음의 변혁, 글로벌 운동을 통한 선교의 흐름을 통찰하는 세 개의 패널로 이어지며 복음의 현재와 미래를 입체적으로 열었습니다. 제 4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과 연합하여 161 개국 국기가 등단하며 시작한 개회예배 가운데 세계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고백했습니다. 굿윌 샤나 목사, 이영훈 목사, 오정현 목사의 복음주의의 메시지를 통해 빛의 사명자로서 목자의 심정을 기초로 한 성령 사역의 교회 부흥을 나누었습니다. 한국교회 기도 자원을 전 세계에 전하는 연합 산상 기도회는 릭 워렌 목사의 설교와 오정현 목사의 기도회 인도를 통해 한국에서 시작된 믿음의 불씨가 열방을 향해 타오르는 영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We Live the Gospel

On the first day of the Seoul General Assembly, under the Day 1 theme “We Live the Gospel,” the global church and the Korean church breathed as one. The WEA opened a multidimensional vision of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gospel through three panels offering insights into global church growth, the transformation of urban culture by the gospel, and the missionary movements arising from global initiatives. In conjunction with the 4th 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the opening service began with the flags of 161 nations entering the hall, as the global church united with one heart to newly confess the unfolding history of God’s kingdom. Through the evangelical messages of Rev. Dr. Goodwill Shana, Rev. Dr. Young-Hoon Lee, and Rev. Dr. Jung-Hyun Oh, the church shared about Spirit-empowered revival grounded in the shepherd’s heart and the calling to be bearers of light. The united Mountain Prayer Gathering—passing on the Korean church’s prayer legacy to the world—became a spiritual turning point as the flame of faith ignited in Korea was kindled toward the nations through the preaching of Rev. Dr. Rick Warren and the prayer leadership of Rev. Dr. Jung-Hyun Oh.

top 개회예배 설교 - 굿윌 샤나 목사(WEA 의장)개회예배 설교 - 굿윌 샤나 목사(WEA 의장)

Opening Worship Message — Goodwill Shana, Chairman of WEA

bottom left 이재명 대통령(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축하-전성환 대통령실 경청 통합 수석 대독

Congratulatory remarks from Lee Jae-myung, the 21st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elivered by Jeon Seong-hwan,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Listening and Integration



bottom right 이재명 대통령은 WEA서울총회 개최를 축하하며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보여준 역할에 대해 감사를 전달하고 WEA가 세계의 보편적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있음을 전했다. President Lee Jae-myung congratulated the convening of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expressed gratitude for the role the Korean church has played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and affirmed WEA's ongoing efforts to advance universal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top 오세훈 서울시장(제33, 34대 서울특별시장)의 축하

Congratulatory remarks by Oh Se-hoon, the 33rd and 34th Mayor of Seoul

bottom 김장환 목사(전 침례교세계연맹 회장, 극동방송 이사장)

Congratulatory Remarks - Rev. Dr. Billy Kim(former President of the Baptist World Alliance; Chairman of Far East Broadcasting Company)





개회예배
Opening Worship



top 연합산상집회 설교 - 릭 워렌 목사(새들백교회 설립자, FTT 대표)
United Mountain-top Rally Sermon - Rev. Rick Warren(Founder of Saddleback Church; Finishing The Task)
bottom “목자의 심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오정현 목사는 예수님의 사역과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목자의 심장이라는 키워드로 압축하여 전했다.
Oh Jung-hyun delivered a message under the theme “The Heart of a Shepherd,” presenting the ministry of Jesus and the heart of God woven throughout Scripture through the key motif of a shepherd’s heart.
opposite top 특별메시지 - 이영훈 목사(WEA 서울 총회 조직위 공동위원장, “교회부흥과 성령운동”)
Special Message - Rev. Dr. Young-Hoon Lee (Senior Pastor of Yoido Full Gospel Church; Co-Chair of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opposite bottom 사랑의교회 연합 찬양대
Combined Choir of SaRang Church



이영훈 목사는 성령사역과 교회 부흥을 불가분의 관계이며 성령의 역사 없이는 목회자체가 어렵고 교회 부흥도 요원함으로 목회자가 성령 충만해야 함을 역설했다.
Rev. Dr. Lee Young-hoon emphasized that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and church revival are inseparable, stressing that withou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both pastoral ministry and church growth become impossible, and therefore pastors mus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오 목사님의 희생적 결단으로 WEA총회를 잘 마무리했고 복음주의 신앙을 담은 서울선언문으로 인해 세상가운데 복음의 의미가 더 선명해 졌습니다. 그리고 총회진행도 사랑의교회에서 한 것은 제가 수많은 국제대회나 WEA총회들을 참석해 본 경험으로는 가장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대회였습니다.” 김상복 목사

“Through Rev. Oh’s powerful decision to successfully hold the WEA General Assembly, the meaning of the Gospel in the world has become even more vivid due to the Seoul Declaration, which reflects our evangelical faith. Furthermore, regarding the proceedings, this was the most moving conference for me, as SaRang Church alone has participated in countless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WEA General Assemblies.” — Rev. Kim Sang-bok



피터릴백 총장(웨스트민스트린학교)은 WEA가 가진 복음의 순수성과 강력한 연대를 높이 평가하며 서울총회 개최를 축하
Peter Lillback, President of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congratulated the convening of the Seoul General Assembly, commending WEA for its gospel-centered integrity and strong spirit of unity.



아시아연맹(AEA) 및 WEA를 대표하여 갓프리 목사가 축복기도를 인도
갓프리 목사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WEA와 9개 지역의 지부교회들 모두가 연대하여 힘을 모을 소망했다.
Godfrey Yogarajah offered a prayer of blessing on behalf of the Asian Evangelical Alliance and WEA, expressing his hope that WEA and its nine regional alliances would stand together in unity to proclaim the gospel to all.
Peter Lillback, President of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congratulated the convening of the Seoul General Assembly, commending WEA for its gospel-centered integrity and strong spirit of unity.



모든 민족과 언어들 가운데
[사랑의교회 연합찬양대, 오케스트라]
Hallelujah to the Lamb
SaRang Church United Choir, Orchestra

모든 백성 열방이
ALLIANCE EVERY LAND ASSEMBLY

EVERYONE
"모든 이에게 복음의 날"
SEOUL GA
27(MON)~31(FRI)
OCT. 2025
WEA
WORLD EVANGELICAL ALLIANCE

1027 제4회 한국국회 섬김의 날

한국교회
"The Gospel for Everyone"

2025 WORLD EVANGELICAL ALLIANCE SEOUL GENERAL ASSEMBLY

한국교회 섬김의 날과 WEA 서울총회를 위해 사랑의교회는 영광, 호산나, 할렐루야, 시온 포에버 찬양대 등 총 5개의 찬양대와 솔리스트 및 중창단이 정성과 마음을 모아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세계복음을 위한 믿음의 선포에 동참했다.
For the 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and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SaRang Church gathered five choirs—including the Glory, Hosanna, Hallelujah, Zion and Forever Choirs—along with soloists and ensembles, who offered their heartfelt praise to glorify God and joined in a declaration of faith for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top 개막 축하 음악회. 소프라노 김수영
bottom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찬양과 율동, 한국고유의 전통무용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영성, 그리고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다. The Far East Broadcasting Company Children's Choir expressed a heartfelt desire to share Korea's culture, spirituality, and the gospel with all people through praise, choreographed movement, and traditional Korean dance.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Children's Chorus of Far East Broadcasting Company(FEBC)

이번 서울총회에는 정식회원국이 아니지만 특별히 분쟁과 고통중에 있는 국가들이 초청되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온 5명의 교역자와 평신도 지도자들도 그들 중의 일부이다. 이들은 거의 40시간에 걸친 이동 시간과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전 세계에서 온 WEA 대표단에게 알리고 우크라이나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거룩한 기도의 진을 구축했다.

Although not official members, several nations experiencing conflict and suffering were specially invited to the Seoul General Assembly. Among them were five pastors and lay leaders from Ukraine. Despite nearly 40 hours of travel and numerous risks along the way, they came to share the realities of Ukraine with WEA delegates from around the world and to help establish a united front of prayer for the evangelization of their nation.

top 서울총회 지부별 등록 확인 데스크
bottom 우크라이나에서 참석한 알렉산더 일라쉬(Oleksandr Ilash) 목사



교제와 기도, 그리고 복음의 확산에 집중했던 총회의 각 세션별 모임
Session gatherings throughout the Assembly focused on fellowship, prayer, and the spread of the gospel.

WEA 서울총회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동역자들과의 만남과 교제의 시간은 물론 모든 사안들에 대해 기도로 임하는 기도의 장이기도 했다.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served not only as a time of reunion and fellowship among co-laborers who had long been scattered, but also as a sacred gathering marked by prayer, where every matter was approached with a posture of intercession.

패널 강의: 복음으로 사는 삶(Living the Gospel)

아시아복음주의협회(AEA) 회장 갓프리 요가라자 목사가 지역 현안에 대해 보고하고 아시아의 복음화, 스리랑카의 복음화를 위한 제안뿐 아니라 아시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해와 고통에 대해 알리고 회원들은 기도로 마음을 모았다. Godfrey Yogarajah, President of the Asian Evangelical Alliance, presented a report on key regional issues. He shared proposals for the evangelization of Asia, including Sri Lanka, and highlighted the persecution and suffering occurring across the region. In response, the members united their hearts in prayer.



회무처라 중인 각국 대표단
Delegations from various countries in the process of meeting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연합산상집회에서 하나되다.
축복기도하는 릭워렌 목사
The Korean church and the global Church united
at the Prayer Mountain Revival Gathering.
Rick Warren offering a prayer of blessing.



첫날 저녁집회는 산상기도집회로 드러졌는데 한국교회 목회자 및 성도 5천명
과 해외에서 참석한 WEA 대표단,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중심이 된
200여명의 선교사 및 관계자들, 사랑의교회가 유럽에 개척한 213개 교회의 지
도자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지도자 등 7천여명이 기도로 하나되어 모든 이
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다짐의 시간이었다.
The first evening gathering was held as a mountain prayer worship,
bringing together approximately 7,000 participants in unified prayer.
This included 5,000 pastors and members of the Korean church, WEA
delegates from around the world, over 200 missionaries and leaders
affiliated with the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 leaders from 213
churches established in Europe by SaRang Church, and diaspora Korean
church leaders. It was a time of renewed commitment to proclaim the
gospel to all people.

복음으로 하나되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며 거룩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는 국적과 인종 남녀와 노소가 따로 있지 않았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참석한 교역자들이 산상기도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In this gathering of earnest prayer for the revival of the holy Church and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to all, there were no distinctions of nationality, ethnicity, gender, or age. Minister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were seen fervently praying together at the mountain prayer meeting, united in one heart.

한국교회 특유의 강력한 합심 기도와 말씀 선포로
성령의 하나됨을 체험한 연합산상집회
The Associated Mountain Prayer. All attendents experienced the unity of the Holy Spirit through the strong joint prayer and declaration of the Words



Day 2

We Proclaim the Gospel 우리는 복음을 선포한다

WEA 총회 2일차는 “우리는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주제 아래, 복음이 세대를 넘어 어떻게 선포되고 지켜지는지를 드러내는 장대한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On the second day of the WEA General Assembly, under the theme “We Proclaim the Gospel,” the program unfolded as a grand narrative revealing how the gospel is proclaimed and preserved across generations



이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의 현장을 전한 케빈 브라운 총장
Dr. Kevin Brown, President of Asbury University.
He introduced about Revival of Asbury Univ. in 2023.

우리는 복음을 선포한다

WEA 총회 2일차는 “우리는 복음을 선포한다(WE PROCLAIM THE GOSPEL)”라는 주제 아래, 박해 가운데 있는 여성들의 증언에서 세계 각지의 교회 리더십이 직면한 도전까지, 복음이 세대를 넘어 어떻게 선포되고 지켜지는지를 드러내는 장대한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배와 간증, 연합기도가 하나로 어우러져 고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복음의 증언을 생생하게 들려주었고, 종교 박해, 성경 번역과 접근성, 다음세대를 위한 신학 교육 등 복음 선포의 구조적 기반을 돌아보았습니다. 스티븐 통 목사는 복음이 흔들리는 시대에 더욱 견고히 선포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일깨웠습니다. 케빈 브라운 박사가 선포한 애즈버리 대학 부흥의 열매, 박주성 목사의 제자훈련 사역, 강대홍 선교사의 글로벌 선교 네트워크의 확장 등 세계적 선교 흐름을 공유하는 강력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복음 선포의 사명을 다시 받들며 성찬으로 연합을 확인했습니다. 저녁에는 국가·지역별 기도 모임이 열려 각 나라의 아픔과 소명을 놓고 뜨겁게 중보하며,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기를 바라는 세계 교회의 하나 된 마음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We Proclaim the Gospel

On the second day of the WEA General Assembly, under the theme “We Proclaim the Gospel,” the program unfolded as a grand narrative revealing how the gospel is proclaimed and preserved across generations—from the testimonies of women standing during persecution to the challenges faced by church leadership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Worship, testimonies, and united prayer blended into one, vividly conveying the unextinguished witness of the gospel even in suffering. The assembly examined the structural foundations for gospel proclamation, including issues of religious persecution, Bible translation and accessibility, and theological educ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Rev. Dr. Stephen Tong reminded the church of its calling to proclaim the gospel even more firmly in an age when it is being shaken. It became a powerful platform for sharing global missionary movements, including the fruit of the Asbury University revival proclaimed by Rev. Dr. Kevin Brown, the discipleship ministry of Rev. Dr. Ju-Sung Park, and the expansion of global mission networks led by Rev. Dae-heung Kang. The Korean church and the global church reaffirmed their gospel-proclaiming mission as they confirmed their unity through Holy Communion. In the evening, national and regional prayer gatherings were held, where participants fervently interceded for the pain and calling of each nation, deeply engraving the united longing of the global church to see the gospel testified to the ends of the earth.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셰키나 찬양팀
The Shekinah Worship Team praising the glory of the Lord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연합 기도와 찬양
United prayer and praise for Christians suffering under hardship and persecution

WEA 서울총회는 호산나 인테그리티, 사랑의교회 셰키나 찬양단 등이 협력하여 원 팀을 이루어 모든 예배와 회무의 찬양을 이끌었다. 찬양으로 마음이 열리고 복음의 진수를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가운데로 들어가는 현장을 경험했다. At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Hosanna Integrity and the Shekinah Worship Team of SaRang Church joined together as one team to lead praise for all worship services and plenary sessions. Through praise, hearts were opened, participants experienced the essence of the gospel, and entered into the manifest presence of the Holy Spirit.



샤나 의장은 모든 집회의 맨 앞자리에 자리하여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며 서울 총회가 복음을 향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했다.
Goodwill Shana consistently sat in the front row throughout the gatherings, fully devoted to praise, prayer, and the Word, helping the Seoul General Assembly serve as a catalyst for the gospel.



만국공통의 영적언어인 찬양과 기도로 복음선포의 사명을 다지다
Through praise and prayer—the universal spiritual language shared by all nations—the delegate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proclaim the gospel.



찬양으로 하나된 대표단
Delegates united through praise



“우는 자와 함께 울라”(롬 12:15)

세계 곳곳에는 지금도 종교박해와 인권침해로 고통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특별히 아동, 여성, 빈자들에 대한 인권문제, 그리고 이슬람, 힌두교, 불교권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조차 자행되고 있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핍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를 청취하는 한국교회의 교역자뿐 아니라 해외 참석들 모두가 기도로 하나가 되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시간을 가졌다.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Romans 12:15). Even today, many around the world suffer under religious persecu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Reports were presented on issues affecting children, women, and the poor, as well as on the suppression of religious freedom—not only in Islamic, Hindu, and Buddhist regions, but even in developed nations. As these reports were shared, both Korean pastors and international participants were united in prayer, entering into a time of weeping with those who weep.



헌신: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다” - 아시리 페르난도
Devotion: Proclaiming the Gospel of Peace - Asiri Fernando
박해받는 그리스도의 현황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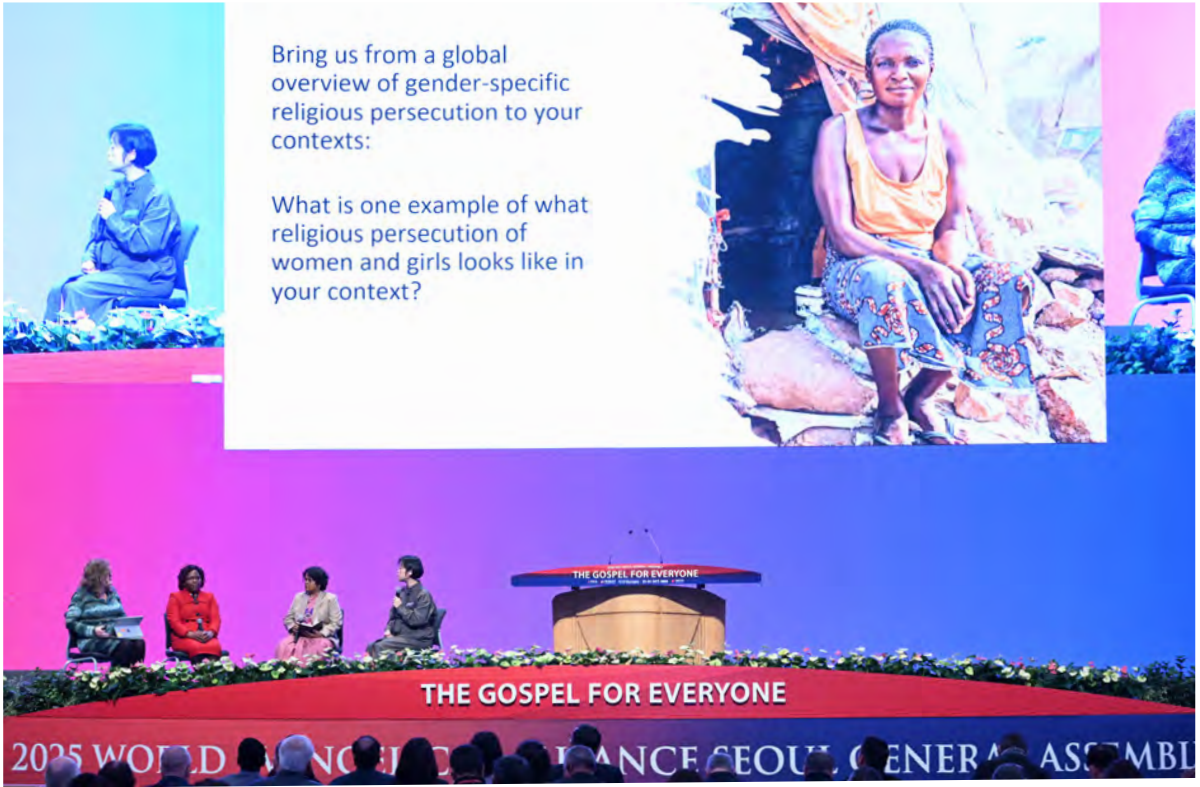
아프리카·아시아·북한에서 박해 속에 있는 여성·아동·빈곤층에 대한 보고와 기도회를 통해, 서울 총회 중교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직면한 지구촌 곳곳의 상황을 공유했다.
Through reports and prayer gatherings focused on women, children, and the poor suffering under persecution in Africa, Asia, and North Korea, the Seoul General Assembly shared the realities faced by people around the world living under threats to religious freedom and democracy.



top left 간증과 기도: 지성호 지사(함경북도)
Testimony & Prayer : Mr. Seong-ho Ji (Governor of North Hamgyong Province, Committee for the Five Northern Provinces; Former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top right 간증과 기도 - 허문영 대표(평화한국)
Testimony & Prayer - Dr. Moon-Young Heo(President, PeaceCorea)

bottom 간증과 기도: 박해 속에서 복음 선포 - 엠마 반 데르 데이얼, 마르다 다스, 아이린 키바겐디
Testimony & Prayer : "Proclaiming the Gospel Amid Persecution"
Emma van der Deijl · Martha Das · Irene Kibagendi



서울총회는 확고한 복음의 토대 위에 신학과 선교, 제자 훈련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The Seoul General Assembly fostered ongoing discussions on the harmony and balance of theology, missions, and discipleship upon the firm foundation of the gospel.



opposite top 글로벌 러닝 - 마이클 오르티즈(ICETE 국제총재)
Global Learning - Dr. Michael Ortiz(International Director, ICETE)
opposite bottom 글로벌 러닝 - 레이 크리잘도(WEA 신학위원회 코디네이터),
프랑크 힌켈만(WEA 국제위원회 부의장)
Global Learning - Rei Lemuel Crizaldo (Theological Commission Coordinator,
WEA), Frank Hinkelmann (Vice-Chair, WEA International Council)
bottom 특별메시지 - 스티븐 통 목사(자카르타 개혁주의 복음교회)
Special Message - Rev. Dr. Stephen Tong(Reformed Evangelical Church
Jakarta)





middle left 국제제자훈련원 대표 박주성 목사는 세계 곳곳에서 시행될 제자 훈련지도자세미나인 ‘PILOT’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한 비전을 발표했다.
Rev. Ju-Sung Park, President of the Disciple Making Ministries International, introduced the “PILOT” program, a global discipleship leadership seminar to be implemented worldwide, and presented a vision for building a platform to proclaim the gospel to all.
bottom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총장 강대홍 선교사가 비 서구권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대한 선교비전을 소개하고 선교적 마인드로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할 꿈을 나누었다.
Dae-heung Kang, Secretary General of the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 shared a missionary vision focused on the Global South, emphasizing the expansion of mission responsibility from a Western Europe-centered paradigm to the non-Western world, and casting a vision to proclaim the gospel to all with a missional mindset.



제자 훈련·선교·부흥의 경험을 나누다.
Sharing experiences in discipleship, missions, and revival.

top 강의 - 케빈 브라운 총장(애즈버리 대학교)
Lecture - Dr. Kevin Brown(President, Asbury University)
bottom left 연합협회 사회를 맡은 이원준 목사와 리사 박 목사
bottom right 성찬식 메시지 - 릭 워렌 목사(새들백교회 설립자, FTT 대표)
Communion Message - Rev. Rick Warren(Founder of Saddleback Church; Finishing The Task)



코리아 크리스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Korean Christian Philharmonic

사랑의교회는 연합찬양대, 포에버평생교육원찬양대 등이 정성을 다해 매 예배마다 찬양대로 섬겼고 영적으로 세계교회와 유무상통하는 은혜를 나누었다.
SaRang Church faithfully served through its combined choir and the Forever Lifelong Education Choir at every worship service, sharing in spiritual fellowship and unity with the global Church.



top&bottom 사랑의교회 연합찬양대
Combined Choir of SaRang Church

성찬의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WEA 서울총회는 세계교회가 하나의 복음, 하나의 몸, 하나의 사명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Through sharing the bread and cup of Communion,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demonstrated that the global Church moves forward into the world once again with one gospel, one body, and one mission.



총회에는 두 번의 성찬식이 있었다. 둘째 날은 한국교회 교역자들과 해외교역자가 하나되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였고 넷째 날인 목요일 저녁에는 WEA 대표단이 함께 모여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결단과 함께 성찬을 나누었다. Two Communion services were held during the Assembly. On the second day, Korean and international pastors partook together in remembrance of the Lord's body and blood. On the fourth day, Thursday evening, WEA delegates gathered to share in Communion once again, reaffirming their commitment to proclaim the gospel to all.



bottom right 축도 - 박희천 목사(내수동교회 원로)
Rev. Park Hee-cheon, Pastor Emeritus of Naesudong Church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감사와 축복의 시간
Global Pastors' Blessing and Fellow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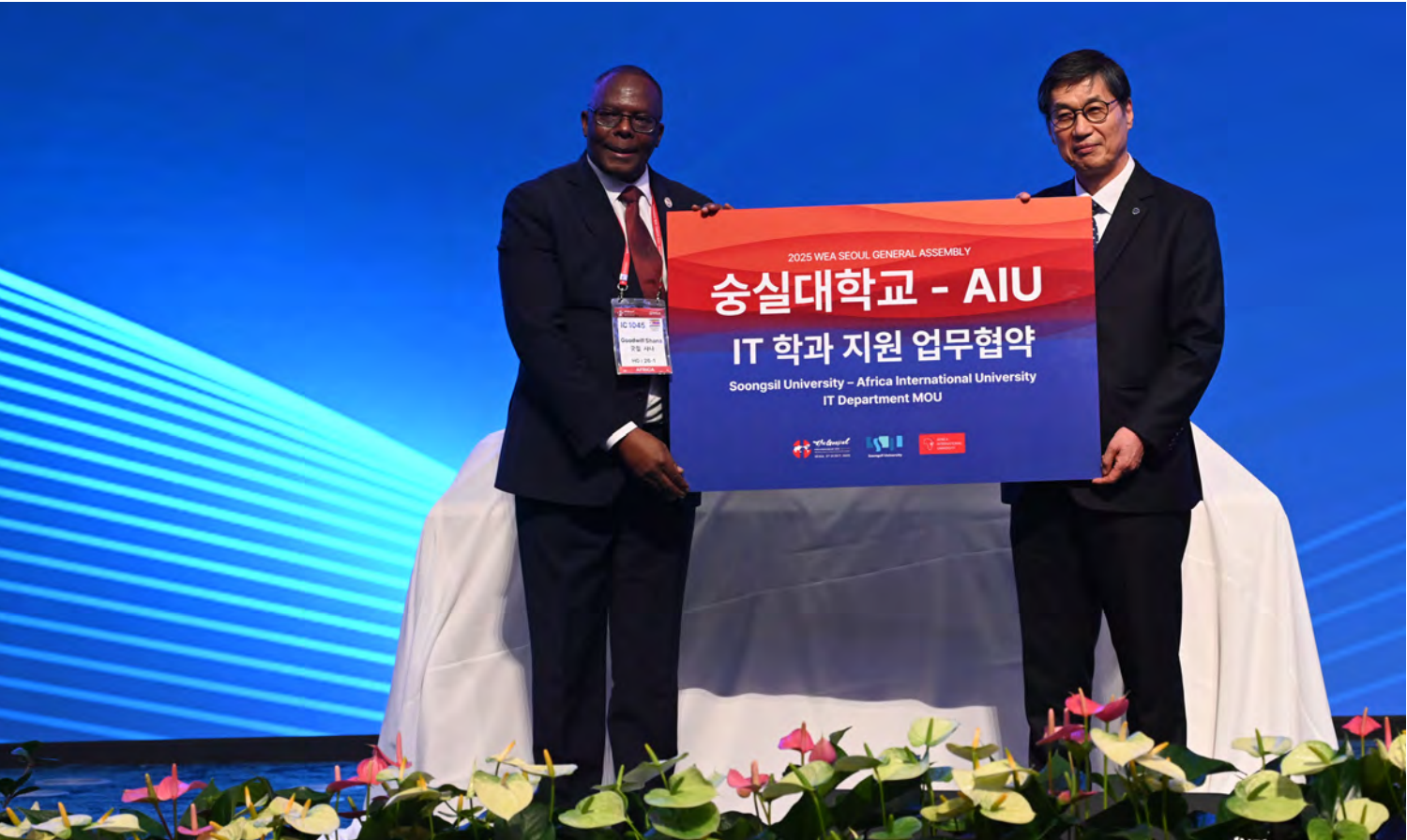


세계교회 대표들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온 대표들에게
마음이 담긴 축복을 공유함으로써
“모든 이에게 복음을”이라는 사명을 위한 연대를 확인했다.
Representatives of the global Church and pastors of the Korean church
shared heartfelt blessings with one another, reaffirming their unity in the
mission of proclaiming “the gospel for everyone.”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대학이자 대표적인 기독교 대학인 송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아프리카복음주의협회 직영대학인
아프리카 국제대학의 IT학과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업무 협약을 맺고 상호 이해와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Soongsil University, Korea's first private university and one of its leading Christian institutions,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o support and
cooperate with the IT department of Africa International University, operated by the Association of Evangelicals in Africa, laying a foundation for mutual
understanding and development.



bottom 송실대학교-아프리카 국제 대학 MOU 체결 협약
MOU Signing Ceremony between Soongsil University and Africa International University



Day 3

We Represent the Gospel 우리는 복음을 대표한다

3일차는 “우리는 복음을 대표한다(WE REPRESENT THE GOSPEL)”는 선언을 따라, 세계 교회가 시대 앞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결단했습니다.

On the third day, under the declaration “We Represent the Gospel,” the global church deeply reflected upon and resolved how it must live as Christ’s ambassadors before the world.





우리는 복음을 대표한다!

3일차는 “우리는 복음을 대표한다(WE REPRESENT THE GOSPEL)”는 선언을 따라, 세계 교회가 시대 앞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결단했습니다. 월터 김 목사는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 안에서 복음을 대표하는 정체성을 선포했고, 패널들은 국제 무대에서의 종교 자유 옹호, AI와 윤리의 시대에 충실한 디지털 증언, 정신적·영적 회복력의 통합, 성경 번역의 역사적 진전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오늘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각 분야의 전문적 담론 속에서 탐구했습니다. 다양한 워크숍과 Interest Group이 진행되며 참가자들이 자신이 속한 사역 영역에서 복음을 대표할 실제적 방법들을 나누었고, 동시에 WEA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세계 복음주의 연합의 미래 구조를 논의했습니다. 저녁 집회에서 릭 워렌 목사의 메시지와 글로벌 일터사역 패널토의가 이어져, 복음을 대표한다는 것이 단지 설교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일터와 공공의 영역, 고난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전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사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We Represent the Gospel

On the third day, under the declaration “We Represent the Gospel,” the global church deeply reflected upon and resolved how it must live as Christ’s ambassadors before the world. Rev. Dr. Walter Kim proclaimed the identity of representing the gospel within the reconciling work of Christ, and the panels explored—through professional discourse in each field—the question of how the gospel must be manifested in today’s world, addressing topics such as the advocacy of religious freedom on the international stage, faithful digital witness in an age of AI and ethics, the integration of mental and spiritual resilience, and the historical progress of Bible translation. A variety of workshops and Interest Groups allowed participants to share practical ways to represent the gospel within their own ministry contexts, while the WEA Business Meeting simultaneously discussed the future structure of the global evangelical alliance. During the evening gathering, Rev. Dr. Rick Warren’s message and the global workplace-ministry panel discussion affirmed once again that representing the gospel is a mission that extends beyond the pulpit—reaching workplaces, the public square, and even places of suffering, into every sphere of life.

선교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200여 명의 선교사 및 관계자들은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대한 강력한 선교의 비전을 공유하며 서구 유럽 중심의 선교에서 비 서구권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선교적 책임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More than 200 missionaries and ministry leaders dedicated to mission work shared a strong vision for the Global South, committing themselves to embrace an expanding missionary responsibility—shifting from a Western Europe-centered approach to a broader focus on the non-Western world.

복음의 서진 East meets West



루마니아 뿐 아니라 동유럽 최대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크리스찬 소니아 목사도 이번 총회에 참석하여 목회와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었다.

Rev. Cristian Sonea, who pastors one of the largest churches in Eastern Europe, including Romania, also attended the Assembly and embraced a renewed vision for ministry and missions.



세계선교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모임들은 “Gospel for Everyone”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Various gatherings for the advancement of global missions became a foundation for “Gospel for Everyone.”



글로벌 옹호 활동에서 복음을 대표하다
Representing the Gospel in Global Advocacy



WEA의 글로벌 옹호(Global Advocacy)사역은 고통받는 지역과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돌봄과 섬김의 사역을 나눌뿐 아니라 각국의 제도와 법의 개혁을 지원함으로써 시스템의 변화를 함께 추구하는 토탈 옹호의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다. WEA's Global Advocacy ministry is advancing toward a holistic model of advocacy. It not only shares the Church's ministry of care and service for suffering regions and people, but also seeks systemic transformation by supporting institutional and legal reforms in various nations.



6년에 한 번 열리는 WEA 총회는 각 지부별 이슈는 물론 각국의 연맹체가 건의한 안건, 그리고 전 세계적 이슈까지 포함하여 현안을 심도있게 다룸으로 WEA의 위상과 기능을 더욱 두텁게 하고 있다. Held once every six years, the WEA General Assembly strengthens the role and influence of WEA by addressing regional concerns, proposals from national alliances, and major global issues through in-depth discussion and deliberation.

2025 WEA 서울총회 EVANGELICAL ALLIANCE SEOUL GEN WEA 27-31 October.2025 SaRang Church



인공지능이 만연되고 활용도가 날로 높아지는 이때, 인공지능 사회로 진입하는 상황 속에서 이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해 할뿐 아니라 유용한 활용과 함께 윤리적인 측면까지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다. As artificial intelligence(AI) becomes increasingly pervasive and its applications continue to expand, the Assembly provided an opportunity not only to interpret and understand this emerging AI-driven society from a spiritual perspective, but also to explore its practical use while examining its ethical implications.



인공지능, 기술, 윤리의 영역에서 복음을 대표하다
Representing the Gospel in AI, Technology and Ethics



정신 건강의 영역에서 복음을 대표하다
Representing the Gospel in Mental Wellness



성경을 통해 복음을 대표하다
Representing the Gospel through the Scriptures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소개하고 복음으로 치유되는 현장을 나누며 복음으로 극복하는 사역을 소개했다.
The Assembly addressed the mental health challenges facing contemporary society, sharing testimonies of healing through the gospel and presenting ministries that seek to overcome these struggles through the transforming power of the gospel.

워크숍 및 주제별 소그룹
Workshops and Special Interest Groups

WEA 9개 지부별 이슈와 161개국 각국의 구체적인 이슈들을 함께 나누고 특별히 선교적인 과제를 공동의 기도제목으로 올림으로 복음으로 하나되는 총회로 나아갔다.
Key issues from WEA's nine regional bodies, along with specific concerns from 161 nations, were shared collectively. In particular, missional challenges were lifted up as common prayer topics, leading the Assembly toward deeper unity in the gospel.



top 아시아 지역 이슈를 논의 중인 대표단
Delegates discussing key issues in the Asian region
bottom 기도와 소통의 시간
A time of prayer and fellowship



어젠다별 토의와 의견 청취 중인 대표단
Delegates engaging in discussion and listening to perspectives on various agenda items





급변하는 정세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의 확산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시간
A time of seeking wisdom for the unchanging proclamation of the gospel amid rapidly changing global circumstances.



성경의 보급과 번역사역을 논하다
Discussing Bible distribution and translation ministry

WEA서울 총회는 각국에서 모인 1천여명의 대표단이 서로 함께 대면하고 영적인 교제의 자리를 지키는 것 만으로도 격려가 되고 복음의 전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품고 있으면 개인의 문제 이지만 나눔과 기도로 함께 하면 우리 모두의 공동의 사역이 되는 현상이 되었다.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became a powerful moment of encouragement as over 1,000 delegates from around the world gathered face to face and shared in spiritual fellowship. What may have remained personal burdens, when shared in prayer and community, became a shared mission—transforming participants into renewed witnesses of the gospel.



top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회장 로버트 노리스 목사의 격려 Encouragement from Rev. Dr. Robert Norris, President of the World Reformed Fellowship (WRF)
bottom 일터선교의 헌신자들 Those devoted to Workplace Mission



비즈니스 확장에서의 복음의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다
Exploring practical ways to advance the spread of the gospel through the expansion of business initiatives.





6년마다 한 번 열리는 총회는 그동안의 주요 아젠다와 지역 이슈를 다루며 상정된 안건을 놓고 토의하고 처리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 장면은 서울선언문 채택의 순간
Held once every six years, the General Assembly also serves as a time to address major agendas and regional issues, as well as to deliberate and act upon proposed motions. This moment captures the adoption of the Seoul Declaration.

Day 4

We Celebrate the Gospel 우리는 복음을 기뻐한다

4일차는 “우리는 복음을 기뻐한다”는 선언이 선포된 날로, 한 주간의 모든 은혜와 결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세계 교회가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영적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On the fourth day, declared as “We Celebrate the Gospel,” the global church gathered in a spiritual festival, offering all the grace and fruit of the week to the Lord and being sent back into the world once again.



우리는 복음을 기뻐한다!

4일차는 "우리는 복음을 기뻐한다"는 선언이 선포된 날로, 한 주간의 모든 은혜와 결실을 주님께 올려 드리며 세계교회가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영적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보트루스 만수르 사무총장은 그리스도안에서 누리는 화해와 평화를 선포했고, 이어진 패널들은 21세기의 복음전도, 투명하고 거룩한 청지기 정신, 다음세대와 가정교회 리더를 통한 제자훈련 등 복음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어떻게 축하되고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Gospel for Everyone 2033을 향한 행정적 전략적 마무리가 이루어졌다. 폐회예배에서는 새로운 국제이사진 발표, 성만찬, 그리고 전 세계 대표단에게 주어진 축복의 시간이 이어져 이번 총회가 단순한 마침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파송의 시작이라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We Celebrate the Gospel

The fourth day was the day when the declaration of "We rejoice in the gospel" was proclaimed, and it was the venue for a spiritual festival where the world church was sent back to the world with all the grace and fruit of the week to the Lord. Secretary-General Botrus Mansour declared peace and reconciliation in Christ, and the panel that followed showed how the gospel was celebrated and appeared in all areas of life, including evangelism in the 21st century, transparent and holy spirit, and discipleship training through the next generation and home church leaders. The administrative and strategic conclusion to Gospel for Everyone 2033 was made. The closing worship service was followed by a new announcement of the international board members, sacrament, and a time of blessing given to delegate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the message that the conference was not just the end but the beginning of the dispatch of the gospel to the world.



WEA는 이괄 새 지도부와 지부별 대표단

top 보트루스 만수르(WEA 신임 사무총장)의 사역 발표
Advocate Botrus Mansour(WEA Next Secretary General)



신임사무총장으로 선임된 보트루스 만수르가 WEA의 정신과 신학 그리고 핵심 가치들을 어떻게 자신의 임기중에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역발표를 하고 있다.

Botrus Mansour, newly appointed Secretary General, presents his ministry vision on how he will advance the spirit, theology, and core values of WEA throughout his term.



각 어젠다별 발표와 토의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on each agenda item

각국의 대표들은 각국별 복음의 현황에 대하여 나누면서 WEA가 지향하는 정통과 보수와 복음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소개하면서 각국의 사례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Representatives from various nations shared the current state of the gospel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presenting how the values upheld by WEA—orthodoxy, conservatism, and the gospel—can be embodied in their contexts, while also listening attentively to one another’s testimonies.

세계선교지형의 이동과 함께 복음의 확산을 논의
Discussing the spread of the gospel alongside the shifting landscape of global missions.



세계적인 복음주의교회재정책임위원회(ECFA)의 국제자문이자 선교동역자인 게리 호그 전 덴버신학교 부총장이 각국의 기독교 NGO 활동과 교회들의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해 나눔으로 투명하고 열매있는 재정집행의 의미를 강조했다. 현재 ECFA는 WEA의 재정정책에 자문하고 있고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기관이다.

Gary Hoag, an international advisor to the Evangelical Council for Financial Accountability and a global mission partner, as well as former vice president of Denver Seminary, shared insights on Christian NGO activities and the importance of financi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within churches around the world, emphasizing the significance of faithful and fruitful stewardship. ECFA currently serves as a partner organization to WEA, providing counsel and support in matters related to financial policy.



게리 호그 목사
Gary Hoag



Gospel for Everyone을 위한 복음의 연대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에 기반한 기도로 다져졌다.
Gospel unity for "Gospel for Everyone" was strengthened through mutual trust and prayer.



top 매일 있었던 미디어 브리핑(기자 브리핑)에 함께한 사무엘 치앙·부사무총장 Samuel Chiang at the daily media briefings
middle WEA 미디어 팀장 브레드 스미스 박사 Dr. Brad Smith, WEA Media Team Director
bottom 서울총회 기획 담당 주연중 목사와 통역 장은진 목사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자별, 이슈별, 관심사를 설명하고 서울총회의 의미전달에 집중하였다.
Rev. Joo Yeon-jong, Director of Planning for the Seoul General Assembly, and interpreter Rev. Jang Eun-jin provided daily briefings, explaining key issues and highlights while communicating the significance of the Assembly.



WEA 서울총회조직위는 매일 오후 2시에 미디어 브리핑 시간을 마련하여 당일 다루어진 주요 이슈, 아젠다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회 참석인원 및 참석 국가수 등의 기본 데이터 발표와 함께 서울선언문의 의미,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에 대한 기자회견의 시간도 마련했다. 서울선언문에 대한 질의 응답에는 서울선언 작성에 참석한 신학위원, WEA 부사무총장 사무엘 치앙 등이 답변에 나섰고 사나의장 및 갓프리 신임의장, 만수르 사무총장의 의견도 청취하였다. 4일째 목요일 브리핑 후에는 신규 의장들의 인사와 간단한 사역 방향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Organizing Committee held daily media briefings at 2 p.m., providing updates on key issues and agendas addressed each day and sharing relevant materials. In addition to announcing basic data such as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participating countries, press conferences were held to explain the significance of the Seoul Declaration and to introduce the newly appointed leadership. During the Q&A session on the Seoul Declaration, members of the theological commission involved in drafting the document, along with WEA Deputy Secretary General Samuel Chiang, responded to questions, while remarks were also heard from Chairman Goodwill Shana, incoming Chairman Godfrey Yogarajah, and Secretary General Botrus Mansour. Following the Thursday briefing on the fourth day, both the outgoing and incoming chairpersons offered greetings and shared brief directions for future ministry.



WEA 새 지도부로 선출된 갓프리 의장과 만수르 사무총장 그리고 이임하는 전 의장 사나 목사의 기자회견
Press conference with incoming WEA Chairman Godfrey Yogarajah, Secretary General Bottius Mansur, and outgoing Chairman Goodwill Shana.

복음전도 가운데 복음을 기뻐하다
Celebrating the Gospel in Evangelism



호산나 인테그리티 찬양팀은 사랑의교회의 셰키나 찬양팀과 함께 서울총회 전 과정에 찬양으로 섬기며 국경과 인종을 넘어 복음으로 하나되는 총회가 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다. 셰키나 찬양팀과의 아름다운 조화는 물론 영적으로 유무상통하는 기쁨도 두 찬양팀을 통해 회중에게로 흘러 넘쳐 성령의 자유케 하심과 소통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The Hosanna united Worship Team, together with the Shekinah Worship Team of SaRang Church, faithfully led praise throughout the entire Assembly, playing a vital role in fostering unity in the gospel beyond national and ethnic boundaries. Their harmonious collaboration, along with their deep spiritual communion, overflowed to the congregation, creating a powerful atmosphere in which participants experienced the freedom and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인테그리티 & 셰키나 찬양팀
Integrity Music and Shekinah Sing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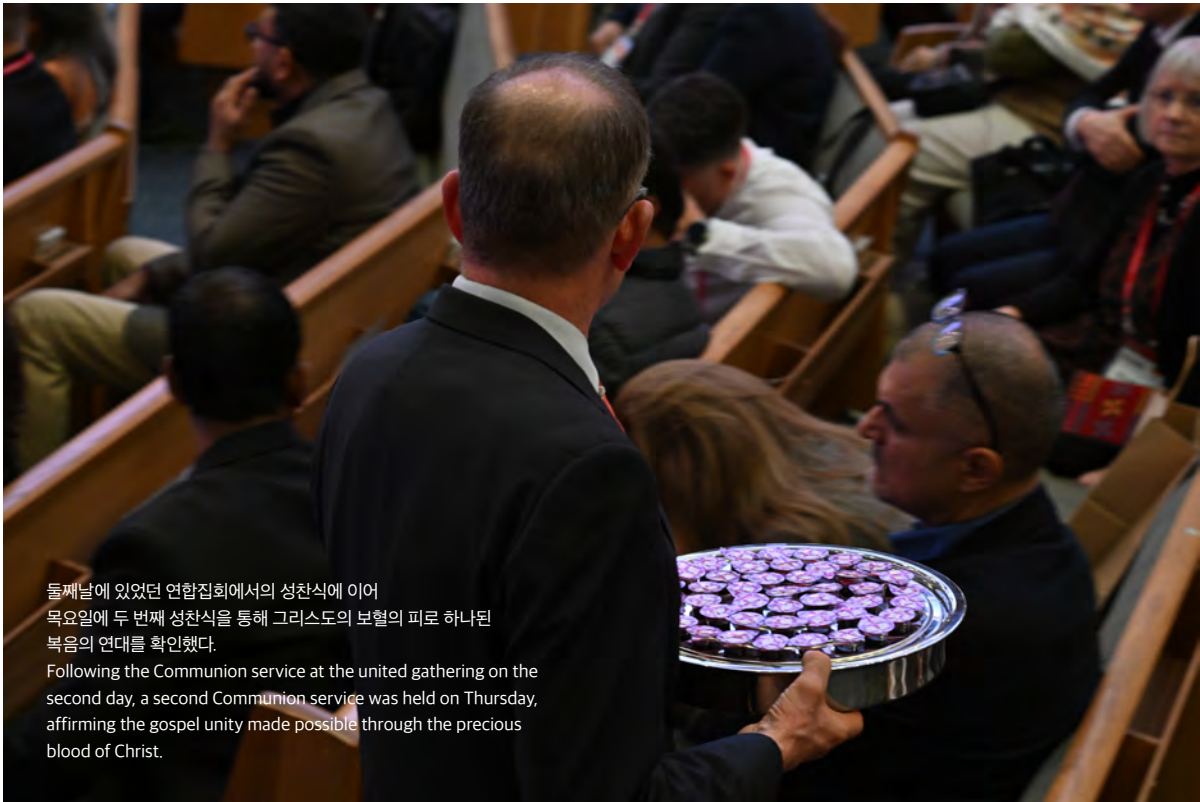
제자훈련을 통해 복음을 살아낸다
Celebrating the Gospel in Disciple-Making Celebrate



나눔을 통해 복음을 기뻐하다
Celebrating the Gospel through Generosity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는 하나이고 찬양은 그 열매이고 응답이다. 제자훈련의 결과로 우리는 찬양의 열매를 맺고 이 찬양의 열매는 삶의 전 영역을 관통한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엡 1:14)
The Word, prayer, an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re one, and praise is both the fruit and the response. As a result of discipleship training, we bear the fruit of praise, and this fruit permeates every area of life. “As a guarantee of our inheritance until we acquire possession of it, to the praise of His glory” (Ephesians 1:14).





둘째날에 있었던 연합집회에서의 성찬식에 이어
목요일에 두 번째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된
복음의 연대를 확인했다.
Following the Communion service at the united gathering on the
second day, a second Communion service was held on Thursday,
affirming the gospel unity made possible throug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WEA 서울총회는 각국 대표단의 성찬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품고
각자의 사역지로 헤어졌다.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concluded
with a Communion service shared by delegates
from around the world, who then returned to
their respective ministries carrying the grace of
Christ's precious blood.



서울총회 준비와 집행을 섬겨준 조직위원회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만수르 사무총장 힌켈만 부의장
Secretary General Bottius Mansur and Vice Chairman Hinkelmann expressing gratitude to the
Organizing Committee for their service in preparing and carrying out the Seoul General Assembly.



서울총회조직위원장 오정현 목사에게 WEA의장 굿윌샤나 목사가 감사패를 전달
Goodwill Shana, Chairman of WEA, presenting a plaque of appreciation to Rev.
Dr. Oh Jung-hyun, Chair of the Seoul General Assembly Organizing Committee.

WEA 서울총회를 마무리 하면서 WEA 본부는 한국교회와 사랑의교회, 그리고 이영훈 목사, 오정현 목사 등 두 조직위원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WEA 서울총회는 한교회, 한지역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섬긴 공공의 사역이었으며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특이점(singularity)이 되었다. As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came to a close, the WEA leadership expressed its deep gratitude to the Korean church, SaRang Church, and the co-chairs of the organizing committee, Rev. Dr. Young-hoon Lee and Rev. Dr. Jung-hyun Oh. The Assembly was not the effort of a single church or region, but a shared ministry carried by the entire Korean church. It stands as a historic milestone—a true “singularity”—that will be remembered not only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church, but also in that of the global Church.



Day 5

Korean Historical Pilgrimage Day

한국 역사 탐방의 날

5일차 ‘문화의 날’은 세계 교회가 한국의 역사·신앙·문화적 유산을 깊이 체험하는 특별한 순례의 시간이었습니다.

On the fifth day, “Cultural Day” became a special pilgrimage in which the global church deeply experienced Korea’s historical, spiritual, and cultural heritage.





한국 역사 탐방의 날

5일차 ‘문화의 날(Cultural Day)’은 세계 교회가 한국의 역사·신앙·문화적 유산을 깊이 체험하는 특별한 순례의 시간이었습니다. 각국에서 모인 대표단은 전문 가이드와 동행 하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반도 문명의 뿌리와 예술적 깊이를 살펴보고, 이어 경복궁에서 조선의 왕도에 담긴 아름다움과 한국적 미학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방문해, 한국 복음화의 초석이 된 헌신과 순교의 이야기를 묵상함으로써 오늘의 한국교회가 어떤 기도의 눈물과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를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문화의 날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복음의 발걸음을 따라온 역사와 선교의 유산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은혜의 여정이 되었으며, 세계 교회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하나님 나라의 더 넓은 연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Korean Historical Pilgrimage Day

On the fifth day, “Cultural Day” became a special pilgrimage in which the global church deeply experienced Korea’s historical, spiritual, and cultural heritage. Delegations from around the world, accompanied by professional guides, explored the roots of Korean civilization and its artistic depth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then encountered firsthand the beauty and Korean aesthetics embodied in the royal grounds of Gyeongbokgung Palace. At the Yanghwajin Foreign Missionary Cemetery, participants reflected on the stories of devotion and martyrdom that became the foundation of Korea’s evangelization, imprinting on their hearts the prayerful tears and sacrifices upon which today’s Korean church was built. Cultural Day was not merely a sightseeing tour but a grace-filled journey of seeing, hearing, and sensing the history and missionary legacy shaped by gospel footsteps. It became a time for the global church to understand one another’s cultures and to reaffirm the wider fellowship of God’s kingdom.

WEA 서울총회 서울문화탐방
WEA Seoul General Assembly Seoul Cultural Tour

양화진
Yanghwajin



WEA 대표단은 양화진 묘원을 찾아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과 기도의 무릎이 있었기에 가능한 은혜임을 확인하였다. The WEA delegates visited the Yanghwajin Foreign Missionary Cemetery, recognizing that the growth and revival of the Korean church did not occur by chance, but were made possible through the devotion, sacrifice, tears, and prayers of missionaries.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은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며 기념하는 현장이다. 이곳을 방문한 WEA 각국 대표단의 복음을 향한 헌신과 그 열매를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The Yanghwajin Foreign Missionary Cemetery commemorates the devotion and sacrifice of missionaries sent from around the world to bring the gospel to Korea. Delegates from various nations attending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visited the site, reflecting on their shared commitment to the gospel and its enduring fruit.



선교사들의 간략한 활동과 헌신의 사역을 살피며 “Gospel for Everyone”을 가슴에 되새기는 대표단들
Delegates reflecting on “Gospel for Everyone” as they learned about the ministries and sacrificial service of the missionaries.



귀츨라프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 및 아펜젤러 선교사를 비롯하여 이 땅에 성경과 성령의 역사를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 놓았던 수많은 선교사들과 이들을 도와 선교에 힘을 보탠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의 발자취는 모든 WEA대표단에게 큰 울림이 되었다.
The legacy of missionaries such as Karl Gutzlaff, Robert Jermain Thomas, Horace Underwood, and Henry Appenzeller—along with countless others who gave their lives to bring the Word of God an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o this land—and the early Korean believers who supported them, deeply moved all WEA delegates.



WEA 서울총회 서울문화탐방
WEA Seoul General Assembly Seoul Cultural Tour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서울총회에 참석한 대표단은 각국의 문화 사절이자 동시에 한국문화에 대한 전파자가 되었다. 서울시내 투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관람을 통해 한국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불교와 유교의 전통이 공고히 내려오던 이 땅에 어떻게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100년 만에 민족종교를 바꿀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The delegates who attended the Seoul General Assembly became not only cultural ambassadors of their own nations, but also carriers of Korean culture to the world. Through a tour of Seoul and a visit t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y gained a deeper understanding of Korean history and culture, and witnessed how Christianity took root in a land long shaped by Buddhist and Confucian traditions, transforming the spiritual landscape within a century.



K-Culture의 현장에서 한국을 맛보고 혹은 경험하고, 세계복음화의 꿈을 되새기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생소했던 대표단은 박물관 투어로 한국 고유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동시에 복음의 불모지였던 한반도가 성경 위에 토대를 놓은 전혀 새로운 나라로 변모하는 과정도 확인함으로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한 비전을 품게 되었다.

Experiencing Korea firsthand through K-Culture, the delegates renewed their vision for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Those who were previously unfamiliar with Korean history and culture gained meaningful insight through museum visits, while also witnessing how the Korean Peninsula—once considered a spiritual frontier—was transformed into a nation firmly established upon the foundation of the Word of God. This became a moment of renewed vision for the expansion of the Kingdom of God.



한국의 유물과 유적, K-Culture와 콘텐츠는 K-Culture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Korean artifacts, historical sites, K-Culture, and cultural content provided delegates with a deeper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WEA 서울총회 서울문화탐방

WEA Seoul General Assembly Seoul Cultural Tour

경복궁

Gyeongbokgung



고궁의 돌담길을 따라서
Following the stone walls of Korea's historic palaces.



자원봉사자들의 다정한 안내와 함께 한복체험, 고유의 음식 나누기 등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더욱 깊이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다. K-Culture의 핵심인 한국인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대화는 영적인 교제와 더불어 문화권을 뛰어넘어 복음으로 하나되는 현상이 되었다.

With the warm guidance of volunteers, delegates experienced traditional Korean attire (hanbok) and shared in authentic Korean cuisine, providing a deeper encounter with Korea's history and culture. Direct interaction and conversation with Korean people—at the heart of K-Culture—became a powerful moment of spiritual fellowship, transcending cultural boundaries and uniting all in the gospel.





동양문화권 안에 있지만 중국, 일본과는 사뭇 다른 한국고유의 문양, 건축양식, 삶의 방식을 반영한 독특한 구조 등을 이해하며 경이로움과 함께 따뜻한 한국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Although situated within the broader East Asian cultural sphere, Korea's distinct patterns, architectural styles, and ways of life—clearly differentiated from those of China and Japan—left a lasting impression on the delegates. They came to appreciate both the uniqueness and the warmth of Korean culture.



Day 6

My Soul's Full Concert 내 영혼의 풀 콘서트

감사와 헌신의 시간

사랑의교회와 서울총회가 열방을 향해
품어온 비전을 다시 견고히 세우며
기치를 드는 파송의 예배였습니다.

sending worship that lifted
high the vision carried by
SaRang Church and the Seoul
General Assembly for the
nations



내 영혼의 풀 콘서트

“내 영혼의 풀 콘서트”는 한국교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온 영적 자본이 다시 깨어나는 깊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교회 공동체 고백과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는, 말씀과 합심기도를 통해 한국교회의 기도의 유산이 어떻게 다음세대에게 계승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비추어 주었습니다. 스가랴와 마태복음의 말씀 선포는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처럼 교회를 보호하시며, 세계선교의 마무리를 향해 오늘의 교회를 부르신다는 시대적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각인시켰습니다. 또한, 오정현 목사의 빌립보서 메시지는 디모데와 같은 순전한 마음의 일꾼을 세워가는 것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신앙 계승의 핵심임을 일깨웠습니다. 한 주간 WEA 서울총회 안에서 부여주신 은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적 갈무리의 시간이 되었으며, 한국교회의 눈물과 헌신의 역사 위에 세워진 기도의 유산이 열방을 향한 새로운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구하는 간절한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단지 한 주와 사역을 마무리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랑의교회와 서울총회가 열방을 향해 품어온 비전—영적 자본의 회복, 신앙의 계승, 세계선교의 마무리를 향한 연대, 복음 앞에서의 공동 결단—을 다시 견고히 세우며 기치를 드는 파송의 예배였습니다.

My Soul's Full Concert

“My Soul's Full Concert” was a profound moment of grace in which the spiritual capital accumulated by the Korean church over many decades was awakened anew. The service, which began with SaRang Church's communal confession and praise, shone again on how the prayer legacy of the Korean church must be passed on to the next generation through the ministry of the Word and united intercession. The proclamations from Zechariah and Matthew impressed upon the church the timely calling that God, who surrounds His people like a wall of fire, is summoning today's church toward the completion of world mission. Furthermore, Rev. Dr. Jung-Hyun Oh's message from Philippians reminded the church that raising workers with the pure heart of Timothy is the essence of faith succession that both the Korean church and the global church must carry together. This gathering became a spiritual offering of the grace poured out throughout the week of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as earnest prayers rose that the prayer legacy—built upon the tears and sacrifice of the Korean church—would become a fresh spark of revival toward the nations. It was not merely a closing service for a week of ministry, but a sending worship that lifted high the vision carried by SaRang Church and the Seoul General Assembly for the nations—the restoration of spiritual capital, the succession of faith, the unity toward the completion of world mission, and the shared resolve before the gospel—establishing these commitments once again with renewed conviction.



top 감사와 은혜의 찬양
Praise of thanksgiving and grace
bottom 사회를 맡은 사랑의교회 김재원 장로, 윤수영 집사
Hosted by Elder Kim Jae-won and Deacon Yoon Soo-young of Sarang Church



WEA 서울총회는 어느 한 사람의 아이디어나 열심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으며 세계교회가 복음으로 하나되는 사명의 총회였다. 한국교회가 힘을 합해 헌신했고 사랑의교회의 온 성도가 기도과 현장을 섬기는 모습으로 수종든 거룩한 잔치였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리는 감사의 현장이었다.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was not the result of any one individual's vision or effort, but a gift from God to the Korean church and a missional gathering for the global Church to be united in the gospel. It was a sacred celebration marked by the unified devotion of the Korean church, with the entire congregation of SaRang Church serving faithfully through prayer and hands-on ministry. It was a moment of thanksgiving, offering all glory to God alone.



사랑의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에서 참석한 손님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물 떠온 하인의 심정으로 섬긴 보람은 참으로 크고 영광스러웠다. 물론, 사랑의교회 외에도 여의도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명성교회, 수원제일교회, 예안교회, 영통영락교회, 순복음축복교회, 북삼제일교회, 남군산교회 등 물질과 기도와 인적 지원으로 동참해 준 많은 교회들과 동역자들 성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조직위원회 모든 구성원들, 운영위원회 한교섭에 참석한 모든 교역자들은 역사적인 총회의 중심에서 헌신했다. 한국교회의 하나된 섬김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한 곳이었다.

Serving guests from the largest number of nations in the history of SaRang Church was both a profound joy and a great honor, carried out with the heart of a shepherd and the humility of servants who draw water. This was made possible not only by SaRang Church, but also through the partnership of many churches—including Yoido Full Gospel Church, Onnuri Church, Myungsung Church, Suwon First Presbyterian Church, Yean Church, Youngtong Youngnak Church, Full Gospel Blessing Church, Buksam First Church, and Namgunsan Church—along with countless co-laborers and members who contributed through prayer, financial support, and dedicated service. Members of the organizing committee, operational leaders, and all pastor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devoted themselves wholeheartedly at the center of this historic Assembly. The unified direction of the Korean church's service was singular: for the glory of God alone.

6

WEA Seoul General Assembly Archive

서울총회 아카이브

서울총회가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거룩한 변곡점이 되어, 서울에서 시작된 생명의 능력이
세계로 흘러가고,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May this Assembly become a holy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God's Kingdom—where the power of life
flows forth from Seoul to the world, and the glory of God
fills all the earth.

축사모음

Congratulatory Messages

컨퍼런스 봉사자와 그 현장

Volunteers' Service

해외 목회자 소감문

WEA Seoul General Assembly Impressions

컨퍼런스 디자인

Conference Design

전시회

Exhibition

WEA서울총회 다시보기

WEA Seoul General Assembly Replay

Congratulatory Messages

축사

이영훈 목사 Rev. Dr. Young-hoon Lee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Senior Pastor of Yoido Full Gospel Church



2025 세계복음주의연맹 서울총회는 성령의 사역과 복음의 능력이 모든 민족에게 흐르는 거룩한 모임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역사적인 현장에 오신 각 국의 복음주의 지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국 교회와 세계복음화의 원동력이며 세계복음화를 뒷받침 하는 힘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성령의 역사는 말씀에 대한 사랑, 충성스러운 주일 성수, 새벽기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오순절 이후로 성령은 계속해서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신자들을 변화시키며, 복음의 능력을 드러 내셨습니다. 이번 서울총회는 성령의 사역과 교회의 사명 사이에 새로운 조화를 나타낼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지역, 문화, 언어는 다르지만, 저는 이 자리에 같은 성령께서 임재 하셔서 복음의 승수역사와 새로운 영적 각성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는 영적 호흡이며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자양분이고 교회의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의 새벽 기도의 전통은 그 믿음을 형성해 왔습니다. 모든 사역은 기도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원한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성령께서 세계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불꽃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할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Assembly will be a sacred gathering where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nd the power of the Gospel flow together to all nations. I extend my heartfelt welcome to evangelical leaders from around the world who have come to this historic even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has been the source of revival for the Korean Church and the driving force behind global evangelization. The ministry of the Spirit in Korea has been revealed through love for the Word, faithful observance of the Lord’s Day, dawn prayer meetings, and sacrificial giving. Since the day of Pentecost, the Spirit has continued to transcend time and culture—renewing the Church, transforming believers, and displaying the power of the Gospel. This Assembly will manifest a new harmony between the work of the Spirit and the mission of the Church. Though our regions, cultures, and languages differ, I pray that in the presence of the same Spirit, the multiplication of the Gospel and a new spiritual awakening will emerge. I have always believed that “prayer is the breath of the Spirit, the Word is our spiritual nourishment, and the growth of the Church rests solely in God’s hands.” Just as Korea’s tradition of dawn prayer has shaped its faith, every ministry birthed in prayer will bear lasting fruit for the glory of God. Through this Assembly, may the Holy Spirit once again ignite the flame of revival in the global Church, expand the Kingdom of God, and proclaim the Gospel of Jesus Christ to the ends of the earth.

오정현 목사 Rev. Dr. Jung-hyun Oh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Senior Pastor of SaRang Church



2025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는 부흥의 향기가 가득하고,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이 모든 민족으로 흘러가는 거룩한 연합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에 전 세계 교회와 함께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 챕터를 써 내려가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의교회가 세계복음주의연맹의 요청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와 함께 이번 총회를 공동 주최하게 된 것은 큰 영광입니다. 이번 총회는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니라, 1846년 설립된 WEA의 복음주의 신앙과 부흥의 유산을 이어받아,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새로운 도약의 출발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눈물의 기도, 순교자들의 희생적인 헌신, 그리고 제자 삼는 사역의 열매로 세워져 왔습니다. 한때 황량한 선교지였던 이 땅이 이제는 전 세계 27,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강국이 되었고, 그 여정 속에서 성령의 바람과 말씀의 권능은 언제나 앞서 인도했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Fast Follower를 넘어 First Mover로 변화되어, 복음주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세계교회를 섬기며, 이끌어가는 교회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161개국에서 온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할 때, 성령께서 새 바람을 불어 넣으시고 복음을 통한 변화의 능력을 한국 땅과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서울총회가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거룩한 변곡점이 되어, 서울에서 시작된 생명의 능력이 세계로 흘러가고,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The 2025 World Evangelical Alliance Seoul General Assembly will be a sacred gathering filled with the fragrance of revival and the life-g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flowing to all nations. I am deeply grateful that the Korean Church now stands at this historic moment, writing together with the global Church the final chapter of world evangelization. At the invitation of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SaRang Church is honored to co-host this Assembly with Yoido Full Gospel Church. This is not merely an international event, but a new leap forward—an opportunity to inherit the evangelical faith and revival legacy of the WEA, established in 1846, and to serve the global Body of Christ. The Korean Church has come this far through tears of prayer, the sacrificial devotion of martyrs, and the fruit of disciple-making. What was once a barren mission field has now become a leading missionary nation, sending over 27,000 missionaries throughout the world. Along this journey, the wind of the Holy Spirit and the fire of the Word have continually gone before us. Through this Assembly, I believe God will transform the Korean Church from a fast follower into a first mover—to lead and serve the global Church while restoring the purity of evangelical faith. As evangelical leaders from 161 nations unite in one heart, may the Holy Spirit breathe a fresh wind of revival and unleash the transforming power of the Gospel across Kore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May this Assembly become a holy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God’s Kingdom—where the power of life flows forth from Seoul to the world, and the glory of God fills all the earth.

이재명 대통령 President Lee Jae-myung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The 21st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25 세계복음주의연맹 서울총회’ 참석을 위해 대한민국을 찾아 주신 전 세계 161개국의 모든 대표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뜻깊은 총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곳월 샤나 의장님, 보트루스 만수르 사무총장님과 이영훈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을 비롯한 준비위원 여러분께 깊은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기독교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종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복음의 가르침을 국가와 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직접 실천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께서 일제 강점기 때 독립의 깃발을 들었고, 산업화 시대에는 교육·의료·사회계몽에 헌신했으며,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셨습니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지금, ‘빛과 소금’처럼 희생과 헌신, 연대와 상생을 보여준 기독교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인권 보호와 빈곤 구제에 앞장 서고 계신 ‘세계복음주의연맹’ 회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위기를 이겨낼 지혜를 모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최초이자 분단 국가에서 최초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공동 성장을 위한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총회의 슬로건인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처럼 여러분 모두의 삶과 사역이 더욱 풍성한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Korea to attend the 2025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Seoul General Assembly.

I also extend my congratulations and gratitude to Executive Chair Goodwill Shana, Secretary General Botrus Mansour, Pastors Lee Young-hoon and Oh Jung-hyun, and all the staff who worked tirelessly to organize this meaningful event.

Christianity holds a significance that goes beyond religion in Korean history. This is because it has personally put into practice the teaching of “love thy neighbor” in the “lower places” where the state and government could not reach. The pastors of this land raised the banner of independenc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devoted themselves to education, healthcare, and social enlightenment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era, and played a crucial role and responsibility in the blossoming of democracy.

At a time when hardships in people’s livelihoods continue, the Christian spirit of sacrifice, service, solidarity, and mutual growth—“the salt and light” of society—is needed more than ever.

I believe that the members of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ho are leading the way in protecting human rights and alleviating poverty around the world, will pool their wisdom to overcome this crisis for all together.

In particular, as this Assembly is the first to be held in Northeast Asia and the first in a divided nation, I earnestly ask for your interest and support in advancing peace and share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keeping with the Assembly’s theme, “The Gospel for Everyone,” I hope that your lives may be filled with an abundance of love and grace.

Thank you.

이명박 대통령 President Lee Myung-bak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The 17th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25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총회는 전 세계 161개국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적인 자리로,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 복음주의 공동체 전체에 큰 축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독교는 오랫동안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고, 고통 받는 이웃을 섬기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성경의 절대 진리를 불드는 복음주의 운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며 희생과 헌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했고, 그 중심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를 섬기는 기독교 정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총회를 통해 이 섬김의 정신이 다시금 빛을 발하고,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총회가 “모든 이에게 복음을(The Gospel for Everyone)”이라는 주제처럼, 주님의 지상명령을 다시 붙들고 한반도와 열방에 평화와 화해의 소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지혜가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번 서울총회를 통해 복음주의 운동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나기를 바라며, 이 총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I extend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the convening of the 2025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Seoul General Assembly.

This General Assembly is a truly historic occasion, bringing together evangelical leaders from 161 nations around the world. I firmly believe that it will be a great blessing not only to the Korean church but also to the entire global evangelical community.

Christianity has long fulfilled its calling to be the light and salt of the world—healing the wounded and serving neighbors in suffering. The evangelical movement, grounded in the absolute truth of the Bible, has sought to live out the heart of God, striving to transform the world through sacrifice and devotion.

The Republic of Korea has grown from a nation that once received aid to one that now gives aid to others. At the center of this remarkable transformation has been the Christian spirit of loving one’s neighbor and serving the world. I sincerely hope that through this Seoul General Assembly, that same spirit of service will shine anew, and that evangelical churches throughout the world will be united to restore the essence of the gospel.

As expressed in the theme of this Assembly, “The Gospel for Everyone,” may this gathering become a renewed commitment to the Great Commission—bringing the hope of peace and reconciliation to the Korean Peninsula and to all nations. I also pray that God’s abundant grace and wisdom will be upon all who participate and upon every ministry represented here.

May the evangelical movement, through this Seoul General Assembly, shine ever more brightly in this challenging age. I pray that God’s great blessings will rest upon every hand involved in preparing for this Assembly.

오세훈 시장 Mayor Oh Se-hoon

서울특별시장
Mayor of Seoul



할렐루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WEA 서울총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귀한 자리를 정성껏 준비해주신 오정현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에게 복음을, 2033을 향하여’라는 주제처럼 이번 총회가 세상의 상처를 보듬고 참된 믿음의 본질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서울이 늘 약자와 함께 걷고, 연대와 나눔을 실천하는 도시인 만큼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사랑과 자비가 더 깊이, 더 넓게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Hallelujah.
I am Oh Se-hoon, Mayor of Seoul.
It is with great joy that I extend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the convening of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Seoul General Assembly, a gathering of evangelical leaders from all around the world.
I also wish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Rev. Young-Hoon Lee and Rev. John Jung- Hyun Oh for their heartfelt devotion and tireless efforts in preparing this precious and meaningful occasion.
In keeping with the theme, “The Gospel for Everyone by 2033”, I sincerely hope that this Assembly will serve as a time to embrace the wounds of the world and to share the true essence of faith.
Furthermore, I pray that in Seoul—a city devoted to walking alongside the vulnerable and practicing solidarity—the gospel of love and compassion will spread ever more deeply and widely.

May the abounding grace and everlasting peace of our Lord be with each one of you always.

장종현 목사 Pastor Jonghyun Jang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대표총회장,
전 한교총 대표회장
Former Chair of UCCK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2025 WEA 서울총회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역사적인 총회를 위해 헌신으로 섬겨주신 서울조직위원회와, 특별히 공동위원장을 맡아 헌신하신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저는 “신학은 단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확신 아래 개혁주의 신학을 선포해 왔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임을 믿으며, 한국교회가 직면한 분열과 세속화의 도전을 회개의 사역으로 다루고,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하나됨을 회복하고자 힘써 왔습니다.
저는 이번 서울총회가 한국교회가 분열을 극복하고 복음의 생명력을 되찾는 강력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거룩한 모임을 통해 한국교회의 영적 영향력이 열방으로 흘러가며, 복음 갱신의 새 시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권위 위에 세워진 믿음과 기도와 회개의 운동이 온 세계를 다시 깨우고, 우리 시대에 참된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로 회복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제자 세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We give thanks and glory to Jehovah God, who has revived the Korean Church and led us to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We express deep gratitude to the Organizing Committee, especially to Rev. Younghoon Lee of Yoido Full Gospel Church and Rev. Jung Hyun Oh of SaRang Church, for their dedicated leadership as Co-Chairs

of this historic gathering.
For over two decades, I have proclaimed Reformed Life Theology under the conviction that “theology is not merely academic, but the Gospel of the life of Jesus Christ.”
Believing that the Bible is God’s perfect revelation, I have sought to restore the essence of the Gospel and the unity of the Church through the Repentance and Forgiveness Movement, confronting the challenges of division and secularization that face the Korean Church.
I believe this General Assembly will become a powerful turning point—helping the Church overcome fragmentation and recover the vitality of the Gospel in unity with the global Church. Through this sacred gathering, may the spiritual influence of the Korean Church flow to the nations, ushering in a new era of Gospel renewal.
May the faith rooted in the authority of Scripture and the movement of prayer and repentance inspire the world, kindling a true revival in our time. I pray that this Assembly will restore the Church as a living community of Jesus’ life and raise up a new generation of disciples who serve as salt and light for the world.

연아 마틴 Yuna Martin

캐나다 상원위원
Canadian Senator



캐나다 상원을 대표하여, 사랑의교회가 2025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총회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846년 설립 이래, 세계복음주의연맹은 변함없이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며,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가 하나 되어 협력할 수 있도록 헌신해 왔습니다. “모든 이에게 복음을: 2033을 향하여(The Gospel for Everyone by 2033)”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서울총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 세

계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KCWA 설립 40주년으로, 이는 창립자들의 비전뿐 아니라 수십 년 동안 KCWA의 사역을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의 노력과 수고를 증언하는 중요한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KCWA를 통해 변화된 수많은 이야기들은, 이 단체가 한인 캐나다 공동체와 더 넓게는 캐나다 사회에 끼친 지속적인 영향력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축복된 총회를 준비하며 변함없는 헌신과 신실한 섬김을 이어온 사랑의교회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번 총회가 영적 부흥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 모임이 참가자 모두에게 복음의 사명을 새롭게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진심 어린 축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의교회와 세계복음주의연맹 위에 늘 함께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의 사명을 더욱 굳건히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On behalf of the Senate of Canada, I am honoured to extend my warmest congratulations to SaRang Church on hosting the 2025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General Assembly in Seoul, Korea.
Since its founding in 1846,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has remained steadfast in its mission to uphold the truth of the Gospel, defend the faith, and promote unity among believers around the world. The upcoming Assembly in Seoul, held under the theme “The Gospel for Everyone by 2033,” is a divinely inspired gathering that carries profound significance for the global Church.
This 40th anniversary is a testament not only to the vision of its founders, but also to the dedication of all who have contributed to KCWA’s success over the decades. The lives changed through KCWA stand as proof of its lasting impact on the Korean Canadian community and on Canadian society as a whole.
I commend SaRang Church for its unwavering devotion

and faithful service in preparing for this blessed gathering. May this Assembly be filled with spiritual renewal, divine wisdom, and a powerful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inspiring all participants to carry the light of the Gospel to every corner of the world. With heartfelt congratulations, may God’s grace continue to guide SaRang Church and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in their shared mission for His Glory.

로버트 노리스 Robert Norris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의장
Chairman of the World Reformed Fellowship (WRF)



2025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의장으로서, WEA와 전 세계 교회들이 복음 증언을 위해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 사역을 크게 기뻐합니다. WRF는 오랫동안 WEA와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사명을 확장하고, 주님의 교회를 향한 연합의 소명을 강화해 왔습니다. 특별히 변함 없는 지원과 기도, 동역으로 함께해 온 사랑의교회와 복음에 대한 세계적 비전과 깊은 헌신으로 이 사역을 이끌고 가고 계신 오정현 목사님의 탁월한 리더십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번 역사적인 서울총회에 직접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의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 복음주의 공동체 위에 풍성하게 부어 주실 영적 은혜를 목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우리의 연합된 복음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더욱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It is a great honor to extend my heartfelt greetings to all who are gathered for the 2025 World Evangelical Alliance Seoul General Assembly.

As Chairman of the World Reformed Fellowship (WRF), I rejoice in our shared ministry with the WEA and with churches around the world that stand together for global Gospel witness. The World Reformed Fellowship has long partnered with the WEA in advancing the cause of Christ and strengthening the unity of His Church. I am deeply grateful to SaRang Church for its faithful support, prayer, and partnership, and especially to Rev. Dr. Jung-Hyun Oh for his global vision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the Gospel. I look forward to joining this blessed gathering and to witnessing the rich spiritual blessings that God will pour out upon SaRang Church, the Korean Church, and the global evangelical family through this historic Assembly. May the name of Jesus Christ be exalted, and may His Kingdom advance through our united witness to the world.

피터 릴백 Peter Lilback

웨스트 민스터 신학교 총장
President of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사랑의교회에서 개최되는 2025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총회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사역하며, 복음주의 신앙이 선교와 전도, 그리고 신학 교육을 통해 전 세계로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지켜보았습니다. 이번 총회를 위해 탁월한 리더십과 따뜻한 현대의 마음을 보여준 사랑의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의 진리를 통해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형제자매로서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려올려질 때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오리라”(요 12:32) 하신 말씀이 WEA의 비전과 사명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총회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새 믿음과

풍성한 열매로 채우셔서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Congratulations to all gathered for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General Assembly 2025 at SaRang Church in Seoul, Korea. It has been my great privilege to serve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for over twenty years and to witness how the evangelical message reaches the world through missions, evangelism, and theological education. I give thanks for the leadership and hospitality of SaRang Church and pray that through this Assembly the Holy Spirit will reveal God’s sovereignty and the truth of His Word—uniting us as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to serve Him faithfully. May this gathering lift high the name of Jesus Christ, who said, “When I am lifted up, I will draw all people to Myself” (John 12:32).

May God bless this Assembly and fill His Church with renewed faith and fruitfulness for generations to come.

마크 허즈번즈 Mark Husbands

덴버신학교 총장
President of Denver Theological Seminary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교회가 서울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사명을 새롭게 다지는 이 뜻깊은 시점에, 덴버신학교는 사랑의교회와 세계복음주의 연맹(WEA)의 리더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주의 역사에서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에게 주어진 참으로 귀한 선물입니다. 저는 오정현 목사님의 신학적 비전과 목회적 리더십, 그리고 개혁주의 복음신앙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깊이 존경합니다. 사

랑의교회는 수십 년 동안 제자훈련과 국제적 파트너십, 로잔운동을 향한 섬김을 통해 복음은 제도보다 말씀과 성령으로 빛어 진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 전진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덴버신학교 역시, 신학 교육은 교회의 갱신과 세상의 번영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동일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총회를 계기로 한국교회와 전 세계 복음주의 공동체가 더욱 굳건히 연대하여, 복음의 빛을 세상 속에 더욱 힘있고 선명하게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Grace and peace to you in Christ our Lord. As the global church gathers in Seoul, Denver Seminary joins in thanksgiving for the leadership of SaRang Church and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Hosting this General Assembly at such a pivotal time in evangelical history is a profound gift to the worldwide body of Christ. I hold deep respect for Rev. Dr. Jung-Hyun Oh’s theological vision, pastoral leadership, and steadfast commitment to Reformed evangelical faith. Through decades of disciple-making, global partnerships, and service to the Lausanne Movement, SaRang Church has shown that the gospel advances not through institutions but through faithful believers shaped by Scripture and the Holy Spirit. Denver Seminary shares this conviction that theological education must serve the renewal of the church and the flourishing of the world. May this Assembly bear lasting fruit for the Kingdom of God and strengthen the witness of the global evangelical family.

케빈 브라운 Kevin Brown

애즈베리 대학교 총장
President of Asbury University



애즈베리 대학교를 대표하여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

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와 하나 된 복음 공동체의 살아 있는 증거이며, 그 자체로 깊은 기쁨이자 더없는 영광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역사적 신앙의 증언과 뜨거운 복음적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이 중요한 총회를 아낌없이 섬기고 베풀어 주신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님과 모든 리더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지금 교회와 전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감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기도는, 이번 총회를 통해 우리의 복음적 사명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더욱 풍성히 나타나는 연합과 겸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울총회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로 새로워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마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On behalf of Asbury University, I warmly greet all gathered for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Seoul General Assembly. It is a joy and honor to join this global fellowship of Christ’s followers and to witness the unity of the worldwide church in love for Jesus Christ. I deeply respect the Korean Church for its historic witness and fervent faith, and I am especially grateful to Rev. Dr. Jung-Hyun Oh and the leadership of SaRang Church for their generosity and faithfulness in hosting this significant gathering.

We stand at a pivotal moment in global evangelical Christianity. My prayer is that this Assembly will renew our vision for faithful witness and inspire unity, humility, and the fruit of the Spirit among us. May we leave this Assembly renewed and transformed by God’s gracious presence.

이윤재 총장 President Lee Yoon-jae

송실대학교 총장
President of Soongsil University



한국 최초의 기독교 대학인 송실대학교를 대표하여, 2025 WEA 서울총회가 “모든 이에게 복음”이라는 귀한 주제 아래, 복음주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 성경적 가치관을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 전파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영적 자산인 제자훈련의 열정과 간절한 기도의 DNA를 세계 교회와 나누는 역사적인 교두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128년 역사의 송실대학교도 복음적 진리를 수호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5 WEA 서울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원합니다.

On behalf of Soongsil University, Korea’s first Christian university, I sincerely hope that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under the profound theme “The Gospel for Everyone”— will be a meaningful time for evangelical leaders to reaffirm biblical values and explore new strategies for Gospel proclamation in this rapidly changing era.

I am confident that this gathering will serve as a historic bridge, sharing with the global Church the spiritual legacy of the Korean Church—its passion for discipleship and its fervent DNA of prayer.

With 128 years of history, Soongsil University remains committed to defending evangelical truth and raising up men and women who will serve as the light and salt of the world.

Once again, I extend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and best wishes for the successful convening of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오덕교 총장 President Oh Deok-gyo

햇볼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President of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1846년 런던에서 출발한 세계복음주의 연맹이 오늘 이곳 서울에서 제14차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놀라운 부흥과 선교의 역사를 이루셨으며, 이제 그 은혜의 연장선상에서 세계 복음화를 향한 새로운 장을 열고자 이 모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번 서울 총회는 복음의 본질을 재확인하고, 복음주의 신앙의 핵심(하나님의 주권, 성령의 무오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 성령의 사역, 제자 양성과 복음 전파)을 다시 고백하고 확인하는 영적 선언의 장이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시작되는 이 거룩한 불길이 온 세상으로 퍼져, 말씀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고 복음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It is by God’s providence and grace that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founded in London in 1846—now gathers here in Seoul for its 14th General Assembly. God has raised up the Korean Church, granting it an extraordinary history of revival and mission, and in the continuation of that grace, He has allowed this gathering to open a new chapter in the global advancement of the Gospel. This Seoul Assembly will be a sacred moment of reaffirmation—recovering the essence of the Gospel and confessing anew the core convictions of evangelical faith: the sovereignty of God, the inerrancy of Scripture, the exclusivity of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disciple-making, and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May the holy flame that begins here in Seoul spread to the ends of the earth, so that through the Word and the Spirit, God’s reign may expand and the glory of the Gospel may fill the whole world.

히로오 칸베 Hiroo Kanbei

일본복음동맹(JEA) 총무
General Secretary of the Japan Evangelical Alliance (JEA)



할렐루야!

세계복음주의연맹 제14차 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본 간사이 지역에서 인사를 드리며, 일본복음동맹을 대표하여 이와 같이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이에게 복음: 2033을 향하여(The Gospel for Everyone by 2033)”라는 주제 아래, 전 세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된 형제자매들이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Evangelical)”라는 단어는 세계 여러 맥락 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복음을 신실하게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동일한 사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시대의 다양성과 세계적인 도전 속에서 이번 총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힘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차이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총회 위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Hallelujah!

It is with great joy that I extend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the 14th General Assembly of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Greetings from Kansai, Japan. On behalf of the Japan Evangelical Association, I am honored to bring these words of greeting.

Gathered under the theme “The Gospel for Everyone by 2033,” we come together as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from around the world. Though the term Evangelical may carry different meanings across cultures, we are united by one spirit and one conviction—to live and proclaim the Gospel faithfully in our generation.

Amid diversity and global challenges, this Assembly reminds us of the power of unity in Christ. May we overcome our differences, listen to God’s Word, and walk humbly together for His purpose.

May the abundant blessing of our Lord rest upon this Assembly. Hallelujah!

다비 찰스 고메즈 Darby Charles Gomez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국제 총재
International President of the World
Reformed Fellowship (WRF)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인 사랑의교회 성도 여러분,
당회와 장로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귀한 형제요 친구이신 오정현 목사님께 진
심 어린 인사와 감사를 전합니다.

세계개혁신의협의회 (WRF)이 기관 회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세
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를 사랑의교회가 개최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을 향한 여
러분의 따뜻한 환대와
신실한 섬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WEA의 주된 사명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모든 민족 가운데 확장
하고, 전 세계 가시적 교회의 지체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데 있
습니다.

오정현 목사님의 든든한 리더십 아래 사랑의교회는 이 부르심을
비전과 신실함으로 잘 감당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역사적인 총회를 풍성히 축복하시고, “여호와와 영
광을 아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약
속이 성취되는 은혜의 현장을 목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박
국 2:14).

It is my great joy to extend heartfelt greetings and gratitude
to SaRang Church—our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the church council, the elders, and especially Rev.

Dr. Jung-hyun Oh, our dear brother and friend.

We thank God that SaRang Church is hosting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Seoul General Assembly, of
which the World Reformed Fellowship is an institutional
member. Your gracious hospitality and faithful service to
the Body of Christ worldwide are deeply appreciated.

The WEA continues to serve as a vital instrument for
advancing the Kingdom of Christ and uniting believers in
His visible Church. Under the steadfast leadership of Rev.
Dr. Oh, SaRang Church has demonstrated this calling with
vision and faithfulness.

May the Lord richly bless this historic gathering and renew
our shared mission of proclaiming Christ to the nations
until His glory fills the earth as the waters cover the sea
(Habakkuk 2:14).

강대흥 선교사 Missionary Kang Dae-heung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총장
Secretary General of the Korea
World Mission Association (KWMA)



2025 WEA 서울총회와 제4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세계선교협의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조
국 교회가 살아 있고 성장하며, 하나님께 받은 영적 유산을 세계
복음주의자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의 심장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며, 선교의 본질 또한 ‘모든 족
속을 제자로 삼는 것’(마 28:19)입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역시 그 중심에 ‘제자 삼는 일과 선교’를 두고 있습니다. 제자 운
동을 실천해 온 사랑의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해 이 비전을 나누
는 일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목양과 선교 패러다임을 새로
게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On the occasion of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and the 4th Korea National Pastors’ Conference, I extend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behalf of the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

It is a great joy and blessing that the Church in our nation
is alive and growing, now sharing the spiritual heritage
entrusted by God with evangelicals around the world.

The heartbeat of the Church is to make disciples, and the
essence of missions is t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This calling lies at the very center of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The fact that SaRang Church, which has faithfully
embodied the disciple-making movement, is sharing this
vision through this gathering will serve as a new turning
point for both the Korean and global Church in pastoral
and missional paradigms.

May the abundant grace and blessing of our Lord be upon
all who participate in this historic moment.

임석순 회장 Chairman Lim Seok-soon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President of the Korean Evangelical Fellowship



이번 WEA 총회를 위해 한국을 찾아 주신 전 세계 복음주의 가
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KEF)는 한국교회가 받은 은혜를 세계 교
회와 기쁨으로 나누며, 복음의 본질 위에서 더욱 깊은 연합과 협
력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 모임이 격변의 시대 속에서 복음의 소망을 다시 고백하고, 다
음세대를 위한 건강한 신학과 선교적 상상력을 세우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현신으로 섬기시는 서울조직위원회(SOC),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사랑의교회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머무시는 시간마다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We warmly welcome our global evangelical family who
have come to Korea for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The Korea Evangelical Fellowship (KEF) rejoices to share
with the worldwide Church the abundant grace that God
has bestowed upon the Korean Church, seeking deeper
unity and cooperation grounded in the essence of the
Gospel.

We pray that this gathering will be a gracious moment to
reaffirm the hope of the Gospel in this age of rapid change
and to inspire sound theology and missional imagin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We extend our heartfelt gratitude to all who have served
with devotion—the Seoul Organizing Committee,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and SaRang Church. May the peace of
our Lord fill your hearts and accompany you throughout
your time here.

박희천 목사 Pastor Heecheon Park

내수동교회 원로목사
Senior Pastor of Naesu-dong Church



-박희천 목사 (내수동교회 원로목사) (있음_9p)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총회는 세계교회의 올림픽이자 목회자
들의 유엔총회와도 같습니다. 건강한 세계복음주의연맹 총회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소식은 한국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
입니다. WEA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며, 성경의 무오성
을 확고히 주장합니다. 이번 WEA 서울총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성경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
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는 진리를 세계
교회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세계교회를 진심으로 섬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General Assembly is often
called the Olympics of the global church and the United
Nations of pastors. The fact that such a healthy and vibrant

gathering is taking place here in Seoul is indeed a precious gift from God to the Korean Church.

The WEA stands firmly upon the absolute authority of Scripture and boldly upholds the inerrancy of the Word of God. It is my hope that through this Assembly, we will all grow in our love for the Bible—finding joy, comfort, and strength in its truth—and share that same life-giving Word with the global Church.

May this be a blessed moment when the Korean Church, with one heart, sincerely serves and honors the worldwide Body of Christ.

전계현 목사 Pastor Gyeheon Jeon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중경총회장
Former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Hapdong)



전 세계 161개국 대표와 선교사, 한국교회 목회자 등 7,000여 명이 “모든 이에게 복음을”이라는 주제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우리는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사명을 위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WEA 서울총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 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More than 7,000 participants—including representatives from 161 nations, missionaries, and pastors of the Korean Church—have gathered under the theme “The Gospel for Everyone.” We must hold fast to the words entrusted to us by Jesus Christ: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Acts 1:8).

We are called to be united in the sacred mission of proclaiming the Gospel to all nations, teaching them God’s Word, and equipping them to expand His Kingdom. May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be filled with the mighty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like the upper room of John Mark—so that a new movement of divine power may rise among us.

감경철 회장 Chairman Gam Kyung-cheol

CTS 회장
CTS Chairman



할렐루야!
2025 WEA 서울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살아있는 정통·개혁적 보수·순전한 복음”을 목표로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이번 총회를 통해 세계 교회의 복음적 가치와 기준이 제시되고, 세계 선교 활성화와 제자훈련의 국제적 확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이번 대회에 함께한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세계 복음주의의 거룩한 전환점을 기대하며 2025WEA 서울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Hallelujah!
I extend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the convening of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As global evangelical leaders gather with the shared vision of “Living Orthodoxy, Reformed Conservatism, and the Pure Gospel,” I trust that this Assembly will present clear evangelical values and standards for the global Church, while igniting a new wave of world mission and the international expansion of discipleship.

May the abundant grace of our Lord rest upon all missionaries devoted to the advancement of God’s Kingdom, as well as upon every church and believer participating in this sacred event. Once again, I look forward with great expectation to this historic turning point for the worldwide evangelical movement.

나이영 사장 President Nai Young

CBS 사장
CBS President



-나이영 사장 (CBS 사장) (있음_10p)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서울에서 전 세계의 동역자들을 맞이하게 된 것은 CBS 임직원 모두에게 큰 기쁨이자 영광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순수성을 확고히 정립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를 확산시켜가는 강력한 운동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헌신해 온 전 세계 모든 교회와 리더들이 더욱 연대하고 선교적 역량을 발휘하는 귀한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일에 책임 있는 주류로 참여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회가 서울에서 열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님과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s we celebrate the 140th anniversary of Korean missions, it is a great joy and honor for all of us at CBS to welcome fellow workers in Christ from around the world to Seoul. We look forward to witnessing a powerful movement that firmly upholds the purity of the Gospel and spreads its truth globally. May this Assembly become a precious opportunity for churches and leaders worldwide—who have long devoted themselves to this calling—to unite even more deeply and strengthen their missional capacity for the advancement of the Kingdom.

We are especially grateful that the Korean Church can now serve as a faithful and responsible partner in this global task.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heartfelt thanks to Rev. Dr. Younghoon Lee of Yoido Full Gospel Church and Rev. Dr. Jung-Hyun Oh of SaRang Church for their dedicated leadership in making this Assembly possible here in Seoul.

양병희 목사 Pastor Yang Byeong-hee

영안교회 담임목사, 기독교연합신문 사장
Senior Pastor of Yeongan Church and President of Christian Union Newspaper



2025 WEA 서울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179년간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를 이끌어 온 연합의 장인 WEA 총회를 섬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자 복음적 응답이라 믿습니다.
이번 총회는 동북아시아 최초이자 분단국가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모임으로, WEA의 핵심 가치인 “살아있는 정통·개혁적 보수·순전한 복음”이 굳건히 재확인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전 세계 교회가 직면한 이슈와 신학적 도전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모색하며, 진리 위에 선 연합의 비전이 더욱 공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I sincerely congratulate you on the convening of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It is by God’s gracious providence and as a Gospel-centered response that the Korean Church has been given the privilege to serve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a fellowship that has led and united the global evangelical movement for the past 179 years. This Assembly is historic, being held for the first time in Northeast Asia and in a divided nation. We look forward to seeing the WEA’s core convictions—living orthodoxy,

reformed conservatism, and the pure Gospel—affirmed once again with renewed clarity and strength. May this gathering also become a moment when the global Church seeks biblical answers to contemporary theological and cultural challenges, building an even stronger vision of unity grounded in the unchanging truth of God’s Word.

김인영 대표 CEO Kim In-young

복음언론인회 상임대표
Standing Representative of the
Gospel Journalists Association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 133:1)

오늘 우리가 한자리에 모인 이 순간, 이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의 가운데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큰 도전 앞에 서 있고, 교회가 점점 더 많은 반대를 직면하는 이때, 이번 총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분열을 수군대며 더 갈라지기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릴 때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믿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백만 성도가 함께 모였던 그 역사적 집회는 연합이 가진 변혁의 능력을 한국뿐 아니라 온 세계에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놀라운 역사처럼 섬김을 통한 사랑을 실천하는 이 자리를 통해 복음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고,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 나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brothers live together in unity” (Psalm 133:1). This verse comes alive in our midst today as we witness the beauty of believers gathering as one in Christ. In a time when our nation faces great challenges and the Church encounters increasing opposition, this Assembly stands as a powerful testimony

that glorifies the Lord.

Though the world may hope to see the Church divided, we affirm that when God’s people unite in prayer and worship, there is nothing to fear. The great gathering of 2 million believers last October showed the transforming power of unity—echoed not only across Korea but around the world. May this fellowship, rooted in love and service, become the Acts-like movement of our time—where the Gospel spreads swiftly through the unity and compassion of God’s people. Thank you.

보트루스 만수르 Botrus Mansour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사무총장
Secretary General of WEA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은 최근 보트루스 만수르(Advocate Botrus Mansour)를 신임 사무총장 겸 최고경영책임자(CEO)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만수르 사무총장은 1965년 나사렛 출생으로,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이스라엘 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 법조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비영리 경영(MBA, 하이파대)을 공부하며 기독교 교육과 선교적 사역에 헌신해 왔습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나사렛 침례학교(Nazareth Baptist School)를 이끌며 차세대 기독교 지도자 양성에 헌신하고 있으며, 1996년 나사렛 지역교회를 개척하고 2001년 장로로 임직하여 교회 현장 사역에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복음주의교회연합 의장, 요르단 및 성지 복음주의연합 사무총장, 나사렛 빌리지 부이사장, 로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화해 이니셔티브’ 공동의장 등을 역임하며, 교회와 사회, 지역과 세계를 아우르는 지도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또한 기독교 교육, 종교 자유, 중동의 화해와 평화 문제에 대해 아랍어·히브리어·영어로 활발히 집필하고 강연하며, 『When Your Neighbor is the Savior』(2011), 『Looking from the Precipice』(2021) 등 저서를 통해 신앙과 공공 영역을 잇는 글을 남겼습니다.

만수르 신임 사무총장은 취임 소감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소명 앞에 겸손히 서 있으며, 이 사역은 전 세계 복음주의 가족이 마음과 뜻과 손을 모아야 감당할 수 있는 과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2033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The Gospel for Everyone by 2033)’ 전하는 비전을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은 평화와 정의, 의를 이루는 유일한 해답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장애물도 복음 앞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의 선임은 2025년 서울총회를 앞두고 WEA가 세계 복음주의 연대를 새롭게 강화하는 시점에 이루어진 결정으로,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다양한 문화권을 아우르는 리더십이 더욱 요청되는 오늘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수르 사무총장이 보여줄 ‘겸손한 섬김의 리더십’은, 세계교회가 복음의 순수성과 연합을 새롭게 경험하도록 이끌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has officially designated Advocate Botrus Mansour as its next Secretary General and Chief Executive Officer (CEO).

Born in Nazareth in 1965, Mansour studied law at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and later earned an MBA in non-profit management from Haifa University. Since 2004, he has served as Director of Nazareth Baptist School, shaping future Christian leaders and rooting his ministry in education and discipleship.

He previously led the Evangelical Convention of Israel, served as Secretary General of the Evangelical Alliance of Jordan and the Holy Land, and co-chaired the Lausanne Israel- Palestine Reconciliation Initiative. Fluent in Arabic, Hebrew, and English, he has written extensively on Christian education, religious freedom, and reconciliation in the Middle East.

In his designation remarks, Mansour shared, “I stand humbly before this calling, knowing it can only be fulfilled as the evangelical family unites in heart and

purpose. We must advance the vision of The Gospel for Everyone by 2033. The Gospel is the true answer for peace, justice, and righteousness, and we must press forward for His glory.”

His appointment comes at a pivotal moment as the WEA prepares for the 2025 Seoul General Assembly, calling for strengthened evangelical unity and Christlike leadership for the global church.

사무엘 치앙 Samuel Chiang

세계복음주의연맹(WEA) 부사무총장
Deputy Secretary General of WEA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께, 2025 세계복음주의연맹 서울총회에 오신 여러분을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총회는 기도와 준비, 그리고 온 교회의 협력 속에서 탄생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2024년 11월 첫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총회 사무국 개소, 제자훈련 심포지엄, 2025년 두 번째 기자회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도했습니다. 매 걸음마다 중보와 헌신, 나눔과 동역이 채워지며 오늘의 이 역사적 순간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몸소 보여준 서울준비위원회의 기도와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총회를 위해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은 수많은 목회자들과 사랑의교회, 자원봉사자들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한국 내·외의 5,500명이 넘는 한국인 목회자들이 총회 개막에 함께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들의 참여는 한국교회와 세계 복음주의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하며, 복음을 위해 함께 선다는 표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총회를 예배와 예술, 섬김의 영역에서 풍성하게 해주신 Beloved Gallery, Tru Center, Integrity Music, BFBS, UBS 등 귀한 동역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든 이에게 복음을, 2033을 향하여 (The Gospel for

Everyone by 2033)”이라는 깃발 아래 우리는 이번 총회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의 거룩한 운동임을 고백합니다. 기도 와 증언, 제자훈련의 사명을 다시 붙드는 이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 강림 2000주년을 향한 발걸음을 함께 내딛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연합을 더욱 굳게 하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민족이 주께 기뻐하는 그날까지, 모든 사랑이 복음을 듣는 그날까지 그 은혜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Dear Friends in Christ,

With deep gratitude and joy, we welcome you to the 2025 World Evangelical Alliance Seoul General Assembly—a gathering born of prayer, preparation, and partnership. From the first press conference in November 2024 to the opening of the interim GA office, the Disciple-Making Symposium, and the second press conference in 2025, we have seen the unmistakable hand of God guiding us. Each step has been marked by intercession, generosity, and collaboration, forming the foundation for this historic moment.

We offer heartfelt thanks to the Seoul Organizing Committee, whose tireless and prayerful leadership has embodied unity in Christ. We are deeply grateful for the many pastors, churches, and volunteers whose devotion and sacrifice have made this Assembly possible.

This year marks a milestone as over 5,500 Korean pastors, both from Korea and the diaspora, join the Assembly’s opening. Their participation deepens fellowship and strengthens the partnership between the Korean church and the global evangelical family—standing together for the Gospel.

We also thank our valued partners, including Beloved Gallery, Tru Center, Integrity Music, BFBS, and UBS, whose creativity and collaboration have enriched this gathering in

worship, art, and service.

Under the banner “The Gospel for Everyone by 2033,” we affirm that this Assembly is not merely an event, but part of a movement—joining hearts and hands in prayer, witness, and disciple-making as we look toward the 2000th anniversary of Christ’s death, resurrection, and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May this week renew our faith, strengthen our unity, and fill us with the grace and power of the Gospel—until all have heard and the nations rejoice in Him.

페이롱 린 Peilong Lin

세계복음주의연맹(WEA) 부사무총장
Deputy Secretary General of WEA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총회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깊은 영광과 기쁨으로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거룩한 자리는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기 위해 전 세계 복음주의 가족이 한 목적 아래 하나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과 정의, 변혁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며,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울까지 오는 여정은 곧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분열과 불확실함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 왔 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으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총회를 가능 하게 한 서울준비위원회의 믿음과 인내, 넉넉한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계복음주의연맹 여성위원회(WEA Women’s Commission)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 전 세계에서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오직 믿음뿐임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세계복음연맹은 믿음과 사명으로 하나 된, 계속 성장하는 세계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WEA가 9개 대륙, 165개국 이상으로 확장된 것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특히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연합체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 백성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증언하는 귀한 열매입니다. 성장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을 가져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서로에게 화해하게 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연합은 더욱 굳건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의 주제인 “모든 이에게 복음을, 2033을 향하여(The Gospel for Everyone by 2033)”은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경계를 넘어 다양성을 품고, 담대함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소망을 선포하라는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 총회가 여러분의 힘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연합을 더욱 깊게 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는 용기와 신실함, 사랑으로 모두를 새롭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Dear friends,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t is with deep honor and joy that I welcome you to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General Assembly here in Seoul. This sacred gathering unites our global family in one purpose—to live out and proclaim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among all nations. Together, we seek holiness, justice, and transformation in every sphere of life so that God is glorified, Christ’s Kingdom is extended, and the Holy Spirit moves freely among us.

The journey to Seoul has been a journey of faith. In a divided and uncertain world, we have depended fully on the Lord. With faith as small as a mustard seed, we have witnessed His miracles again and again. We are deeply grateful for the faith, perseverance, and generosity of the Seoul Organizing Committee, whose tireless work has made this gathering possible.

We also give thanks for the WEA Women’s Commission, whose dedication ensured the presence of many women

leaders from around the world. Their faith reminds us that only by faith can we truly please God.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is a growing global family—united in faith and mission. Today, we rejoice that it now embraces members in more than 165 countries across 9 continents, including new alliances in the Pacific, each a testimony of God’s continuing work among His people. Growth brings new ideas and challenges, yet our unity stands firm in Christ, who reconciles us to God and to one another.

Our theme, “The Gospel for Everyone by 2033,” reminds us that the Good News is for every person, in every nation. It calls us to move beyond boundaries, to embrace diversity, and to proclaim Christ’s hope boldly and lovingly.

May this Assembly renew your strength, deepen our unity, and inspire us all to carry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with courage, faithfulness, and love.

With the heart of the servants who filled the jars with water

A Volunteer



물 떠온 하인의 심정으로

자원봉사자



자발적으로 헌신한 3천여명의 봉사자들은
각각의 섬김의 자리에서 목자의 심정으로 섬기며
헌신하였습니다.

More than 3,000 volunteers committed
themselves voluntarily, serving in their respective
positions with a shepherd's heart.



‘10.27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 & 세계/한국교회 섬김의 날’ 봉사자 헌신 다짐문

‘10.27 WEA Seoul General Assembly & Global/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Volunteer Commitment Declaration

(다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부름받아, ‘2025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와 세계/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섬기는 봉사자로 헌신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섬김의 길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All Together)

“We have been called as Teleios Disciples of Jesus Christ, and we now dedicate ourselves as volunteers for the 2025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Seoul General Assembly and the Global/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We choose to walk in humility like Jesus, to love like Jesus, and to follow the path of service that Jesus Himself walked until the very end.”

하나, 우리는 성경의 절대 권위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정통 신앙 위에 서서, 2025 WEA 서울총회와 세계/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섬기는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여기고, 사명사(使命死), 사명생(使命生)의 고백으로 섬김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아멘)

First, Standing firmly upon the absolute authority of Scripture and the orthodox Gospel faith in the Triune God, we receive every moment of serving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and the Global/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as a holy calling entrusted to us by the Lord. With the confession of “Mission-Death, Mission-Life”, we offer our hands and feet to reveal the glory of our Lord. (Amen)

하나, 우리는 ‘살아있는 정통’, ‘개혁적인 보수’, ‘순전한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봉사의 사명을 순명하기로 결단하며, 특히 안내·주차·의전·공항영접·숙소·통역·식사 등 모든 봉사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Second, Holding fast to the values of Living Orthodoxy, Reformed Conservatism, and the Pure Gospel, we obey the sacred mission of serving God’s Kingdom. Especially in every area of service—guidance, parking, protocol, airport welcome, lodging, interpretation, meals—we commit ourselves to serve with the heart of Christ: “Sincere Heart to People, Whole Heart to God.” (Amen)

하나, 우리는 All Hands on Deck! 갑판 위의 연합을 통해 은혜의 총력전을 감당하며, 물 떠온 하인의 심정으로 모든 곳에서 섬기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기쁨과 감사, 더불어 한결같은 목자의 심정으로 섬기며, 사랑의교회가 세계와 열방을 넘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아멘)

Third, With the cry of All Hands on Deck! we step onto the deck of unity to wage the full battle of grace. With the heart of the servants who filled the jars with water, we will serve joyfully, gratefully, and consistently—even in unseen places—with the steadfast heart of a shepherd. We will support this Assembly in prayer so that SaRang Church may become a frontline base of the Gospel to the world and the nations. (Amen)

(다같이)

하나, 우리는 WEA 서울총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하나 되어 K-복음의 부흥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만민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집’이 세워지고, 복음의 새 길과 부흥의 새 역사가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All Together)

Fourth, We believe that through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God’s Kingdom will advance, and that the Korean Church and the global Church will unite to experience the revival of the K-Gospel. Lord, use us! Through our service, establish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and open a new pathway for the Gospel and a new era of revival! (Amen)

주후 2025년 10월 18일

2025 WEA 서울총회 & 세계/한국교회 섬김의 날 봉사자 ○○○○

October 18, A.D. 2025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 Global/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Volunteer: ○○○○



사람의교회의 3천여명의 성도들은 안내, 식사, 교통섬김, 통역, 등록 등의 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섬겼다. 제자훈련 세미나, 한국교회 섬김의 날 등을 통해 섬김의 사역을 축적해 왔었는데 이번 WEA서울총회는 전력을 다해 섬긴 사역으로 기억될 것이다.

More than 3,000 members of SaRang Church served faithfully in areas such as hospitality, meals, transportation, interpretation, and registration. Having cultivated a culture of service through discipleship training seminars and the 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will be remembered as a ministry carried out with wholehearted dedication.



섬김이 필요한 자리에 어김없이 노란조끼의 그들이 있었다.
Wherever help was needed, those in yellow vests were faithfully present.



자원봉사자들은 저마다의 봉사 영역이 다르기는 했지만 노란조끼는 공통의 식별기호와도 같았다.
어디서든 언제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노란조끼가 등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의 진전을 위한 총회에 집중하도록 도왔다.
Although volunteers served in a wide range of roles, the yellow vest became their common symbol
of service. Wherever a need arose, whenever a challenge emerged, those wearing yellow vests
were there—resolving problems, supporting participants, and enabling the Assembly to remain
focused on its central mission: advancing the Gospel.



사랑의교회 글로벌 광장은 광장 바닥에 새겨진 세계지도와 어울리는 세계인이 어울려지는 장이 되었다. 특히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참석한 4천여명의 목회자들은 세계 각곳으로부터 참석한 WEA 대표단과 조우하며 교제했고 복음의 전사로 쓰임받기를 함께 꿈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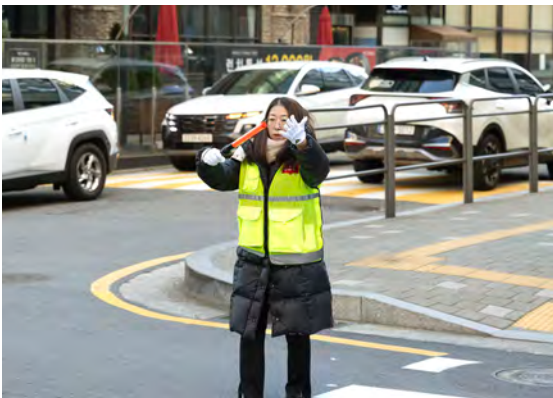
The Global Plaza at SaRang Church, with its world map etched into the plaza floor, provided a fitting setting for global fellowship. During the 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more than 4,000 pastors gathered with WEA delegates from around the world, sharing fellowship in Christ and renewing their common vision of serving as faithful ambassadors of the Gospel to the nations.



WEA 서울총회 기간 동안 에이앤드의원은 협력병원으로 함께하며, 국내외 참석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총회 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을 담당하였다. 특히 긴급 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의료 협력과 세심한 돌봄을 통해, 섬김과 환대의 정신으로 서울총회를 든든히 뒷받침하였다. During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A&Clinic faithfully served as an official partner medical clinic, providing medical support to help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rticipants safely and fully engage in the Assembly. Through prompt medical cooperation in emergency situations and attentive care for delegates, A&Clinic became a meaningful expression of Christian service and hospitality that strengthened the Assembly throughout its course.



사랑의교회 남·녀·직장인여순장반 등 3개 순장반과 6개 권사회, 그리고 제자반, 사역반 등에서 자원하여 지원한 봉사자들은 자발적 순종과 창의적인 헌신으로 한국교회의 섬김의 날과 WEA서울총회를 뒷받침 했다. Volunteers from SaRang Church's Men's, Women's, and Working Women's Group Leader Classes, six Deaconess Fellowships, as well as discipleship training and ministry training classes, generously offered their time and talents to support both the 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and the WEA Seoul GA. Through their willing obedience and creative dedication, they provided indispensable support for these historic gatherings.



사랑의교회 교통섬김부와 안내팀은 주변 교통상황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교회와 지하철 역 등 출입에 관한 안내 지원으로 섬겼다.
SaRang Church's Transportation Ministry and Hospitality Team provided guidance on local traffic conditions and transportation routes, while assisting participants at key access points between the church campus and nearby subway stations. Their dedicated service helped ensure the smooth and orderly flow of the event.



교통섬김부를 비롯한 수 많은 봉사의 현장에서 이름 한 줄 남기지 않고 헌신한 성도들은 한국교회의 영적 자산이자 열매였다.
Believers who served faithfully behind the scenes—including those in the Transportation Ministry—without seeking recognition were among the Korean Church's greatest spiritual assets and living testimonies to the fruit of the Gospel.

노란조끼의 천사들...노란조끼를 착용한 남/여 봉사자들은 안내와 같은 소소한 영역부터 식사봉사, 차 및 음료수 봉사, 통역 등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많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 참여자들은 "언제나 노란조끼의 봉사자들이 보였다. 무슨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언제나 그들이 보였다"고 회고 했다. Angels in Yellow Vests... The male and female volunteers wearing yellow vests faithfully served in every area entrusted to them, from simple guidance and hospitality to meal service, beverages, and interpretation. Participants later recalled, "The volunteers in yellow vests were always there. Whenever questions or difficulties arose, they were always present to help."



일자별로, 터미널 별로(1,2터미널), 그리고 항공편에 따라 시간대 별로 입국하는 대표단을 환영하고 숙소까지 안내 하기 위해 사랑의교회 사파이어즈 안내팀 및 자원봉사단은 대표단의 입국 정보에 따라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서 숙소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했다. To welcome delegates arriving by date, terminal (Terminals 1 and 2), and flight schedule, the Sapphires Hospitality Team and volunteers of SaRang Church carefully coordinated airport reception and transportation, ensuring that each delegate arrived safely at their accommodations according to their arrival information.





고궁과 박물관, 양화진 선교사 묘원 및 문화 탐방의 현장에도 노란 조끼의 자원봉사단이 함께 했다. 사랑의교회는 특별히 문화 탐방을 위한 특별 지원팀을 꾸려 현장 답사를 여러 번 하고 버스 승하차 지원 및 식사 등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적의 현장서비스를 준비했다.

The volunteers in yellow vests also accompanied delegates during visits to royal palaces, museums, the Yanghwajin Foreign Missionary Cemetery, and cultural tour sites. SaRang Church organized a special support team for these cultural programs, conducting multiple site visits in advance and preparing optimal on-site services, including transportation assistance and meal coordination.







사랑의교회 당회는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여러 해 섬김 경험을 살려 WEA서울총회를 위해 교회를 찾은 각국 대표단을 목자의 심정으로 섬기며 물 떠온 하인의 자세로 섬겼다.
Drawing upon years of experience serving the 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the Session of SaRang Church served the international delegates attending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with the heart of shepherds and the humility of servants who draw water.





감사만찬에서 WEA회장 김상복 목사에게 샤냐 현 의장이 감사패를 전달했고 만수루 사무총장과 총회 진행 책임을 맡았던 사무엘 치앙 부사무총장이 서울총회조직위에 감사를 표시하고 있다.
At the thanksgiving banquet, Goodwill Shana presented a plaque of appreciation to Kim Sang-bok, former Chairman of WEA, while Secretary General Bottius Mansur and Deputy Secretary General Samuel Chiang expressed gratitude to the Seoul General Assembly Organizing Committee for their service in leading the Assembly.

WEA의장 샤냐 목사의 주관으로 열린 감사만찬은 서울총회를 하루 앞둔 10월 26일 저녁에 있었다. 이 자리에는 WEA 샤냐 의장, WEA 전 회장 김상복 목사, 부트루스 만수르 사무총장, 부사무총장인 사무엘 치앙 및 페이롱, 서울총회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오정현 목사, WEA서울총회조직위원회 주요인사 및 신학위원 등이 참석하여 서울총회의 성공적인 진행과 복음의 진전을 위하여 서울총회가 든든하 교두보가 될 것을 소망했다. Hosted by Chairman Shana, the thanksgiving banquet was held on the evening of October 26, one day before the opening of the Seoul General Assembly. 참석자 included former WEA Chairman Kim Sang-bok, Secretary General Bottius Mansur, Deputy Secretaries General Samuel Chiang and Fei Rong, co-chair of the Organizing Committee Oh Jung-hyun, along with key leaders of the Organizing Committee and members of the theological commission. Together, they expressed their hope that the Seoul General Assembly would become a strong bridgehead for the advancement of the gospel and the successful progress of the Assembly.



서울총회 개막 전야에 열린 감사 만찬에서는 총회 준비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었다.
At the Thanksgiving Banquet held on the eve of the WEA Seoul GA, participants expressed their gratitude and encouragement while honoring those whose dedicated service and tireless efforts had made the Assembly possible.



Volunteer Testimonies

봉사자 소감문

박현경A 집사 안내봉사

Deaconess
Hyun-Kyung Park A -
Welcoming & Hospitality
Team

이번 WEA-한국교성 봉사 간증자로 연락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잘할 걸…”이었습니다.

저희 안내 봉사팀에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팀장님과 지역장님, 그리고 오랫동안 충성되어 섬겨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며 늘 존경스런 마음이었고, 자격 없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사실 저는 사랑의교회 대학부와 청년부를 거치면서도 제자훈련을 끝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봉사라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강남 성전 별관 유아동반 예배실에서 헌금 봉사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잘 살아내는 게 중요하지, 훈련과 봉사까지는 무리야.’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사춘기 아들의 어려움을 겪으며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고, 공간지각력이 부족하고, 수줍음 많고, 겁도 많던 제가 안내를 받는 사람이 아닌 안내를 하는 자리로까지 부르심을 받게 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부르심이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집이 교회 근처라 매일 반대 시위를 보며 기도로 준비했고, 총회를 열흘 앞두고는 대상 포진까지 재발했지만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약을 먹으며 회복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길 준비를 했습니다.

봉사하면서 담임목사님 말씀처럼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관료적인 태도가 아니라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이 내게 맡기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식당 안내부터 통역, 사진, 환전, 택시 호출까지 목회자 한 분, 한 분의 필요를 채우려 애썼습니다. 특히, 첫날 남측 로비에서 장로님들이 도열해 환영할 때, 쑥스러워 그 사이를 지나지 못하던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위해 입장 동반 서비스를 해드렸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 얼굴을 부싯돌처럼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WEA 서울총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연대하여 사명을 재확인하고,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세계교회에 선포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닌, 저 같은 사람을 세워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When I received the request to share a testimony as a volunteer for the WEA-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the very first thought that came to my mind was, “If I had known this would happen, I would have done even better…”

In our welcoming team, there are many team leaders, regional leaders, and long-time servants who are far more faithful and excellent than I am. Watching them has always filled me with deep respect, and the fact that someone as unworthy as I am is standing here today is nothing but God’s grace.

To be honest, even after going through the college and young adults ministries at SaRang Church, I never completed discipleship training. The only church service I had ever done was helping offering in the family-friendly worship room at the Gangnam chapel when my children were young. My thought had always been: “It’s enough to live faithfully at home and at work. Training and volunteering are too much for me.”

But when my son entered a difficult season during his teenage years, I ended up joining discipleship training. And for someone like me—poor in spatial awareness, shy, easily frightened—to be called not as someone receiving help but as someone giving guidance… that itself was a miracle. That calling led me all the way to this place.

Because my home is near the church, I watched the daily protests and prayed for this Assembly. Ten days before the event, my shingles even came back, but thinking, “I need to get my body ready,” I took medicine, recovered, and prepared myself to serve with all my strength in the place God assigned to me. Through this volunteer experience, I came to understand more deeply what our senior pastor always says: “The church is not an organization but a living organism.” So instead of a bureaucratic attitude, I sought to serve each person entrusted to me with the heart of a shepherd.

From guiding people in the dining hall to interpreting, taking photos, helping with currency exchange, and calling taxis—I tried to meet the needs of each pastor, one by one. One moment especially remains vivid in my memory: On the first day, when the elders were lined up in the South Lobby to welcome attendees, there were some pastors and their wives who felt too shy to walk through the center. I had the privilege of walking them in personally. In that moment I felt, “The Lord has made my face like flint.”

This WEA Seoul General Assembly was a precious time when Christians stood together, reaffirmed our calling, and proclaimed to the world the importance of discipleship. God did not use me because He lacked people, nor because I had any exceptional ability. He used someone like me and allowed me to take part in this precious work—only because of His grace. To God be all the glory.

최영호A 집사 -
연합찬양대 총무장

Deacon
Young-Ho Choi A -
General Executive Director,
United Choir

지난 10월 27일, WEA 서울총회와 한국교회 섬김의 날 행사에서 우리 사랑의교회 연합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영광, 호산나, 할렐루야, 시온, 포에버 찬양대가 하나 되어 올려드린 그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모여 하늘로 올려드린 고백이었습니다. 리허설로 지친 몸, 바쁜 일정 속에서도 250명으로 시작된 찬양대가 300명, 360명, 420명으로 늘어날 때 우리 안에는 단 한 가지 마음만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수많은 음표가 모여 하늘로 향할 때, 저는 그 안에서 성령님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각자의 목소리가 하나의 하모니로 어우러지는 그 순간,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한 찬송이었습니다.

특별히 찬양대석에서 바라본 그 광경은 잊을 수 없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인도하시며 세계 각국에서 모인 지도자들과 전국에서 온 각 교단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모습 - 그곳은 마치 천국 잔치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찬양은 곧 섬김이고, 섬김은 곧 예배라는 것을. 우리의 작은 목소리와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지나며 제 마음에 남은 것은 오직 감사와 감격 뿐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사용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랑의교회 찬양대가 이 땅의 예배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복된 도구로, 주님의 마음을 노래하는 살아있는 제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On October 27, at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and the Korean National Pastors’ Conference, it was purely by the great grace of God that our SaRang Church United Choir was able to offer a sacrifice of praise to Him.

The praise lifted up by the Glory, Hosanna, Hallelujah, Zion, and Forever Choirs—united as one—was not merely a musical performance.It was the confession of our hearts and our faith, gathered together and rising toward heaven.

Though our bodies were tired from rehearsals and our schedules were demanding, the choir that began with 250 members grew to 300, 360, and eventually over 420.Yet within all of us there was only one heart and one desire:

“To God alone be the glory!”

As countless musical notes ascended toward heaven, I sensed the breath of the Holy Spirit among us.At the moment when each individual voice blended into one harmonious sound, it became clear that this was not the work of human

어미경 권사 -
사파이어즈

Senior Deaconess
Mi-Kyung Eo -
SAPAiers

strength, but a hymn completed by the grace of God.

The sight I witnessed from the choir loft is something I will never forget.Under the leadership of our Senior Pastor, leaders from nations around the world, pastors from various denominations across Korea, and believers speaking different languages all joined together in worship—united under the name of Jesus Christ.It felt like a glimpse of the heavenly banquet.

That day, I came to understand something profound: Praise is service, and service is worship.I now believe more deeply that even our small voices and humble dedication can become precious instruments through which God builds His Kingdom.

As I reflect on this time, my heart is filled only with gratitude and awe.To the Lord who received our praise and joyfully used our hearts, I give all glory.

I pray that the SaRang Church choir will continue to be a blessed instrument—one that restores and strengthens worship in this land, and one that becomes a living sacrifice singing the heart of our Lord. Thank you.

2022년 처음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사파이어즈팀의 따뜻한 도움과 섬김이 제 마음에 사랑의 빛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파이어즈팀은 사랑의교회 글로벌선교부 소속 커뮤니티로, 칼 세미나에 참석하는 해외 목회자님들의 공항 영접과 환송, 시티투어, 교회 안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애즈 브리스굴라 아굴라’의 앞 글자를 모아 ‘사파이어즈’로 명칭을 정하게 되었으며 브리스굴라 아굴라와 같이 섬기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WEA 서울총회를 앞두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강단금식기도회에 참석하고 담임목사님의 믿음의 그릇 시리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은 순종으로 알게 된다”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물 떠온 하인의 심정으로 나아가야겠다’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단으로 저는 사파이어즈 커뮤니티를 통해 공항 영접과 환송 봉사를 지원했습니다.

처음엔 하루만 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하나님은 그 ‘하루’를 통해 제 인생의 장면을 바꾸셨습니다.

10월 26일 주일 새벽 4시 30분 경, 공항영접을 나가서 텐데로 목사님을 뵈었을 때, 사모님께서 기내에서부터 구토와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때는 공항 119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사모님을 직접 서울성모병원 응급실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파이어즈 단톡방에는 “주여, 살려주옵소서!” 중보기도가 올려 퍼졌고, 저는 병원에서 통역과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후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심혈관 시술을 받으시고 회복되었으며, 밝은 얼굴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없이 인사하시며 출국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하신 뒤, 목사님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제 아내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저는 WEA 전 사무총장, 에프라임 텐테로입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를 부르셨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찾으신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현장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비록 저는 작은 자였지만, 주님은 그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한 생명을 살리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 라.”(이사야 60:1)

주일 담임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남은 생애가 은혜의 보고에서 은혜를 파고 또 파며, 은혜의 평생 지평이 열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When I was first called to serve in 2022, the warm care and loving service of the SAPAiers Team remained in my heart as a “debt of love.”

The SAPAiers Team is a community under SaRang Church’s Global Missions Ministry, responsible for welcoming and sending off overseas pastors attending the CAL Seminar, guiding them at the airport, offering city tours, and assisting them at church. The name SAPAiers comes from the initials of “Service As Priscilla & Aquila,” expressing our desire to serve like Priscilla and Aquila in Scripture.

As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approached, I prayed, “Lord, is there anything I can do within the calling You have given me?” While attending the Pulpit Fasting Prayer Meeting and listening to our Senior Pastor’s “Vessels of Faith” series, I engraved this message in my heart: “We recognize God’s calling through obedience.” With that conviction, I resolved to step forward with the heart of the servant who filled the jars with water, and I offered myself to serve in airport welcoming and send-off through the SAPAiers community.

At first, I thought I would volunteer for just one day. But through that one day, God changed the course of my life. On Sunday, October 26, at around 4:30

a.m., I went to the airport to welcome Rev. Tendero. As soon as I met them, his wife was experiencing vomiting and chest pain, symptoms that had begun during the flight. It was a situation where even airport emergency services were not available. As I prayed for wisdom, I personally drove her to Seoul St. Mary’s Hospital emergency room.

In our SAPAiers group chat, the cry of intercession filled the room: “Lord, please save her!” At the hospital, I served as interpreter and guardian, praying earnestly, “God, please help her.”

Then I began witnessing God’s hand at work. She received cardiovascular treatment, recovered well, and repeatedly said with a bright face, “Thank you, thank you so much,” as she departed to return home.

That evening, after arriving in Manila, Rev. Tendero sent a letter: “God saved my wife’s life through you. I am Efraim Tendero, former Secretary General of the WEA.”

When I read that message, I understood why God had called me. God was not looking for someone capable. He was looking for someone who would obey.

In that moment where a life was saved, I experienced God’s love and miracle personally. Although I was small and insufficient, the Lord used that small obedience to save a life and reveal His glory.

“Arise, shine, for your light has come, and the glory of the LORD rises upon you.” (Isaiah 60:1)

As our Senior Pastor said on Sunday, I pray that the rest of my life will be spent digging and drawing from the reservoir of grace, living out a lifetime horizon of unending grace.

To God alone be all thanksgiving and glory.

WEA Seoul General Assembly impressions

해외 목회자 소감문

Richard Ryland (Fiji)
리처드 라일랜드 (피지)

This email is in response to the request that was sent concerning our personal feedback about the WEA GA that we recently attended. Please find my answers below.

It was my second time to Korea and my experience just got better. From the volunteers to the beautiful venue and to the adventure of navigating the subway - It all contributed to the great experience I had. But two things especially stood out to me. The Mountain Top prayer time

and the gracious service of all the volunteers and members of the host church.

I have already spoken to the leader of the prayer ministry in my church, and the plan is to slowly implement the method of prayer I witnessed while in Korea. There are plans to host a few regional meetings as part of WEA so the example we saw in Korea gives us something to plan around. As an aside, I was inspired by the beautiful venue in SaRang Church. There are plans in place to build a new church back in my country, so I took the opportunity to grab the books that talk about the church, that was available to us. It puts into perspective a sort of goal of what to look forward to in terms of facilities, space and aesthetic.

Discipleship, prayer and mission work seem to be the strengths that I noticed in the Korean Church body. If possible, it would be great if resources and training can be shared so we can learn more and grow more as a global body.

I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you all so much for hosting us all. It can't have been easy but to see the way you all served was an inspiration.

I pray you all will be blessed abundantly for the blessing you all were to us as representatives from around the world.Kind Regards

1. 한국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였는데, 이번 경험은 더 훌륭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아름다운 행사 장소,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즐거운 모험까지 모든 것이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두 가지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 **산상기도회(Mountain Top Prayer)**와 모든 자원봉사자 및 주최 교회 성도들의 은혜로운 섬김이었습니다.

2. 저는 이미 우리 교회의 기도 사역 담당 리더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국에서 본 기도 방식을 천천히 도입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WEA의 일환으로 지역별 모임을 개최할 계획이 있어서, 한국에서 본 예시가 우리의 계획에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덧붙이자면, 사랑의교회의 아름다운 예배당이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새 교회를 건축할 계획이 있어서, 현장에서 제공된 사랑의교회 관련 서적들을 챙겼습니다. 그것이 시설, 공간, 미학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3. 한국 교회의 강점으로는 제자훈련, 기도, 선교 사역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의 자원과 훈련이 세계 교회들과 공유되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이렇게 훌륭하게 맞이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여러분의 섬김은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대표자들에게 큰 축복이 되어 주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도 풍성히 축복하시길 기도드립니다.

Andrzej Nędzusiak
President of Polish Evangelical Alliance
앤드제이 넬주샤크
폴란드 복음주의연맹 회장

1. What grace or inspiration did you receive through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It might be surprise, but visiting missionaries cementary has been of great inspiration for me. Few people with hearts filled with love for Korea have been able to leave legacy which after years turned to be of great blessing for whole country!

2. How do you plan to apply that blessing in your ministry or local church?
The stories of missionaries buried in Yangwajing plus many other stories

from all over the world are building my faith about my own country, where we experience steady, but very slow growth of the church. God is in work in my country for sure!

3. In what ways can the Korean Church better serve the WEA and the global Church in the future?
Difficult to say, since You have set the bar high... I believe, that mutual sharing of the experiences can always be of encouragement. Cultural Day was great, especially Yangwanjin, but at other places like museum and palace, I would appreciate if Your amazing guides would share for some short time about Korea and its history / presence. This would add a lot to the visiting these to beautiful places.

Great thanks again!
with blessings

이번 2025 WEA 서울총회 기간 동안 보여주신 놀라운 환대와 세심한 배려, 그리고 이렇게 큰 규모의 복잡한 행사를 매끄럽게 진행하신 탁월한 조직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방문한 경험이 저에게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몇몇 선교사들

의 삶과 유산이 시간이 지나 온 나라에 큰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2.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들의 이야기뿐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의 선교 이야기들이 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 주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교회가 비록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3. 한국교회가 WEA 및 세계 교회를 더 잘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준을 매우 높게 세우셨기 때문에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일은 언제나 큰 격려가 된다고 믿습니다. 문화탐방의 하루는 훌륭했습니다. 특히 양화진 방문이 인상 깊었고, 혹시 가능하다면 다른 장소(박물관, 궁궐 등)에서도 가이드분들이 짧게라도 한국의 역사와 현재에 대한 설명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Charis Dhliwayo
차리스 들리웨이오

1. I received inspiration for integrity and accountabillty in leadership and to revive family devotions, 7 minutes of prayer, 7 days and for 7 weeks.

2. I will teach the children in my school to start practising 7minutes of prayer at home and ask their parents to join and share bible study times with them. I will also teach the women to revive these activities in their homes and talk about it in their churches.

3. The Korean church did a stellar job in hosting the WEA. I cant think of what could be done better.

1. 이번 총회를 통해 리더십의 청렴성과 책임성, 그리고 가정 예배의 회복에 대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7분 기도, 7일, 7주간의 기도운동”이라는 개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2. 제가 섬기는 학교의 아이들에게 집에

서 7분간 기도하는 습관을 시작하도록 가르칠 예정입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성경공부와 기도시간을 나누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여성 모임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가정 안에서 다시 살리고, 교회에서도 나누며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3. 한국교회는 WEA 총회를 탁월하게 주최했습니다. 솔직히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Suzete Dias Maria
President of the Women’s
Commission of the
Evangelical Association of
Mozambique
수제테 디아스 마리아 목사
모잠비크 복음주의연맹
여성위원회 회장

Dear Brothers and Sisters,

First of all, I wish to warmly greet you and sincerely thank you for

the incredibly warm reception we received in Seoul. We felt truly welcomed and cared for in every detail. We were deeply touched by your hospitality and your dedication to serving all of us with love.

Through this experience, we have learned the example of Jesus’ servant

leadership, and we have no words sufficient to express our gratitude for everything you have done for us.

1. What grace or inspiration did you receive through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was a profound outpouring of grace for my life. I experienced a deep spiritual awakening, a renewed sense of purpose, and a fresh awareness of the beauty of belonging to the global Body of Christ. The worship, fellowship, and teachings touched me deeply, reminding me that we are called to walk in unity, humility, and total dependence on GOD. I left Seoul strengthened, inspired, and filled with holy reverence for the extraordinary things GOD is doing among the nations.

2. How do you plan to apply that blessing in your ministry or local church?

I will apply this blessing by reinforcing discipleship, intercession, and service within my local church, encouraging believers to embrace a global Kingdom mindset. As the President of the Women’s Commission of the Evangelical

Association of Mozambique, I feel an even greater responsibility to empower women spiritually, to cultivate leadership with integrity, and to help raise a generation of women who serve with excellence, humility, and boldness.

I will foster unity among ministries, strengthen biblical foundations, and encourage a culture of prayer, mutual support, and intentional growth. Above all, I will hold closely the teaching we received: that we must live consciously and intentionally — knowing that we owe all glory to GOD, and we owe love to our brothers and sisters. This truth became deeply engraved in my heart during the Assembly.

3. In what ways can the Korean Church better serve the WEA and the global Church in the future?

The Korean Church has been a tremendous blessing to the global Church, and I believe it can continue to serve powerfully through its unwavering commitment to prayer, sacrificial giving, missionary passion, and organizational excellence. In the future, expanding mentorship initiatives, strengthening cross-cultural ministry training, and deepening partnerships with

churches from the Global South would further enrich global collaboration. Korean believers carry a unique anointing of diligence, devotion, and perseverance, and sharing that more intentionally with the nations will continue to bear much fruit for the glory of GOD. We also recognize and appreciate that the organizing team truly sought to offer their best. Apart from this detail regarding the food, everything else was excellent — and for that, we give sincere thanks to GOD.

It is precisely because of the extraordinary spirit of excellence shown in so many areas that I personally feel inspired to pursue even greater excellence in my own walk and ministry. I have always valued excellence and integrity, but in Seoul, my understanding of both was profoundly deepened. What I saw, heard, and lived during the Assembly was a tremendous blessing — one that words cannot fully describe. Once again, we thank you from the depths of our hearts, and may GOD richly bless you one hundred times more for all that you have done for u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께,

먼저, 서울에서 저희를 맞이해 주신 따뜻한 환대와 세심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환영받고 사랑받았으며, 모든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성껏 준비해 주신 섬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의 본을 배웠고, 여러분이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1. 2025년 WEA 서울총회는 제 삶에 깊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강한 감동을 받았고, 새로운 사명의식을 회복했으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계 교회에 속해 있다는 아름다움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예배, 교제, 말씀의 시간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고,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겸손과 연합 안에 걸어가야 함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떠날 때 저는 영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새롭게 영감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경외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2. 저는 이번 총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제자훈련, 중보기도, 그리고 섬김의 강화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성도들에게 세계적 하나님 나라의 관점(Global Kingdom Mindset)을 심어주며, 모잠비크 복음주의연맹 여성위원회 회장으로서 여성들을 영적으로 세우고, 정직과 겸손, 담대

함으로 섬기는 리더십을 양성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또한 각 사역 간의 연합을 도모하고, 성경적 기초를 강화하며, 기도과 상호 돌봄, 의도적인 성장의 문화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총회에서 들은 가르침 중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모든 영광을, 형제자매에게는 사랑을 빚지고 있다.”

이 진리가 제 심령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3. 한국교회는 이미 세계교회에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도, 희생적 나눔, 선교 열정, 탁월한 조직력으로 계속 섬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멘토십 프로그램의 확장, 문화 간 사역 훈련 강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지역 교회들과의 파트너십 심화는 향후 세계 교회의 협력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부지런함, 헌신, 인내라는 독특한 은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의도적으로 세계와 나눌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저는 제 자신과 사역에서도 더 큰 탁월함과 정직함을 추구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보았고, 들었고, 경험한 모든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에 백 배의 은혜와 축복으로 보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Professor Rosemary Mbogo
Africa International University,Nairobi, KenyaMozambique
로즈메리 음보고 교수
아프리카 국제대학교
케냐 나이로비

We really appreciate the great service you and your team provided during the WEA gathering. You did a great job and everything was very successful. May the Lord continue to bless the work of your hands.

WEA 총회 기간 동안 목사님과 팀이 보여주신 훌륭한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정말 잘 준비되었고, 큰 성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 위에 계속해서 풍성한 축복을 더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Katherine Cash
Senior Advisor
SMC Faith in Development Learning Resource Developer
캐서린 캐시
SMC 신앙개발센터
선임 자문위원

Dear WEA Seoul General Assembly organizing committee,

Firstly, WELL DONE! I hope you can all take a well-deserved rest this week! And secondly THANK YOU for the great generosity shown throughout the week. I was blown away by the number of volunteers that helped us with all manner of things to the absolute best of their ability, even when communication across languages was difficult. Please pass on our profound thanks to the wonderful staff and volunteers who enabled things to go so smoothly last week!

Secondly here are my thoughts on the questions posed in your letter:

What grace or inspiration did you receive through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I work with the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Learning Platform (an initiative of Churches/Christian mission organisations in the Nordic region). We provide training courses and resources for people affected by violations of the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 not least for churches facing persecution.
Gods grace and your preparations (not least with the event app)

enabled me to:
Learn about and be inspired by fruits of our ministry that we were completely unaware of (positive effects for persecuted churches);
Connect with leaders from vulnerable churches who need the kind of the training resources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that our ministry provides;
Develop relationships and potential collaborations with key international organisations like Open Doors, SIL and the Bible Society. These relationships will be key to enabling us to scale up training for churches in contexts where Christians are vulnerable to rights violations.
Find connections with people who might just be able to help us financially sustain the work we are doing for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 which is much needed. We continue to pray for this so that we can serve the church globally.

How do you plan to apply that blessing in your ministry or local church?
We will follow up with all the connections made with renewed inspiration for the task!

In what ways can the Korean Church better serve the WEA and the global

Church in the future?
The Korean Church is the largest sender of missionaries - often going to contexts where Christians (and not least converts) are vulnerable to rights violations/persecution. It would be great if the Korean Church could also strengthen its support to Christian organisations working for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Not least at this time when many Christian (and other) organisations working for this are badly affected by the major cuts at USAID and the equivalent government agencies in Europe.

With warmest wishes and thanks!
May God continue to bless you and everyone who participated.

Katherine Cash
Senior Advisor -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SMC Faith in Development Learning resource developer -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Learning Platform

사랑하는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여러분께,
먼저, 정말 훌륭하게 해내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꼭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보여주신 큰 관대함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어가 서로 달라 소통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온 힘을 다해 우리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훌륭한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우리의 깊은 감사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종교의 자유 학습 플랫폼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Learning Platform)’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북유럽 지역의 교회 및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함께하는 연합 프로젝트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교육 과정과 자료를 제공합니다. 특히 박해받는 교회를 지원하는 사역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철저한 준비 (특히 행사 앱 운영을 포함한 준비) 덕분에 저는 이번 총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 사역의 열매를 확인하며, 박해받는 교회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훈련 자료를 필요로 하는 취약한 교회 지도자들과의 연결이 이루어졌습니다.

Open Doors, SIL, 성서공회와 같은 주요 국제기구들과 관계를 맺고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들은 앞으로 종교적 박해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을 위한 훈련을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돕

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인연과 가능성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총회에서 맺은 모든 인연과 협력 관계를 소중히 이어가며, 새로운 영감과 사명감으로 사역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3.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은 종종 박해나 종교적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종교의 자유’(Freedom of Religion or Belief)를 위해 일하는 기독교 단체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세계교회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히 현재 미국의 USAID 및 유럽 각국의 정부기관 지원이 대폭 삭감되면서, 이 영역에서 사역하는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의 후원과 연대가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과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총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사역 위에 지속적으로 복을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Greetings from Manila!

First, thank you so much for unselfishly sharing God’s resources to us. Your hospitality for the Body of Christ is a great evidence of God’s redemptive work in Korea. May He bless you all back with His continued provisions, protection, and purposes!

Next, as requested, here’s my feedback:

1. What grace or inspiration did you receive through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It was my first time to be involved in a WEA assembly and so I appreciated learning more about what the organization is all about. On top of this, I would summarize all my learnings as follows:

Listen, listen, listen

Clarify my own convictions
Articulate my beliefs
Love the Body of Christ
Live a holy life for God
Always stand on the Word of God

2. How do you plan to apply that blessing in your ministry or local church?
I am particularly excited to share what I learned from Gary Hoag’s session on generosity / stewardship to my colleagues as we handle partnership development for our school / community
At the same time, I would like to get our Model United Nations (High School) club connected with WEA, so they can learn directly from WEA officials who interact with the United Nations
I am also planning to get our families who are involved in churchplanting connected with the international partnership rep of Moody Bible Institute (who is looking for local church partners around the world)

3. In what ways can the Korean Church better serve the WEA and the global Church in the future?
Despite some issues, I really think that the unity, generosity, and hospitality of the Korean church is globally unmatched

If there is one thing maybe that the Korean Church can emphasize, I think that would be leading us in prayer
And maybe one more thing is for the Korean Church to have us hear more preachings from (conservative) Korean pastors and studies from Korean missiologists. I think participants from all over the world can learn a lot from the Korean church!

God bless you all!

마닐라에서 드립니다.
샬롬!

먼저, 하나님의 자원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교회의 환대는 그리스도의 몸을 향한 섬김의 아름다운 증거이며,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귀한 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풍성한 공급과 보호,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1. 이번이 제가 처음으로 WEA 총회에 참여한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WEA가 어떤 사역을 하는 단체인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배운 모든 것을 다 음과 같이 요약하고 싶습니다. 듣고, 또 듣고, 계속 듣기. 나의 신념을 분명히 하기. 내가 믿는 바를 분명히 표현하기.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기. 하나님께 기록

한 삶을 드리기.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기.

2. Gary Hoag 박사님의 관대함 / 청지기 정신 세션에서 배운 내용을, 학교 및 공동체의 후원 개발 사역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학교의 Model United Nations(고등학생 UN 모의 활동) 동아리를 WEA와 연결하여, 실제로 UN과 소통하는 WEA 관계자들에게 직접 배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그리고 교회 개척에 참여하고 있는 가정들을 Moody Bible Institute 국제 파트너십 담당자와 연결하여, 전 세계 교회와의 협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3.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는 한국 교회의 연합, 관대함, 환대가 세계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한국 교회가 기도로 우리를 더욱 이끌어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한국 목회자들의 말씀 선포와 한국 선교학자들의 연구를 세계 참가자들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많은 나라의 참가자들이 한국 교회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Rev. Maged Boshra Fltas
Pastor, Assemblies of
God Church
Berlin, Germany
마게드 보쉬라 플타스 목사
독일 베를린
하나님의 성회 교회

Dear Organizing Committee of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Warm greetings in the precious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t is with great joy and deep
gratitude that I express my heartfelt
appreciation for this remarkable
Assembly. The conference was more
than wonderful. It was excellently
organized in every aspect, and we
truly felt the greatness and beauty
of South Korea throughout our time
there. The choice of this country
and this church as the host was truly
inspired and blessed.

Everything, from the administrative
planning to the hospitality and
spiritual environment, reflected
excellence, dedication, and a
genuine heart for serving the global
Body of Christ. This Assembly will
remain unforgettable in our hearts

and memory. It stands as a historic
milestone and a source of honor for
every servant who had the privilege
of being a part of this global event.

May the Lord continue to bless your
ministry and strengthen the unity of
the global Church, so that together
we may advance His Kingdom to
every nation and every people.
With sincere appreciation and
prayers,

2025 WEA 서울 총회 조직위원회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
로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놀라운 총회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
의 마음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회는 그야말로 홀
륭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탁월하게 준비
되었고, 총회 동안 우리는 한국의 아름다
움과 위대함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와 이 교회를 개최지로 선택한 것
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축복임이 분
명합니다.

행정적 준비에서부터 환대와 영적인 분위
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이 탁월함과
헌신, 그리고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을 섬
기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가득했습
니다. 이번 총회는 우리의 마음과 기억 속
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 세계적 행사
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이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역을 계속 축복하
시고, 세계 교회의 연합을 더욱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를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확장해 나가
기를 소망합니다.

Jesse Reuben M. Bestre
(Philippines)
제시 루벤 M. 베스트레
(필리핀)

Grace and peace to you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would like to express my heartfelt
gratitude for the opportunity to take
part in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General Assembly held in Seoul,
South Korea. It was our first time
attending such a gathering beyond
our usual Christian circle, and the
experience deeply encouraged and
inspired us.

1. Grace or inspiration received
I was moved by the unity I witnessed
among Christians from different
nations and backgrounds. Seeing so
many believers worship and serve
together reminded me that the body

of Christ is one, even in diversity. The
humility and cooperation of leaders
and organizations from around the
world strengthened my faith in what
God can accomplish through a united
Church.

2. Application in ministry or local
church
This experience has renewed
my desire to promote unity and
collaboration within our local
congregation. I plan to share what
I learned about working together
for the gospel and to encourage
our members to reach beyond our
usual circles. Together with my wife,
we are committed to using every
opportunity to share Christ's love and
message wherever the Lord leads us.

3. How the Korean Church can better
serve the WEA and the global Church
The Korean Church displayed
remarkable hospitality, organization,
and passion for missions throughout
the event. I believe it can continue to
serve the global Church by sharing
its strengths in prayer, discipleship,
and mission mobilization. Its example
of faith and generosity can further
inspire believers worldwide to engage
in global evangelism with humility
and unity.

Once again, thank you for your
faithful service and for creating
such a meaningful and Spirit-filled
gathering.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reminded us that
God's mission transcends borders,
cultures, and traditions. We return
home renewed in faith, hope, and
purpose to serve Christ together with
the global Church.

May the Lord continue to bless your
ministry and guide the WEA in its
ongoing mission to equip and unite
believers worldwid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
와 평강을 전합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세계복
음주의연맹(WEA) 총회에 참여할 수 있
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마음 깊이 감
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평소 크리스천 모
임 밖에서 이런 종류의 대회에 참석한 것
은 처음이었으며, 그 경험은 우리에게 깊
은 격려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1. 서로 다른 나라와 배경을 가진 그리스
도인들이 하나 되어 예배하고 섬기는 모
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신
자가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
며, 다양성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은 하
나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
지의 지도자들과 단체들이 보여 준 겸손
과 협력은 연합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서 이루시는 일에 대한 저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습니다.

2. 이번 경험은 우리 지역 교회 안에서 연
합과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저의 열망
을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복음을 위
해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배운 내용을
나누고, 우리 교회가 익숙한 범위를 넘
어 더 넓은 관계를 맺도록 격려할 계획입
니다.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메시지를 전
할 모든 기회를 사용하기로 헌신합니다.

3. 한국교회는 행사 전반에 걸쳐 놀라운
환대, 조직력,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열정
을 보여 주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 제
자훈련, 선교 동원 분야에서 가진 강점
을 계속 나누면서 세계교회를 섬길 수 있
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믿음과 관대
함은 겸손과 연합으로 세계 선교에 참여
하도록 전 세계 신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의미 있고 성령 충만
한 모임을 만들어 주신 여러분의 신실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2025 WEA 서울
세계총회는 하나님의 선교는 국경, 문화,
전통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
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
께 세계교회를 섬기기 위해 믿음과 소망,
목적을 새롭게 하여 돌아갑니다.
궤주님께서 여러분의 사역을 계속 축복
하시고, 전 세계 신자들을 세우고 연합하
게 하는 WEA의 사명을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Samuel L Songate
(India)
사무엘 L. 송게
(인도)

Dear Rev. Kang-il LEE and the Organizing Committee, 2025 WEA Seoul GA, I am truly blessed by the WEA GA 2025 so here's a positive feedback as requested.

1. What grace or inspiration did you receive through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Response: I am truly impressed by the dedication, patience, hard work, willingness to serve shown by the Organizing Team and the Host Church - SaRang Church from our arrival at the airport, assistance at the Hotel and Subway to the Conference venue. All volunteers were truly committed and dedicated and indeed had a lasting impression on me, the love and service which was a pure display of Christlike character.

2. How do you plan to apply that blessing in your ministry or local church?

Response: The small group discipleship system of the Host Church was one thing that I find applicable for my church as well.

3. In what ways can the Korean Church better serve the WEA and the global Church in the future?

Response: The Korean Church has the dedication, commitment, willingness to serve, manpower and financial resources to lead the global Christian community in Evangelism. They can organize more evangelical conferences, discipleship conferences, mission conferences etc to encourage and build up Christians around the world.

Once again, my heartfelt gratitude to the Organizing Committee and the Host Church and their volunteers for the wonderful and meaningful experience at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2025.

India 2025년 WEA 서울총회가 제게 큰 은혜가 되었기에 요청하신 긍정적인 피드백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1. 2025 WEA 서울총회를 통해 어떤 은혜와 영감을 받으셨습니까?

답변: 공항 도착 시부터 호텔 및 지하철 이동, 그리고 회의장 안내에 이르기까지 조직위원회와 주최교회인 사랑의교회가

보여주신 헌신, 인내, 수고, 섬김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매우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게 섬겨주었으며, 그들의 사랑과 섬김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 그 은혜를 개인 사역이나 지역교회에 어떻게 적용하실 계획인가요?

답변: 주최교회의 소그룹 제자훈련 체계가 제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3. 앞으로 한국교회가 WEA와 세계 교회를 위해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변: 한국교회는 헌신, 사명감, 섬김의 마음, 인력과 재정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 세계 기독교 공동체를 복음화 사역으로 이끌어갈 능력이 있습니다. 세계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워 갈 수 있도록 복음전도 컨퍼런스, 제자훈련 컨퍼런스, 선교 컨퍼런스 등을 더 많이 조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WEA 서울총회에서 의미 있고 은혜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조직위원회, 주최교회, 그리고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마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청사초롱은 손님맞이를 위한 한국고유의 아름다운 장식이다. 사랑의교회 글로벌광장과 교회주변에서 밤을 밝힌 청사초롱은 한국교회를 찾은 손님들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이었다. Cheongsachorong is a beautiful, unique Korean decoration used to welcome guests. The Cheongsachorong that illuminated the night at SaRang Church's Global Plaza and around the church represented the hearts of the believers toward the guests visiting the Korean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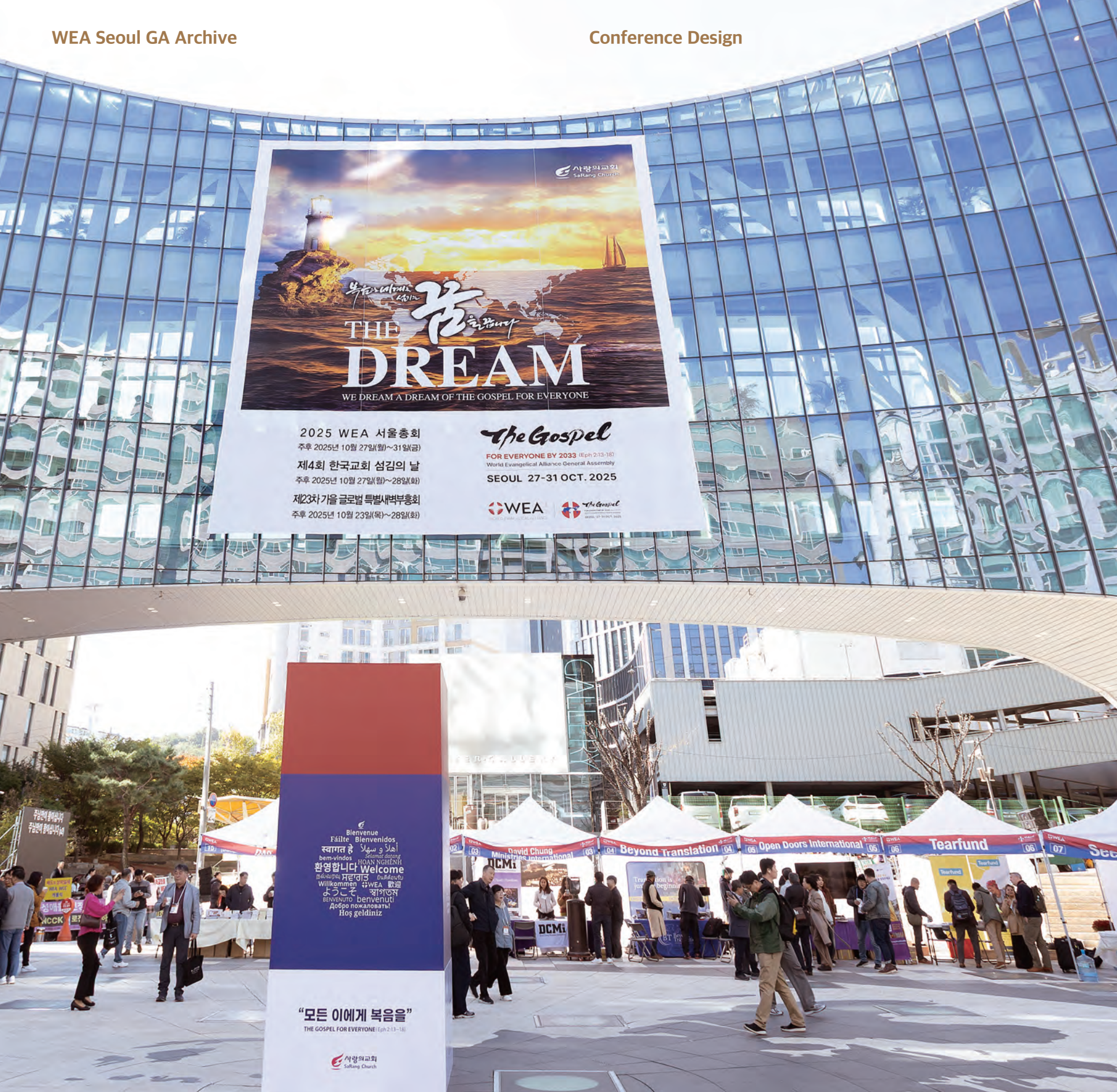
Conference Design

컨퍼런스 디자인

요셉브릿지 현수 Joseph Bridge Banner



포토월 Photo Wall



WORLD EVANGELICAL ALLIANCE SEOUL GENERAL ASSEMBLY

2025 WEA 서울총회

“모든 이에게 복음을, 2033을 향하여”
THE GOSPEL FOR EVERYONE BY 2033 (엡 2:13~18)

주후 2025년 10월 27일(월)~31일(금) / 사랑의교회



WEA 가로등 배너 WEA Streetlight Banners



국제회의실 WEA 인포
WEA Information Desk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프레스 인포 Press Information Desk



WEA 은혜채플 백월 WEA Grace Chapel Back W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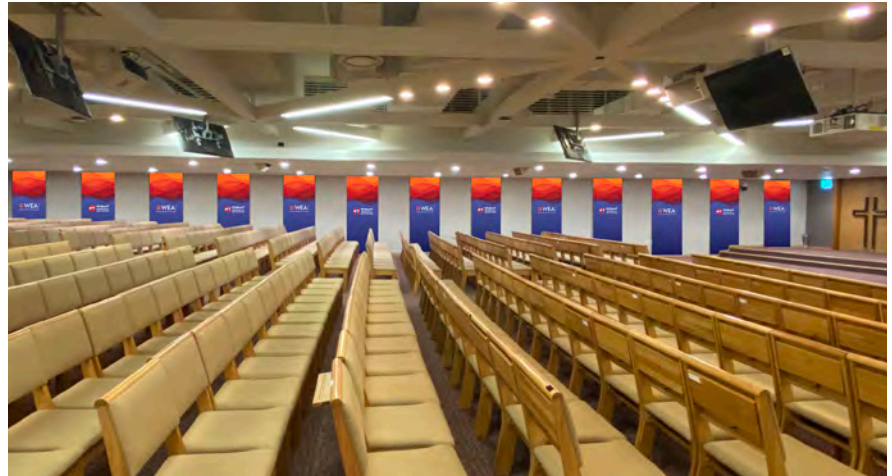
강단기도회 현수막
Pulpit Prayer
Meeting Banner



WEA 은혜채플 벽면 배너
WEA Grace Chapel Wall Banner



WEA 은혜채플 우측벽면
WEA Grace Chapel Right Wall Banner





신문광고 Newspaper Advertis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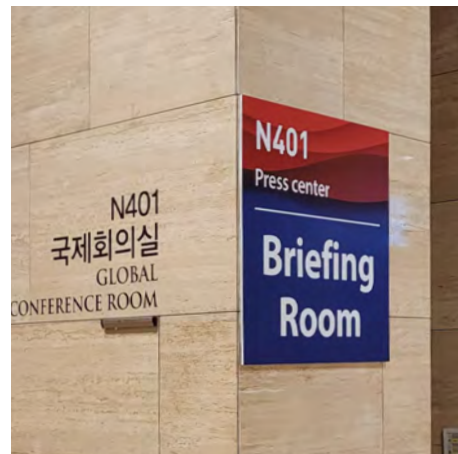
에코백
Eco Bag



티머니카드 T-money Card



내부 사인물(명패) & 명찰 Interior Signage (Nameplates) & Name Tags



IMMERSIVE
EXHIBITION

10.27 - 12.7.2025

AKIANE

A JOURNEY OF FAITH THROUGH ART

Belóved Gallery stands with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in proclaiming the Gospel for everyone through the power of art and story. Now, in Seoul, *Akiane: A Journey of Faith through Art* reveals the miraculous story of Akiane Kramarik—the former child prodigy whose portrait of Jesus at age eight touched the world and continues to draw hearts to faith today.

📍 SaRang Church
SaRang Art Gallery, Level B4



Presented by

BELÓVED
GALLERY

Hosted by

사랑의교회
SaRang Church

In Collaboration with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General Assembly

Belóved Gallery was founded to honor
God and create spaces for people of
all backgrounds to experience faith
through art.



Akiane Exhibition

아키아나 전시회



아키아나: 예술을 통한 믿음의 여정

Akiane: A Journey of Faith Through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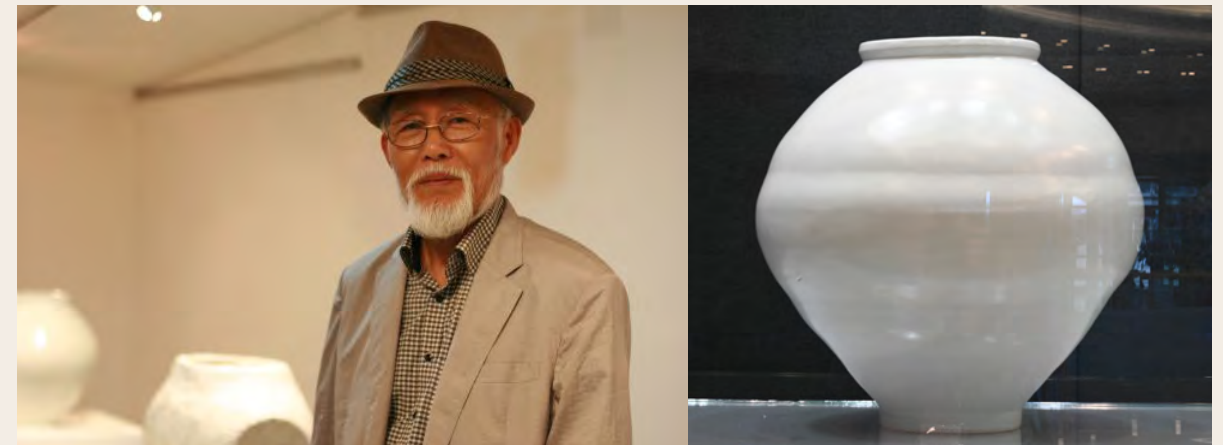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아키아나 크래매릭의 대표작들과 함께 그녀의 초기작부터 현재 작품에 이르는 신앙 여정을 엄선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아키아나의 대표작인 <평강의 왕>의 원작이 전시되었습니다. 아키아나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환상을 보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에 믿음, 소망,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아키아나는 그림과 시,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 그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누구나 그 신비로운 여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되었습니다.

This exhibition presents a carefully curated selection of Akiane Kramarik's works, tracing her journey of faith from her early creations to her most recent pieces. In particular, the original of her renowned masterpiece Prince of Peace is on display. From a young age, Akiane received the extraordinary grace of experiencing visions from God, through which she has shared messages of faith, hope, and love with the world. Even today, she continues to convey this message through her paintings, poetry, and a purpose-driven life. This exhibition is open to the public free of charge, inviting all to encounter and experience this profound spiritual journey.



WEA General Assembly Commemorative Special Ceramics Exhibition

WEA 총회 기념 특별 도예전



흙, 불, 혼의 예술 The Art of Earth, Fire, and Spirit

지당(志堂) 박부원의 도예세계 The Ceramic World of Master Park Boo-won

WEA 서울총회 기간 중 국내 최고의 도예가 중 한 사람인 지당() 박부원 명장의 달 향아리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서양의 회화와 함께 동양의 도자기가 평면과 입체, 컬러와 순백의 대조와 조화를 통해 문화적 만남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왕실도자기 명장으로도 선정된 박부원 작가는 달 향아리를 통해 성경과 구원의 서사를 표현해 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During the WEA Seoul General Assembly, works by Master Park Boo-won—one of Korea's foremost ceramic artists—were exhibited, including his signature moon jars. Alongside Western paintings, traditional Eastern ceramics created a meaningful cultural dialogue through the harmony and contrast of two-dimensional and three-dimensional forms, as well as color and pure white aesthetics. Recognized as a master of royal ceramics in Gwangju, Park Boo-won is widely known for expressing the narrative of Scripture and redemption through his iconic moon jars.



WEA Seoul General Assembly replay

WEA서울총회 다시보기



01

WEA 각국 대륙별 대표단
깃발 입장 및 등단
Entrance of the WEA Delegations by
Continents and Nations



영상 바로보기

02

축사 | 김장환 목사
(전 침례교세계연맹 회장, 극동방송 이사장)
Congratulatory Remarks - Rev. Dr. Billy Kim
(former President of the Baptist World Alliance;
Chairman of Far East Broadcasting Company)



영상 바로보기

03

환영사 | 김상복 목사
(WEA 전 의장, 할렐루야교회 원로)
Welcome Remarks - Rev. Sang-Bok David
Kim (Former Chair of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Emeritus Pastor of Hallelujah Church)



영상 바로보기

04

인사말 |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피터 릴백 총
장, WRF 국제총재 찰스 다비 고메즈
Greetings - Dr. Peter Lillback (President
of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Dr.
Charles David Gómez (President of World
Reformed Fellowship)



영상 바로보기

05

생명력 넘치는 은혜의 찬양 | 오정현 목사
(WEA 서울총회 조직위 공동위원장)
Praise Filled with Life and Grace - Rev. Dr.
Jung-Hyun Oh (Senior Pastor of SaRang
Church; Co-Chair of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영상 바로보기

06

개회예배 설교 | 굿윌 샤나 목사
(WEA 의장)
Opening Worship Sermon - Rev. Dr. Goodwill
Shana (International Council Chairman of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영상 바로보기

07

특별메시지1 | 이영훈 목사
(WEA 서울총회 조직위 공동위원장)
Special Message 1 - Rev. Dr. Young-Hoon Lee
(Senior Pastor of Yoido Full Gospel Church;
Co-Chair of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영상 바로보기

08

특별메시지2 - 오정현 목사
(WEA 서울총회 조직위 공동위원장)
Special Message 2 - Rev. Dr. Jung-Hyun Oh
(Co-Chair of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영상 바로보기

09

특별메시지3 | 스티븐 통 목사
(자카르타 개혁주의 복음교회)
Special Message 3 - Rev. Dr. Stephen Tong
(Reformed Evangelical Church Jakarta)



영상 바로보기

10

연합산상집회 설교 | 릭 워렌 목사
(새들백교회 설립자, FTT 대표)
United Mountain-top Rally Sermon - Rev.
Rick Warren (Founder of Saddleback Church;
Finishing The Task)



영상 바로보기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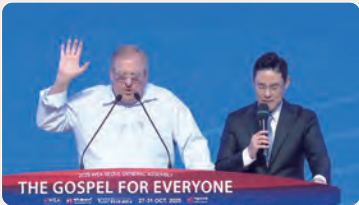
연합산상집회 기도회 | 오정현 목사
(WEA 서울총회 조직위 공동위원장)
United Mountain-top Rally Prayer - Rev.
Dr. Jung-Hyun Oh (Senior Pastor of SaRang
Church; Co-Chair of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영상 바로보기

12

성찬식 메시지 | 릭 워렌 목사
(새들백교회 설립자, FTT 대표)
Communion Message - Rev. Rick Warren
(Founder of Saddleback Church; Finishing The
Task)



영상 바로보기

13

파송예배 설교 | 오정현 목사
(WEA 서울총회 조직위 공동위원장)
Commissioning Worship Service Message - Rev.
Dr. Jung-Hyun Oh (Senior Pastor of SaRang
Church; Co-Chair of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2025 WEA Seoul General Assembly)



영상 바로보기

14

강의1 | 케빈 브라운
(애즈버리 대학교 총장)
Lecture 1 - Dr. Kevin Brown (President, Asbury
University)



영상 바로보기

15

강의2 | 박주성 목사
(국제제자훈련원 대표)
Lecture 2 - Rev. Ju-Sung Park
(President, Disciple-Making Ministries
International)



영상 바로보기

16

강의3 | 강대홍 선교사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Lecture 3 - Rev. Dr. Dae-Heung Kang
(Secretary General, Korea World Mission
Association (KWMA))



영상 바로보기

17

글로벌 러닝1 | 폴 윌리엄스
(영국 성서공회 대표)
Global Learning 1 - Paul Williams (Chief
Executive, Bible Society (UK))



영상 바로보기

18

글로벌 러닝2 | 치코니 음롬브와
(‘성장을 통한 번영’ 설립자)
Global Learning 2 - Chikondi Mlombwa
(Founder, Grow to Flourish)



영상 바로보기

19

글로벌 러닝3 | 캘럼 밀러 박사
(옥스퍼드대학교 블랙프라이어스 홀 연구원)
Global Learning 3 - Dr. Calum Miller (Medical
Doctor; Research Fellow, Blackfriars Hall,
University of Oxford)



영상 바로보기

20

글로벌 러닝4 | 마이클 오르티즈
(ICETE 국제 총재)
Global Learning 4 - Dr. Michael Ortiz
(International Director, ICETE)



영상 바로보기

21

글로벌 러닝5 | 레이 크리잘도(WEA 신학위원회 코디네이터), 프랑크 힌켈만(WEA 국제위원회 부의장)

Global Learning 5 - Rei Lemuel Crizaldo (Theological Commission Coordinator, WEA), Frank Hinkelmann (Vice-Chair, WEA International Council)



영상 바로보기

22

간증과 기도1(헌신의 시간) | 앓시리 페르난도

Testimony & Prayer 1 (A Time of Dedication) - Rev. Asiri Fernando (Senior Coordinator, Upcountry Region, Youth for Christ Sri Lanka)



영상 바로보기

23

간증과 기도2(박해 속에서 복음 선포) | 엠마 반 데르 데이얼, 마르다 다스, 아이린 키바겐디

Testimony & Prayer 2 - "Proclaiming the Gospel Amid Persecution", Emma van der Deijl · Martha Das · Irene Kibagendi



영상 바로보기

24

간증과 기도3 | 지성호 지사(함경북도)

Testimony & Prayer 3 - Mr. Seong-ho Ji (Governor of North Hamgyong Province, Committee for the Five Northern Provinces; Former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영상 바로보기

25

간증과 기도4 | 허문영 대표 (평화한국)

Testimony & Prayer 4 - Dr. Moon-Young Heo (President, PeaceCorea)



영상 바로보기

26

연합기도 | 사무엘 치앙 (WEA 부사무총장)

United Prayer - Rev. Samuel E. Chiang (Deputy Secretary General, World Evangelical Alliance)



영상 바로보기





7

Addendum

부록

파트모스 이니셔티브

The Patmos Initiative

세계복음주의 전망 연구 조사
결과 보고서

The Global Evangelical Outlook
Research Survey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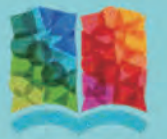
The Patmos Initiative

The Bible in seven
global contexts

제공:



협력:



United Bible
Societies



파트모스 이니셔티브

일곱 가지 세계적 환경
속에서의 성경

The Patmos Initiative

The Bible in seven global contexts



2021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in partnership with Gallup, launched the largest-ever global survey on attitudes toward the Bible.



2022 – 2024

Bible Society leaders from across the seven Patmos clusters convened in a series of strategic gatherings to reflect on early insights from the Gallup research and explore implications for Bible Engagement in their regions.



2023

Gallup conducted fieldwork, surveying over 91,000 individuals across 85 countries and territories – capturing a truly global perspective on the Bible.



2025

The Patmos World Bible Attitudes Survey report was launched, accompanied by a series of thematic reports. Christian organisations, denominations and leaders were invited to engage with the findings and consider their strategic implications.



2026

A global conversation begins bringing together voices from around the world to shape shared goals for Bible Engagement in the years ahead.

파트모스 이니셔티브

일곱 가지 세계적 환경 속에서의 성경



2021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는 갤럽(Gallup)과 협력하여 성경에 대한 태도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전 세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22 ~ 2024

7개 파트모스 클러스터의 Bible Society 지도자들은 일련의 전략적 모임을 갖고, 갤럽 설문조사에서 얻은 초기 통찰을 되돌아보며 각 지역의 성경 참여에 대한 시사점을 탐구했습니다.



2023

갤럽은 85개 국가 및 영토에서 9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현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성경에 대한 진정한 세계적 관점을 포착했습니다.



2025

파트모스 세계 성경 인식 태도 설문조사 보고서와 일련의 주제별 보고서가 함께 발행되었습니다. 기독교 단체, 교단 및 지도자들이 이 조사 결과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전략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초대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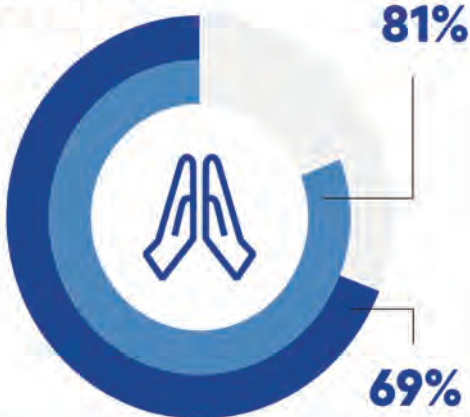
2026

향후 몇 년간 성경 접근을 위한 공동 목표를 형성하기 위해 전 세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세계적 대화가 시작됩니다.

Global headlines¹

81%
Believe in God or
a 'higher p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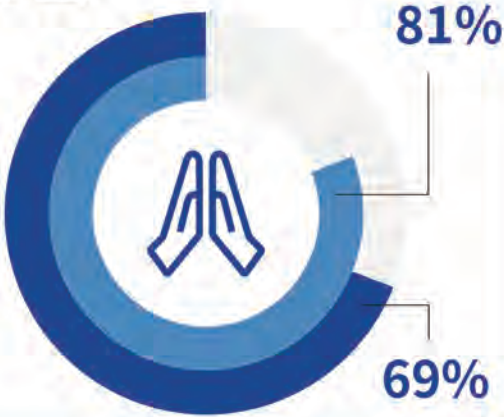
69%
Say religion is an important
part of their daily lives



전 세계 헤드라인¹

81%
는 신이나 '초월적
존재'를 믿습니다.

69%
는 종교가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응답합니다.



35% 
are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the Bible,
including over 240 million
people who are not Christians

71% 
think it is good for children
to know some stories from
the Bible

35% 
는 성경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하며, 이 중에는 2억 4천만
명 이상의 비기독교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1% 
는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37% 
own a Bible in a language they
can understand

42% 
of Christians use the Bible on
a weekly basis but one in five
say they never use the Bible

37% 
가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42% 
의 기독교인은 성경을 매주
활용하지만, 5명 중 1명은
성경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¹ Percentages are weighted to represent the populations of the fieldwork countries

¹ 백분율은 현지 조사 국가의 인구 비중을 반영하도록 가중치가 적용되었습니다.

Patmos Cluster headlines²



Patmos Cluster 1:
Christians, making up just 10% of the population, live in a context where nearly nine in ten identify as Muslim. A common thread among all respondents is the perception that Christianity is a Western religion, with little difference between Christians and Musli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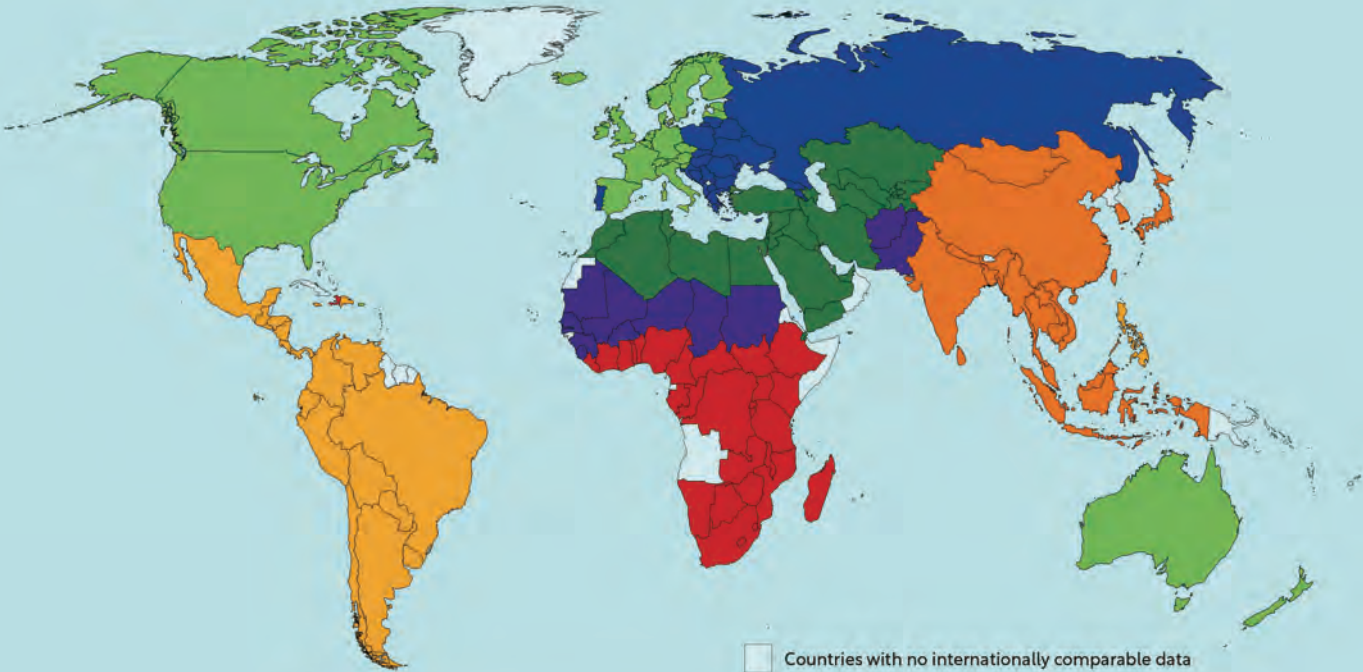
Patmos Cluster 2:
Rising secularism, particularly among young people, and low regular use and confidence in the Bible within the Christian community present significant challenges for Bible engagement in this Christian majority context. Despite this, there is a warmth and respect for the Bible and 57% are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it.



Patmos Cluster 3:
All other religions are minority groups in a context where over 90% of the population identify as Muslim. There is a spectrum of Muslim engagement with Islam, from devout to nearly secular. All self-identified Jewish people in the Patmos Cluster 3 sample live in Israel. Jewish respondents showed a range of religious beliefs and attitudes, with just over a third being particularly receptive to new ideas and searching for a sense of meaning in life. Christian respondents showed a warmth towards the Bible, with high agreement about the personal relevance of the Bible and its value to wider society.



Patmos Cluster 4:
There is high interest in the Bible, with almost three in four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it. Growing levels of secularism, particularly amongst young people, alongside high economic inequality, appear to be two of the biggest challenges for Bible engagement in this Christian majority context.



Patmos Cluster 5:
In this secular context people are indifferent towards the Bible, with 59% disagreeing the Bible is personally relevant to them. Young Christians report more regular Bible use and 33% of Christians use the Bible at least once a week. This increases to 50% of Christians aged 18–24.



Patmos Cluster 6:
Christians are a minority in this religiously diverse cluster, making up just 4% of the population. However, they regularly use the Bible and are confident in their knowledge of it. One in five Buddhists are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the Bible, but in general, interest and awareness of the Bible, outside the Christian community, is low.



Patmos Cluster 7:
There is a strong sense of positivity towards the Bible, with more than three in four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it. High levels of economic inequality and perceptions of Christianity's connection to the West present challenges for Bible engagement in this Christian majority context where over half the adult population are aged 15–34.

² Percentages are weighted to represent the populations of the fieldwork countries

파트모스 클러스터 헤드라인²

1

파트모스 클러스터 1: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0%에 불과하며, 10명 중 거의 9명이 스스로를 이슬람교도라고 생각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응답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식은 기독교는 서구 종교이며, 기독교인과 이슬람교도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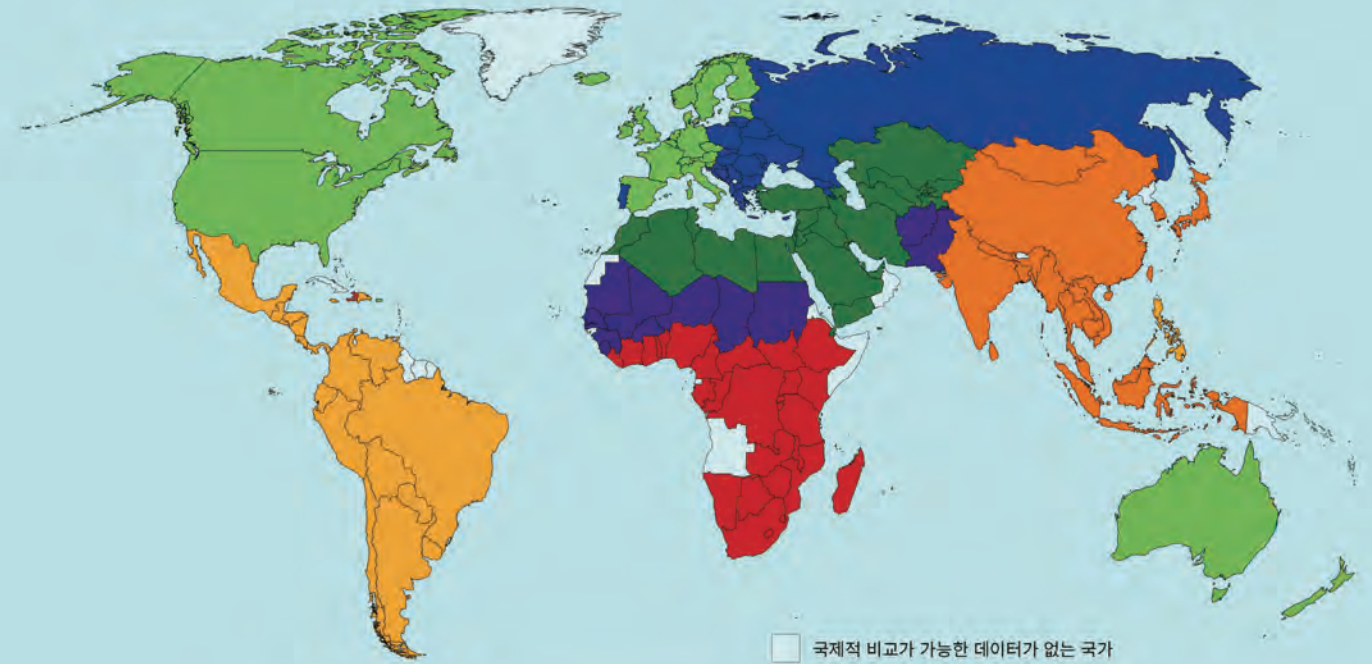
파트모스 클러스터 2: 기독교가 우세한 이 지역에서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증가하는 세속주의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성경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거나 신뢰하는 비율이 낮은 점이 성경 접근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따뜻한 인식과 존중이 존재하며, 57%가 성경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합니다.

3

파트모스 클러스터 3: 전체 인구 90% 이상이 스스로를 이슬람교도라고 생각하는 이 지역에서 다른 모든 종교는 소수 종교입니다. 이슬람교도 응답자들은 독실한 태도부터 세속적 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앙 참여도를 보였습니다.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파트모스 클러스터 3 샘플에 속한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에 거주합니다. 유대인 응답자는 다양한 종교적 신념 및 태도를 보였으며, 그중 3분의 1 이상이 새로운 사상에 특히 수용적이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기독교 응답자들은 성경에 대해 따뜻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과 성경이 사회 전반에서도 가치가 있다는 점에 크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파트모스 클러스터 4: 성경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4명 중 거의 3명 이상이 성경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기독교가 다수를 이루는 이 지역에서,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확산되는 세속주의와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은 성경 접근에 있어 가장 큰 두 가지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파트모스 클러스터 5: 이러한 세속주의적 환경에서 사람들은 성경에 무관심하며, 59%는 성경이 자신과 개인적 연관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젊은 기독교인은 성경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았고, 기독교인의 33%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경을 활용한다고 답했습니다. 18세~24세 기독교인의 경우 해당 비율이 50%까지 증가했습니다.

6

파트모스 클러스터 6: 종교적 다양성을 보이는 해당 지역에서 기독교인은 소수로, 전체 인구의 고작 4%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기적으로 성경을 활용하며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불교 신자 5명 중 1명은 성경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하지만, 기독교 공동체를 제외하면 성경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7

파트모스 클러스터 7: 성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며, 4명 중 3명 이상이 성경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15세에서 34세인 이 기독교 다수 지역에서는, 높은 경제적 불평등 및 기독교가 서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성경 접근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² 백분율은 현지 조사 국가의 인구 비중을 반영하도록 가중치가 적용되었습니다.

The Patmos World Bible Attitudes Survey



91,000 people surveyed



89 languages



150 countries analysed

The Patmos World Bible Attitudes Survey is the most ambitious and pioneering Bible Engagement research project ever conducted due to its scale, methodology and reach.

Conducted in partnership with Gallup, The Patmos Survey analyses the missiological context of 150 countries, exploring the religious attitudes and beliefs of 91,000 people in 85 countries and territories, providing world class data, and establishing a new understanding of how people relate to the Bible.

THE VISION

The Patmos Initiative brings together people and organisations who share one vision – a world where everyone encounters the Bible, is empowered to explore it and experiences the impact it can have on lives and communities.

We call this Bible Engagement.

PATMOS – A SHARED FRAMEWORK

The roots of this vision lie 2,000 years ago on the island of Patmos, where the Bible tells us seven short letters were written to churches in seven distinct contexts revealing a deeper insight into the spiritual condition of their Christian communities. The encouragement and challenges of those piercing insights continue to agitate the imagination of many communities to this day.

Similarly, the missiological and audience insights revealed by The Patmos Survey will shape a shared imagination and framework for mission. This shared framework will enable collaboration and innovation across different approaches to become meaningful and fruitful for generations to come, so that the whole world encounters the Bible.

THE PATMOS INITIATIVE

We are reaching a point in history where most of the world’s population will have access to the Bible in a language they can understand.

The Patmos Initiative aims to mobilise a global coalition for the next frontier of Bible translation: where the text is translated into human understanding, behaviour and attitudes. It’s a transformational shift that the Bible describes as writing in people’s ‘minds and hearts’ (see Hebrews 10.16). To make this a reality, we must first grasp what is in people’s minds and hearts across the world.

That’s why we launched The Patmos World Bible Attitudes Survey. In the rest of this booklet, you can find excerpts from The Patmos Survey report.

To access the whole Patmos Survey report and future reports, which will include country profiles with data on a range of questions asked around the world, go to patmos.bfbs.org and register for our community at the Patmos Forum.

파트모스 세계 성경 인식 태도 설문조사



91,000명 대상 설문조사



89개 언어



150개국 분석

파트모스 세계 성경 인식 태도 설문조사는 그 규모, 연구 방법, 도달 범위 면에서 지금까지 시행된 가장 야심차고 선구적인 성경 접근 관련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갤럽과 협력하여 실시한 파트모스 연구는 150개국의 선교학적 맥락을 분석하고, 85개국 및 영토에 거주하는 91,000명의 종교적 태도와 신념을 조사합니다. 이러한 연구로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는 방식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제시합니다.

비전

파트모스 이니셔티브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접하고, 자유롭게 탐구하며, 그것이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험하는 세상이라는 하나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이를 성경 접근이라고 합니다.

파트모스 - 공유 프레임워크

이 비전의 뿌리는 2,000년 전 밋모섬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곳에서 일곱 개의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한 교회들을 향한 짧은 서신이 기록되었고, 이를 통해 각 교회 공동체의 영적 상태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날카로운 통찰을 통한 격려와 도전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공동체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파트모스 연구를 통해 드러난 선교적 통찰과 대상에 대한 통찰은 선교를 위한 공유된 상상력과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것입니다. 해당 공유 프레임워크로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한 협업과 혁신이 가능해져 향후 여러 세대에 걸쳐 의미 있고 유익한 결과를 창출할 것이며, 이로 인해 전 세계가 성경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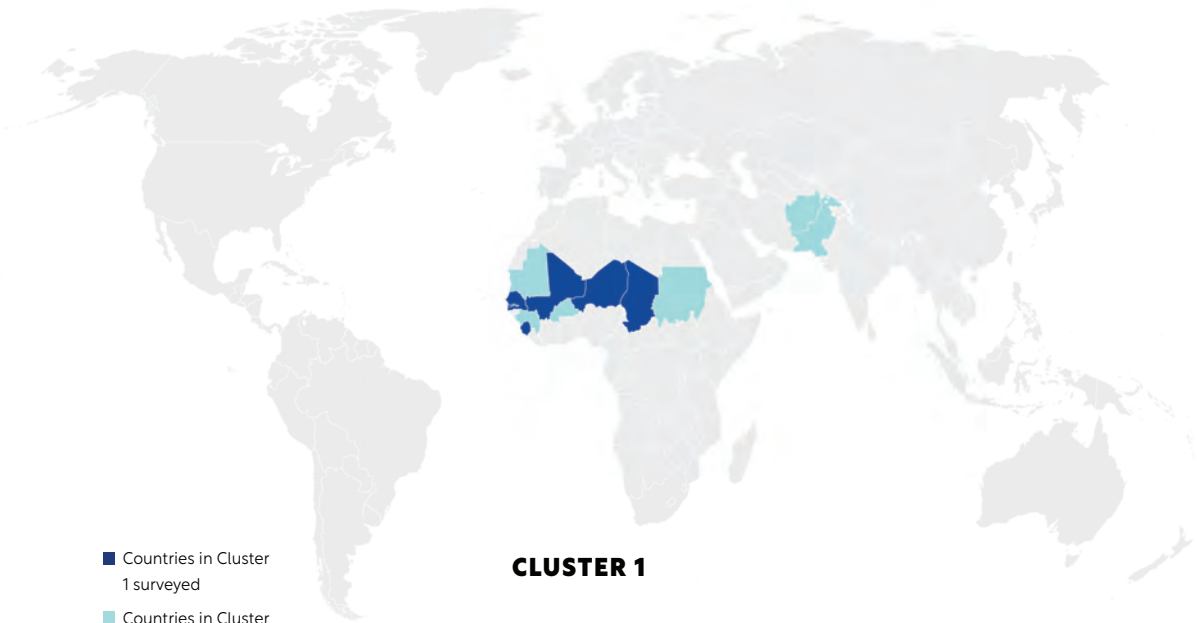
파트모스 이니셔티브

이제 전 세계 대부분의 인구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역사적인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파트모스 이니셔티브는 성경 번역의 다음 단계, 곧 성경의 문자가 사람들의 이해와 삶의 태도, 행동으로 번역되는 지점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전 세계적인 연합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히 10:16)'고 말씀한 것처럼,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먼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이 파트모스 세계 성경 인식 태도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본 책자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파트모스 설문조사 보고서의 발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파트모스 설문조사 보고서와 향후 보고서(전 세계에서 질문한 다양한 문항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한 국가별 프로필)를 확인하려면 patmos.bfbs.org를 방문한 후 파트모스 포럼의 내 공동체에 등록하세요.



CLUSTER 1

A majority-Muslim context with economic and other barriers to Bible engagement and a low-resourced, stable Christian minority

Cluster 1 is composed of 12 predominantly Muslim countries that are primarily located in the Sahel region of Africa. Almost all of these countries also have small populations of Christians. Fieldwork took place in six of the 12 countries.³

For almost everyone interviewed in this cluster, religion is an important part of daily life. Nearly all believe there is a God and identify themselves with a religious tradition — most are Muslim (89%) while 10% are Christian.

Most Muslim and Christian respondents see religion as crucial to being able to tell right from wrong.

87% agree they are searching for a sense of meaning in their life

82% agree it is hard to tell right from wrong without reli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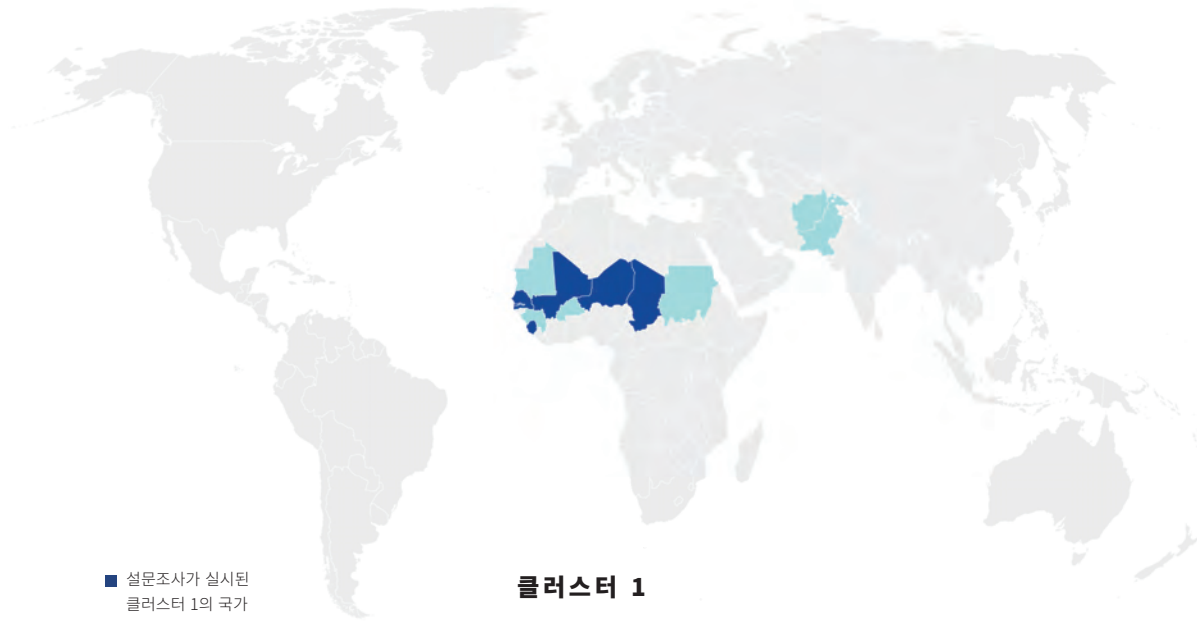
79% agree they enjoy learning from people who think differently from them

69% agree people should keep their religious beliefs to themselves

³ Cluster 1 fieldwork countries were Chad, The Gambia, Mali, Niger, Senegal and Sierra Leone.

A photograph of a man and a young child sitting on the ground in a field, surrounded by dry leaves and twigs. The man is wearing a dark jacket and the child is wearing a green patterned shirt.

This cluster stands out for its warmth to religion and openness to learning from others who may think differently.

A circular icon with a purple segment and a white number 1 in the center, surrounded by a light blue ring.

클러스터 1

성경 접근에 경제적 및 기타 장벽이 존재하는 이슬람교 다수 국가 환경과 자원이 부족하지만 안정적인 기독교 소수 집단

클러스터 1은 주로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 위치한 이슬람교가 우세한 12개 국가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속한 국가 대부분에는 소수의 기독교인이 존재합니다. 현장 조사는 12개국 중 6개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³

해당 클러스터에서 인터뷰에 응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종교는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신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종교적 전통에 따르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이슬람교도(89%)고 기독교인은 10%입니다.

대부분의 이슬람교도 및 기독교인 응답자는 종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87% 는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82% 는 종교가 없이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 동의합니다.

79% 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에게서 배우는 것을 즐긴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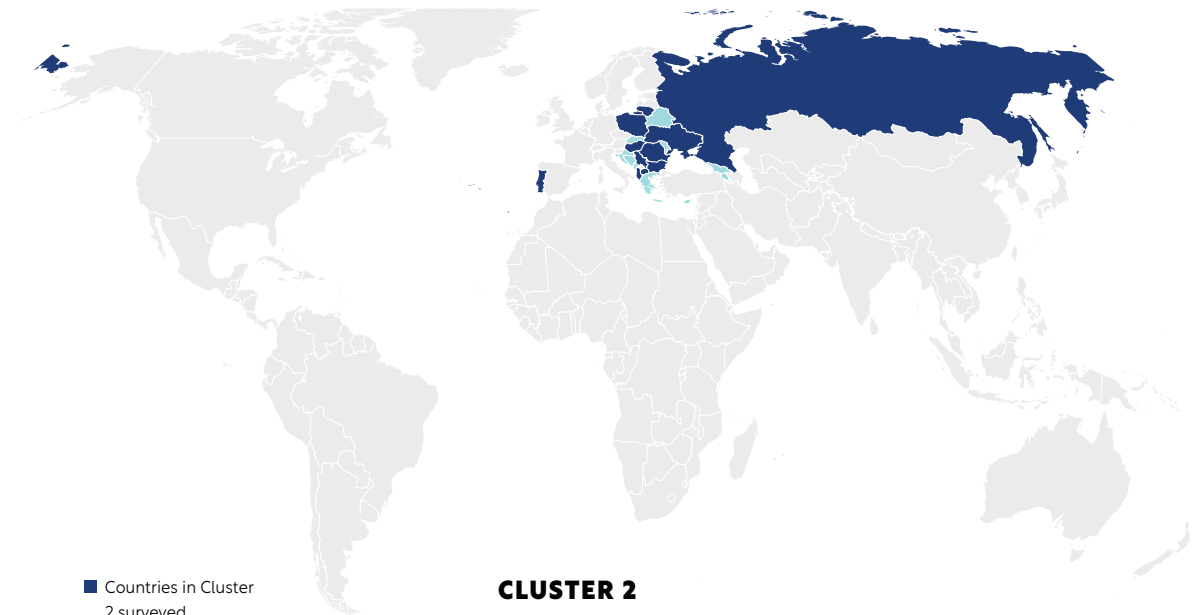
69% 는 사람들이 신앙을 개인적으로 간직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³ 클러스터 1 현장 조사 국가는 차드, 감비아, 말리, 니제르, 세네갈, 시에라리온이었습니다.

A photograph of a man and a young child sitting on the ground in a field, surrounded by dry leaves and twigs. The man is wearing a dark jacket and the child is wearing a green patterned shirt.

이 클러스터는 종교에 대한 따뜻한 태도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에게서 배우려는 개방성이 돋보입니다.

A circular icon with a purple segment and a white number 1 in the center, surrounded by a light blue ring.



■ Countries in Cluster 2 surveyed
■ Countries in Cluster 2 not surveyed



In this cluster, religion is less important in daily life, but there is a warmth and openness towards the Bible.

CLUSTER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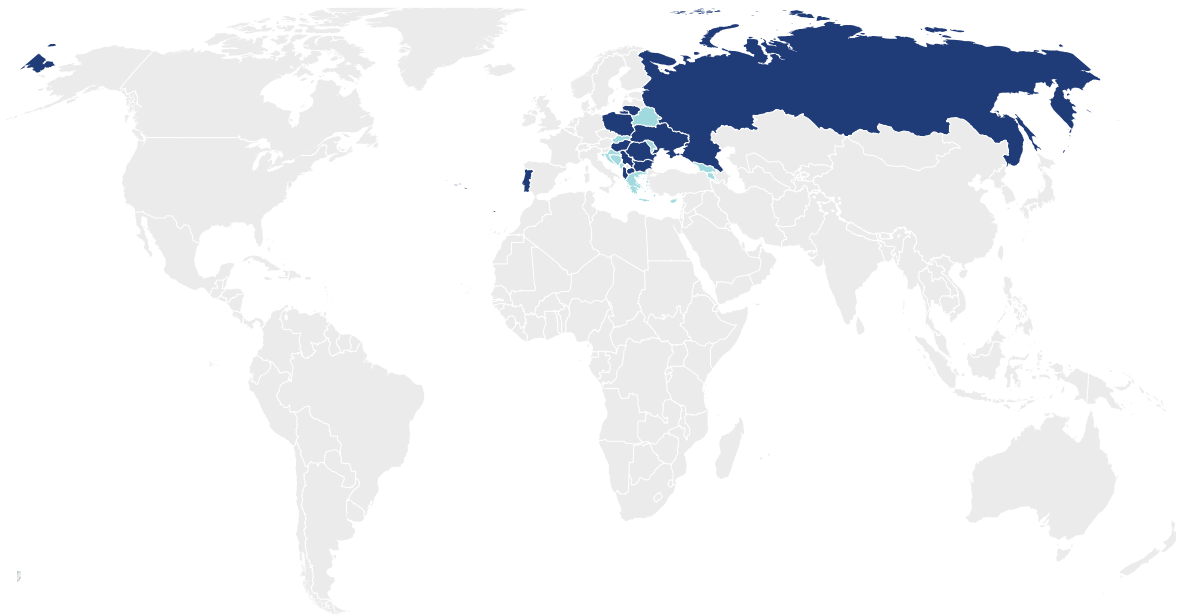
A declining Christian majority, with low importance placed on religion in daily life and a growing secular minority

Cluster 2 is composed of 22 countries with large Christian populations that are primarily located throughout Southern and Eastern Europe. Several of these countries have sizeable Muslim populations. Fieldwork took place in 11 of the 22 countries.⁴

Prior research shows that people in this cluster tend to value family more than religion. In the current study, four in ten say religion is an important part of their daily lives. However, more than half are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the Bible and over two-thirds of respondents believe it is important for children to know some stories from it.

- 40%** say that **religion is an important part of their daily life**
- 77%** identify themselves as **Christian**; 55% identify specifically as **Orthodox** and 15% as **Catholic**
- 57%** are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the Bible**
- 68%** believe it is **good for children to know some stories from the Bible**
- 63%** believe people should **keep their religious beliefs to themselves**

⁴ Cluster 2 fieldwork countries were Albania, Bulgaria, Hungary, Lithuania, North Macedonia, Poland, Portugal, Romania, Russia, Serbia and Ukraine.



■ 설문조사가 실시된 클러스터 2의 국가
■ 설문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클러스터 2의 국가



이 클러스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종교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따뜻하고 개방적입니다.

클러스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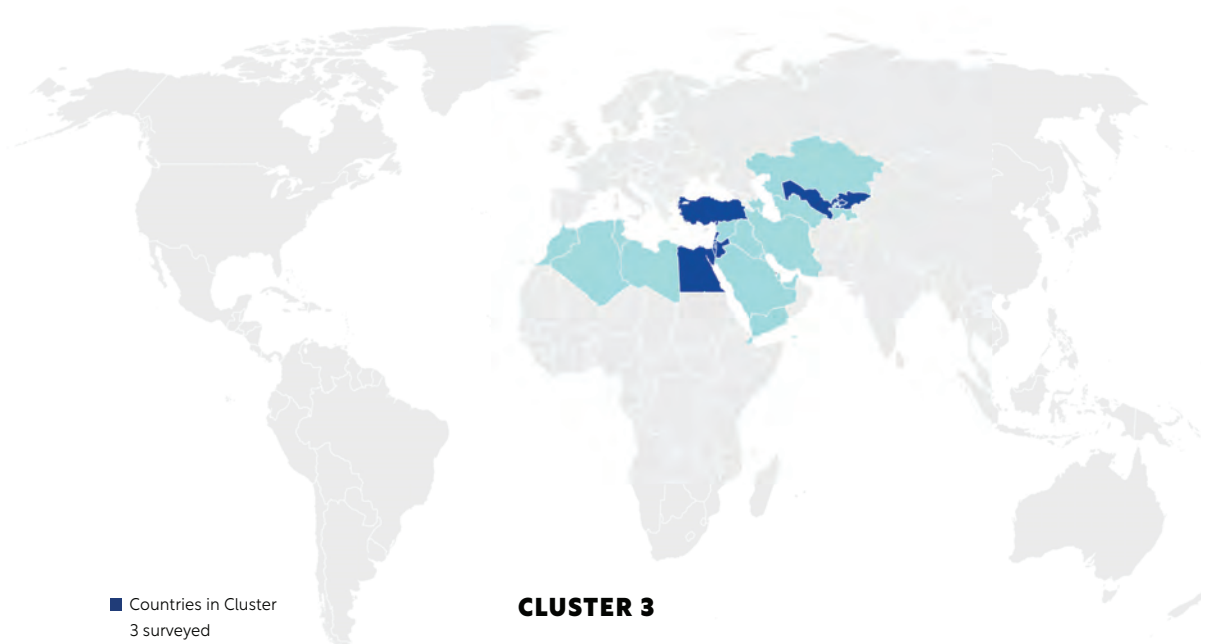
기독교가 우세하지만 교인이 감소하는 추세인 국가로 일상생활에서 종교의 중요성이 낮고, 세속적인 소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2는 주로 남동부 유럽 전역에 위치한 기독교가 우세한 22개국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일부 국가에는 상당한 수의 이슬람교도가 존재합니다. 현장 조사는 22개국 중 11개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⁴

이전 연구에 따르면 해당 클러스터에 속한 이들은 종교보다 가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은 종교가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성경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하며,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은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 40%** 가 종교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응답합니다.
- 77%** 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며, 그중 55%는 자신을 정교회인으로, 15%는 가톨릭 신자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 57%** 는 성경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합니다.
- 68%** 는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63%** 는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을 개인적으로 간직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⁴ 클러스터 2 현장 조사 국가는 알바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북마케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였습니다.



CLUSTER 3

A majority-Muslim context with political barriers to Bible engagement and a stable Christian minority

Cluster 3 consists of 28 countries and territories, most of which are located throughout the Middle East, North Africa and Central Asia. The cluster is predominantly Muslim, with stable minorities of Christians. All self-identified Jewish people in the cluster live in Israel. Fieldwork took place in nine of the 28 countries and territories.⁵

85% say religion is an important part of daily life

78% agree it is hard to tell right from wrong without reli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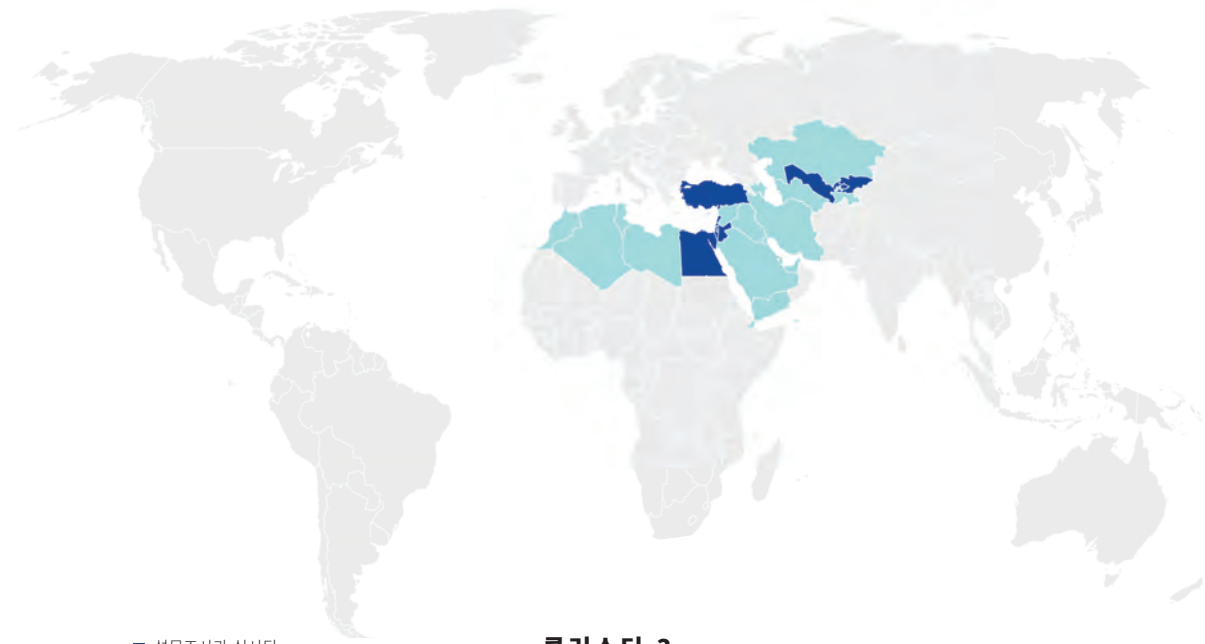
75% agree they enjoy learning from people who think differently from them

50% agree people should keep their religious beliefs to themselves

This cluster stands out for the importance it places on religion in a Muslim-majority context, alongside its higher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compared with Cluster 1.



⁵ Cluster 3 fieldwork countries and territories were Bahrain, Egypt, Israel, Jordan, Kyrgyzstan, Lebanon, Palestine, Türkiye and Uzbekistan.



클러스터 3

성경 참여에 정치적 장벽이 존재하는 이슬람교 다수 국가 환경과 안정적인 기독교 소수 집단

클러스터 3은 28개 국가 및 영토로 구성되며, 대부분 중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전반에 위치합니다. 이 클러스터에서는 이슬람교가 우세하지만, 안정적인 소수의 기독교인 집단이 존재합니다. 이 클러스터에서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에 거주합니다. 현장 조사는 28개국 및 영토 중 9개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85% 가 종교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응답합니다.

78% 는 종교가없는 삶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 동의합니다.

75% 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에게서 배우는 것을 즐긴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50% 는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을 개인적으로 간직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해당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1에 비해 경제 발전 수준이 더 높으며, 이슬람교가 우세한 환경에서 종교를 중시한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⁵ 클러스터 3 현장 조사 국가 및 영토는 바레인,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키르기스스탄, 레바논, 팔레스타인,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이었습니다.



CLUSTER 4

A majority-Christian context with high interest in learning more about the Bible, amid growing secularism

Cluster 4 is made up of 21 countries that are majority Christian and primarily located in Latin America. The Bible is highly regarded throughout most of this cluster; however, prior studies show Christian identity is also declining faster than the global average. Fieldwork took place in 14 of the 21 countries in this cluster.⁶

77% of this population indicate that **religion is an important part of their daily life**

79% definitely or probably **believe in God or a higher power**

85% identify themselves as **Christian**, including **64%** who specifically identify as **Catholic**

Despite losing some of its Christian identity, much of this cluster exhibits warmth towards the Bible and expresses openness to it.

⁶ Cluster 4 fieldwork countries were Argentina, Bolivia, Brazil, Chile, Colombia, Costa Rica, the Dominican Republic, Ecuador, Guatemala, Honduras, Mexico, Peru, the Philippines and Uruguay.



클러스터 4

세속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성경에 대해 더 많이 배우려는 열의가 높은, 기독교도 다수 국가 환경

클러스터 4는 기독교가 우세한 국가 21개국으로 구성되며, 주로 라틴 아메리카에 위치합니다. 이 클러스터에 속한 국가 대부분에서 성경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전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세계 평균에 비해 더 빠르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에서 현장 조사는 21개국 중 14개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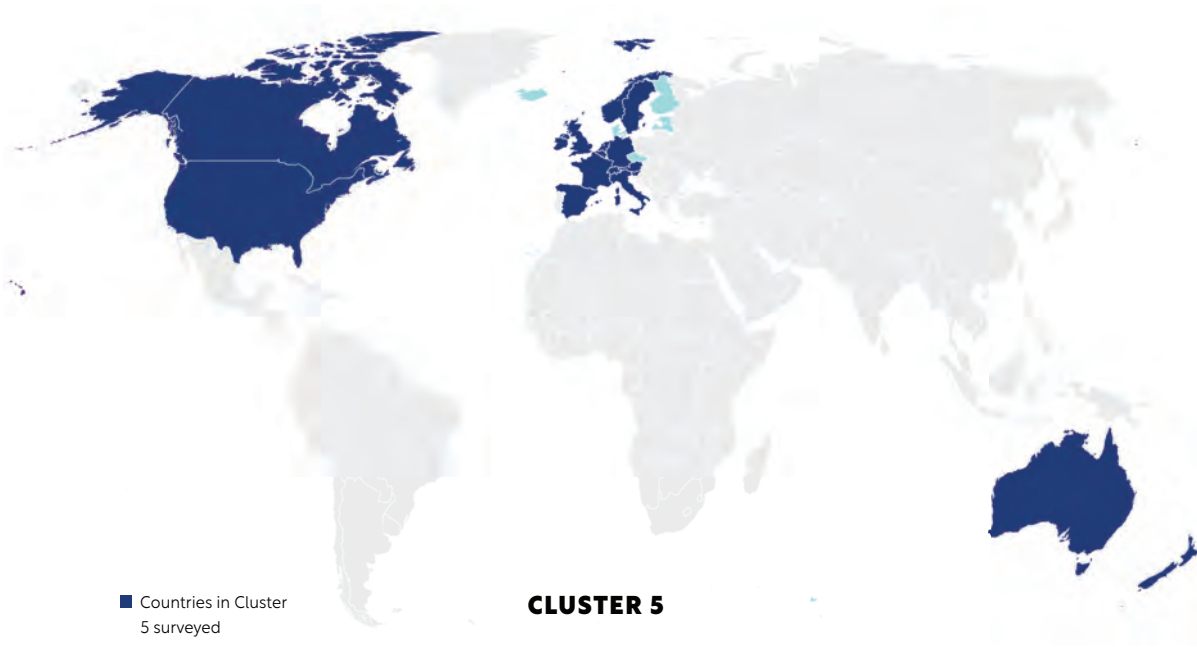
인구의 **77%** 가 종교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응답합니다.

79% 는 신이나 초월적 존재를 확신하거나 아마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85% 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그 중에서 **64%** 는 자신이 가톨릭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클러스터는 기독교적 정체성이 일부 약화되었지만, 대부분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따뜻하고 개방적입니다.

⁶ 클러스터 4 현장 조사 국가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페루, 필리핀, 우루과이였습니다.



CLUSTER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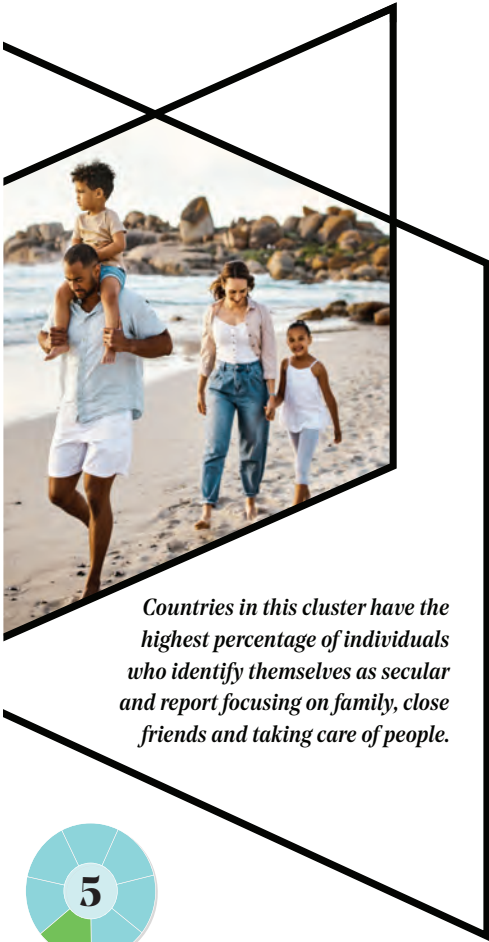
A secular context with low interest in learning more about the Bible and a declining Christian population

Cluster 5 is made up of 24 countries that share a similar context for mission. These countries are **economically developed**, **historically Christian** and located in Europe, Northern America and Australasia, where **Christian identity is declining**. Fieldwork was conducted in **17 of the 24 countries** in this cluster.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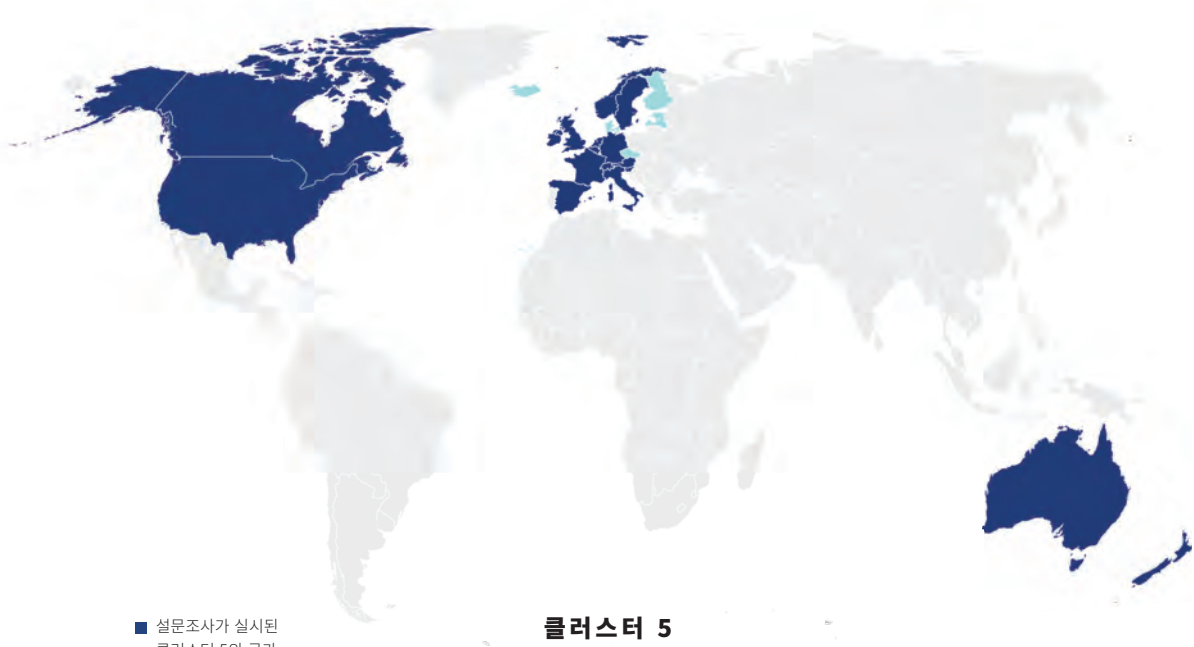
40% of this population indicate that **religion is an important part of their daily life**, which is less than half the global average

62% of people in this cluster definitely or probably **believe in God or a higher power**

53% of individuals in this cluster **identify as Christian**



⁷ Cluster 5 fieldwork countries were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France, Germany, Ireland, Italy, the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클러스터 5

성경에 대해 더 많이 배우려는 열의가 낮고 기독교인 인구가 감소하는 세속주의적 환경

클러스터 5는 선교 환경이 유사한 24개국으로 구성됩니다. 이들 국가는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역사적으로 기독교 국가였지만 현재는 기독교도적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는 유럽, 북아메리카, 오스트랄라시아 지역에 위치합니다. 이 클러스터에서 현장 조사는 **24개국 중 17개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⁷

인구의 **40%** 가 종교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 클러스터의 인구 중 **62%** 는 신이나 초월적 존재를 확신하거나 아마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클러스터에 속한 사람 중 **53%** 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⁷ 클러스터 5 현장 조사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이었습니다.



■ Countries in Cluster 7 surveyed
■ Countries in Cluster 7 not surveyed

CLUSTER 7

A majority-Christian context with high interest in learning more about the Bible and high importance placed on religion in daily life

Cluster 7 consists of 29 countries with large Christian populations that are primarily located in sub-Saharan Africa. Several of these countries have sizeable Muslim populations. Fieldwork took place in 15 of the 29 countries.⁹

Most identify with a Christian tradition (71%) and nearly everyone says religion is an important part of daily life. This positivity extends to attitudes towards the Bible, which more than three in four are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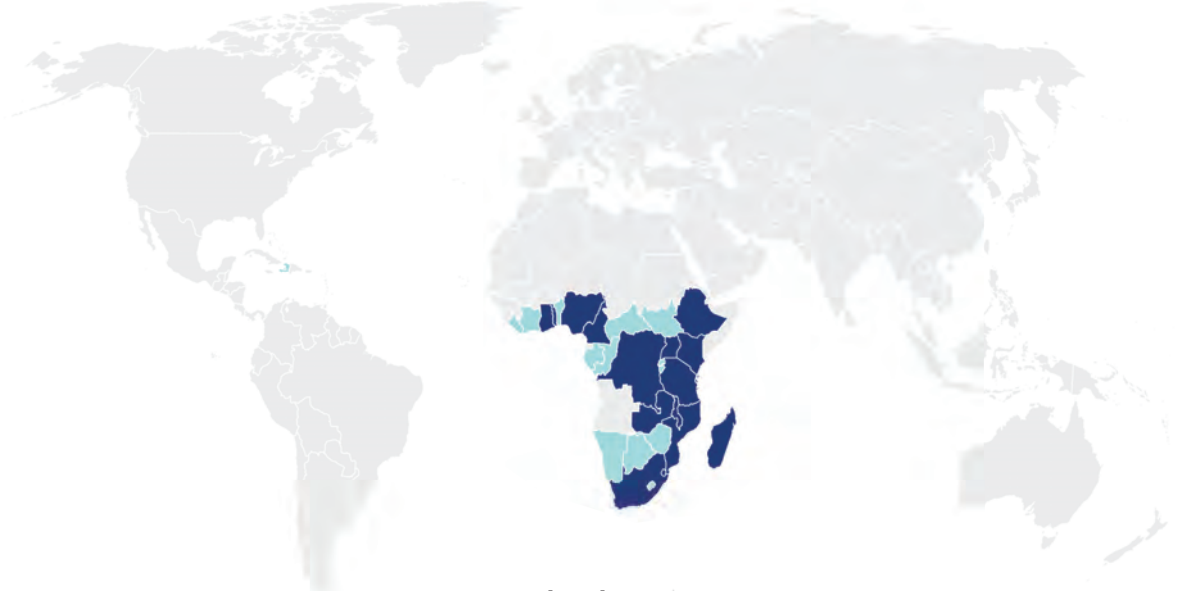
Traditional healers, who earned at least some trust from 41% of the population in sub-Saharan Africa in previous research,¹⁰ are also important: More than four in ten say they use these healers when they or someone they know is sick.

- 91% say religion is an important part of their daily life
- 47% believe Christianity is essentially a Western religion
- 76% are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the Bible
- 85% believe it is good for children to know some stories from the Bible
- 43% use traditional healers when they or someone they know is sick

This cluster stands out for its warmth towards religion and its interest in learning more about the Bible.



⁹ Cluster 7 fieldwork countries were Cameroo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Ethiopia, Eswatini, Ghana, Kenya, Madagascar, Malawi, Mozambique, Nigeria, South Africa, Tanzania, Togo, Uganda and Zambia.
¹⁰ Based on results from the Wellcome Global Monitor survey conducted in 2020. Question: 'How much do you trust each of the following? Do you trust them a lot, some, not much, or not at all? If you don't know, please just say so. How about traditional healers in this country?'



■ 설문조사가 실시된 클러스터 7의 국가
■ 설문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클러스터 7의 국가

클러스터 7

성경에 대해 더 많이 배우려는 열의가 높고 일상생활에서 종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가 우세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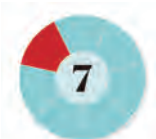
클러스터 7은 주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한, 기독교 다수 국가 29개국으로 구성됩니다. 이들 국가 중 일부에는 상당한 규모의 이슬람교도가 존재합니다. 현장 조사는 29개국 중 15개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⁹

대부분(71%) 기독교 전통을 따르며 거의 모든 사람이 종교가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응답합니다. 이러한 긍정적 태도는 성경에 대한 태도에도 반영되며, 4명 중 3명 이상이 성경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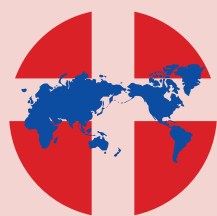
이전 연구에서 따르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인구의 41%가 다소 신뢰하는 전통 치료사를¹⁰ 또한 중요합니다. 10명 중 4명 이상이 자신이나 지인이 아플 때 이들 전통 치료사를 이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 91%가 종교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응답합니다.
- 47%가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서양의 종교라고 믿습니다.
- 76%는 성경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합니다.
- 85%가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43%가 자신이나 지인이 아플 때 전통 치유사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클러스터는 종교에 대한 따뜻한 태도와 성경에 대해 더 많이 배우려는 열의가 두드러집니다.



⁹ 클러스터 7 현장 조사 국가는 카메룬, 콩고 공화국, 에티오피아, 스와질란드, 가나,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였습니다.
¹⁰ 이는 2020년에 실시한 Wellcome Global Monitor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합니다. 질문: '다음 각 대상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많이, 다소, 별로, 전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잘 모르시겠다면 그냥 모른다고 알려주세요. 이 나라의 전통 치료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e Gospel

FOR EVERYONE BY 2033 (Eph 2:13-18)

World Evangelical Alliance General Assembly

SEOUL 27-31 OCT. 2025

The Global Evangelical Outlook Research Survey Report

세계복음주의 전망 연구 조사
결과 보고서

2025. 12.



Executive Summary



Global Evangelical Ecosystem: From Difference to Unity 글로벌 복음주의 생태계: 차이에서 연합으로

Key Insights

핵심 통찰

1) Secularization Threat & Declining Evangelistic Energy

- Secularization emerges as the strongest barrier to evangelism—stronger than legal restrictions.
- Europe & Oceania show aging congregations + spiritual fatigue → urgent re-evangelization needed.

1) 세속화 위협과 전도 에너지 감소

세속화는 복음 전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장벽으로 나타납니다—법적 제약보다 더 강력합니다.
유럽 & 오세아니아는 노령화된 회중과 영적 피로를 보이며 시급한 재복음화가 필요합니다.

2) Disciple-Making Priority vs. Field Capacity Gap

- Disciple-Making = No.1 pastoral priority (61.3%)
- However, on the ground, there are difficulties in Disciple-Making for the following reasons
 - Lack of training materials
 - Limited leader competency
 - Low member interest

2) 제자훈련 우선 인식 vs. 현장 인프라 부족

- 제자훈련(61.3%) = 전 세계 리더들의 목회 최우선 과제
- 그러나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자훈련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교육자료 부족
 - 리더 역량 한계
 - 교인 관심 저조

3) Social Engagement as Essential Mission

- 96.4% say social engagement is essential, not optional.
- Strong involvement in poverty relief, education, and vulnerable groups.
→ Evangelism & social engagement viewed as complementary callings.

3) 사회 참여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

- 설문 응답자의 96.4%가 사회 참여가 필수적이며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 빈곤 구제, 교육, 취약 계층에 대한 강력한 참여가 있습니다.
→ 전도와 사회 참여는 상호 보완적인 소명으로 간주됩니다.

4) Four Distinct Missional Clusters Identified

- Open & dynamic mission fields ↔ Strongly secular, evangelism-constrained regions.
- Requires cluster-specific strategies.
- 4) 네 가지 구별되는 선교 클러스터 식별**
-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선교 현장 → 강력하게 세속적이며 전도가 제약된 지역.
- 클러스터별 특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Recommendations

제언

• Mission Strategies Tailored to Local Contexts

Customized missional approaches that reflect the unique circumstances of each region.

• Global Disciple-Making Resource Platform

Sharing materials, curricula, and best practices from leading disciple-making churches to develop and equip ministry leaders.

• 지역적 환경에 맞춘 선교 전략

각 지역의 고유한 환경을 반영하는 맞춤형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 글로벌 제자 양육 자원 플랫폼

제자훈련 선진 교회의 자료, 커리큘럼 등을 공유하고 리더를 양육합니다.



Survey Overview

조사 개요



Survey Population (조사 대상)

- WEA General Assembly members (evangelical pastors, theologians, lay leaders, etc.)
- WEA 총회 회원(복음주의 목회자, 신학자, 평신도 등)

Participating Countries (조사 참여 국가)

- 91 out of 154 countries worldwide participated (approximately 60% of all member countries)
- 전세계 154개 국가 중 91국가 참여(약 60%의 회원국 참여)

Survey Method (조사 방법)

- Mobile/Online survey 모바일 온라인 조사

Survey Period (조사 기간)

- From before the WEA General Assembly until the conclusion of the Assembly
- WEA 총회 전부터 총회 개최일까지

Significance of the Survey (조사 의의)

1) Korea's first global Christian survey

한국 최초 글로벌 기독교 조사

- First attempt in which the Korean church and institutions directly survey Christians around the world
- 한국교회 및 기관이 주관하여 세계 각국 기독교인을 직접 조사하는 첫 시도

2) Diagnosis of global evangelical realities

전세계 복음주의 신앙의 현실 진단

- Systematic collection of global evangelical leaders' faith perceptions, mission strategies, and social awareness
-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신앙 인식, 선교 전략, 사회 의식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 Identifying how evangelical faith is expressed across different regions worldwide
- 복음주의 신앙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확인

3) Presenting common tasks and future directions for the global church

전세계 교회가 나아가야할 공통 과제 및 방향성 제시

Respondent Characteristics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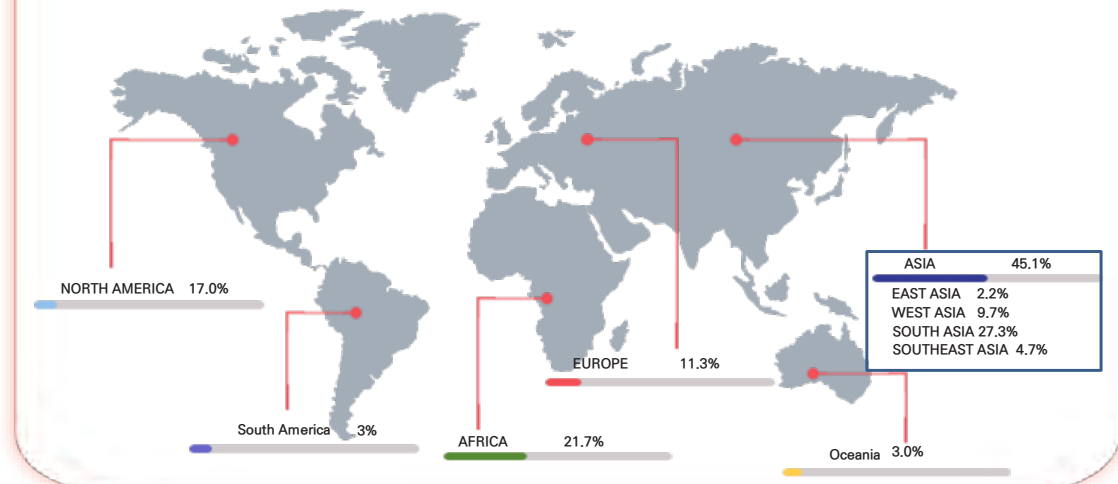
Respondent Profile (응답자 프로필)

A total of **494 WEA General Assembly participants** completed the survey. Respondents represented **91 countries**, demonstrating broad global participation. By regional distribution, **Asia accounted for 45.1% (223 respondents)**—including **East Asia 2.2% (11)**, **West Asia 9.7% (48)**, **South Asia 27.3% (135)**, and **Southeast Asia 4.7% (23)**. Other regions included **Africa 21.7% (107)**, **North America 17.0% (84)**, **Europe 11.3% (56)**, **South America 3.0% (15)**, and **Oceania 2.8% (15)**.

※ Since respondents from Asia accounted for nearly half of the total sample, the region was divided into four sub-regions for analysis."

총 494명의 WEA 총회 참가자가 설문에 응답함. 응답 국가는 91개국임. 지역별 분포는 아시아 45.1%(22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아시아는 동아시아 2.2%(11명), 서아시아 9.7%(48명), 남아시아 27.3%(135명), 동남아시아 4.7%(23명)으로 구성됨. 기타 지역은 아프리카 21.7%(107명), 북아메리카 17.0%(84명), 유럽 11.3%(56명), 남아메리카 3.0%(15명), 오세아니아 2.8%(15명) 순임.

※ 아시아는 응답자가 절반 가까이되어 4구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음.



Respondent Roles (응답자 직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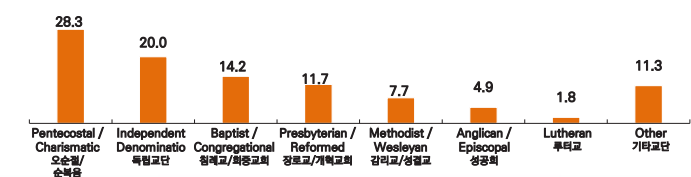
Survey participants represented a wide range of ministry roles. The largest group was **Local Church Pastors (24.9%)**, followed by **Missionaries (13.6%)**, **Professors at Theological Seminaries/Universities (8.3%)**, and **Laypersons (11.9%)**. This indicates that the WEA General Assembly and the survey included diverse leadership and ministry segments.

설문 참여자의 직분은 다양하게 구성됨. '지역교회 목회자' 24.9%, '선교사' 13.6%, '신학교 교수' 8.3%, '평신도' 11.9% 등이 주요 응답자로 확인됨. 이는 WEA 총회 및 설문이 다양한 사역 계층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줌.

Denominational Affiliation (응답자 소속 교단)

Participants represented a wide spectrum of denominational backgrounds, confirming that the Assembly was not limited to a single tradition but broadly inclusive of the evangelical community. The largest group identified as **Pentecostal / Charismatic 28.3%**, followed by **Independent Denomination 20.0%**, **Baptist / Congregational 14.2%**, **Presbyterian / Reformed 11.7%**, and **Methodist / Wesleyan 7.7%**. Additional groups included **Anglican / Episcopal 4.9%**, **Lutheran 1.8%**, and **Other Smaller Denominations 11.3%**.

참석자들의 교단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됨. 오순절/순복음 28.3%, 독립교단 20.0%, 침례교/회중교회 14.2%, 장로교/개혁교회 11.7%, 감리교/성결교 7.7% 순으로 나타남. 또한 성공회 4.9%, 루터교 1.8%, 기타 군소교단 11.3%가 참여함. 이를 통해 이번 총회가 특정 교단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한 복음주의 교단이 함께한 자리였음이 확인됨.



METHODOLOGICAL APPROACH

조사 방법론

This report is based on responses collected from delegates representing 91 countries at the WEA General Assembly. Given the large number of countries, the analysis first employed a continent-level classification as an initial step. However, even within the same continent, the contexts and conditions of Evangelical communities vary substantially. To ensure a more precise interpretation, the following multi-stage analytic procedure was applied.

Step 1 involved categorizing respondents by key demographic and ministry variables, including country, continent, denomination, ministry role, and gender. Step 2 utilized cluster analysis to group countries into four clusters, based on shared characteristics. Step 3 examined the distribution and composition of countries within each cluster to ensure that the classification accurately reflected each cluster’s contextual profile. This report interprets the data by examining differences across respondent characteristics and clusters, based on the three analytic stages described above. The four clusters derived from the cluster analysis are presented below. The dimensions and indicators used to construct these clusters are summarized in Table 1..

본 보고서는 WEA 총회 참석자 중 91개국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기반함. 국가 수가 방대하기 때문에 우선 대륙별로 나누어 1차 분석을 실시하였음. 그러나 같은 대륙 안에서도 '개신교'의 상황과 맥락은 크게 다르므로,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추가로 적용하였음.

1단계는 응답자 특성별 분류로, 나라별·대륙별·참가자 교단별·직분별·성별 등 주요 변수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구분하였음. 2단계는 군집분석을 활용해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국가들을 총 네 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음. 3단계는 군집별 국가의 빈도를 검토하여 각 군집의 특성과 성격에 맞게 국가들을 배치하는 과정이었음.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총 3단계의 분석을 바탕으로 응답자 특성별 및 군집별 차이를 통해 데이터를 해석하였음. 앞서 언급한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군집은 다음 네 가지 군집임. 군집을 나누기 위해 사용한 차원(Dimension)과 지표(Indicator)는 Table 1과 같음.

〈Table 1〉

Dimension(차원)	Indicator(지표)
religious freedom (종교 자유)	Level of religious freedom (종교 자유 수준)
Evangelism (전도)	Evangelism activity (전도 활성화)
Evangelical/Evangelism Barriers (개신교/전도 방해요소)	Restrictions on religious freedom 종교 자유 제한
	Political/legal restrictions 정치/법률적 제언
	Social/cultural opposition 사회 문화적 반대
	Strong influence of established religions 기존 종교의 강향 영향력
	Lack of financial or human resources 재정/인력 부족
	Low willingness among believers 교인들의 전도 의지 약화
	Language barriers 언어 장벽
	Censorship of digital/media content 국가의 디지털/미디어 검열
	Security threats and risks 안전/보안 위협
	Secularization/De-religionization 세속화/탈종교화
	Religious Pluralism 종교다원주의



As shown in Table 1, the cluster classification was developed using **three analytical dimensions** and **fourteen indicators**. To identify patterns that grouped countries into clusters, Cluster analysis methodology was employed. Multiple models were tested and evaluated before reaching a consensus solution. The final and preferred model organized the countries into **four clusters**, as presented in **Table 2**.

Table 1과 같이 군집 분류는 총 **3개의 차원**과 **14개의 지표**를 고려하여 도출됨. 국가들을 군집으로 묶는 패턴을 식별하기 위해 **군집 분석 방법론의 한 형태**가 사용되었으며, 현재 군집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모델이 테스트되고 평가됨**. 최종적으로 **4개 군집**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해당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됨.

〈Table 2〉

Cluster 1	Cluster 2	Cluster3	Cluster4
Nigeria (나이지리아)	Ghana (가나)	South Africa (남아프리카공화국)	Vietnam (베트남)
South Sudan (남수단)	Guatemala (과테말라)	Denmark (덴마크)	Algeria (알제리)
Nepal (네팔)	Grenada (그레나다)	Bulgaria (불가리아)	Iraq (이라크)
Taiwan (대만)	New Zealand (뉴질랜드)	Switzerland (스위스)	
Russia (러시아)	Dominican Republic (도미니카공화국)	Argentina (아르헨티나)	
Rwanda (르완다)	Malawi (말라위)	United Kingdom (영국)	
Madagascar (마다가스카르)	Morocco (모로코)	Austria (오스트리아)	
Malaysia (말레이시아)	Benin (베냉)	Japan (일본)	
Mozambique (모잠비크)	Botswana (보츠와나)	Canada (캐나다)	
Mongolia (몽골)	St. Kitts and Nevis (세인트키츠 네비스)	Paraguay (파라과이)	
USA (미국)	Sierra Leone (시에라리온)	Portugal (포르투갈)	
Myanmar (미얀마)	Antigua (안티가)	Australia (호주)	
Vanuatu (바누아트)	Estonia (에스토니아)	Germany (독일)	
Bangladesh (방글라데시)	Ecuador (에콰도르)	Netherlands (네덜란드)	
Burundi (부룬디)	Jamaica (자메이카)	France (프랑스)	
Bhutan (부탄)	Zambia (잠비아)		
Brazil (브라질)	Chile (칠레)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Colombia (콜롬비아)		
Sudan (수단)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콩고민주공화국)		
Sri Lanka (스리랑카)	Cuba (쿠바)		
Singapore (싱가포르)	Croatia (크로아티아)		
Ethiopia (에티오피아)	Tanzania (탄자니아)		
Jordan (요르단)	Trinidad and Tobago (트리니다드 토바고)		
Uganda (우간다)	Palestine (팔레스타인)		
Israel (이스라엘)	Poland (폴란드)		
Egypt (이집트)	Fiji (피지)		
Italy (이탈리아)	Philippines (필리핀)		
India (인도)	Gabon (가봉)		
Indonesia (인도네시아)			
China (중국)			
Central African Republic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ameroon (카메룬)			
Gabon (가봉)			
Kenya (케냐)			
Costa Rica (코스타리카)			
Côte d'Ivoire (코트디부아르)			
Kyrgyzstan (키르기스스탄)			
Thailand (태국)			
Turkey (터키)			
Togo (토고)			
Pakistan (파키스탄)			
Papua New Guinea (파푸아뉴기니)			
Peru (페루)			
Spain(스페인)			
Korea (대한민국)			

※ This cluster classification is based on the responses of WEA participants. In some countries, respondents were distributed across multiple clusters. In such cases, the cluster with the highest number of respondents was assigned. In the event of a tie, the researcher’s judgment was applied to determine the final classification. These consideration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interpreting the results.

※ 본 군집 분류는 WEA 참가자들의 응답을 기반으로 산출된 결과임. 일부 국가는 응답자의 분포가 여러 군집에 걸쳐 나타났으며, 이 경우 응답자가 가장 많이 포함된 군집을 우선 적용하였음. 동점일 경우에는 연구자의 판단을 반영하여 최종 군집을 결정하였음. 해석 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Cluster Classification

군집 분류



Cluster 1. The Stagnant Middle (안정된 정체)

This cluster represents countries that do not face severe persecution or extreme restrictions but also do not exhibit strong spiritual vitality. These contexts fall into a **moderate middle zone**, where evangelism barriers are neither high nor low, and religious freedom remains relatively stable. However, the level of evangelistic activity and spiritual enthusiasm also stays at a **moderate, stagnant level**, resulting in environments marked by stability yet lacking dynamism or momentum for growth. In effect, these nations occupy a “quiet equilibrium” where ministry continues but without noticeable acceleration or decline. A total of **45 countries** are included in this cluster. Representative examples include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India, Russia, and Ethiopia**.

‘안정된 정체’ 클러스터는 **극단적인 어려움은 없지만 영적 활력도 높지 않아 현상 유지에 머무르는 환경**을 가진 국가들임. 이 환경은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간 지대**에 위치함. 극심한 박해나 제약은 없으나, 신앙의 열정과 전도 활동 또한 **중간 수준에 머물러 역동성이 부족하고 안정 속에 침체된 상태**가 나타남. 본 군집에는 총 **45개국**이 포함됨. 대표적으로 미국, 한국, 인도, 러시아, 에티오피아와 같은 나라가 있음.

Cluster 2. The open Mission Field (열린 선교지)

This cluster represents countries with **strong legal religious freedom, minimal social or political resistance, and relatively low levels of secularization—creating an optimal environment for mission work**. With little external persecution and limited internal secular pressure, these nations offer some of the most dynamic and receptive fields for evangelical ministry. Many **Global South Christian nations** fall into this category. A total of **29 countries** are included in this cluster, with notable examples such as **the Philippines, Cuba, and Morocco**.

이 군집은 법적 종교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사회적 반대나 정치적 제약이 거의 없으며, 세속화 영향도 비교적 약한 ‘최적의 선교 환경’을 가진 국가들임. 외부 박해도 적고 내부 세속화도 낮아, 복음 사역이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필드라고 할 수 있음. 주로 **남반구 기독교 국가들**이 이 군집에 포함됨. 본 군집에는 총 **29개국**이 속하며, 대표적으로 필리핀, 쿠바, 모로코 등이 포함됨.

Cluster 3 The Secular Swamp (세속화의 늪)

This cluster enjoys **the highest level of legal religious freedom**, yet it is also where **secularization and de-religionization are most advanced**. Although there is **no external persecution**, churches operate in an environment where **pervasive societal secularism and indifference** weaken their vitality. As a result, despite the **high degree of freedom, evangelistic activity remains at the lowest level**, as the very motivation to utilize that freedom has diminished. Many **Western developed countries** fall into this category. Ultimately, this cluster represents **a state of self-decline**, driven by **secularization** and **weakened congregational engagement**. A total of **15 countries** are included in this cluster,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Canada, Australia, Japan, and Denmark**.

해당 군집은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가장 높은 국가들**이지만, 동시에 **세속화와 탈종교화가 가장 심각하게 진행된 지역**임. 외부로부터의 박해는 없으나,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강력한 세속주의와 무관심**으로 인해 교회가 힘을 잃고 약화된 환경임. 그 결과, **높은 종교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전도 활동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며, 자유를 활용할 내적 동력 자체가 약화된 상태임. 서구 선진국들이 이 군집에 다수 포함됨. 결국 이 군집은 **세속화와 교인 약화로 인한 자발적 침체** 상태를 보여줌. 본 군집에는 총 **15개국**이 포함되며, 대표적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덴마크 등이 있음.

Cluster 4. The Paradoxical Revival Zone (역설적 부흥지)

This cluster comprises countries with the **lowest level of legal religious freedom**, placing them externally in the category of **high-restriction or persecution environments for Evangelical communities**. Paradoxically, however, these nations experience **the least political and social resistance in actual ministry practice**. Despite limited legal freedom, evangelism activity is **the highest among all clusters**, as believers strategically utilize low-friction areas and informal ministry opportunities. This creates a **paradoxical setting** in which restrictive legal frameworks coexist with **unusually vibrant evangelistic activity**, resulting in a mission environment marked by unexpected growth and revival-like dynamics. A total of **3 countries** are included in this cluster. This represents the rarest pattern, exemplified by **Vietnam, Algeria, and Iraq**.

‘역설적 부흥지’ 클러스터는 **법적 종교의 자유가 가장 낮아**, 대외적으로는 개신교 박해국 또는 제한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환경임. 그러나 실제 전도 현장에서는 **정치적·사회적 제약과 반대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역설적 상황**이 확인됨. 이러한 낮은 마찰 환경을 활용하여 **전도 활동은 전체 군집 중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짐**. 법적 제약은 크지만, 실제 사역은 매우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독특한 부흥적 환경**임. 본 군집에는 총 **3개국**이 포함됨. 가장 희귀한 형태로 베트남, 알제리, 이라크가 여기에 속함.

조사결과

General Ministry

일반적목회상황





2. Use of Digital/AI in Ministry 디지털/AI 사역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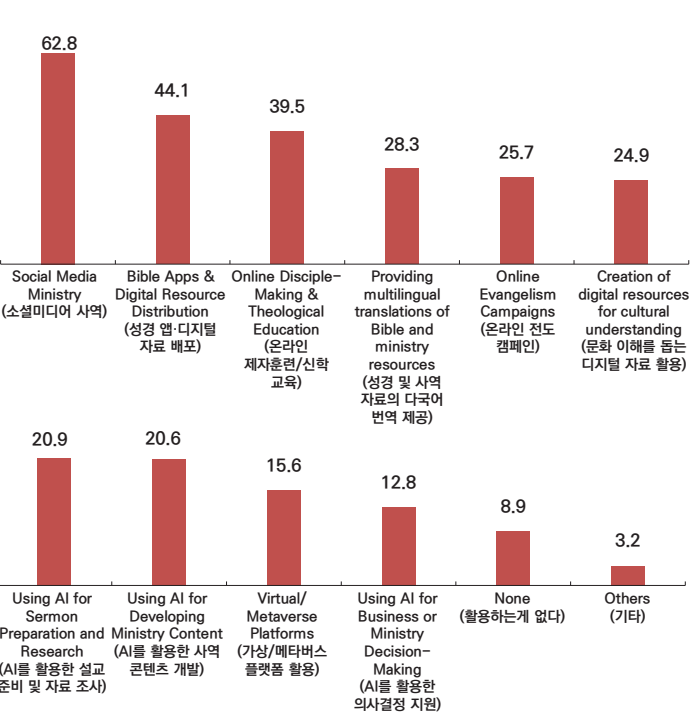
1) IT·AI Digital Ministry Methods in Use
활용 중인 IT·AI·디지털 사역 방법

Among the IT and AI-based digital ministry tools currently used in the field, **“Social Media Ministry” is the most widely utilized at 62.8%**, with approximately two-thirds of respondents adopting this approach. This is followed by **digital distribution of Bible/app resources (44.1%)**, **online Disciple-Making or theological training (39.5%)**, and **multilingual translation of Scripture and ministry materials (28.3%)**.

Regarding AI use, **about 20% of pastors—approximately one in five—report using AI for sermon preparation or ministry content development**.

현재 사역지에서 활용 중인 IT·AI 기반 디지털 사역 도구 중에서는 ‘**소셜 미디어 사역**’이 **62.8%로 가장 높았으며**, 사역자 3명 중 2명이 이를 사용하고 있음. 그다음으로 ‘**성경/앱 디지털 자료 배포**’ **44.1%**, ‘**온라인 제자훈련/신학 교육**’ **39.5%**, ‘**성경 및 사역 자료의 다국어 번역 제공**’ **2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AI의 경우, **약 20%의 목회자(5명 중 1명)가 설교 준비 또는 사역 콘텐츠 개발에 AI를 활용하고 있음**.



The use of IT, AI, and digital tools in ministry has become indispensable, with **over 85% utilization across all continents**. Utilization rates were particularly high in **East Asia and North America (96.4%)**. In contrast, **Africa and South Asia** showed comparatively lower levels of utilization than other regions.

IT·AI·디지털 기반 사역 활용은 이제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모든 대륙에서 **85% 이상의 활용률**을 보였다. 특히 **동아시아, 북아메리카(96.4%)**는 가장 높은 활용률을 나타냈다. 반면,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활용률을 보였음.



FOR EVERYONE BY 2035 (p. 239-40)
World Evangelical Alliance General Assembly
SEOUL 27-31 OCT. 2025

Survey Item

설문문항

How is your ministry or organization using IT, AI, and digital content in ministry? Please select all that apply [Multiple Response]

귀하는 사역지에서 IT, AI, 디지털 콘텐츠를 사역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시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복수응답]

Country

국가별

TOP 3

Percentage of ‘None’
(상위 3 국가 ‘활용하는게 없다’ 비율)



Burundi
(브룬디)
45.5%



Nepal
(네팔)
28.0%



Cameroon
(카메룬)
25.0%

※ Top rankings were calculated only for countries with a sample size of at least five respondents.
(사례 수가 5명 이상인 국가만을 대상으로 상위 순위를 산출하였음)

Continent

대륙별

By Continent (대륙별)	IT 이용률
Africa (아프리카)	88.8
Europe (유럽)	94.6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	96.4
South America (남아메리카)	86.7
Oceania (오세아니아)	93.3
South Asia (남아시아)	85.9
East Asia (동아시아)	100.0
West Asia (서아시아)	95.8
East south Asia (동남아시아)	91.3

2. Use of Digital/AI in Ministry 디지털/AI 사역 활용

2) Most Needed Areas of IT/AI/Digital Ministry
가장 필요한 IT·AI·디지털 사역 분야

The most needed ministry areas were **Social Media Ministry (27.3%)**, **Bible Apps & Digital Resource Distribution (19.0%)**, **Online Disciple-making & Theological Education (18.6%)**, and **Online Evangelism Campaigns (11.4%)**. In contrast, AI-related items recorded the **lowest response levels** (ranked in the bottom 1st, 2nd, and 4th positions).

가장 필요한 사역으로는 **소셜미디어 사역(27.3%)**, **성경 앱/디지털 자료 배포(19.0%)**, **온라인 제자훈련/신학 교육(18.6%)**, **온라인 전도 캠페인(11.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AI 관련 항목들은 **전체 항목 중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하위 1·2·4순위 분포).

Social Media Ministry (소셜미디어 사역)	27.3
Bible Apps & Digital Resource Distribution (성경 앱·디지털 자료 배포)	19.0
Online Disciple-Making & Theological Education (온라인 제자훈련/신학 교육)	18.6
Online Evangelism Campaigns (온라인 전도 캠페인)	11.4
Providing multilingual translations of Bible and ministry resources (성경 및 사역 자료의 다국어 번역 제공)	7.2

Creation of digital resources for cultural understanding (문화 이해를 돕는 디지털 자료 활용)	6.5
Using AI for Sermon Preparation and Research (AI를 활용한 설교 준비 및 자료 조사)	3.8
Using AI for Developing Ministry Content (AI를 활용한 사역 콘텐츠 개발)	2.2
Virtual/Metaverse Platforms (가상/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2.2
Using AI for Business or Ministry Decision-Making (AI를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	1.8

Overall, digital/AI-based ministries were rated as lower priority, whereas **Social Media Ministry showed both high perceived need and high current utilization**.

전반적으로 디지털/AI 기반 사역은 필요성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소셜미디어 사역**’은 **필요성과 현재 활용도 모두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음.



FOR EVERYONE BY 2035 (p. 239-40)
World Evangelical Alliance General Assembly
SEOUL 27-31 OCT. 2025

Survey Item

설문문항

Which of these IT, AI, and digital content ministries is the most needed in your context? Please select two in order of importance. [Select up to two]

이 중 가장 필요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주세요. [2순위 선택응답]

Cluster

군집별

Cluster (군집별)	First-ranked Response (1순위)	Second-ranked Response (2순위)
Cluster 1. The Stagnant Middle 군집 1. (안정된 정체)	Social Media Ministry (소셜미디어 사역)	Bible Apps & Digital Resource Distribution (성경 앱·디지털 자료 배포)
Cluster 2. The open Mission Field 군집2. (열린 선교지)	Social Media Ministry (소셜미디어 사역)	Bible Apps & Digital Resource Distribution (성경 앱·디지털 자료 배포)
Cluster 3. The Secular Swamp 군집3 (세속화의 늪)	Social Media Ministry (소셜미디어 사역)	Online Disciple-Making & Theological Education (온라인 제자훈련/신학 교육)
Cluster 4. The Paradoxical Revival Zone 군집4. 역설적 부흥지	Bible Apps & Digital Resource Distribution (성경 앱·디지털 자료 배포)	Online Disciple-Making & Theological Education (온라인 제자훈련/신학 교육)

3. Primary Ministry Priorities 목회 우선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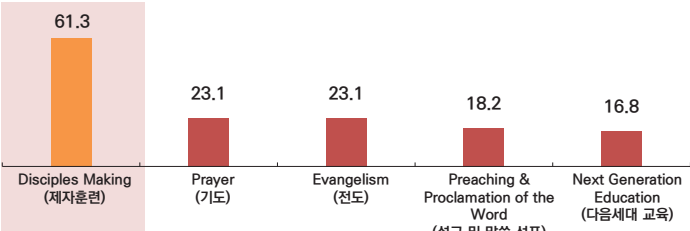
1) Most Important Areas of Pastoral Ministry
가장 중요한 목회 사역

Across all respondents, **"Disciples Making"** (61.3%) was identified as the most important area of pastoral ministry. This was followed by **"Prayer"** (23.1%), **"Evangelism"** (23.1%), **"Preaching & Proclamation of the Word"** (18.2%), and **"Next Generation Education"** (16.8%).

This item showed **minimal variation across continents or clusters**, indicating that WEA participants commonly regard **disciples making** as the **top priority** in pastoral ministry.

전체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목회 사역으로는 '제자훈련'이 6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기도' 23.1%, '복음전도' 23.1%, '설교 및 말씀 선포' 18.2%, '다음세대 교육' 16.8% 순으로 응답되었다.

본 문항은 대륙별·군집별 차이가 거의 없어, WEA 참가자 전반이 제자훈련을 목회 사역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Evangelism vs. Social Engagement
복음 전도 vs. 사회 참여

Responses showed the following distribution: 22.7% chose **"Evangelism should take priority over social engagement,"** 70.0% chose **"Evangelism and social engagement should be pursued in balance,"** 3.0% chose **"Social engagement should take priority over evangelism,"** and 4.3% responded **"Not sure."**

In summary, **seven out of ten WEA participants indicated that evangelism and social engagement should be carried out in bal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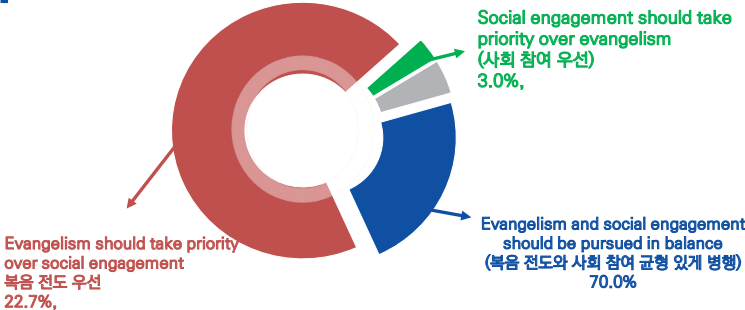
Notably, **Cluster 3 (The Secular Swamp)** showed almost no support for prioritizing evangelism alone.

The vast majority selected a **"balanced approach,"** indicating that in highly secularized contexts, **social engagement and evangelism are understood as inseparable and equally essential.**

'복음 전도 우선'은 22.7%,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균형 있게 병행'은 70.0%, '사회 참여 우선'은 3.0%, '잘 모르겠음'은 4.3% 순으로 나타났다.

즉, WEA 참가자 10명 중 7명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의 균형적 병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클러스터 3(세속화의 늪)은 '복음 전도 우선' 응답 비율이 거의 없고, 대다수가 '균형적 병행'을 선택해, **세속화가 진행된 지역에서는 사회 참여와 복음 전도가 필수적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인식이 강함**을 보여줌.





FOR EVERYONE BY 2033 (Eph 2:13-18)
World Evangelical Alliance General Assembly
SEOUL 27-31 OCT. 2025

Survey Item

설문문항

In your opinion, which of the following are the most important areas of ministry? Please select two in order of importance. **[Select exactly two]**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다음 중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영역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 응답해주세요. **[2순위 필수응답]**

Regarding the direction of ministry, which of the following best reflects your view? **[Single Response]**

목회의 사역 방향과 관련하여,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Cluster

군집별

Cluster (군집별)	Evangelism should take priority over social engagement (복음전도 우선)	Evangelism and social engagement should be pursued in balance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균형 있게 병행)	Social engagement should take priority over evangelism (사회 참여 우선)
Cluster 1. The Stagnant Middle 군집 1. (안정된 정체)	23.4	69.3	2.6
Cluster 2. The open Mission Field 군집2. (열린 선교지)	25.3	69.2	4.1
Cluster 3. The Secular Swamp 군집3 (세속화의 늪)	8.5	80.3	1.4
Cluster 4. The Paradoxical Revival Zone 군집4. 역설적 부흥지	32.6	60.9	4.3

조사결과

Religious Freedom

종교의자유

1. Status of Religious Freedom Restrictions 종교 자유 제한 현황

1) Restriction Factors by Category
속성별 제한 요소

Globally, the primary factors restricting religious freedom were: **conflicts with traditional or established religions (47.2%), legal restrictions on evangelism in public spaces (46.8%), social discrimination or disadvantages in areas such as employment and education (44.9%), and monitoring or pressure on religious leaders (42.3%).** In short, religious conflict, public-space regulations, and social discrimination represent the most significant constraints on religious freed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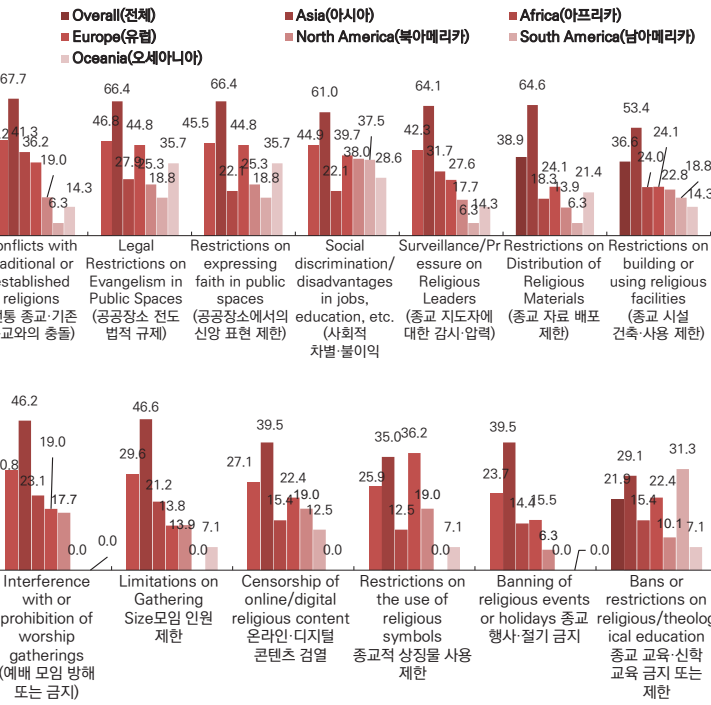
By continent
Asia (particularly South Asia) shows the highest level of restriction, followed by **Africa → the Americas → Europe → Oceania.**

In several **African and South Asian** regions still face practical challenges to Protestant mission activity.

전 세계적으로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은 ‘**전통 종교·기존 종교와의 충돌**’ **47.2%**, ‘**공공장소 전도에 대한 법적 규제**’ **46.8%**, **사회적 차별·불이익(취업·교육 등)** **44.9%**, ‘**종교 지도자에 대한 감시·압력**’ **42.3%** 등이었음. 즉, **종교적 충돌, 공공장소 규제, 사회적 차별**이 가장 큰 제약 요인임.

대륙별로는 아시아(특히 남아시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종교 제한을 보였으며, 그다음은 **아프리카 → 아메리카 → 유럽 → 오세아니아** 순이었음.

여전히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개신교 확산에 **실제적 어려움**이 존재함.



FOR EVERYONE BY 2033 (p. 23-46)
World Evangelical Alliance Research Assembly
SEOUL 27-31 OCT. 2025

Survey Item

설문문항

In your country or region, have you experienced restrictions on religious freedom? For each item, please select one option.
[Single Response per Row]

귀하가 사역하는 '나라' 혹은 '지역'에서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어떤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행별 단수응답]

Cluster

군집별

By cluster, Cluster 4 experiences the highest level of legal and institutional restriction, followed by Cluster 1 → Cluster 2 = Cluster 3

클러스터별로는 군집 4가 가장 높은 수준의 법적·제도적 제한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그다음은 군집 1 → 군집 2 = 군집 3 순이었음.

Country

국가별

Representative Countries with Severe Religious Restrictions
종교 제한이 심한 대표적 국가

Nigeria (나이지리아)

India (인도)

Sri Lanka (스리랑카)

※ Calculated based only on countries with 5 or more cases
(사례 수가 5명 이상인 국가만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음)

1. Status of Religious Freedom Restrictions 종교 자유 제한 현황

2) Assessment of Religious Freedom Levels
종교 자유 수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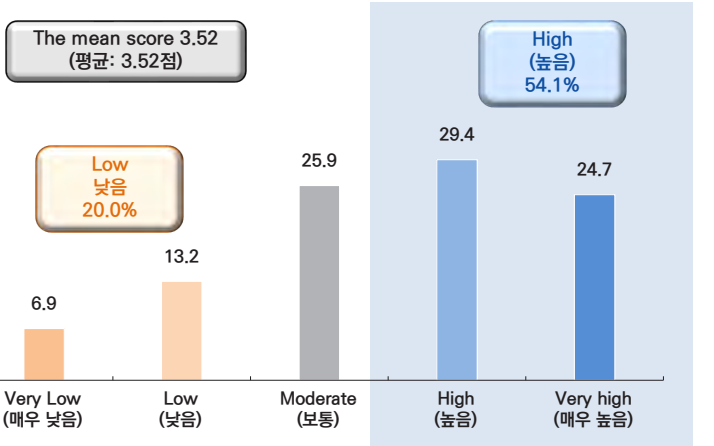
Globally, **20.0%** of respondents assessed religious freedom as “**low**” (**very low + low**), while **54.0%** rated it as “**high**” (**very high + high**). The overall mean score was **3.52 out of 5**, indicating a moderate level of religious freedom worldwide.

By continent, religious freedom was rated highest in **Oceania (4.43)**, followed by **South America (4.25)**, **North America (4.16)**, **Europe (4.12)**, **Africa (3.85)**, and **Asia (2.87)** (based on the 5-point scale). **By cluster**, religious freedom was highest in **Cluster 3 (4.46)**, followed by **Cluster 2 (4.25)**, **Cluster 1 (3.04)**, and **Cluster 4 (2.11)** (5-point scale).

전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낮음’(매우 낮음+낮음)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20.0%**, ‘높음’(매우 높음+높음)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54.1%로 나타났음. 전체 평균은 3.52점(5점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의 종교 자유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륙별로는 오세아니아(4.43) > 남아메리카(4.25) > 북아메리카(4.16) > 유럽(4.12) > 아프리카(3.85) > 아시아(2.87) 순으로 종교 자유도가 높게 평가되었음(5점 평균 점수 기준).

군집별로는 군집 3(4.46) > 군집 2(4.25) > 군집 1(3.04) > 군집 4(2.11) 순으로 종교 자유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5점 평가 기준).



Interestingly, regions with low evangelism activity showed higher levels of religious freedom, whereas regions with active evangelism reported lower levels of religious freedom. This reveals a paradoxical reality: **the more religious freedom is restricted, the more active Protestant evangelism tends to become.**

흥미로운 점은 전도 비활성화 지역에서 종교 자유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전도 활성화 지역에서 종교 자유도가 더 낮게 나타났음. 이는 곧 **종교의 자유 억압이 개신교 복음 전도가 더 활발해지는 역설적 현상**이 존재함을 보여줌.

FOR EVERYONE BY 2033 (p. 23-46)
World Evangelical Alliance Research Assembly
SEOUL 27-31 OCT. 2025

Survey Item

설문문항

How would you rate the overall level of religious freedom in your ministry context?
[Single Response]

귀하의 사역 지역에서 종교의 자유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단수응답]

Continent

대륙별

By Continent (대륙별)	HIGH rate (높음 비율)	Based on a 5-point scale (5점 평균 기준)
Asia (아시아)	26.0	2.87
Africa (아프리카)	68.3	3.85
Europe (유럽)	79.3	4.12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	82.3	4.16
South America (남아메리카)	81.3	4.25
Oceania (오세아니아)	100.0	4.43

Evangelism Activity

전도 활성화

High(Very high+high) 높음(매우 높음+높음)

	비율	Mean 평균
High evangelism regions (전도 활성화 지역)	55.6	3.50
Moderate evangelism regions (전도 보통 지역)	48.5	3.49
Low evangelism regions (전도 비활발성화 지역)	64.4	3.73

2. Legal Scope of Evangelism and Missionary Activity

법적 선교 및 선교 범위

When examining the legal allowance for evangelism/missionary activity in respondents' own countries, the highest proportion indicated that “evangelism to nationals/citizens is permitted” (57.5%). This was followed by:
Permission varies by region or circumstance – 28.7%
All evangelism/missionary activity is prohibited by law – 12.1%
Evangelism is permitted only to foreign residents – 1.6%

By cluster, Cluster 4 (The Paradoxical Revival Zone) showed a comparatively lower proportion of respondents indicating that evangelism or missionary activity to nationals is permitted.

By continent, South Asia and West Asia showed relatively higher levels of legal prohibition on evangelism and missionary work. In addition, among respondents who reported that local/indigenous religions hinder evangel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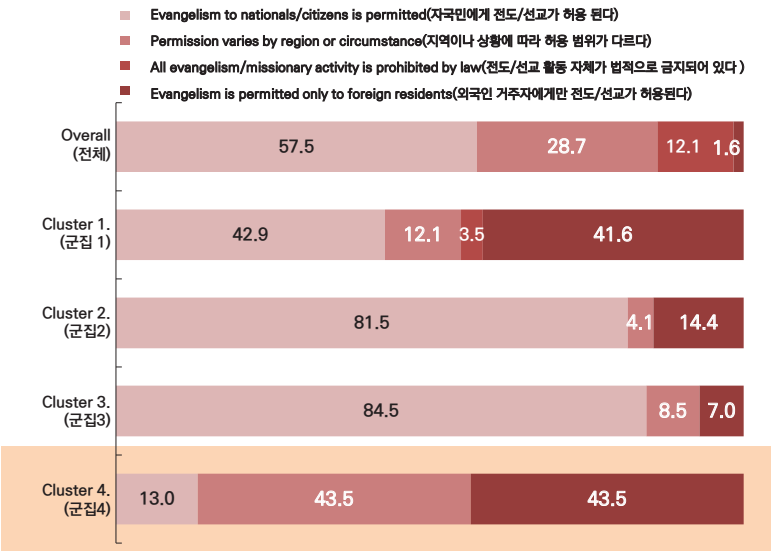
the legal scope for missionary activity tended to be more restricted, indicating greater difficulty in conducting evangelistic work in these regions.

본인 국가의 법적 선교(전도) 허용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자국민 대상 전도·선교가 허용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7.5%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지역 또는 상황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다르다' 28.7%, '전도·선교 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12.1%, '외국인 거주자에게만 전도·선교가 허용된다' 1.6% 순으로 나타났다.

군집별로는 군집 4(역설적 부흥지)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교·전교가 허용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대륙별로는 남아시아와 서아시아에서 법적으로 선교 및 전도가 금지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역지의 토착 종교가 전도를 방해한다고 응답한 그룹에서 법적 선교 허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더 좁아, 해당 지역의 선교 활동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FOR EVERYONE BY 2033 (Eph 2:13-18)
World Evangelical Alliance General Assembly
SEOUL 27-31 OCT. 2025

Survey Item

설문문항

How would you rate the overall level of religious freedom in your ministry context?
[Single Response]

귀하가 사역하는 지역에서는 기독교 전도·선교 활동이 법적으로 어떻게 허용됩니까?
[단수응답]

Continent

대륙별

By Continent (대륙별)	All evangelism/missionary activity is prohibited by law 전도·선교 활동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South Asia (남아시아)	23.7
East Asia (동아시아)	9.1
West Asia (서아시아)	14.6
Southeast Asia (동남아시아)	4.3
Africa (아프리카)	8.4
Europe (유럽)	5.4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	6.0
South America (남아메리카)	6.7
Oceania (오세아니아)	6.7

Indigenous religion barriers

토착 종교의 전도 방해

All evangelism/missionary activity is prohibited by law
(전도/선교 활동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Hinders (방해 있음)

Does not hinder (방해 없음)

Hinders (방해 있음)	13.9
Does not hinder (방해 없음)	9.6

조사결과

Evangelism Status & Barriers

전도 실태와 전도 저해 요소

1. Evangelism Status 전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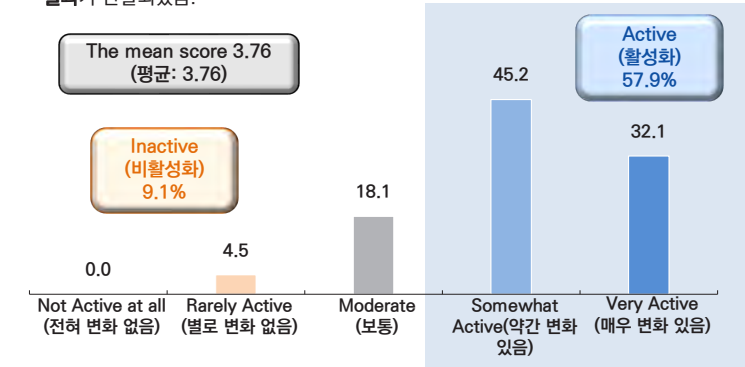
1) Level of Evangelism Activity in Ministry Contexts
사역지 전도 활성화 정도

Regarding evangelism activity in ministry fields, 57.9% reported that evangelism is **Active** (Very Active + Somewhat Active), indicating that evangelism is active in about half of respondents' ministry contexts. In contrast, **9.1%** indicated **Inactive** (Not Active at all + Rarely Active), meaning that about **1 in 10** respondents reported low evangelism activity. The overall average score for evangelism activity was **3.76**, reflecting a moderately high level.

Notably, **Cluster 3** showed the **lowest** level of evangelism activity, whereas **Cluster 4**, which contains several **Christian-persecuted nations**, reported the **highest** evangelism activity—an **ironic pattern** observed in the data.

사역지의 전도 활성화 수준은 57.9%가 '활성화됨' 이라고 응답해, 절반가량의 사역지에서 전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반면, '비활성화'는 9.1%로, 참여자 10명 중 1명 정도는 전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음. 전도 활성화의 전체 평균 점수는 3.76점으로 다소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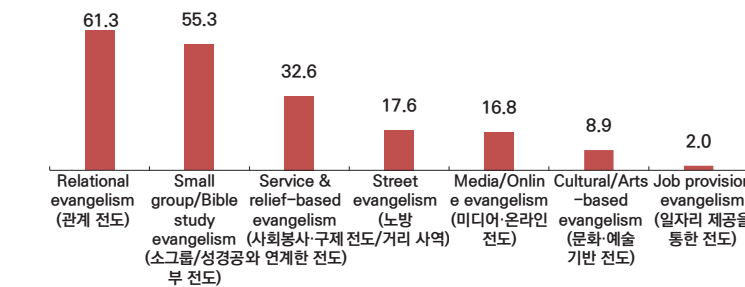
특히, 클러스터 3은 전도 활성화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기독교 박해국이 포함된 클러스터 4에서 전도 활성화 수준이 가장 높게 평가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관찰되었음.



2) Primary Methods of Evangelism
주요 전도 방법

The most commonly used evangelism methods were **Relational evangelism** (61.3%) and **Small group/Bible study evangelism** (55.3%), which emerged as the dominant approaches. These were followed by **Service & relief-based evangelism** (32.6%) and **Street evangelism** (17.6%).

주로 사용하는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 61.3%, '소그룹/성경 공부 전도(Small group/Bible study evangelism)' 55.3%로 두 방식이 가장 지배적으로 나타났음. 그다음으로 '사회봉사·구제 연계 전도(Service & relief-based evangelism)' 32.6%, '노방 전도·거리 사역(Street evangelism)' 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FOR EVERYONE BY 2033 (p. 23-46)
First Evangelical Mission Research Assembly
SEOUL 27-31 OCT. 2025

Survey Item

설문문항

How active is evangelism in your ministry context at present? [Single Response]

귀하의 사역 지역에서 현재 전도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단수응답]

What are the main methods of evangelism your church or ministry uses? Please select your 1st and 2nd most frequently used methods. [Select exactly two]

귀하의 사역이나 교회가 주로 사용하는 전도 방법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을 각각 선택해 주십시오. [1+2순위 필수응답]

Cluster

군집별

By Continent (대륙별)	Active rate (활성화비율)	Based on a 5-point scale (5점 평균 기준)
Cluster 1. The Stagnant Middle 군집 1. (안정된 정체)	54.5	3.72
Cluster 2. The open Mission Field 군집2. (열린 선교지)	57.5	3.75
Cluster 3. The Secular Swamp 군집3 (세속화의 늪)	50.7	3.49
Cluster 4. The Paradoxical Revival Zone 군집4. 역설적 부흥지	87.0	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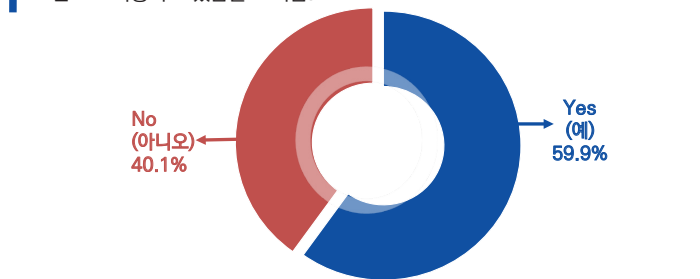
2. Impact of Existing Religious Systems on Evangelism

기존 종교 체계의 전도 방해

1) Whether Existing Religious Systems Hinder Evangelism
기존 종교 체계의 전도 방해 여부

The proportion of respondents who reported that **existing religious systems hinder evangelism** in their ministry context was **59.9%**, while **40.1%** indicated that such systems **do not hinder** evangelism. This suggests that in many regions, indigenous or traditional religions function as significant barriers to evangelistic efforts.

사역지에서 기존 종교 체계가 전도를 방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9.9%로 과반을 넘었으며, 방해가 없다는 응답은 40.1%로 나타났음. 즉, 상당수 지역에서 토착 종교·전통 종교 등이 전도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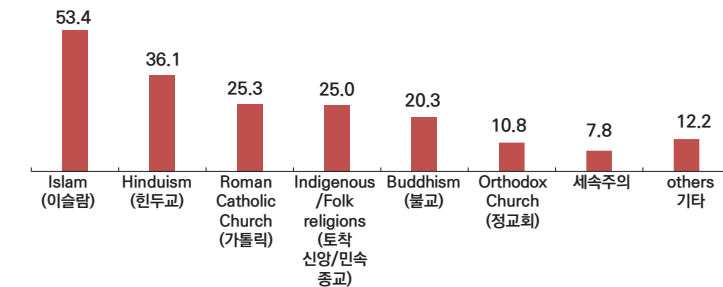


2) Religions That Hinder Evangelism
전도를 방해하는 종교

Among the religious systems that hinder evangelism, **Islam** (53.4%) emerged as the most significant barrier, followed by **Hinduism** (36.1%), **Roman Catholic Church** (25.3%), **indigenous/folk religions** (25.0%), and **Buddhism** (20.3%).

Notably, although "secularism" was not provided as an option in the questionnaire, **7.8% of WEA participants voluntarily listed secularism as a 'religion' that hinders evangelism**, indicating its growing influence as a barrier. This demonstrates that barriers to evangelism vary significantly across contexts, and the rise of **secularism** represents a new and increasingly influential obstacle beyond traditional religious systems.

전도를 방해하는 종교로는 이슬람(53.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힌두교(36.1%), 가톨릭(25.3%), 토착 신앙·민속 종교(25.0%), 불교(20.3%)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특기할 점은, 설문 문항에 선택지로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8%의 WEA 참가자들이 '세속주의(secularism)'를 직접 기타 의견으로 기입해 전도를 방해하는 '종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임. 즉, 각 지역의 종교·문화적 특성에 따라 전도 방해 요인은 크게 달라지며, 특히 세속주의의 부상은 전통적 종교 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장벽으로 확인됨.





FOR EVERYONE BY 2033 (p. 23-46)
First Evangelical Mission Research Assembly
SEOUL 27-31 OCT. 2025

Survey Item

설문문항

Do existing religious systems in your ministry context create barriers to evangelism? [Single Response]

귀하의 사역 지역에서 기존 종교 체계가 기독교 전도에 장벽이 되고 있습니까? [단수응답]

If yes, which religions or belief systems create the greatest barriers? Select all that apply. [Multiple Response]

어떤 종교 또는 종교 형태가 가장 큰 장벽이 됩니까? . [복수응답]

3. Barriers to evangelism 전도의 장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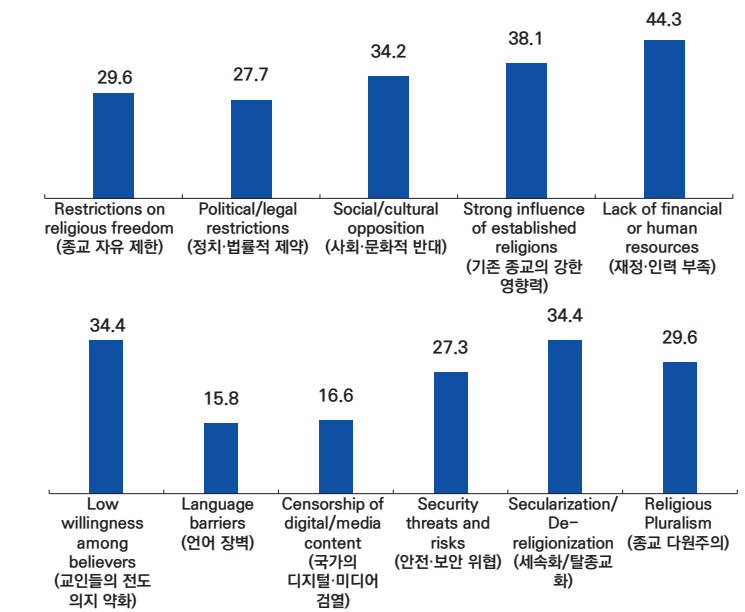
The most significant barrier identified was **the lack of financial or human resources** (44.3%), followed by **the strong influence of established religions** (38.1%), **secularization and de-religionization** (34.4%), and **low willingness among believers to engage in evangelism**.

By cluster:
Cluster 2 faces challenges such as state censorship and security threats, despite having legal religious freedom.
Cluster 3 identifies secularization as the primary barrier.
Cluster 1 shows relatively moderate levels across most hindrance factors without any extreme barriers.
By region:
Africa and Asia struggle mainly with resource shortages and social/cultural opposition.
Europe and Oceania, in contrast, report secularization as the most pressing obstacle to evangelistic activity.

전도의 장애물은 **재정·인력 부족** 44.3%, **기존 종교의 강한 영향력** 38.1%, **세속화·탈종교화** 34.4%, **교인들의 전도 의지 약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군집별로는 군집 2에서 종교 자유는 있으나 국가 검열과 안전·보안 위협이 가장 큰 장애 요소였음.
군집 3에서는 세속화가 절대적 장애 요인이었으며, **클러스터 1**은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평균적 수준의 장애물이 분포함.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아시아는 재정/인력 부족과 사회·문화적 반대, 유럽·오세아니아는 세속화가 가장 큰 전도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음.



Survey Item

설문문항

What is the biggest challenge you face in conducting Disciple-Making training?
[Single Response]

제자 훈련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Continent

대륙별

By Continent (대륙별)	First-ranked Response (1순위)	Second-ranked Response (2순위)
Asia (아시아)	Strong influence of established religions (기존 종교의 강한 영향력)	Lack of financial or human resources (재정·인력 부족)
Africa (아프리카)	Lack of financial or human resources (재정·인력 부족)	Low willingness among believers (교인들의 전도 의지 약화)
Europe (유럽)	Secularization/De-religionization (세속화/탈종교화)	Religious Pluralism (종교 다원주의)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	Secularization/De-religionization (세속화/탈종교화)	Low willingness among believers (교인들의 전도 의지 약화)
South America (남아메리카)	Strong influence of established religions (기존 종교의 강한 영향력)	Low willingness among believers (교인들의 전도 의지 약화)
Oceania (오세아니아)	Secularization/De-religionization (세속화/탈종교화)	Lack of financial or human resources (재정·인력 부족)

4. Factors Contributing to Church Growth

성장하는 교회의 부흥 원인

When participants were asked about the key factors contributing to church growth in their ministry regions, 'Impactful worship and preaching' ranked the highest at 35.4%. This was followed by 'Next-generation education and youth ministry' (25.9%), 'Community service and social engagement' (25.5%), 'Active evangelism' (24.9%), 'Disciple-Making' (24.7%), 'Pastoral leadership and vision casting' (24.1%), and 'Spiritual/charismatic ministry' (21.3%). In contrast, only 8.9% identified 'Strong and exclusive conviction of faith' as a primary factor for church 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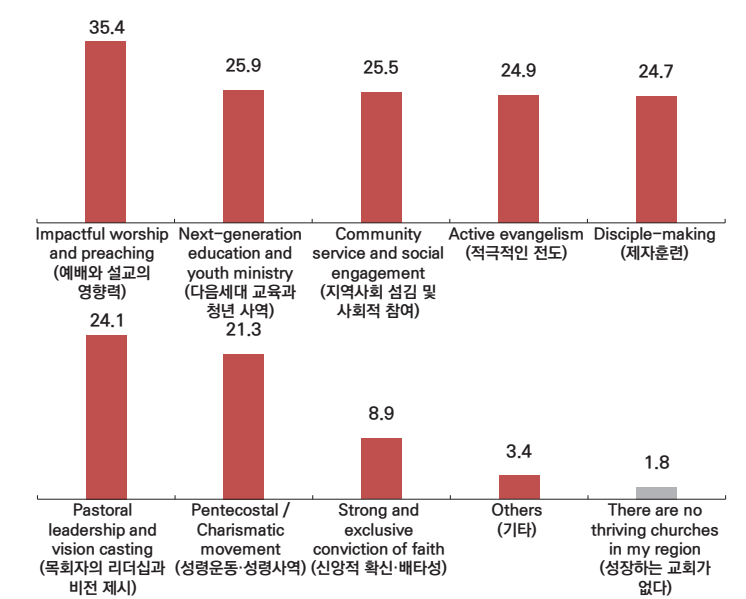
By clusters, **apart from the universal importance of impactful worship and preaching**, each cluster highlighted a different primary growth driver: **Cluster 1: Community service and social engagement**

Cluster 2: Active evangelism
Cluster 3: Next-generation education and youth ministry
Cluster 4: Disciple-Making

사역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부흥 요인을 묻는 결과, '예배와 설교의 영향력'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어서 '다음세대 교육과 청년 사역'(25.9%), '지역사회 섬김 및 사회적 참여'(25.5%), '적극적인 전도'(24.9%), '제자훈련'(24.7%), '목회자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24.1%), '성령운동·성령사역'(21.3%) 등의 순으로 다양하게 부흥 요인이 분포함. 반면, '신앙적 확신·배타성'(Strong and exclusive conviction of faith)을 부흥의 주요 요인으로 보는 응답은 8.9%에 그쳤음.

군집별로 살펴보면, '예배와 설교의 영향력'을 제외하고 각 군집은 서로 다른 부흥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었음.

군집 1(안정된 정체): 지역사회 섬김 및 사회적 참여
군집 2(열린 선교지): 적극적인 전도
군집 3(세속화의 늪): 다음세대 교육과 청년 사역
군집 4(역설적 부흥지): 제자훈련



Survey Item

설문문항

How is your ministry or organization using IT, AI, and digital content in ministry? Please select all that apply [Multiple Response]

귀하의 지역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의 성장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순위 필수응답]

Cluster

군집별

Cluster (군집별)	First-ranked Response (1순위)	Second-ranked Response (2순위)
Cluster 1. The Stagnant Middle 군집 1. (안정된 정체)	Impactful worship and preaching (예배와 설교의 영향력)	Community service and social engagement (지역사회 섬김 및 사회적 참여)
Cluster 2. The open Mission Field 군집2. (열린 선교지)	Impactful worship and preaching (예배와 설교의 영향력)	Active evangelism (적극적인 전도)
Cluster 3. The Secular Swamp 군집3 (세속화의 늪)	Impactful worship and preaching (예배와 설교의 영향력)	Next-generation education and youth ministry (다음세대 교육과 청년 사역)
Cluster 4. The Paradoxical Revival Zone 군집4. 역설적 부흥지	Disciple-making (제자훈련)	Next-generation education and youth ministry (다음세대 교육과 청년 사역)

조사결과

Discipleship Trai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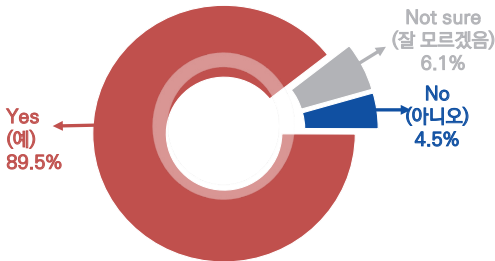
제자훈련

1. 제자훈련 운영 현황

1) Status of Disciple-Making Implementation 제자훈련 실시 여부

When asked whether their church conducts **Disciple-Making**, **89.5% of WEA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y do**. This indicates that **Disciple-Making is widely practiced across evangelical churches**.

본인이 소속한 교회의 제자훈련 실시 여부를 묻은 결과, 전체 WEA 참여자의 **89.5%가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즉, 대부분의 복음주의권 교회에서 제자훈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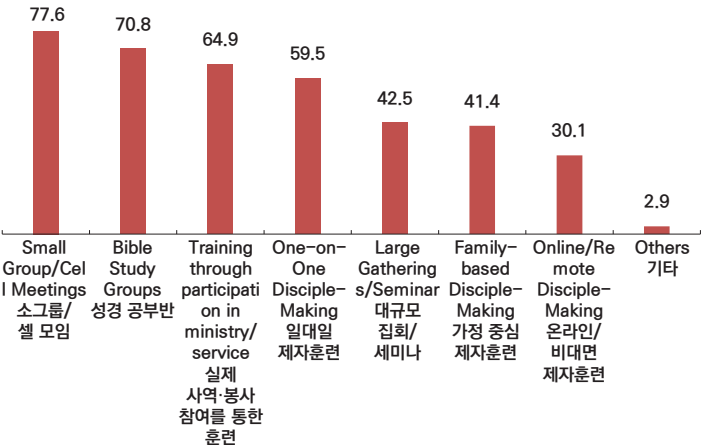
2) Methods of Conducting Disciple-Making 제자훈련 방식

Among WEA participants who conduct **Disciple-Making**, the most common methods were **Small Group/Cell Meetings (77.6%)**, followed by **Bible Study Groups (70.8%)**, **Training through participation in ministry/service (64.9%)**, and **One-on-one Disciple-Making (42.0%)**.

In comparison, **Online/Remote Disciple-Making accounted for 30.1%**, indicating that **Disciple-Making remains predominantly conducted through in-person formats**.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WEA 참가자들에게 현재 활용 중인 훈련 방식을 묻은 결과, **소그룹/셀 모임이 7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음**. 이어서 **성경 공부반 70.8%, 사역·봉사 참여를 통한 훈련 64.9%, 일대일 제자훈련 42.0%** 순으로 나타났음.

특히 온라인/비대면 제자훈련(Online/Remote Disciple-Making)은 30.1%로, 대부분의 Disciple-Making이 여전히 **대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Survey Item

설문문항

Is your church engaged in disciple-making?
[Single Response]

귀하의 소속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단수응답]

How is Disciple-Making currently practiced in your ministry or organization? Please select all that apply.
[Multiple Response]

귀하의 교회 혹은 조직에서 현재 어떤 방식으로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모두 응답해주세요.
[복수응답]

2. Level of Interest in Disciple-Making Among Church Memb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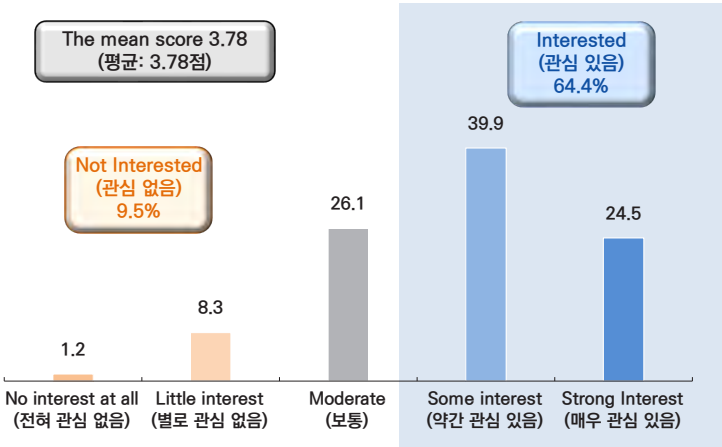
성도들의 제자훈련 관심 정도

Interest in Disciple-Making among church members shows that **9.5%** reported *no interest at all or little interest*. On the other hand, **64.4%** indicated *strong or some interest*, meaning that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are positively inclined. The **average score was 3.78**, reflecting a relatively high overall level of interest.

By cluster, Cluster 3 — characterized by high religious freedom but advanced secularization — recorded the lowest interest level (average 3.46).
By continent, Europe showed the lowest interest with an average score of **3.24**, suggesting that secularization may be reducing engagement with Disciple-Making activities.
By denomination, Methodist/Wesleyan traditions reported a relatively lower interest level (average **3.47**) compared to other denominations.

성도들의 제자훈련 관심 정도를 보면, ‘관심 없음’(전혀+별로 없음)은 9.5%로 10명 중 약 1명 수준이었음. 반면, ‘관심 있음’(매우+약간 있음)은 64.4%로 절반 이상이 제자훈련에 관심을 보였으며, **평균 3.78점**으로 비교적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음.

군집별로는 종교의 자유는 높지만 세속화가 가장 심화된 군집 3에서 관심도가 가장 낮았으며(평균 3.46점),
대륙별로는 유럽 지역이 평균 3.24점으로 다른 지역 대비 관심 수준이 가장 낮았음. 이는 세속화 영향으로 교회 내 Disciple-Making에 대한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해석됨.
교단별로는 감리교/성결교(Methodist/Wesleyan) 전통에서 평균 3.47점으로 다른 교단보다 관심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음.



According to the data, the greatest barrier to Disciple-Making is **not legal restrictions** nor the **level of religious freedom**, but rather **secularization**. This finding indicates that evangelical churches worldwide need to develop more strategic and coordinated responses to address the challenges posed by increasing secularization.

데이터 분석 결과, 제자훈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종교의 법적 제재도 아니고, 종교의 자유 여부도 아니며**, ‘세속화’였음. 이는 곧 전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이 세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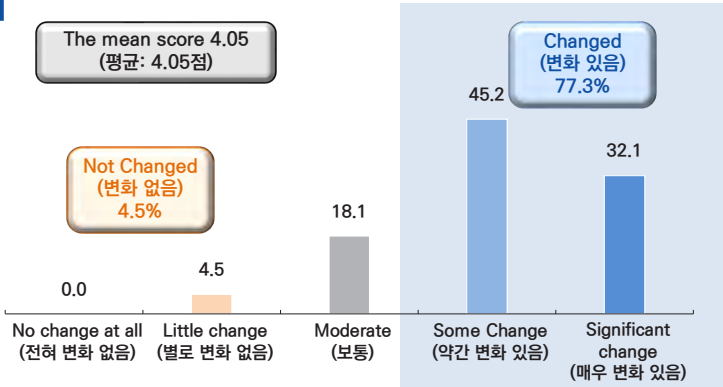
The Gospel FOR EVERYONE BY 2033 (p. 23-46) World Evangelical Alliance Research SEOUL 27-31 OCT. 2025		
Survey Item		
설문문항		
How interested are the congregation members in Disciple-Making training?[Single Response]		
귀하 교회 성도들이 제자 훈련에 관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단수응답]		
Continent		
대륙별		
By Continent (대륙별)	Interested rate (관심 있음 비율)	Based on a 5-point scale (5점 평균 기준)
Asia (아시아)	68.2	3.90
Africa (아프리카)	68.3	3.99
Europe (유럽)	44.8	3.24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	58.2	3.51
South America (남아메리카)	68.8	3.69
Oceania (오세아니아)	85.7	4.21
Cluster		
군집별		
By Continent (대륙별)	Interested rate (관심 있음 비율)	Based on a 5-point scale (5점 평균 기준)
Cluster 1. The Stagnant Middle 군집 1. (안정된 정체)	66.2	3.83
Cluster 2. The open Mission Field 군집2. (열린 선교지)	64.4	3.80
Cluster 3. The Secular Swamp 군집3 (세속화의 늪)	53.5	3.46
Cluster 4. The Paradoxical Revival Zone 군집4. 역설적 부흥지	71.7	3.96

3. Impact of Disciple-Making 제자훈련 효과

1) Life Changes Among Believers Who Received Disciple-Making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변화

Among believers who participated in Disciple-Making, **77.4% reported some or significant life change**, with an average score of **4.05**, indicating a high level of perceived transformation. Only **4.5%** indicated little or no change, and notably, **no respondents selected ‘no change at all’ (0.0%)**. These results suggest that **Disciple-Making consistently produces meaningful impact when implemen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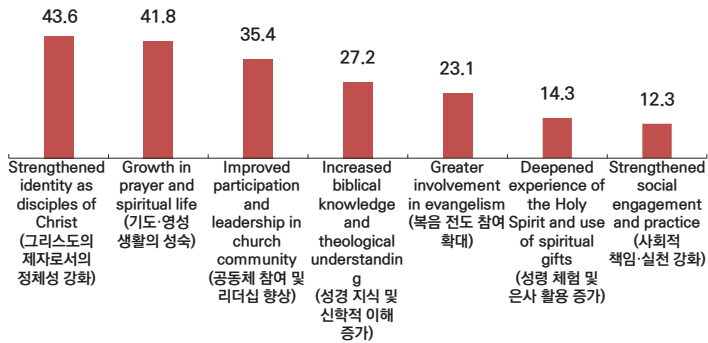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변화 경험 비율은 **77.4%**로 나타났음. 평균 점수는 **4.05점**으로 변화 수준이 높게 평가되었음.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5%에 불과했으며, ‘전혀 변화 없음’은 0.0%로 응답이 전혀 없었음. 즉, **제자훈련은 실시하기만 하면 성도들에게 뚜렷한 효과성이 나타나는 사역임을 확인할 수 있음**.



2) 구체적인 삶의 변화

Among believers who participated in Disciple-Making,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were observed in **Identity Strengthening (43.6%)**, followed by **Spiritual Life (41.8%)**, **Increased Leadership (35.4%)**, and **Increased Biblical Knowledge (27.2%)**. **Developmen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disciple-making produces holistic transformation—shaping identity, deepening spiritual life, enhancing leadership, and expanding biblical understanding.

성도들의 제자훈련 이후 변화는 ‘정체성 강화(Identity)’가 43.6%로 가장 높았으며, ‘영성 생활(Spiritual Life)’ 41.8%, ‘리더십 향상(Leadership)’ 35.4%, ‘성경 지식 향상(Increased Biblical Knowledge)’ 27.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이는 단순한 신앙 정체성 강화에 그치지 않고, 영성·지식·리더십·실천 전반에 걸쳐 전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줌.



The Gospel FOR EVERYONE BY 2033 (p. 23-46) World Evangelical Alliance Research SEOUL 27-31 OCT. 2025	
Survey Item	
설문문항	
Do the congregation members who have received Disciple-Making training show noticeable changes in their lives? [Single Response]	
제자 훈련을 받은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까? [단수응답]	
What outcomes have you observed among congregation members who received disciple-making? Please select exactly two in order of importance. [Select exactly two]	
제자훈련(Disciple-making)을 받은 성도들에게서 나타난 성과는 무엇입니까? [1+2순위 필수응답]	
Mini Survey	
질문 속에 질문	
Have WEA Participants Received Disciple-Making Training? Among all participants, 82.6% reported having received disciple-making training, while 17.4% reported they had not. Notably, among those without ordination , 28.7% —more than one in five—had not received disciple-making training. As a related observation, establishing a structured disciple-making program within the WEA for those without prior training could further strengthen the cohesion and capacity of the alliance.	
그렇다면, WEA 참가자들은 제자훈련을 받았을까? 제자훈련을 받은 참가자는 82.6% , 받지 않은 참가자는 17.4%였음. 특히, 안수를 받지 않은 그룹에서는 28.7% , 즉 5명 중 1명 이상이 제자훈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참고적으로, WEA 내부에서도 제자훈련 경험에 없는 참여자를 위한 체계적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보다 견고한 연합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Received disciple-making (제자훈련 받음) 82.6% Did not receive Disciple-Making (제자훈련 받지 않음) 17.4%	

4. Barriers to Disciple-Making 제자훈련의 장애물

Among WEA participants engaged in Disciple-Making, the most frequently identified obstacle was **"Lack of interest from members,"** followed by **"Lack of training materials/resources"** (26.9%), **"Lack of knowledge of Disciple-Making methods"** (15.4%), and **"Lack of leader competency"** (14.5%).

These findings indicate not only low interest among church members but also an **insufficient educational foundation for disciple-making leaders**. The lack of materials, methodologies, and leadership capacity reflects structural challenges within disciple-making systems.

In Africa and South Asia, the **lack of training materials/resources** was particularly prominent, highlighting the need to strengthen educational support in emerging Protestant regions and areas with low evangelism acti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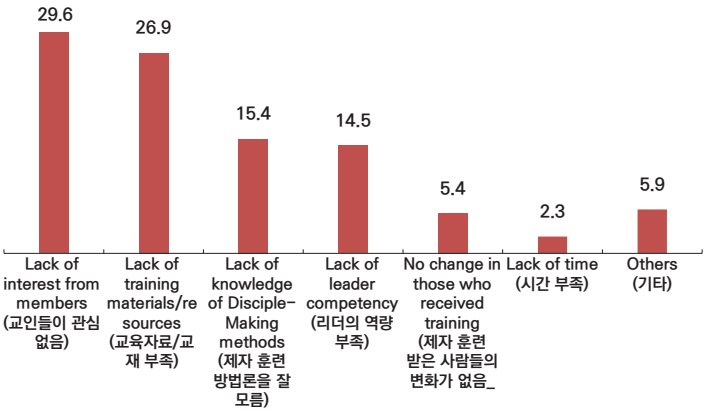
In contrast, Cluster 3—characterized by a higher level of secularization—and the regions of Oceania and Europe most frequently identified **lack of member interest** as the primary barrier.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WEA 참가자들이 제시한 주요 장애 요인은 '교인들의 관심 없음(Lack of interest from members)'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교육자료·교재 부족(Lack of training materials/resources)' 26.9%, '제자훈련 방법론에 대한 이해 부족(Lack of knowledge of Disciple-Making methods)' 15.4%, '리더 역량 부족(Lack of leader competency)' 14.5% 순으로 나타남.

이는 교인 관심 부족뿐 아니라 제자훈련 진행자를 위한 **교육 기반이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교육자료, 방법론, 리더 역량의 부족이 모두 구조적 문제로 확인된 것임.

특히,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교육자료·교재 부족'이 두드러져, 개신교 신흥지역 및 전도 비활성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함**.

반면, 세속화 수준이 높은 **클러스터 3**, 그리고 **오세아니아·유럽 지역**에서는 '교인들의 관심 부족'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나타남.



Survey Item

설문문항

What is the biggest challenge you face in conducting Disciple-Making training?
[Single Response]

제자 훈련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Continent

대륙별

By Continent (대륙별)	Lack of interest from members (교인들이 관심 없음)	Lack of training materials/resources (교육자료/교재 부족)
South Asia (남아시아)	23.3	40.8
East Asia (동아시아)	30.0	10.0
West Asia (서아시아)	40.4	12.8
Southeast Asia (동남아시아)	25.0	12.5
Africa (아프리카)	16.2	46.5
Europe (유럽)	38.6	11.4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	38.5	9.0
South America (남아메리카)	38.5	15.4
Oceania (오세아니아)	60.0	6.7

조사결과

Social Engagement & Sensitive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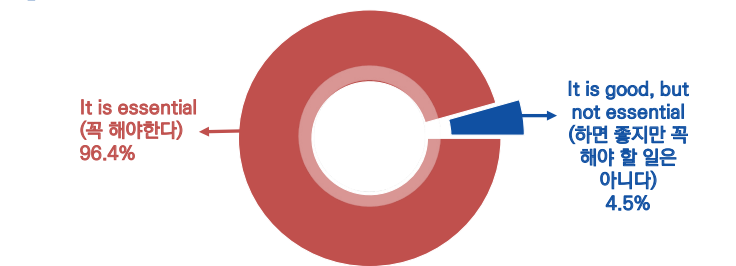
사회 참여 및 사회 이슈

1. Social Engagement 교회의 사회 참여

1) Perceived Necessity of Church Social Engagement
교회의 사회 참여 필요성

Regarding the necessity of church engagement in society, 96.4% of WEA General Assembly participants responded that it is *essential*, indicating an **overwhelming consensus on the importance of social involvement**. In contrast, only **4.5%** stated that it is *good but not essential*, showing minimal disagreement.

교회의 사회 참여 필요성에 대해 ‘꼭 해야 한다(It is essential)’고 응답한 비율은 96.4%로, WEA 총회 참여자 거의 전원이 사회 참여를 필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 반면, ‘하면 좋지만 꼭 해야 할 일은 아니다(It is good, but not essential)’라고 응답한 비율은 4.5%로 매우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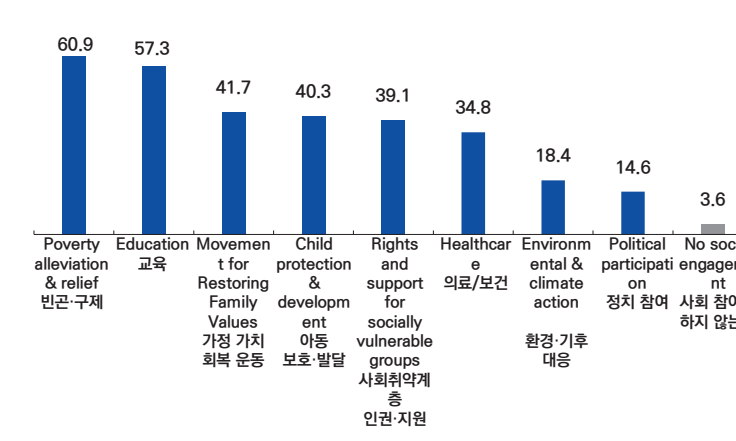


2) Current Areas of Church Social Engagement
현재 교회에서 참여하는 사회 참여 활동

Areas of Social Engagement Among Churches
The primary areas of social engagement currently pursued by churches include: **Poverty alleviation & relief (60.9%), Education (57.3%), Movement for Restoring Family Values (41.7%), Child protection & development (40.3%), Rights and support for socially-vulnerable groups (39.1%), and Healthcare (34.8%).** Only **3.6%** indicated ‘No social engagement,’ showing that evangelical churches worldwide are highly active in social involvement.

By continent: Asia and Africa primarily focus on Education and Poverty alleviation, while Europe and North America place more emphasis on Poverty alleviation and Family values restoration efforts.

현재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 사업 분야는 ‘빈곤·구제’ 60.9%, ‘교육’ 57.3%, ‘가정 가치 회복 운동’ 41.7%, ‘아동 보호·발달’ 40.3%, ‘사회취약계층 인권·지원’ 39.1%, ‘의료·보건’ 3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 교회’는 3.6%에 불과해,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 대부분이 사회 참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대륙별로는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은 ‘교육’과 ‘빈곤·구제’ 중심, 유럽·북아메리카 지역은 ‘빈곤·구제’와 ‘가정 가치 회복 운동’을 중시하는 특징을 보였음.



조사결과

2025 WEA General Assembly

2025 WEA 총회



PART VI

1. Motivations for Attendance 참석 동기

The primary motivation for attending the WEA General Assembly in Seoul was **‘To network and build relationships with evangelical leaders from other countries’** at 56.9%, the highest among all options. This was followed by **‘To understand current trends in the global evangelical movement’** (38.1%), **‘To gain new ideas for mission and ministry’** (25.1%), **‘To deepen understanding of WEA’s ministry and vision’** (24.5%), and **‘To explore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23.9%). (Based on 1st and 2nd choices combined)

By cluster, Cluster 3 — Responses for **‘To explore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were relatively high, while **‘To gain new ideas for mission and ministry’** and **‘For personal spiritual growth and renewal’** showed the lowest response levels.

By continent, Europe and North America, the proportion of respondents who selected **‘To network and build relationships with evangelical leaders from other countries’** as their motivation was relatively hig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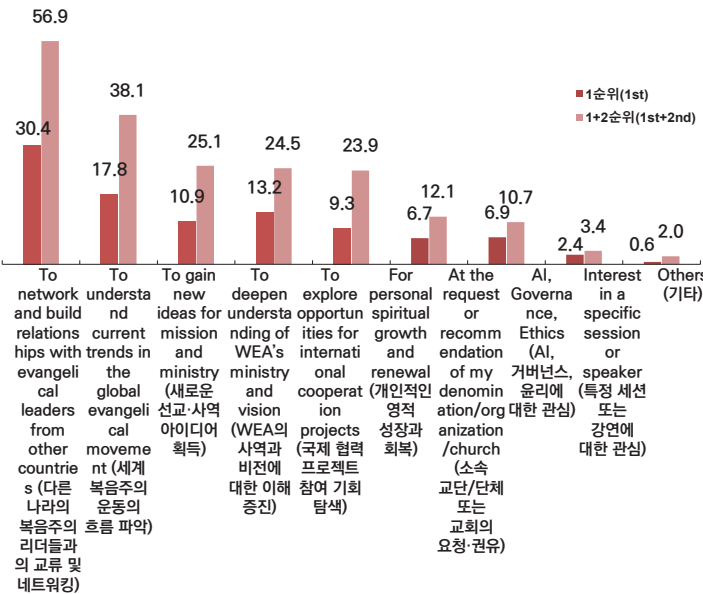
By denomination, Baptist/Congregational, Independent denomination, the proportions of respondents who participated **‘To network and build relationships with evangelical leaders from other countries’** and **‘To understand current trends in the global evangelical movement’** were relatively high.

WEA 서울 총회에 참석하게 된 동기는 ‘다른 나라의 복음주의 리더들과의 교류 및 네트워킹’이 56.9%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흐름 파악’(38.1%), ‘새로운 선교·사역 아이디어 획득’(25.1%), ‘WEA 사역과 비전에 대한 이해 증진’(24.5%), ‘국제 협력 프로젝트 참여 기회 탐색’(23.9%) 등을 주요한 이유로 꼽았음.(1+2순위 기준)

군집별로는 종교의 자유는 높지만 세속화가 가장 심화된 군집 3에서 ‘국제 협력 프로젝트 참여 기회 탐색’에 대한 응답이 비교적 높고, ‘새로운 선교·사역 아이디어 획득’, ‘개인적인 영적 성장과 회복’에 대한 응답이 가장 낮았음.

대륙별로는 유럽, 북아메리카는 ‘다른 나라의 복음주의 리더들과의 교류 및 네트워킹’을 동기로 꼽은 비율이 비교적 높았음.

교단별로는 침례교/회중교회, 독립교단은 ‘다른 나라의 복음주의 리더들과의 교류 및 네트워킹’과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흐름 파악’하기 위해 참여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Survey Item

설문문항

What is your primary motivation for attending the WEA General Assembly in Seoul? Please select two in order of importance. **[Select exactly two]**

귀하께서 이번 WEA 서울 총회에 참석하게 된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주세요 **[2순위 필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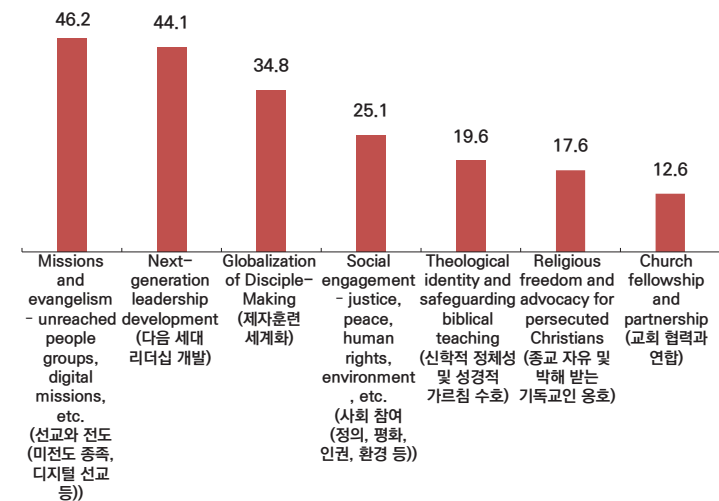
중요 의제 인식

By cluster, Cluster 4 — Responses for 'Missions and evangelism – unreached people groups, digital missions, etc.' were noticeably high, whereas 'Globalization of Disciple-Making' was relatively low.

By continent, Europe showed relatively low responses regarding the importance of 'Missions and evangelism – unreached people groups, digital missions, etc'

By denomination, Methodist/Wesleyan, Pentecostal / Charismatic regarded 'Missions and evangelism – unreached people groups, digital missions, etc.' and 'Next-generation leadership development' as important

군집별로는 역설적 부흥지 **군집 4**에서 '선교와 전도(미전도 종족, 디지털 선교 등)' 의제에 대한 응답이 확연히 높고, '제자훈련 세계화'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대륙별로는 유럽이 '선교와 전도(미전도 종족, 디지털 선교 등)' 의제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했음.
교단별로는 감리교/성결교, 오순절/순복음에서 '선교와 전도', '다음 세대 리더십 개발'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설문문항

다음의 2025 WEA 서울 총회 의제 중에서 귀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2순위
필수응답]**

WEA 총회 준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By cluster, Cluster 3 — characterized by high religious freedom but advanced secularization — Responses for 'Sufficient time for fellowship and networking' were relatively hig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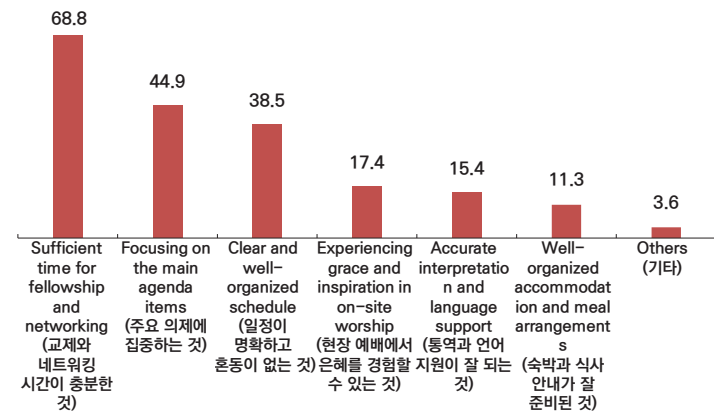
By continent, North America, responses for 'Sufficient time for fellowship and networking' were relatively high, Asia, responses for 'Focusing on the main agenda items' were comparatively higher.

By denomination, Pentecostal / Charismatic Responses for 'Focusing on the main agenda items' were higher compared to other denominations.

군집별로 종교의 자유는 높지만 세속화가 가장 심화된 군집 3에서 '교제와 네트워킹 시간이 충분한 것'이라는 응답이 비교적 낮았음.

다국적으로 북아메리카지역은 '교제와 네트워킹 시간이 충분한 것', 아시아는 '주요 의제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비교적 높았음.

교단별로 오순절/순복음은 '주요 의제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다른 교단 보다 높았음.



설문문항

WEA 총회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2순위 필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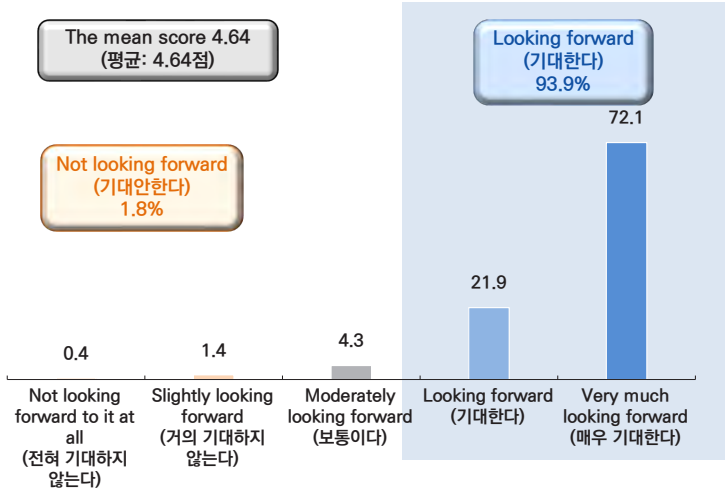
4. Expectations for the WEA General Assembly WEA 총회 기대 수준

The vast majority of respondents (93.9%) indicated that they are either **'Looking forward'** or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the upcoming WEA General Assembly, with **'Very much looking forward'** reaching a notably high 72.1%.

By cluster, Cluster 3 — characterized by high religious freedom but advanced secularization — recorded the lowest interest level (average 3.46).
By denomination, Baptist/Congregational, Independent denomination Expectations were relatively high.

이번 WEA 총회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93.9%)이 기대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매우 기대한다'는 응답도 72.1%로 매우 높았음.

군집별로는 군집 4에서 기대한다는 응답이 97.8%(평균 4.80점)로 가장 높았음.
교단별로는 침례교/회중교회의 기대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Survey Item

설문문항

How much are you looking forward to the upcoming WEA General Assembly?
[Single Response]

귀하는 이번 WEA 총회에 대해 얼마나 기대하고 계십니까?
[단수응답]

Cluster

군집별

By Continent (대륙별)	Looking forward rate (높음 비율)	Based on a 5-point scale (5점 평균 기준)
Cluster 1. The Stagnant Middle 군집 1. (안정된 정체)	93.9	4.66
Cluster 2. The open Mission Field 군집2. (열린 선교지)	92.5	4.61
Cluster 3. The Secular Swamp 군집3 (세속화의 늪)	94.4	4.51
Cluster 4. The Paradoxical Revival Zone 군집4. 역설적 부흥지	97.8	4.80



The Gospel

FOR EVERYONE

세계복음주의연맹 서울총회 백서 & 화보

발행인 이영훈, 오정현
책임편집 주연중
편집위원 오우진, 김주혁, 장은진(번역), 이민건, 김예성(번역)
발행처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발행 주후 2026년 6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68길 98, 503호
전화 02.3487.4274
팩스 02.3487.4275
사진 정화영, 김희석, 박정현
디자인 하트비 | www.heartbee.com 02.548.7003



World Evangelical Alliance Seoul General Assembly White Paper & Photos

Publisher Young Hoon Lee, Jung-Hyun Oh
Editor-in-Chief Yeonjong Ju
Editors Woo-jin Oh, Ju-hyuk Kim, Tim Chang (Translation), Min-gun Lee, Ye-sung Kim (Translation)
Publisher WEA Seoul General Assembly Organizing Committee
Published A.D. June 2026
Address Seoul Si Seocho-gu Hyoryeong-ro 68-gil 98, 503 Ho
Telephone 02-3487-4274
Facsimile 02-3487-4275
Photo by Hwayoung Jung, Heesuk Kim, Jung Hyun Park
Design by Heartbee www.heartbee.com 02-548-7003



worlddea.org



weaseoulga.org

